



2006년도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 모형 구축
사업 최종 보고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차례

제1장 사업 개요 및 추진 과정	1
I. 사업의 목적	3
II. 사업의 필요성	3
III. 단계별 사업의 내용	5
IV. 2006년도 사업 내용	6
V. 결과물 활용 방안	6
VI. 자문 회의	7
VII.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	9
VIII. 사업 추진 상 제한점	10
IX. 사업 진행 방법	10
X. 성과 분석	11
제2장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의 쟁점 항목 및 모형 구축	13
I. 연구의 방향	15
II. 일반 교육과정 속의 한국어 교육과정	21
III. 일반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과정	31
IV.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과정	67
V.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변인과 모형 구축	77
VI. 제안	96
<별첨 자료 1>	103
개별 국가의 한국어교육과정 현황	
제1장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교육 과정	107
제2장 몽골의 한국어교육과정	125
제3장 태국의 한국어교육과정	145
제4장 필리핀 한국어교육과정	163
제5장 말레이시아의 한국어교육과정	177
제6장 싱가포르의 한국어교육과정	185
제7장 중국의 한국어교육과정	189
제8장 대만의 한국어교육과정	199
제9장 스리랑카의 한국어교육과정	203
제10장 베트남의 한국어교육과정	205
<별첨 자료 2>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관련 목록	209

제 1 장

제1장 사업 개요 및 추진 과정

I. 사업의 목적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 사업의 목적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의 모형(시안)을 구축함으로써, 현지 한국어교육 기관의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각국의 한국어교육과정 간의 균형적인 편성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후속 작업 - 교재 구성, 보충 자료 구성, 교수 요목 구성, 평가 -을 효율적이고 일관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데 있다.

II.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확보와 설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참조할 수 있는 규범화된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데에는 현지 해당 기관의 교육 환경, 해당 기관의 상위 기관의 요구 조건, 교과목, 교육 시수, 그리고 교과 목표 등 다양한 사고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개별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첫째, 인적·경제적 및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둘째,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학에만 사용되어 다른 기관으로의 전환이 어렵다. 따라서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이 정립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교육 기관의 필요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것이 효율성과 신속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한국어교육과정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어교육과정의 규범화는 시급한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첫째, 외국인 학습자의 목적에 따라 한국어교육과정 설계는 다양하게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수요자 측면의 한국어 교육은 ①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 ② 학문 연구를 위한 것, ③ 전문적인 번역이나 통역을 위한 것이 있다. 여기에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실용 목적의 한국어 교육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과정은 이러한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도 개별적으로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의 목표는 이러한 개별적 학습자의 도달 목표를 고려하는 데 소홀히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소통이 기초적인 생활 능력인지 아니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전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인지에 대한 정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이 현재까지 없다.

셋째, 국외 및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여러 기관들을 충족시킬 범 규범적인 한국어교육과정이 없다. 특히 국외에서 한국어과가 설치된 대학은 교육과정을 정밀하게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과목, 수업 시수, 학년별 구성과 같은 사항만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과목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가 학교의 한국어 교육 설치 목표와 부합되는 지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개별 교육 과목에 대한 방향은 그 교육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자들에 의하여 임시 방편적으로 만들어져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교육 목표가 포함된 교육과정이 있는 대학이라도 각기 상호 다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국가 안에서도 상호 다른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 교육 기관에 요구하는 일차적인 요청 사

향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원하고 있다.

넷째 더욱이 재외동포 자녀가 아닌 중고등학교 시기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국가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제27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있는 경우나, 한국 학교 또는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선택된 국가(미국의 SATⅡ가 대표적이다)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적 차원의 한국어교육과정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른 성취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각 기관마다 등급별 성취 목표의 기술이 모호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성취 목표 수준이 불확실하다.

여섯째 이 작업을 통하여 교사 및 학생들 간의 교육 정보 교류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곧 이들이 다른 국가 또는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 교육을 목적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교육 과정이 상호 다르다면, 이전에 배운 교과를 또다시 학습하거나, 필요 없는 교과를 학습하는 문제점을 필연적으로 안게 된다. 따라서 범용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교육 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일곱째, 현재 국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국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교육과정은 그 국가의 교육 환경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다. 지금 현재 국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 현황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 못하다. ① 학과가 새로 신설되어 모든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부 자료로 이용되거나 ②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으나, 다른 학교와의 비교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거나, ③ 교육 목표가 없이 교과목과 교과 시수만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미완성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인하기도 하며, ④ 학교 자체의 정책에 따라 비공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가 상호 교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과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교육과정 작업을 강요하게 되며, 또 만들어진 교육과정도 불완전한 체계를 가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표준교육과정은 국내외 기관들의 상호 발전적인 협동 및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필요하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교육과정 자체가 여러 고려 항목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어 교육의 각 영역별 학문적 성장 발전의 공동체적인 촉진체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곧 교육과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들을 획득하고, 현지 국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어 국외 보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해당 국가에서 상호 연결될 수 있는 공통적인 교과목과 교육 목표가 정립되어 있다면—물론 해당 국가의 개별적인 목표는 예외로 하며—국내 여러 기관들이 교재 및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 데 매우 효율적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곧 규범적인 교육과정의 수립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공통 교과 및 교육 목적이 구축되면, 그 교과 및 목적에 맞추어 교보재를 만들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국외에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국내 지원 기관이든 국외 지원 기관이든 상관 없이—상호 발전적인 후속 연구 사업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홉째, 민현식(2003)에서 보듯이 표준교육과정은 표준 평가 척도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곧 1997년 이래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과, 남명호 외(2002)의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 개정 연구나, 연세대 이희경 외(2002)의 성취도 평가 연구, 조항록 외(2002)의 배치고사 평가 개선 연구 등의 일련의 평가 척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표준교육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된다. 곧 표준 교육과정이 정립되고 그 정립된 기준을 통하여 평가 목표와 세부 사항이 구축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물론 교육과정 구축이 계기적인 과정이 아니고 상호 순환적이고 상호간섭적인 기준제이기 때문에 평가 척도 이후

의 표준 교육과정이 성립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척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는 개별적으로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기 바란다—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Ⅲ. 단계별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은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시행되는 연속 사업이다. 우선 각 연도별 사업 계획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단계별 사업 내용

- 가. 1단계 : 국내 기관의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쟁점 항목 추출 및 다음 단계를 위한 교육과정 항목을 추출.
- 나. 2단계 : 국외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모형(시안) 구축.
- 다. 3단계 : 국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모형(시안) 구축.
- 라. 4단계 : 국외 한국 근로 희망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
- ※ 단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교육과정은 구축하지 않음.

1차년도 사업 개요(2006년도)는 “국내 기관의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쟁점 항목 추출 및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방향”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2차년도 사업 개요는(2007)은 1차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국외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하는 것이다. 역시 국외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을 검토한 후 기존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한 국외 선행 연구 검토와, 각 국가의 학습자 목적, 도달 목표, 학습자 수준, 학습 요소, 교육 과목, 발달 시기별, 시간 별 등 기본적인 개별 항목을 구축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국외 대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시안을 마련하고 그 시안에 담겨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한 해설서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차년도 사업을 위하여 국외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의 기초 조사 항목 사항을 수집하고자 한다.

3차년도 사업 개요(2008년도)은 “국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중·고등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 검토 ㉡ 국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항목 추출 및 해설 ㉢ 국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4차년도 사업 개요(2009년도)는 특수 목적의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고자 한다. 즉 국외 한국 근로 희망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을 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한국 근로 희망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실태 조사 ㉤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항목 추출 및 해설 그리고 ㉥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이 있다.

IV. 2006년도 사업 내용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1차년도 사업 개요(2006년도)는 “국내 기관의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쟁점 항목 추출 및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방향”을 찾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자문 위원회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국내외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과 관련된 표준 모형 연구”, 그리고 “기타 한국어교육과정의 쟁점 사항에 파악”을 논의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파악될 쟁점 사항과 구축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㉞ 수업 시수 설정 (전체 교육과정 시수, 각 과목별 표준 시수) ㉟ 한국어교육과의 성격에 따른 도달 목표 및 교과목 파악이다. 이는 해당 기관의 성격(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인지, 학과 개설의 성격이 전공 필수인지 부전공인지, 아니면 교양 선택인지 교양 필수인지, 정규 교육과정인지 아닌 센터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인지)을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구체적인 교과목의 영역별 각 학년 별 도달 목표 및 각 학년별 필수 과목 설정 및 선택 과목 설정 그리고 각 학년 간 영역 별 도달 목표 설정을 의미한다. 다음에 교과목 해설집에 중점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㉞ 일반 목표, ㉟ 교과목 목표 ㊱ 평가 ㊲ 학년간 종적 연계성, ㊳ 영역 별 횡적 연계성이 고려한다. 이는 2차년도에 필요한 ㉞ 기존 국내 교재와 한국어교육과정 항목과의 연결 작업, ㉟ 기존 국외 교재와 한국어교육과정 항목과의 연결 작업 ㊱ 현지 사정을 고려한 교재 형태 방향 설정과 같은 교재 연구의 방향과 맞물려야 되기 때문이다.

둘째, 위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㉞ “국외 한국어교육과정의 조사 항목 및 분석 방향을 설정한다. ㉟ 국외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수집한다. 이후 수집된 항목의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의 쟁점 현안 추출하면서, 차기 단계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의 기초적 틀을 구축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1차년도의 목표는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시안)을 위한 “국외 한국어교육과정의 분석(목표, 교과목, 교육과정 해설, 교육 시수, 교육 형태 등)”과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세부 항목”이 어떠한 것인가를 추출하는 작업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V. 결과물 활용 방안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업을 통하여 나온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활용 방안을 가진다.

첫째,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결과물 국내 및 국외 배포함으로써, 국내외 교육 기관이 이를 참조하여, 현지 사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둘째, 한국어교육과정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어 교육 기관이 국내외에 설립될 경우, 이 표준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한국어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셋째, 기존 한국어 교육 기관도 쟁점이 되는 사항을 참조하여, 교육과정을 수정 개편 시, 한국어교육과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1) 이 시기에 “한국어 교육의 쟁점 사항 및 용어에 대한 표준안 마련” 작업을 병행한다.
 - a) 공교육으로서의 교육과정과 사회 교육으로서의 교육과정
 - b) 수요자 측면(수준별, 목적별, 발달 단계별 등)의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 c)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사회, 문화적 요구 분석.
 - d) 급수별, 목적별 교육 내용 요소 추출.
 - e) 국내 한국어교육과정 이론적 기반.

넷째,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어교육과정과 관련된 사업 수행 시,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 및 보급을 할 수 있음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해당 국가나 해당 기관에 효율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VI. 자문 회의

2006년 9월 27일(오후 3시)에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이해영(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정숙(고려대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 방성원(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어교육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장소는 고려대학교 국제교육원이며, 회의 안건은 ㉠ 표준한국어교육과정의 다양화 속에 포함될 쟁점 사항 ㉡ 표준한국어교육과정의 단계별 설정이다. 구체적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표준화의 범위

가. 목적에 따른 분류

- 공통목적(또는 범용 목적)의 교육과정
- 학문목적의 교육과정
 - 가) 한국어교육 나) 한국어학 등.
- 실용목적의 교육과정
 - 가) 통역 목적 나) 근무 목적 다) 생활 적응 목적 등.

나. 대상 지역에 따른 분류

- 국내 - 국외
 - 가) 권역별 광의 지역 나) 개별적 지역

다. 교육 기간에 따른 분류(또는 수업 시수에 따른 분류)

- 가) 장기 교육과정 나) 단기 교육과정

라. 학습자에 따른 분류

- 가) 재외 동포 나) 현지 국적 외국인 다) 귀국 자녀
- 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국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마. 도달 수준에 따른 분류

- 가) 등급별 도달 수준 나) 영역별 도달 수준

바. 교육 기관에 따른 분류

- 가) 대학 및 학술 기관 나) 기타 사설 기관 다) 현지 정부 기관

사. 학제에 따른 분류

- 가) 학제 교육과정(정규 교육과정) 나) 비학제 교육과정(비정규 교육과정)

아. 한국어 교육의 학제 위치

- 가) 교양 나) 전공 다) 부전공 라) 복수 전공

(2) 표준화 체계 분류

가. 1안

- 가) 최상위 절점 항목

국어 교육과정 적용 집단	-----	1. 해외 교포, 귀국 자녀, 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국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	-------	--

한국어교육과정 적용 집단	---	특수 목적	1. 취업 목적의 연수생(산업 연수생, 국내 외국인 근로자, 기타 직업 연수생) 2. 외국 내 대학, 대학원에서 실용 한국어를 전공(및 수강)하는 학생 3. 국내 대학, 대학원에서 실용 한국어를 전공(및 수강)하는 학생 4. 해외 입양아 학생 집단 5. 한국어 교사 6.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강 초·중·고등학생 등.
	---	학문목적	1. 국외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 2. 국내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 등.

나. 2안

장기	정규	대학	국내 대학 국외 대학
		대학원	국내 대학원 국외 대학원
		초·중·고등학교	주한 외국인 학교 한국 학교 한글 학교
	비정규	한국어 교육센터	국내 국외
		사설기관	국내 국외
임시	정규	국내 정부 기관	산업인력공단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 외국인 취업 교육
		국외 정부 기관	TESDA, MBE, SLBFE, TOEA 등 취업 목적 한국어 교육(평균 80시간)
	비정규	학회	1년, 6개월, 3개월, 10일 등
		재단	1년, 6개월, 3개월, 10일 등

(3) 교육과정 층위 분류

한국어교육과정

학제		학제(정규)		비학제(비정규)
기관		대학교, 고등학교		센터, 정부기관…….
시수		80시간, 1년…….		80시간, 1년…….
목적		학문 목적, 실용 목적		학문 목적, 실용 목적
대상		대학생, 고등학생…….		학생, 외국인 근로자…….

(4) 교육과정 내용 항목

- 가. 공통 성격
- 나. 공통 목표
- 다. 내용
 - 가) 내용 체계
 - 언어 사용 기능, 국어 지식, 문학, 문화, 실용 기타
 - 나) 단계별 내용(또는 등급별 내용)
 - 등급 우선 내용, 교과목 우선 내용
- 라. 교육 시설 기준(또는 교육 환경)

자문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1차년도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의 범위

- 가.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외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 나. 아시아 국가 중 몇 국가를 선별하여 이 지역의 교육과정 연구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 다. 국내 교육과정은 지금 각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다. 굳이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교육과정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 라. 기존 이와 관련된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선행 자료를 수합해야 된다.

(6) 모형 구축 방법 방향에 대한 논의

- 가. 항목을 층위로 나누는 방법과, 타입 별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
- 나. 층위 구축은 만약 이 층위 변인들의 위계나, 항목 자체가 달라질 경우 처음부터 모든 교육과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주요 변인들을 층위 구분 없이 만들어, A형 타입, B형 타입과 유형별로 교육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 다. 수요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교육정책)과 현지 기관의 교육과정을 수집할 필요가 있다.

(7) 쟁점 사항 정리 및 통합에 대한 논의

- 가.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에 필요한 여러 쟁점 사항을 정리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다.
- 나. 학문 목적도 중요하지만 실용 목적도 중요하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실용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없이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VII.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위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

한국어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는 한국어세계화재단과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공동 주최로 2006년 10월 14일(09:20분~ 17:30분, 장소 :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5층 국제회의실, 추계 제26차 국제학술대회, 회장 조항록) “한국어 교육과 교육 과정의 개발”이란 주제로 개최

되었다. 이는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발에 필요한 현황, 문제 및 전망등을 다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한국어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제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8) 한국어교육과정 주제 발표 주제

가. 제1부 - 기초 연설·주제 발표

가) 기초 연설

- 한국어교육과정의 바람직한 방향(박영순(한국어세계화재단))

나) 주제 발표

- 한국어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국내 한국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황인교(연세대))
- 학문목적 교육과정의 현황 및 설계(강현화(경희대))
- 한국어 교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하여(오광근(한국어세계화재단))

나. 제2부 - 주제 토론·워크숍

가) 주제 토론

-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의 현황과 과제(김미옥(연세대), 박숙자(대외경제무역대), 민영란(산동대학))
- 워크숍 : 효과적인 읽기 교수 방법의 모색(신혜원(서울대), 오경숙(서강대))

다. 제3부 - 개인 논문 발표

가) 제1분과 - 한국어교육과정론

-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체계 구축 방안 연구(김명광(한국어세계화재단))
- 몽골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 현황(Otgontsetseg(몽골인문대학교))

나) 제2분과 - 언어요소별 교수학습법

- 한국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오지혜(배재대))

VIII. 사업 추진 상 제한점

첫째,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설문 조사를 위해서는 국외 출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 해 년도에 예산 항목에 잡혀 있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2차년도 이후부터는 현지 한국어교육과정 요구도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사업 진행 방향의 변경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취업 목적의 한국어교육과정이 나, 한국어 교사 양성 목적의 교육 과정(국외) 구축 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후 이 교육과정을 표준한국어교육과정 속에 포함시킬지 그렇지 않을지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X. 사업 진행 방법

○ 2006년도 사업 추진 중간 진행 사항

가. 국내 기관의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쟁점 항목 추출 및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시안 구축

나.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자문 위원회 구성

- 다. 국내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기초 조사 및 분석
 - 기초적 한국어교육과정 조사 항목 설정(재단 연구원 조사)
 - 기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 방향 확정
- 라.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교육과정 수집
 - 기관 별 한국어교육과정 항목 수집
 - 수집된 항목의 분석
 -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의 쟁점 현안 추출 및 구축 방향 마련
- 마.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학회(국제 한교육 학회) 개최
- 바. 위 ‘가’-‘마’를 중심으로 사업 결과물 제출

X. 성과 분석

- 1)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념 정립
- 2)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쟁점 사항을 변인 별로 파악
- 3) 기존 한국어교육과정 관련 자료 목록 구축
- 4)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모형 구축 방향 정립
- 5) 국외 한국어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 6) 차기년도 사업 방향 정립

제 2 장

제2장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의
쟁점 항목 및 모형 구축

제2장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의 쟁점 항목 및 모형 구축

I. 연구의 방향

1.1 이 보고서의 목적은 표준한국어교육과정의 쟁점항목이 무엇이며 이에 따라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모형이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할지를 밝히는 데 있다.

1.2 지금까지 국내외의 한국어교육은 개별적인 목적(또는 목표)을 가진 개별 교육 기관이, 그 해당 기관의 교육 목적(또는 교육 목표) 달성을 원하는 대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개별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표준화”된 또는 “기준이 될 만한” 한국어교육과정은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신뢰할만한 기관(또는 부처) 차원에서의 표준화된 한국어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만 한다. 이는 당위성 차원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절박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다. (필요성에 대하여는 1장 3절 참조).

1.3 일반적으로 “교육 시행의 기본 구성 요소”²⁾가 발현되는 계기적 상황은 우선적으로 “교육 과정”이 설계되고 난 후 “교재”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음에 정해진 “교육 장소”에 “교사”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교육의 목적이 절박할 경우, 교육 시행의 구성 요소 중 (교사, 학습자, 교재, 교육과정(프로그램), 학습 장소) 중 하나 또는 몇 가지를 생략하거나 임시적으로 만든 채 실시되기도 하며, 일반적인 발현 순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방기의 국어과 교육 과정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해방 후부터 1954년 4월 20일에 문교부령 제35호로 공포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나타나기까지의 약 10년간— 더 정확히는 1955년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교육과정이 형성되지 않은 채 국어과 교육이 실시되었다.

물론 그 이유는 일제 시대의 교육과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명분 때문이었다. 하지만 1945년 해방 당시 문맹률이 거의 80%를 상회한 것처럼³⁾ 국민 기본 교육이 사회

2) 이 글에서는 직접적인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요소를 “교수-학습의 기본 구성 요소”라 칭하고, 이 구성 요소에 “교사, 학습자, 교재”가 있음을 가정한다. 또한 교육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를 “교육 시행의 기본 구성 요소”라 명칭하고, 여기에는 “교사, 학습자, 교재”를 이외에 “교육과정(프로그램), 학습 장소”가 추가된다고 가정한다. 물론 교육 시행의 요소에는 “교재”를 보충해 주는 “교육 자료”나 교사가 교육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기자재”(예를 들어 OHP, Projector, 교육용 비디오 등과 같은 기자재)등도 있다. 그러나 “교육 자료”나, “교육 기자재”는 교육의 방법적 측면에 영향을 주기는 하나, 이들이 없다고 하여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 자료”나 “교육 기자재” 등과 같은 간접적인 교수-학습 요소는 “교육 시행의 구성 요소”에는 해당하지만, “교육 시행의 기본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3) 김용일(1994), “미군정하의 교육정책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이 통계치는 조선은행조사부의 『조선경제연보 1948』(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8)에 제시된 1944년 5월 1일 현재 ‘학력별남조선인구일람표’에 근거해 추정된 것이다. 한편, 한국교육10년사 간행위원회의 『한국교육10년사』(풍문사, 1955)에 따르면 해방직후 남한의 문맹률은 77.8%로 집계되었다. 110면.

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으로 해서 군정청 학무국에서 교육의 기본 구성 요소인 교과서조차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 과정의 일부인 교수요목(그것도 내용 중 일부만)만을 제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⁴⁾ 더구나 교수요목도 이를 제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를 열거하는 데 불과하였다. 즉 사회적 요구로 인해 교육 시행의 구성 요소가 생략되거나, 불완전한 교육과정을 가진 채 실시된 교육인 것이다. 한국어교육과정도 예외가 아니다. 1959년에 연세대학교에 한국어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미국에서 한국학교, 일부 대학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었을 당시에도 교육의 필요(당시의 선교사나 외교관 등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지만, 초기의 국어과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 환경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국어과 교육이 교육과정 없이 교육이 시행된 기간이 10년이지만, 한국어 교육은 근 50년이 지나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없는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1.4 교육 과정은 누가 어떤 수준에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수준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공포된 법적 문서로서의 교육 과정이다.

이 수준의 교육 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전개되거나 실천되기 이전의 하나의 “교육적 의도”로서 머물러 있는 사태의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수준의 의도된 교육 과정은 문서화된 정부 문서의 형태로 존재한다. 국어과 교육의 경우 교육법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이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부의 고시로 되어 있어 상당한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일종의 규범으로서의 교육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육 과정이다. 이 교육 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실제로 실천되고 전개되는 일종의 해설적 교육과정이다. 이는 첫 번째의 문서화된 규범으로서의 교육 과정과 표면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교사의 다양한 해석과 해설이 개입되다는 점에서 해석 차원의 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 일선 교사가 구체적인 수업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지도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이 있다. 즉 학생들 개별적인 교육 배경과 능력,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수-학습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과정은 이 세 가지 수준에서 세 번째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도 교사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는 의미로 국한시킬 경우에만 그렇다. 즉 우리나라 한국어교육과정은 교사의 프로그램이 교육기관에 투영된 차원이다. 달리 말하여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하향적 해석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난 후, 해석 수준의 교육과정이 발현되고, 그 해석 수준의 교육과정이 일선 한국어 교사에 의하여 재해석되는 순서가 하향적 과정임), 역으로 일선 한국어 교사 차원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후, 이것이 교육 기관의 한국어교육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4) 문교부, 문교개관(1958), 126 쪽.

1.5 이 글에서 의도하는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이라는 의미는 바로 위 국가 수준의 한국어교육 과정의 표준화 - 적어도 국가에 준하는 한국어 수준의 교육과정의 표준화- 차원의 설계와 항목 설정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규범적 차원의 한국어교육과정 수립을 의미한다. 이 때 한국어교육과정의 주체의 후보에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어 정책과 한국어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일 수도 있다. 또는 문화관광부의 한국어 정책을 맡고 있는 산하 기관이 될 수도 있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난 후 그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든, 아니면 규범적으로 선언되는 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1.6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첫째, “사전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예비 작업”에서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 둘째, 구축 과정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셋째, 결과 단계에서 고려할 후속적 사항이 있다.

우선 사전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예비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습자 상황

- 현재 언어 능력 수준과 도달하고자 하는 언어 수준, 학습자가 바라는 교육 항목, 학습자의 국적, 학습자의 제1언어 구조 등이 있다.

② 정책 결정자의 상황

- 어떠한 가치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하는가?, 수업 방법에서 어떠한 교육 철학을 투입하기를 원하는가?, 교육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요구하는가?, 교육 환경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등이 있다.

③ 교사의 상황

-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재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학습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평가의 방법은 어떤 것을 활용하고자 하는가? 등이 있다.

④ 교육 환경의 상황

- 현재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지역의 학습 환경에 대한 고려, 해당 지역의 교육 정책, 국내 정부 부처의 지원 현황등의 예비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과정 구축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표준화시킬 교육과정의 범위

- 예를 들면, 일반 목적의 한국어교육과정만을 표준화 시킬 것인가? 아니면, 특수 목적(학문 목적, 취업 목적 등의 교육과정을 표준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범위),도 표준화의 범위 속

5) 이 때 지역이라 함은 “국내와 국외”를 통칭하는 용어임을 밝혀둔다.

에 포함할 것인가 하는 고려를 뜻한다.

② 교육과정 설계도면에 투입될 항목 결정

- 전형적으로 투입 항목에는 “교육 목적”, “교육 목표”, “교과목”, “수업 기간”, “수업 시수”, “교육 대상자”, “교육 지역”, “평가 기준”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활용될 수 있는 “교재”, “보조 교재”, “기자재”나 “수업 시설에 대한 기준”, “교육 방법”에 대한 지침도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도면에 들어가는 지에 대한 결정을 뜻한다.

③ 표준화를 시킬 과목의 범위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화”와 같은 한국어 사용 기능, 지식, 문화 측면의 교과목만을 기술할 것인지, 아니면, 국외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 역사, 정치, 경제, 한자” 등과 같은 과목을 표준한국어교육과정의 범위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말한다.

④ 교육과정 체계의 통일성

- 표준화에 범위 속에 포함되는 하위 교육과정의 틀을 동일한 틀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해당 상황에 맞게 다른 틀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내외의 한국어교육과정을 “등급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 또는 “교과목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와 국외 상황을 구별하여, 한쪽은 기존의 “등급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을 만들고, 다른 한쪽은 “교과목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을 만들 것인가 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셋째, 결과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구축된 교육과정의 실험적 투입

- 구축된 교육과정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축된 교육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규모로 투입하는가의 결정도 필요하다.

② 구축된 교육과정의 효용성 재고

- 교육과정의 효용성이란, 예를 들어, 국외에서 새롭게 한국어교육과정이 개설되었을 때, 표준화된 한국어교육과정의 시안에 대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하는 “네트워크 측면의 효용성”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만큼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쉽게 만들 수 있는가하는 “참조”의 효용성을 뜻한다. 더불어 이 교육과정이 얼마만큼 활용되는가하는 거시적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③ 구축된 교육과정의 제도적 규범화 측면

- 구축된 교육과정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물론 이 교육과정이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국외의 경우 한국어 교육이 현지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성을 띠게 되면 현지 정부와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국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기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서 이미 구

축된 개별적 교육과정의 보충적 수단으로서의 규범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또한 “효용성” 측면에서도 말했듯이, 국내외의 교육기관이 한국어 교육과를 설치하거나, 설치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이 즉시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Proto type”의 성격을 이 교육과정이 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비란, 이 교육과정의 국내외의 보급 차원에서의 지원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이른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④ 다음 차시의 교육과정 개편 준비

교육과정은 후술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어과 교육과정이 그러하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지금 현재 8차의 교육과정이 준비 중에 있다. 그 이유는 교육 철학의 변화, 교육 방법의 변화,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교육 과정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보다, 그 교육 제반 여건이 급속도로 변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이론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교육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축된 교육과정을 제1차 한국어교육과정이라고 잠정적으로 명칭한다면, 이후 진행될 교육과정을 제2차 한국어교육과정이라고 하여, 바로 개편 작업이 들어가야 한다.

1.7 국어과 교육과정은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즉 학습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교육과정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설계과정을 경험하지만, 세부적으로 매우 다양한 변인들이 작동한다.⁷⁾ 학습자 측면의 변인을 부연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가.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
- 산업 연수생 제도 하의 외국인

나. 한국에 이미 취업한 외국인

- 다양한 업종의 외국인
- 다양한 언어 수준의 외국인

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 동포

라. 학문 목적을 가진 국내 외국인

- 한국어 관련학과 진학을 목표로 한 외국인

6) 한국 국적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 동포이다. 교포 1세대의 경우 한국인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국어과 교육과정 측면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나 교포 2세대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은 한국어 교육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만 이들은 다른 외국인의 학습 목표와 달리, 부모들이 희망하는 한국어 수준은 국내 한국인들이 도달하는 수준의 고급 수준의 목표임으로 해서, 매우 특수한 교육과정을 필요로 한다.

7) 이와 같은 매우 다양한 상황 요인 때문에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이 다른 여타의 교육과정과 달리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로 작동한다.

- 정치 경제 등 다른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한 외국인
- 마. 학문 목적을 가진 국외 외국인
 - 한국학과에 진학한 외국인
 - 한국어교육과에 진학한 외국인
- 바. 다양한 국적을 통해 언어적 배경 지식이 서로 다른 외국인
- 사. 국내 이주 여성
- 아. 부모님 중 한쪽이 한국어를 쓰지 않는 국내외 자녀 등.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참조)

1.8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이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설계에 나타나는 여러 변인들을 살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다음에 이 후 변인들의 다양한 상호 역학 관계를 분석하여, 실제로 규범 수준의 한국어교육과정의 설계도면에 필요한 표준 항목을 추출해 내는 것이 부차적 목적이다.

1.9 이러한 항목들을 추출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설계도면에서 항목들이 구축되었을 경우, 이 후 이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기술만 이루어지면 된다. 따라서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입안자가 활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둘째, 특정 항목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 역학 관계 - 공통점과 차이점-를 밝히기 때문에,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하위 과정에 대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셋째, 개별적 교육과정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항목을 제시해 줌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규범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해당 항목이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설계 도면에 어느 위치에 설정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II. 일반 교육과정 속의 한국어교육과정

2.1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 교육과정의 개념을 알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란 “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의하여, 얼마동안, 얼마만큼 가르치고 평가하느냐에 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총칭하는 말이다.⁸⁾

2.2 가르친다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을 원래의 상태에 그대로 둔다는 의미가 아니다. 곧 대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개입되게 되는 데, 그 의도는 해당 시기의 특정한 철학이나 가치관을 투입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압력이다.⁹⁾ 사회가 철학이나 가치관을 특정 개인에게 압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다는 말 속에는 교육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곧 교육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시적인 목적들이 해당 시기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교육 목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교육 목적이 발현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논의의 명시적인 형태는 “교육 목표”로서 기술된다.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결정되면 그 가르칠 무엇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교육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때 이 교육 내용은 가르칠 대상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그리고 얼마만큼 가르칠 것이냐 하는” “교수 방법”, “교수 절차”, “도달 목표 수준”이 조직화되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학습자들의 과거의 미교육 상태과, 교육 중 “의도된 변화 상태”, 그리고 교육 후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학습자들에게 기대했던 교육 목적과 내용이 효과적으로 도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교육 평가”를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기대했던 도달 목표와 학습자의 교육 후의 변화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전체 과정 중에 어떠한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학습자를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곧 교사가 전달의 방법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목적과 목표가 왜곡되어 생겨난 문제일 수 있다. 둘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었으나, 평가 기재와 문항이 교육 목적과 목표와 관련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 셋째, 교육 과정이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곧 “귀납적 경험의 연역적 설계”라는 내부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귀납적 경험의 총합을 연역적인 설계를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선험적 방법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다. 넷째, 귀납적 경험은 교육 현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교육 목표가

8) 교육 과정(curriculum)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쿠레레(currere)'에서 유래된 말로서 '달린다'는 뜻이었다. 이것이 나중에 경마장의 경주(race course)를 의미하는 말이 되었다. 곧 경마장에서 말이 경주를 하기 위해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일정한 코스가 커리큘럼인 것이다. (박영순 2004)

9) 이와 관련하여 박영순(2004)의 “교육과정 설계가 그 사회의 이념과 맞아야 하는 철학적 기초,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초,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해야 하는 심리적 기초 등의 토대 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의 정의를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더 이상 그 귀납적 경험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 귀납적 경험의 압력을 기존의 교육 과정으로는 더 이상 포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결과 기존의 교육 과정 자체가 변화하여 그 압력을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 만약 위 네 가지 상황의 요인이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그 교육 과정은 평가의 과정을 거쳐 다시 새로운 교육 과정 구축의 과정 절차를 밟게 된다.

2.3 그런데 한 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일은 위와 같은 교육 과정이 계기적인 순서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곧 교육과정의 수정 과정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해당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교육 과정의 틀을 그대로 둔 채(즉 목적과 목표를 그대로 둔 채) 부분적인 세부 과정에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평가 부문이 잘못되었다면, 이 평가를 목표와 목적에 맞게 해당 시기의 교육 과정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4 위 내용을 보면 이 글에서 생각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축되는가 하는 “개발 과정”을 염두하여 기술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개발하기 전단계”,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와 “완성된 교육과정의 적용단계”, “교육과정 평가 단계”로 구성되는 데, 이러한 각 과정에서 필요한 구성 요소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과정을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각각의 개발에 필요한 하위 구성 요소가 무엇이며, 어떻게 조직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 역학적 관계를 맺는가하는 점은 학자마다 다르다. 아래에서 개발 과정으로 바라본 교육과정 견해 중 일부를 들어,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발 과정 측면의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는 교육목표 설정,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그리고 결과의 평가이다.(Tylor : 1949).

나. 교육과정이란 목표, 내용, 전략, 기술, 교수 학습 자료뿐만 아니라 시간적, 순서적 배열과 사회적 조직과 평가 과정을 응집적인 전체(coherent whole)로 구조화한 언어 교수의 전반적인 계획이다. (Stern : 1992)

다.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에는 ① 요구 분석(needs analysis), ② 목적(goals)과 목표(objectives), ③ 시험(testing), ④ 교재(materials), ⑤ 교수법(teaching), ⑥ 평가(evaluation)가 있다. (J. D. Brown :1995)

라. 교육과정 개발 과정은 요구 분석, 상황 분석, 학습 결과 계획, 과정 조직, 교수 자료의 선정과 준비, 효과적인 교수의 제공, 평가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적인 체계의 연결망을 형성한다. (Richard 2001)

마. 일반적으로 교육과정(curriculum)이란 “교육기관에 의하여 의도된 전 교과 활동 또는 그에 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로 학습자의 요구분석,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교수 요목, 교재, 교수 학습법, 시험과 평가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기술한다.(민현식 : 2003)

바. 가) 교육과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은 순환 과정을 가져야 한다.

나) 교육 과정 설계 → 교육실행 → 평가 → 교육과정 수정 보완 → 교수요목 설계 → 교재개발 → 교육실행 → 평가 → 교수요목 수정 → 교재 평가 → 교재 수정(진정은 : 2003)

사. 가) 교육과정은 교육의 전체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성 내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후,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에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정하고, 교수 학습의 방법을 제안하며, 실제 교육 결과를 통한 피이드 백 효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평가 방식까지 제시한다.

나) 교육과정은 적어도 ①목표 규정, ②내용 결정, ③진행 과정 지시라는 세 가지 측면을 담고 있으며, 이들이 상호 분리되는 실체로서가 아니라 유기적 통일성을 가지고 작용할 때 그 교육과정은 통일성 있는 전체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은희 : 1998)

아. 교육과정의 개발절차는 ‘분석→계획→편성→시행→평가’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이다.(이성호 : 2002)

자.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수 절차, 학습 경험, 교육 평가의 순환적 과정이 포함된다. 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은 학습자의 요구와 목적을 확인하는 것,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 학습내용을 선정하고 등급을 나누는 것, 학습 내용을 적절히 분배하여 조직하고 학생을 분류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자료, 학습 과제, 평가 도구를 선정하고, 그것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개발하는 작업등이 포함된다.(이덕희 : 2003)

위 (1)은 개발 과정 측면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바라본 견해에 해당한다. 이때 “개발 전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단계인 “요구조사”를 강조하고 있고,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도달할 목적과 구체적 목표에 해당하는 “목적과 목표 설정”, 교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교수요목”¹⁰⁾, 조직된 내용 학습에 도움을 줄 “교재 또는 교재 개발”, 목표 달성을 이르게 하는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의 방법”, 그리고 설정된 목적과 목표의 학습자의 도달 정도를 파악하게 하는 “평가”를 이야기 하고 있다. 다음에 “완성된 교육과정의 적용단계”에서는 “교육의 시행”, “교재 개발”등 “시행”적 측면을 강조하고, “교육과정 평가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 수정, 보완”(Evaluation)“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순환적”이며, “상호 유기적인 통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물론 이 중에서 몇 가지

10) 교육과정에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교수요목(syllabus)의 혼동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상호 층위가 다르다. Candlin(1984)은 교육과정은 “언어 학습, 학습 목적과 경험, 평가,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교수요목은 “교실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련된 보다 지엽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또 Nunan(1988)은 교육과정이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시행, 평가, 관리와 관련된 개념”이라면 교수요목은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중점을 둔 보다 좁은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 글도 이 둘의 의미를 엄밀히 구분한다.

부분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생략했다고 하여 그 부분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의 “요구 분석”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가, 나, 바, 사”의 경우를 보면, 이 견해가 교육과정 개발의 전과정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개발을 완성하는 측면만을 특히 강조했기 때문에 교육개발 정의에서 생략된 것으로 추측된다.

2.5 이 글에서 보는 교육과정도 “개발 측면”의 교육과정을 강조하지만 몇 가지 부문에서 좀더 상세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요구조사”의 단계에서 “요구조사”의 대상자를 학습자에만 한정하지 말아야 함을 주장한다. 그것은 앞 2.1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육과정 개발의 압력이 “학습자” 개별적인 압력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압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 환경에서 그 압력의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는 뜻이다. 즉 “학습자” 이외에 “교육 전문가, 교육 시행자, 정책 결정자, 교육 기관”등 다양한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교육과정 구축 계획에서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한국어교육과정이 좀더 정밀해 질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교육과정 개발 단계의 논의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와 같은 거시적인 개발 과정의 흐름보다는, 그 구성요소의 각각의 세부 항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세화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교육과정 설계 도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상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교육과정 설계 도면에 어떠한 항목이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 예를 들어 첫째, 설계 도면에 “성격”, “목적”, “목표”, “대상”, “기관”, “기간”, “교과목”, “평가 등급” 등급과 같은 “항목 설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교재와 같은 항목을 설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교재”항목을 설계 도면에 투영하였을 때, 교재를 구성하는 방법을 기술하여 교재 구성자들에게 교재 구성의 지침을 줄 것인지, 아니면 해당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선정하여 한국어 교사로 하여금 선택권을 줄 것인지 등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나. 해당 항목들이 어디에 배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 예를 들어 “등급” 항목이 설계도면에 상위에 배열되는지 아니면 “교과목”이 우선적으로 배열된 후 다른 항목들이 하위에 배치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 교육과정 개발자가 의도하는 이론과 철학이 어느 부문에 설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 예를 들어 “교과중심 교육”, “경험중심 교육”, “학문중심 교육”, “인지중심 교육”과 같은 교육 철학, 주제 중심 교육과정이나,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같은 교육 방법 철학, 또는 상향식 교육, 하향식 교육 또는 통합식 교육과 같은 학습자 교수 방법, 과정 중심 학습자 교육, 결과 중심 학습자 교육, 총체적 학습자 교육과 같은 수업 과정 이론, 상위 인지 전략, 과제 학습 전략과 같은 학습자의 학습 기술(skill) 및 기타 사회가 요구하는 이론적, 철학적 기반을 설계도면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위치에 표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도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철학적 가치를 설계도면에 직접적으로 표현할지, 아니면, 예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설계도면에 반영해야 한다. 더불어 각 항목 별 이러한 이론적, 철학적 가치를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라는 방법적 기술(SKILL)이 필요하다.

라. 각 항목 속에 지시될 하위 항목과 기술을 어떻게 기술해야하는가 하는 논의

- 예를 들어 첫째, 목표 항목에서 “교수요목” 수준이 요구하는 수업 시수별 세부 목표를 기술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교과목의 일반적인 목표만을 기술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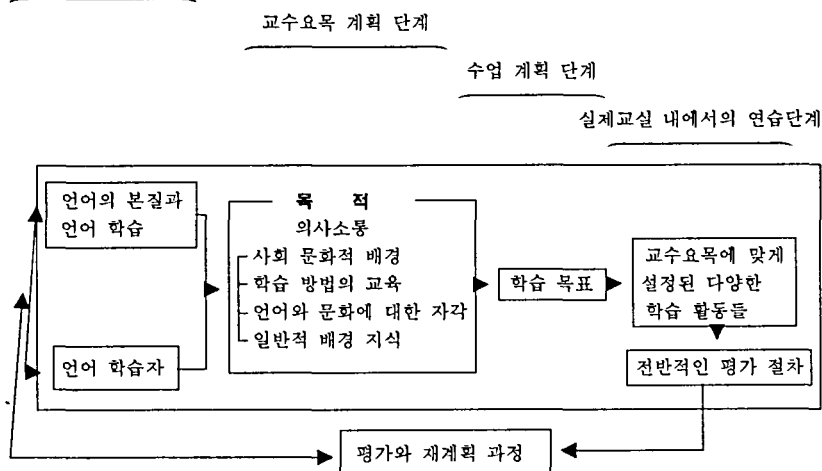
둘째, 평가 항목에서 한국어 교사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평가 방법과 기술을 나열할 것인가? 아니면, 평가의 대략적인 지침만을 기술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참조하는 교사에게 최대한 자율적인 권한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제2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이 장에서는 문제 제기로 남겨둔다. 다만 위에서 정의했던 개발 측면의 교육과정을, 설계 측면의 교육과정으로 미시화하여 명세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3) 교육과정이란 해당 시기의 사회의 교육적 압력을 통하여 발생된 교육적 목적을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투영하기 위한 지침서로, 교육 관련자들에 의하여 계획된 설계도면이다. 설계도면의 기본 요건에는 첫째, 교육 항목들이 설치되어야 하며 둘째, 이 설치된 항목들 간의 연결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위계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교육 항목들은 해당 시대의 교육적 이론, 방법, 기술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참조하는 직접적인 교육 관련자를 위하여 설계 도면의 “목적, 이론, 방법, 기술, 의도”가 최대한 명세적으로 기술되

11) 한편 최정순(1997, “개발자(Developer)”로서의 교사- 교재 개발 및 교과 과정 개발에서의 교사의 역할, ~” 132-157 쪽)에서 보면, 교수 요목 설계도 교육과정과 같은 개발 단계를 거친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 단계



어야 한다.

2.6 교육과정은 개발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에 투영된 교육 철학적인 가치관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견해가 있다. 곧 교육과정이 시대적으로 변천해 온 교육 사조의 흐름에 따라 내용과 체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면 “교과중심 교육과정¹²⁾”, “경험중심 교육과정¹³⁾”, “학문중심 교육과정¹⁴⁾”, “인지중심 교육과정¹⁵⁾”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분류 방식은 바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해온 교육 가치관을 투영한 교육과정의 명칭이다. 우리는 (2다)에서 이러한 철학관들은 교육과정 설계도면에서 그 내용들이 기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그 이야기는 지금 시대에서 부합되는 철학적 가치를 투영하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론 중 이 글과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접근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7 비교적 최근에 교육 관련자를 초점으로 하여, 교육과정의 수준과 조직을 분류한 철학적 사조가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이 그것이다. 또한 “교과 간의 영역간 학습 요소”의 통합적 측면을 고려한 “통합교육과정”이 있다.¹⁶⁾

2.7.1 먼저 “수준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Goodlad(1984)로서 교육과정 결정자 수준을 학습자와의 거리라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하여 교육과정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
- 12) 교과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구성 요소 중 교과를 중시하였다. 곧 교과는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이나 유용성보다는 지적 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선천적 능력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고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간접적으로 전이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과 같은 교과목이 교육의 중심을 이루는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의 특징은 “교수중심, 설명위주 교수법, 문화전달 용의성”이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교사 중심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단점을 가진다. (Zais : 1976)
- 4) 1920년대부터는 학교 교육이 교과보다는 경험을, 지식보다는 행동을, 미래 준비보다는 현재 생활을, 교사의 교수보다는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중시하는 교육사조가 일반화되었다. 이는 존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이 투영된 경험중심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갖게 되는 경험을 개별성으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수만큼 교육과정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개별화 교육과정의 성격을 갖는다.
- 14) 이 교육과정은 가르칠 내용을 중시한다. 즉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 원리 및 탐구방법”등을 강조한다. 학습자들의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내용을 발달수준에 맞게 점점 더 심화하여 가르쳐야한다는 것을 중심 개념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교육과정은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고 발견하는 일에는 내용상의 차이가 없고 단지 수준에만 차이가 있다고 본다.
- 15) 삐아제가 1920년대에 주장했던 인지이론의 재조명으로 교육계에도 인지이론이 대두되면서 탐구된 결과의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문제해결력, 창의력, 확산적 사고의 장려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 16) 이 밖에 학 교육과정은 학자마다 구성 요소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여러 교육과정의 명칭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진정은(2003, 18-24)를 보면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을 분류하였다.
- (1) 학습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
 - (2) 강좌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 (3) 계획된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 (4) 학교의 후원 하에 ‘갖게 된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 (5) 구조화된 일련의 의도된 학습결과로서의 교육과정
 - (6) 활동을 위한 “문서화된”계획으로서의 교육과정.

2) 가. 수업 수준 : 교육과정의 결정은 특수한 학습자 집단을 지도하는 교사나 교사팀이 행한다.

나. 기관 수준 : 교육과정의 결정은 행정가의 지도성 밑에서 기관의 전 교직원이 행한다.

다. 사회적 수준 : 교육과정의 결정은 지역, 주, 중앙 정부의 교육요원이나 입법가가 행한다.

김호권(1993)은 Goolad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면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공약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 학습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의 세 가지 수준에서 보고 있다.

3) 가. '공약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이란 말하자면 의도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이 이 수준에 속한다.

나.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이란 교사에 의하여 재연, 재해석 및 전개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 '학습 성과로서의 교육과정'이란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실제로 '실현된 교육과정'이다. 학습자들의 학습능력이나 경험 배경이나 교육적 필요에 커다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하여 전개된 동일한 수업조건 속에서도 다양한 결과 수준을 발견할 수 밖에 없다.

김종서 외(1993)에서도 교육과정을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의 교육과정, 교사수준의 교육과정, 학생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분류한다.

4) 가.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의 교육과정이란 국가 및 사회가 학생들에게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일련의 의사결정을 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이 수준의 교육과정의 구체적 예로서 국민교육헌장, 교육법에 제시된 교육목표, 교육부령의 교육과정, 장학방침, 교과서, 교과용 교과 지침서 등을 들 수 있다. 이 수준의 교육과정은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나. 교사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사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또는 가르치고 있는 지를 말한다. 이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결정자가 교사라는 점이다. 이 수준의 교육과정은 교사가 만든 문서와 수업행동을 포함한다. 예로서 수업의 월별 주별 계획, 수업 안 및 교사가 실제로 가르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다. 학생수준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지는 경험의 총체를 말한다. 이 수준의 특징은 교육과정을 경험의 자체로 본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별성을 인정한다. 또한 경험의 총체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학교의 의도

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험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에서 의도한 바 없는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연 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이다. 전자는 표면적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후자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의미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곧 학습자의 "언어 능력의 수준"을 고려하여 분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으며, 여러 수준의 교육과정을 입안하는 "주체"를 고려하여 분류한다는 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위의 예는 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교육과정 정책을 입안하는 교육 관련자들이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이나, 아니면 현장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 수준"이나, 또는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 수준"이나 하는 입안자의 관점으로 교육과정을 분류하였다. 이때, "국가 및 사회적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는 의사결정의 "주체"("국가 또는 국가 수준에서 인정하는 기관), 의사결정의 "형식"("국민교육헌장, 교육법에 의거한 법률 형태, 교육부의 법령과 같은 "문서화의 형식"), 의사결정의 "결과"("교육과정, 장학방침, 교과서, 교과용 교과 지침서)이다.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도 의사결정의 "주체"("교사), 의사결정의 "형태"("학교 차원의 "문서화 형태")과 "결과"("월별 주별 계획, 수업 안과 같은 "교수 요목"차원의 지침 형태)가 있다. 다만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은 "문서의 형태"보다도 "개별적 경험"이라는 무형적 포트폴리오를 강조하고 있다. 이때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한국어교육과정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 "형식"은 어떻게 되며, 그 "결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영역(Scope) 결정이다. 또한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도 "국가 또는 사회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연 "교육과정 해설서" 수준이나, "단위 별 목표지시"이나 아니면 "수업 계획서(지도안)" 수준이나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7.2 한편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과 거의 동일한 관점이므로 17) "잠재적 교육과정"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교육기관에서 교과학습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의도하지 않는 것도 경험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학생(학습자)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즉 교육 기관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계획하지 않았지만, 교육기관의 물리적 조건, 제도, 행정조직, 사회적, 심리적 상황을 통하여 학습자들이 은연 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의 총체가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이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인간의 흥미·태도·가치관 등과 관련)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습자의 주관적 경험 즉, 잠재적 교육과정을 파악하는 표면적으로 도출하는 연구 절차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자료 수집의 단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① 교사가 학습자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교실에서의 수업 현장,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수업 외의 특정 과제 활동 등에서 학습자들의 대화나 행위의 자료) ② 교사가 여러 가지 관찰 방법(직접 관찰, 비디오 촬영, 오디오 녹음, 메모, 면담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행위 ③ 사진이나 기록물(독후감, 소감문 등)을 수집, 분

17) 학생 수준의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차이는, 전자가 수준의 주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형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는 점이 다르다. 즉 "경험"과 같은 무형의 형태에 대한 체계와 조직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다음에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가 있다. 여기에는 교사가 최대한 객관적인 해석을 위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배경 지식이나 개념망(conceptual Framework)을 배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관찰”의 경우 “(1)누가, (2)언제, (3)어디서, (4)누구와 함께, (5)어떤 상황 하에서, (6)어떤 목적으로, (7)어떤 예상되는 결과와 함께, (8)무엇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행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둘째, 교사가 비교적 관점(Comparative Perspective)을 가지는 단계가 있다. 학습자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교사는 한 사태에서 관찰하거나 확인한 내용을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관찰하거나 확인한 내용과 끊임없이 비교해야 하고, 또 이 경우에 유사한 상황에서 학습자마다 어떻게 다른지도 끊임없이 비교해야 한다. 비교를 통해서 교사는 행동의 패턴(또는 경험의 일반적인 유형)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학교 기관이나 교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습자들의 행동, 신념, 지식,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행동 방식이란 일반화된 학습자들의 행동 양상을 의미한다. 일반화된 학습자의 행동 양상은 학교학습의 결과로서 학생에게 있어서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셋째, 구축된 잠재적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단계가 있다. 평가는 두가지 목적을 가지는 데 그 하나는 학습 성취의 결과를 통해 등급을 매기고 교육 기관의 행정적인 목적에 활용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자들이 학습 요소 중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를 파악하여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함이다.

2.7.3 요지는 “그런데 이러한 잠재적 교육과정 구축의 주체는 “학생”이 아니라 다분히 “교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소재는 “학습자의 경험”이며, 이 영역은 “정의적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속에서 “교사”가 파악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의 결과가 녹아들어가야 한다. 이 때 그 결과는 “수업 방법”, “학습 방법”, “평가 방법”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7.5 다음에 통합교육과정이란 원래는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결합하여 개별적 교육과정들의 갖고 있지 않은 전체성을 만들거나 만든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등에 제시된 교육내용들을 상호 관련성을 찾고 이를 통합하여 학습과 교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다음에 해당 사회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에 직면한 학습자들의 문제해결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통합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통합 교육 과정 개발의 가치는 첫째, 교육 목표 측면에 바라보면, 학습자가 부딪치는 일상생활의 문제나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해당 사회의 생활 가치나 윤리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둘째,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는 교과 간의 내용 중복을 피하여 학습자의 불필요한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학문이나 지식형식간의 상호관련성을 배경으로 교육내용의 양적 증가에 대처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내용이 사회의 이해와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사회적 적합성이 높아진다. 셋째, 교육 방법의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가 커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증대되므로 교육의 성과가 높다. 그리고 학습의 과정에서 생활의 문제를 다룰 기회가 많음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이 증대된다.

2.7.3 그렇다면 이 글의 논의와 관련하여 통합교육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가? 첫째, 교과목의 통합(다양한 교과목을 하나의 교재로 통합하여 여러 학습 요소를 통합하는 시도)이다. 둘째, 단일 교과목 내의 통합(단일 교과 중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단원을 구별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시도), 셋째, 교육 기관의 정보 통합(각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의 공유 또는 해당 기관의 특징적인 교육 학습의 상호 교류)이다. 넷째 수업 시수의 자율적 활용이다. 다섯째, 다양한 교육과정의 상호 통합(예를 들면 목표 중심 교육과정과 내용 중심 교육과정의 상호 통합의 시도¹⁸⁾) 등이다.¹⁹⁾ 한국어교육과정의 측면으로 본다면, ① “말하기·듣기”의 영역간 통합, ② “정치, 경제, 역사”등의 문화 영역의 “통합”과 같은 “교과목의 통합”, ③ 특정 교과목내의 학습과 등급 수준의 조정과 같은 “단일 교과목 내의 통합”,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의 “개별적 한국어교육과정의 공유”와,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과정과 “국내 기관”과의 상호 정보 교류와 같은 “교육 기관의 통합”, ④ 해당 국가의 교육 정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수업 시수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수업 시수의 자율적 활용” 그리고 ⑤ 필요한 여러 관점의 철학적 개념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설계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의 상호 통합”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18) 목표 중심 교육과정과 내용 중심 교육과정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9) 이러한 최근 이론에 대하여는 A.V, Kelly(2004)를 살펴보기 바란다.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은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가. 교육적 교육과정
- 나. 통합적 교육과정
- 다. 잠재적(hidden) 교육과정
- 라. 계획된 교육과정과 수용(received)된 교육과정,
- 마. 공식 교육과정과 비공식 교육과정

III. 일반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과정

3.1 한국어교육과정이란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의 압력을 통하여 발생된 교육적 목적(한국어 교육-“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사용 기능 및 문법과 한국 문화 교육의 목적)을 한국어 학습자(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 또는 정규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투영하기 위한 지침서로, 한국어 교육 관련자들에 의하여 계획된 설계도면이다. 이는 한국어 관련 대상자들에 선행 조사된 다양한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된 여러 사항을 설계도면에 반영된 것이다. 해당 설계도면에 설치될 사항은 첫째, 한국어 교육 항목(학습자, 수업 시수, 목적, 목표, 평가 등급 등)이 투영되어야 하며 둘째, 이 설치된 항목들 간의 연결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위계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한국어 교육 항목들은 한국어 교육 환경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이론, 방법, 기술 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넷째, 이를 참조하는 직접적인 한국어 교육 관련자를 위하여 설계도면의 “목적, 이론, 방법, 기술, 의도”가 명세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한국어교육과정은 일반론적인 교육과정의 거시적인 지침을 따르면서, 한국어라는 특수한 제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한국어 교육 환경을 설계도면에 반영하는 것이다

3.2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의미와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의 의미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²⁰⁾

3.2.1 이를 위해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서 나와 있는 국어과의 목표와, 민현식(2003)에서 기술하고 있는 ‘한국어’의 목표를 들어본다.

- 1) 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베어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5])
- 2)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여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민현식 2003, 17-49쪽)

국어과에서 국어 교육의 목표에는 “대상”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상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20) ‘한국어 교육’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대해 사용되는 ‘국어 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상의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규정하는 방식도 언어를 가르칠 대상이 “국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외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볼 때, “한국어 교육”을 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은희 : 1998 121-141 쪽 참조).

하는 사람들”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알 수 있다.

3) 가.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5]) 제1장 추구하는 인간상 참조.)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5]) 제1장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2-나. 참조.)

위 3)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 지침” 속에 소항목으로 분류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성 방침”에 기술된 내용이다. 여기에 보면 해당 대상이 “국민”이라는 말이 “모든 국민”(3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3나)에 나타나 있다. 이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편성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국어 교육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에 민현식(2003)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의 목표로 제안한 2)를 보면, 그 대상이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로 하고 있어서 1)과 3)의 목적과 차별화된다. 그런데 주목할만 한 점은 3)의 경우에 “국내 국적의 한국인”이라는 말은 해외 교포(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 국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의 “재외 교포”와 중첩된다.²¹⁾ 이와 관련하여 민현식(2003)의 해석을 보자.

4) 학습자 대상에서 해외교포도 엄밀히 구별하였다. 사실 이제는 이민 동포와 임시 거주 동포를 구별하여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²²⁾

위 해석은 학습자 대상에서 해외 교포를 전부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염두하여 이민 동포만을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로 한정한 것이다. 곧 이민 동포는 “한국어 교육”에 “임시 거주 동포”는 “국어 교육”에 편입하여 교육해야 된다는 당위적 차원의 의미가 담겨있다. 추측컨대, “이민 동포”의 의미는 국내 국어과 교육과정에 편입되지 않고 현지 국가 교육과정 속에 편입된 학습자이다. 곧 한국어 언어 사용 능력이 모국인과 다른 학습자들을 한국어

21) 과거에는 해외 거주 한국인을 교민, 교포, 해외동포, 재외한국인 등으로 혼용하였으나, 현재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계인을 통칭하여 ‘재외동포’로 통일하여 칭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시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민 2~3세 등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인계가 모두 포함된다. (류춘근 : 2002, 재외동포 교육 현황 및 정책방향,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직무교육, 국제교육진흥원, 13쪽 참조)

22)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를 위한 지원 사업”의 두 가지 부류를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해외에 일시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재외 한국인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며, 둘째는 해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동포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여 ‘재외동포 교육 지원 사업’이라 칭한다 (강현화 외 : 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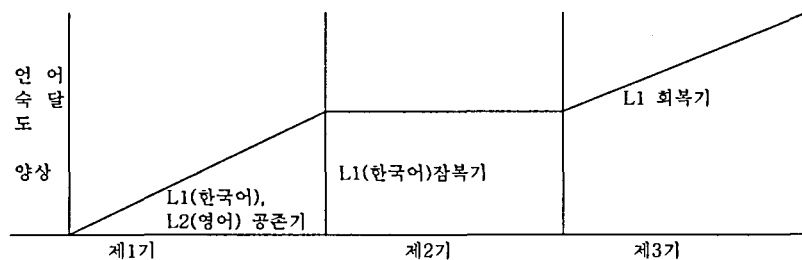
즉 재외 동포의 교육 지원 사업을 “단기 체류 동포”와 “영주권 동포”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민현식(2003)과 동일한 개념이라 여겨진다.

교육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민 동포”의 경우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한국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현지” 국민 수준과 같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 특히 재외 동포 1세대의 자녀들이 정규 한국어교육과정이 아니라 현지 국가 교육과정 체계 속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일반 외국인 수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한국어 교육을 “한글학교(주말학교)”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수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지 외국인과 다른 독특한 경험을 갖게 된다. 즉 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현지어를 함께 사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취학 이후에는, 제도권 교육을 받게 되면서, 학교나 기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현지어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된다. 이때에는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잠복기를 경험하게 된다.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재외동포 자녀들은 소수 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 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²³⁾

따라서 한국어교육과정 속에서의 구분은 “이민 동포”와 “임시 거주 동포”라는 분류보다는 “이민 동포 1세대”와 “이민 동포 2세대”로 그리고 “임시 거주 동포”라는 3차원의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한국어교육의 대상자는 “이민 동포 2세대” 또는 “정규 국내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자라고 그 대상을 정밀히 해야 한다.

3.2.2 다음에 교육 내용은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국어 교육에서는 국어과의 교육 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으로 구성하는 반면, 한국어 교육은 언어 사용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문법)의 경우는 동일하나 “문학” 대신에 “문화”영역이 반드시 포함된다.²⁴⁾ 문화 영역에는 “문학” 뿐만 아니라 한국인

23) 이에 대하여 원진숙(2001: 139쪽)에서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위의 책 7-18쪽 참조.

24)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영역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하여 백봉자(2004:75)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제2언어 학습자에게 문화는 언어만큼이나 습득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문화는 교실 학습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범위가 넓어서 체계적인 학습과 사회생활 속에서의 자연 습득이 병행되어야 한다. 제이언어 학습자가 새 문화를 접하면 충격을 받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때 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면서 새 문화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학습 과정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학습

의 가치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정치, 법률, 경제, 일반 문화, 역사”등의 국어과 영역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뜻한다. 물론 “학”으로서의 다른 교과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치, 경제, 법률, 역사, 문학, 지리 ” 등의 교과 내용이다. 이를 좀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화 영역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가 새 문화를 편안히 받아들여서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고, 언어 습득의 배경 지식으로 삼아 학습에 도움을 주게 되는지, 혹은 이를 흡수하지 못하고 불안감이나 적대감으로 부정적이 되는지에 따라 언어 습득에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학습자가 상대 문화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꼭 학습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습자의 태도는 목표어 습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언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을 내용에 포함시켜서 이문화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편으로 삼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은 교수법의 변천과 관계가 깊다. 구조주의에 바탕을 둔 청각구두 교수법에서 언어 교육은 문화를 배제한 언어적 능력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근래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문화는 사회 공동체의 산물이며 사고의 기반은 이 공동체들 사이의 상호작용, 즉 대화로 얻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문화는 언어 사용 요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언어 교수에서 문화의 이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재영 외(2006 : 한국어 교수법태학사 한국어 교육 총서 2, 문화관광부·한국어세계화재단)는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피력하고 있다.

첫째, 언어에는 그 언어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적 양식이나 관습이 반영되어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속에 담겨 있는 함축적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과 몇 분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이는 한국어의 경어법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우선 나보다 연장자인지 아닌지, 학교 동창인지 아닌지, 같은 고향 사람인지 아닌지 등을 알아야만 그에 맞는 합당한 호칭과 문장 어미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외국사람이라면 당황하거나 불쾌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한국의 문화를 알면 한국인으로부터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했느냐, 자녀가 몇 명이나 등과 같은 질문을 받고 불쾌해 하거나 한국인이 무례하다고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단 어떤 사람을 처음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언어적으로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를 정확히 알고 결정해야만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한국인은 새로 알게 된 사람을 오로지 공식적으로만 알고 싶지 않고 좀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화 중에 제삼자를 둘이서 서로 아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무척 반가워하며 금방 더 친근감을 느끼고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이 보통이다.(박영순, 2002:64) 또한 영어에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my mother’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미국인과 집단을 더 중시하는 한국인의 의식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 문화 교육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외국어를 학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화 충격을 경험한다. 문화 충격을 경험할 때, 학습자는 자기와 다른 문화를 ‘잘못된’ 또는 ‘이상한’ 것으로 과대 간소화해 버린다. 예를 들어 호칭을 생각해 보자. 영어에서는 ‘you’나 상대방 이름(first name)을 주로 사용하나, 한국어에서는 상대나 상황에 따라 ‘너, 자네, 당신, 선생, 오빠, 언니’등을 사용한다.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비친족에게도 친족 호칭을 직접 사용하는 관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은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것으로 느낀다. 또한 비격식적인 자리에서는 그 집의 어린이를 기준으로 “민호 할아버지”, “민호 어어니”와 같이 어린이 중심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친족 호칭의 은유적 사용법과 어린이 중심 호칭법은 한국어 개별성 중의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인들 간에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은 거의 금기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가 한국 문화를 빠르게 이해하도록 도와 문화 오해로 인해 한국어의 의사소통 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셋째, 문화를 통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화에 대한 주제는 목표 문화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동기를 더해 준다. 내적 동기는 외국어 학습의 강력한 자극제이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좁다는 것과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미래의 직업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어렵다는 점은 한국어 교육의 큰 약점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증대시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자극하는 것일 것이다.

5) 기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

가. 비교적 순수 전통 문화: 총 11개 항목

백의민족, 십장생, 한국의 전통적 미인, 숫자 4, 한국사람과 수, 주거형태(전통), 가마, 옛날의 일기예보, 태극기, 태극기/애국가/아리랑, 사물놀이...

나. 비교적 전통에 기반한 현대 일상 문화: 총 51개 항목

한국인의 이름, 가족 호칭, 돌과 회갑, 식사예절, 한국음식, 가족관계, 생활 속의 미신, 예의 바른 한국생활, 한국의 결혼, 백일/돌/환갑, 한복, 재미있는 의성어, 인사법, 사회위계와 호칭, 다양한 인사말, 낱짜쓰기, 한국인의 사적 질문, 음식 값 지불 방법, 한국인의 몸짓 언어, 한국집에 들어갈 때의 예절, 한글과 세종대왕, 태권도, 태권도, 한국의 기후, 한국지도와 관광지, 한국 소개, 서울시 역사 문화 관광, 한국의 시장, 한국의 공휴일, 서울의 박물관.....

다. 비교적 순수 현대 문화: 총 19개 항목

주부들의 주말, 바람맞다(맥락에 근거함), 한국인의 여가활동, 명함 교환, 휴일과 고속도로, 서비스 전화번호, 한국의 교육제도, 한국의 화폐, 근무 시간, 주거지 명칭과 표현방법, 주택의 종류, 서울, 서울의 지하철 체계, 한국의 주요 전화번호, 한국의 지하철, 신촌과 서강대, 버스전용차로, 한국의 주요 전화번호, 지하철 노선표(조항록 : 2000, 241-269 참조)

6) 제안된 문화 항목

가. 박영순(2002)

가) 정신 문화: 가치관, 민족성, 세계관, 정서, 상징체계, 사상, 종교 및 종교관

나) 언어 문화

(가) 언어학적 요소: 문자음운, 형태·통사, 의미, 경어법, 속담과 은유, 한국어의 독특한 표현들

(나) 문학적 요소: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다) 예술 문화

(가) 대중문화: 대중음악, 대중무용, 대중미술, 대중영화연극

(나) 고급문화: 고급음악, 고급무용, 고급미술, 고급영화연극

라) 생활 문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여가생활

마) 제도 문화: 법, 정치, 사회, 교육, 언론

바) 문화재

(가) 전통문화재: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나) 현대문화재: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사) 학문: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아) 산업기술: 농업·임업·수산업, 토목·건축 기술, 전자·전기 기술, 기계·조선·항공 기술, 섬유·제

지·출판 기술, 정보·통신 매체 기술, 화공·생명 환경 산업, 서비스업

나. 김정숙(1997)

가) 인사하기, 물건 사기, 감사 표현하기, 사과하기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 요소 교육

나) 속담, 관용 표현 등의 문화적 특질을 가지고 있는 언어적 요소 교육

다) 담화 범주와 상황에 적절한 언어 형식을 갖추어 표현할 수 있는 화법, 경어법 교육

라)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역사적 사건 및 기관, 지리학적 기념물 등의 정치 경제적 요소 교육

마)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과 예술에 대한 교육

다. 한재영 외(2006)

가) 한국의 언어문화

(가) 존대법, 겸양법: 화제, ‘-시-’, 각종 어휘적 높임말, 고정표현

(나) 가족, 친족 호칭어

(다) 화법: 격식체, 비격식체, 양태 어미 표현

(라) 이름 문화

(마) 외래어 수용 방식

나) 한국인의 일상생활

(가) 의식주

·의생활: 유행, 염색, 여름에 노출 양상, 한복

·식생활: 한국음식의 종류, 맛, 조리법, 주식, 명절음식

·주생활: 주거 형태, 침실 문화, 좌식 문화, 전세(의식주)

(나) 그 외 일상생활 양식

·교통: 차량, 서울의 교통 체증, 교통법규, 대중 교통 이용하기(서울 지하철, 버스요금 내는 방식, 통행 방식 등), 렌터카

·경제: 반도체, 자동차, 이동통신, IT산업, 야채 및 고기 구매 방식, 물건 값 깎기(재래 시장)

·한국의 의료비(의료 보험, 치과 이용)

·현대 한국인의 놀이 문화: 이차 삼차 문화, 노래방, PC방, 인터넷 문화(인터넷 동호회 활동 포함)

·기타: 휴대전화, 동창회(아이 러브 스쿨), 재수 삼수, 쓰레기 종량제, 파출부

다) 한국인의 인간관계

(가) 남녀 관계

(나) 노소관계

(다) 전반적인 인간관계의 특징

라) 한국인의 사고 방식 및 성격

(가) 정

- (나) 예절
- (다) '우리' 의식
- 마) 한국인의 예절(동작 언어 포함)
 - (가) 버스나 지하철의 경로석 양보 문화
 - (나) 어른과 술 마실 때
 - (다) 담배 피울 때
 - (라) 돈이나 물건을 건넬 때
 - (마) 식사할 때
 - (바) 어른 앞에 앉을 때
 - (사) 방문 예절
- 바) 한국인의 자연 및 관광지
 - (가) 설악산, 제주도, 경주, 울릉도, 강화도
 - (나) 민속촌, 남산 한옥마을, 안동 하회 마을
 - (다) 서울 및 각 지방 유적지
- 사) 한국의 문화 유산
 - (가) 한글,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고려 인삼, 탈춤, 백남준, 정경화, 정명훈, 조수미, 장영주(문화 관광부 선정 한국의 문화 상징)
- 아) 한국의 공공시설과 제도
 - (가) 관공서 업무 시간
 - (나) 은행, 약국, 병원, 도서관 이용하기
- 자) 숙박 시설물 소개와 이용 방법
 - (가) 하숙, 자취, 원룸, 오피스텔, 여관, 민박, 펜션 소개
 - (나) 호텔 이용하기(예약포함)
- 차) 터부
- 6) 등급별 문화 목표
- 가. 성기철(2006)
 - 가) 초급 목표
 - 한국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갖고 한국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 일상 생활에 관한 말과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 표정이나 제스처와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차이를 이해한다.
 - 문화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 한국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한국 문화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나) 중급의 목표
 - 한국어로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활용한다.

- 한국인들의 행동 양식과 의사소통 요령을 터득하여 일반적인 화제에 대하여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한다.
- 한국어의 언어 표현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한다.
- 한국어로 표현된 말이나 글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해한다.
- 한국의 사회제도와 풍습을 이해한다.

다) 고급의 목표

- 한국어로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한다.
- 일반적 주제 및 추상적 내용의 말이나 글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해한다.
- 문화 현상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한다.
-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적 특성을 바르게 소개한다.
- 상호문화적인 이해를 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다.

나. 한재영 외(2006)

가) 초급 단계

- (가) 한글의 제자 원리
- (나) 한국의 인사법
- (다) 한국식 이름 쓰기
- (라) 신체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
- (마) 가족 관계, 호칭
- (바) 언어 예절
- (사) 한국의 음식과 식사예절
- (아) 식당에서의 예절
- (자) 한국의 명절, 공휴일
- (차) 전화 예절
- (카) 초대하기
- (타) 수도 서울의 교통 체제, 계절
- (파) 화폐 단위
- (하) 한국의 지리

나) 중급 단계

- (가) 문화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
- (나) 예의범절
- (다) 속담, 관용어
- (라)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작품 소개
- (마) 한국 도시들의 특징

- (바) 한국의 대표적 유적지 소개
- (사) 한국의 대표적 영화
- (아) 만화
- (자) 신문, 잡지, 광고
- (차) 한국의 명절 풍습
- (카) 여가생활, 오락문화
- (타) 세대별 갈등
- (하) 생일문화

다) 고급 단계

- (가) 전통예술
- (나) 문화유산
- (다) 관혼상제
- (라) 풍자
- (마) 속담
- (바) 광고
- (사) 한국어의 변화
- (아) 방언의 차이
- (자) 한국의 음식문화
- (차) 한국의 가정
- (카) 충효사상
- (타) 가치관의 변화
- (하) 한국의 종교
- (거) 한국 현대사
- (너) 한국의 역사와 위인
- (더) 한국의 대표적 희곡 작품
- (러) 한국의 대표적인 시
- (머) 단군신화와 그리스신화의 비교

위의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5)의 “기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이 “한국 생활”과 “한국 사회”라는 학습 요소만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글에서 주장하는 “정치, 경제, 법률, 역사, 문학, 지리”등과 같은 영역들은 문화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이 교재들이 “한국어”이어서 “언어 사용 기능을 익히기 위한 수단(텍스트 주제)”으로서만 문화 영역을 기술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정치, 경제, 법률, 철학, 문학, 역사, 지리”등과 같은 요소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학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내포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²⁵⁾ 또한 6)의 “제

안된 문화 항목”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한재영 외(2006)에서 보면, 한국인의 “언어 문화, 일상 생활, 인간관계”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항목들이 주로 문화 영역의 학습 요소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엇볼 수 있다. 물론 “(사) 한국의 문화 유산”에서 보면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항목들이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주로 문화 유적지 차원의 내용으로서 “한국의 역사”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더욱이 “정치, 경제, 철학, 문학”과 같은 내용은 없다. 역시 (6나) “등급별 문화 목표”도 에서도 역시 “한국의 전통” 차원에서만,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즉, 초급 단계의 “(하) 한국의 지리”, 중급 단계의 “(바) 한국의 대표적 유적지 소개, (차) 한국의 명절 풍습”, 그리고 고급 단계의 “(가) 전통예술, (나) 문화 유산, (다) 관혼상제, (거) 한국 현대사, (너) 한국의 역사와 위인”와 같이 일부만 보이며, 그것도 “역사” 영역에만 치우쳐 있다. 이에 비해, 박영순(2002)에서는 “6-가-마), 6-가-사), 6-가-아)”에서 보듯이 “제도 문화(법, 정치, 사회, 교육, 언론)”, 학문(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응용과학) 그리고 산업기술(농업, 임업, 수산업, 토목·건축 기술 등)의 항목이 문화 학습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김정숙(1997)에서도 “6-나-나)에서 보듯이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치 경제적 요소”에 대한 교육을 문화 영역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정숙(1997)에서는 이러한 학습 요소를 전달하기 위한 소재로서 “역사적 사건 및 기관, 지리학적 기념물”로만 한정시켰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의 요지는 한국어교육과정에 문화 요소가 첫째, “언어 사용 기능” 영역만큼 교과목으로 하나의 “문화 영역”이 독립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둘째, 한국어교육과정 입안자가 “문화 영역”이 단순히 “사회”나 “역사” 측면에서의, “현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내용”과 “한국인들의 전통 생활 내용” 뿐만 아니라 “한국”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의 가치관— 정치, 경제, 법률, 문학”등을 문화 영역에 명시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내용도 역시 언어 사용 기능 영역처럼 “초급-중급-고급-심화”와 같이 등급별 체계가 만들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3.2.3 한편 국어와 한국어의 기술은 교육 능력의 궁극적인 도달 기준에서도 상호 차이를 가지고 있다.

- 7) 가. 교육 능력의 구체적 내용을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라고 하여 한국어 능력의 도달 기준을 유창성과 정확성에 두었다. 이는 유창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능력 중심 교육과 정확성을 목적으로 하는 문법 기반 교육을 모두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민현식 : 2003)

나. 한국어 구사와 함께 한국 이해라는 표현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여 한국어교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언어 사용자(국가와 민족 또는 그 문화)에 대한 이해라는 점을 보였다.

25) 국외 한국어과 설치 대학이 한국어 교육과가 아니라 대부분 한국학으로서, 여기에는 “정치, 경제, 법률, 철학, 문학, 역사”를 학문으로서 교과목을 채택하고 있다.

위 7)는 위 2)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 구체화한 내용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에 대한 “유창성과 정확성,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도 “유창성과 정확성, 그리고 문화”가 매우 중요한 도달 목적과 기능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8)에서 보듯이 학년 별로 올라갈수록 “국어 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8가),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8나),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태도(8다)”와 같이, 국어를 활용 도구로 하여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 그리고 창조”와 같은 “정의적 영역”의 신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8)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 상황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5]) 제1장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2 목표’ 참조.)

3.3 따라서 한국어교육과정은 2절에서 보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을 위 3.1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세부적인 교육 과정 개발 설계에 있어서는 특수화를 경험한다. 그 특수화는 일반적인 개발 과정 속에서 내용의 특수화와(교육 과정의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그 세부 항목의 내용이 바뀌는 것) 한국어교육과정만의 항목 설정이 그것이다(위 3.2의 문화 항목의 설정의 예가 이에 해당한다.)

3.4 요구 조사의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개발 절차는 우선 “요구분석 대상 집단 선정”과,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목의 설계”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목록화하는 것이다. 이후 그 결과를 다음 단계인 교육과정 계획에 반영한다. 이 때 요구조사 단계의 정보수집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와 같이 “설문조사, 자가진단, 면접법, 회의법, 관찰법, 언어 자료 수집법, 과제 분석, 사례 연구, 이용 가능한 정보 분석 등이 이용된다.

9) 요구조사 단계의 정보수집 유형²⁶⁾

정보수집 절차 유형	특징 및 장점	제한점 및 적용 예
---------------	---------	------------

26) 이 절차 유형은 Richards(2001:59-63)을 참고한 한국어세계화재단(2003, 예비 교사-현직 교사 교육용 교재 개발“ 최종보고서, 265-270)을 참조하였다.

설문조사 (Questionnaires)	-조사대상이 다수일 때 -분석하기 용이(도표화 등) -구조화된 유형/비구조화된 유형	-다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어 경우에 따 라서 후속조사(follow-up)가 필요함
자가진단 (Self-ratings)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언어능력을 평가 -설문조사의 일부로도 활용	-학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수집 된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음
면접법 (Interviews)	-소집단의 경우 유용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수집에 활용 -구조화된 면접의 결과는 신뢰도가 높음 -면대 면/전화면접	-시간이 오래 걸림 -대규모 대상에 적용하기 어려움
회의법 (Meetings)	-다량의 정보수집이 용이	-다소 주관적이고 느낌에 의존하는 정보수집의 우려가 있음 -교사대상의 조사에 활용
관찰법 (Observation)	-목표상황에서의 학습자 행동관찰 -관찰기술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됨	-대상 학습자들의 행동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언어자료수집법 (Collecting learner language sample)	-학습자들의 언어수행과정에서 얻을 수 있 는 언어자료를 수집함 -학습자 오류유형 수집에 활용	-쓰기, 말하기 과제 활동 에 수집 -simulation, 역할극 등에서의 언어 수행능력 기록, 수집 -성취도 평가, 숙달도 평가에 활용
과제분석 (Task analysis)	-직업적, 교육적 환경에서 학습자가 수행해 야 할 과제의 종류, 언어특성에 대한 평가 와 과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함	-특정목적 프로그램에서 활용
사례연구 (Case studies)	-상황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생집단 에게 그 상황을 경험하도록 함 -언어상황, 문제점 등을 일지로 기록	-다양한 자료로부터 얻은 자료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움
이용가능한 정보분석 (Analysis of available information)	-관련 서적, 기사, 보고서 등에서 얻을 수 있 는 정보수집	-요구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활용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 한국어 특수적인 “학습자”별 요구조사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황선영 외(2005:105-121) 참조). 아래의 교육과정 개발은 학습자가 “이주 여성”이며, 위
의 요구조사 방법 중 “면접”과 “설문 조사” 형식이다.

10) 가.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

상황	참여자 의견
물건 사기	· 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반찬거리, 살림살이 등을 산다. · 가격을 묻고, 원하는 것을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 가구나 전자제품 등과 같이 비교적 비싸고 큰 물건을 살 때는 남편과 같이 가 는 경우가 많다.
이웃과 대화	· 이웃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인사만 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이 웃과 자주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사람도 있다. · 한국어 실력이 늘 수도 있고, 한국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이웃과 친하게 지내 고 싶지만,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고 집안일이 바빠서 이웃과 이야기하기 가 어렵다.
공공 시설 이용	· 우체국, 은행, 읍사무소, 동사무소를 주로 이용한다. ·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어린 아이 취급을 받을 때가 있는데, 혼자 서도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서류 양식 쓰는 법을 배우고 싶다. · 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약국, 병원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사는 절차는 대부분 잘 알고 있다. ·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신의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의 사가 하는 말도 알아듣기 어려워 불안하다.
외국인상담소	· 외국인상담소를 이용해 본 사람도 없고, 그런 시설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

	· 혹시 나중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 아이 양육권에 대한 것 등의 법적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 싶다.
학교, 유치원	· 참여자 중 두 명이 학부모이다. · 모든 참여자가 한국의 학교생활과 교육제도에 관심이 많으며, 수업시간에 학교에서 선생님과 하는 대화, 한국의 교육과정 등에 대해 배우고 싶다.
직장	· 직장을 구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 · 수업 시간에 이력서 쓰기, 면접 때 하는 말을 배우고 싶다.
기타	· 필리핀 여성의 경우, 종교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 · 미용실에서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 ·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도록 한국 전래동화를 배우고 싶다.

나. 과제에 대한 요구

가) 참여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회화가 가능하게 된 이후에도 발음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발음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으며, 정규 수업 외에 발음을 증점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할 것이다.

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기술 중 참여자들이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은 듣기이며,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읽기와 쓰기라고 하였다. 이는 이주 여성이 모국에서 한국어를 거의 접하지 않고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부터 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활동도 필요하겠다.

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정확한 한국어를 사용하고 싶고, 부정확한 한국어를 사용하다보면 이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법항목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우선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교육 요소를 “한국 생활에 가능하고 필요한 상황”을 “물건 사기, 이웃과 대화, 공공시설이용, 약국, 병원, 외국인 상담소, 학교, 유치원 직장, 기타”로 세분화하여 이들이 희망하는 요구 사항(도달 목표)을 면접과 설문 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요구 조사 분석을 (8나)와 같이 하였다. 즉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말하기에서 참여자들의 “발음 수업”, 언어 사용 기능 중에서 “읽기와 쓰기”, 그리고 “문법 항목에 대한 공부”가 이들이 희망하는 교육 요소임을 분석 결과로 언급하였다.²⁷⁾ 한편 요구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학습자” 뿐만 아니라 교사(국내외 한국어 교사 및 교수 등), 국내외 교육 기관, 그리고 한국어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문화관광부, 교육부 및 각종 재단 등)에 대한 요구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에 대한 설문 조사의 사례를 강현화 외(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 연구”에서

27) 하지만 한국어교육과정을 명세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분석 결과보다 좀더 상세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말하기 교육에서 필요한 목표를 좀더 세분화하고 체계화하여,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일반 교육과정의 한국어교육과정으로의 특수화의 예를 살펴보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세부적인 사안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작성한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에 관한 설문지”를 들어 살펴보겠다.²⁸⁾

11) 가. 설문 작성의 의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 연구’를 기본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본격적인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 연구에 앞서, 현행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 및 재외동포 교육의 범위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각 설문에 대한 선생님의 응답 결과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개선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생략...

나. 일반 사항

[문1]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기입해 주십시오.

- __① 아시아() __② 북미()
__③ 남미() __④ 유럽()
__⑤ 기타()

[문2] 귀하께서는 어느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 __ ① 한국학교 __ ② 한글학교(토요/ 주말학교)
__ ③ 교육원 __ ④ 기타 :

다. 재외동포교육의 범위

[문7] 한국어 교육자의 입장에서 재외동포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__② 한국어 의사소통
__③ 한국 문화의 이해
__④ 한국(모국)과의 친선과 왕래
__⑤ 기타 :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답해 주세요.

28) 설문의 예를 살펴보기 때문에 설문 조사 항목 중 몇 가지는 생략하였다.

<현행 재외동포교육에 설치된 교과>

- ① 한국어
- ② 한국어 회화
- ③ 한국의 역사
- ④ 한국인의 생활Ⅰ(윤리, 민속, 예절)
- ⑤ 한국인의 생활Ⅱ(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 ⑥ 기타 문화자료(오디오 테이프 등)

[문9] 현행 재외동포교육의 범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예(☞[문11]로 가십시오.)

__② 아니오(☞[문10]으로 가십시오.)

[문10] [문9]에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현행 재외동포교육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할 교과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11] 현행 교과목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과목은?

- __① 한국어 __② 한국어 회화
 __③ 한국의 역사 __④ 한국인의 생활Ⅰ(윤리, 민속, 예절)
 __⑤ 한국인의 생활Ⅱ(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문12] 현행 재외동포교육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 __① 한국어 교육 __② 한국 역사 교육
 __③ 한국 문화 교육 __④ 한국의 풍속(관습) 교육
 __⑤ 기타 :

라. [한국의 역사] 교재에 관한 의견

[문13] ‘한국의 역사’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① 필요하다고 느낀다.
 __② 없어도 무방하다.
 __③ 없애고 다른 교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__④ 기타 :

[문15] 현행 ‘한국의 역사’의 교육 수준은?

- __① 무난하다 __② 너무 어렵다.
 __③ 흥미롭지 못하다. __④ 전체 구성이 단조롭다.
 __⑤ 재외동포에 맞는 특성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마. [한국어] 교재의 공급과 문제점

[문20] 『한국어』 교재에 대한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합니까?

- __① 없어도 무방하다
 __② 간혹 필요성을 느낀다

__③ 절실히 필요하다

__④ 기타 :

바. 한국어 교재의 개선 방향

[문22] 재외동포 학습자의 언어능력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말하기 __② 듣기 __③ 읽기

__④ 쓰기 __⑤ 어휘 __⑥ 문법

[문23] 한국어 교재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__① 풍부한 어휘 __② 체계적인 문법

__③ 다양한 학습 활동 __④ 기타 :

[문24] 한국어 교재의 현행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① 너무 어렵다. __② 무난하다.

__③ 너무 쉽다. __④ 기타 :

[문27] 한국어 교재 내용 중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__① 다양한 회화 __② 많은 학습 활동

__③ 읽기 자료 __④ 문형 연습 문제

__⑤ 기타 :

위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설문 조사의 목적과 대상”이 11가)에 표현되어 있다. 즉 “설문 조사의 목적”이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함이며, 대상이 “현지 한국어 교사”이다. 둘째, 조사의 일반 사항에 한국어 교사의 인적사항(“교육 지역(문1), 교육 기관(문2)”)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 있다. 셋째, 재외 동포 교육의 목적을 묻는 질문(문7,문8), 재외 동포의 정의에 대해 묻는 질문(문9), 재외 동포에게 필요한 교과목(문11)과, 학습 요소(문12, 문13, 문14)이 있다. 넷째, 한국어 교사용 지도서가 필요한가하는 질문(문20)이 기재되어 있다. 다섯째, 교재의 개선 방향을 묻는 영역에 재외동포의 언어 능력을 묻는 질문(문22), 교재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질문(문23), 현행 교재의 수준(문24), 그리고 추가될 교재 내용(문25)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11]부터 [문 27]까지의 내용이 재외동포 교재 개선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가. 현행 재외 동포 교육의 범위에서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과목

교과목	응답자 수	비율
게임	1	0.71
사회생활	1	0.71
상호이해	1	0.71
생활문화	1	0.71
수학	1	0.71
언어권, 문화권별 교재	1	0.71
역사사회	1	0.71
예절	1	0.71

재외동포의 역사	1	0.71
전통문화	2	1.43
정체성	1	0.71
주제별, 연령별 교과과정	1	0.71
특별활동	1	0.71
한국어, 한자, 한국역사	1	0.71
한국어문법	1	0.71
한국어의 깊이	1	0.71
한국역사	2	1.43
한국의 역사	1	0.71
한국의 현대문화	1	0.71
한국현대 대중문화 이해	1	0.71
한글의 개념 인식, 한국어 배운 후의 유용성	1	0.71
한민족의 이민사	1	0.71
한자	1	0.71
현대문화	1	0.71
회화교재	1	0.71

나. 현행 교과목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

구 분	한국어	한국어 회화	한국의 역사	한국인의 생활 I (윤리, 민속, 예절)	한국인의 생활 II (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계
비 율	5(6.1)	1(0.1)	13(15.9)	6(7.3)	41(50)	82(100)

다. 현행 재외 동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

구 분	한국어 교육	한국 역사 교육	한국 문화 교육	한국의 풍속 (관습) 교육	기타	계
비 율	101(63.9)	8(5.1)	30(19)	16(10.1)	3(1.9)	158(100)

위 12가)는 문 10, 12나)는 문 11, 그리고 12다)는 문12에 대한 분석이다. 즉 한국어 교사들이 생각하는 재외동포 추가 교과목으로서, 강현화 외(20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13) 12가)에 대한 견해

다양한 요구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교과목으로 개발되기보다, 교과목 내의 항목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작은 범위의 내용도 적지 않다. ...중략... 한국어 교재를 개선하고 개발하는 데 재외동포 교육의 현장에 있는 한국어 교사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만족도를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교과목 및 교육 내용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2나)에 대한 견해

현행 재외 동포 교육에서 다루어지는 교과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이 무엇인

지에 대한 한국어 교사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다. ‘한국인의 생활Ⅱ(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가 50%를 차지하여 대다수의 한국어 교사들이 이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역사’(15.9%)와 ‘한국인의 생활Ⅰ’(7.3%), ‘한국어’(6.1%)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어 교사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정체성을 재검토하고, 이 교과목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재 개발 기관과 한국어 교사들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Ⅱ’에 대해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다)에 대한 견해

현행 재외 동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수의 한국어 교사들(63.9%)은 ‘한국어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중략... 문화와 풍습(관습), 역사 교육 등도 중요하지만, 그 모두가 언어에 대한 습득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중시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위는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한국어 교사의 견해로서, 학습자들이 처해 있는 교육 환경을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밀줄 친 견해가 다음 교육 과정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조사는 지금까지는 주로 기관 현황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머무르거나²⁹⁾, 아니면, 그 기관의 대표자에게 면접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왔다.³⁰⁾ 일례로

29) 대부분이 교육 기관에 대한 조사는 대개 요구 조사 차원이 아니라, 기관 현황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기초 조사(한국어세계화재단, 2006)”가 대표적이다. 아래와 같이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 한국어 교육 기관”의 개설 과목, 이수 학점, 과목 개요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현황 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엄밀히 말하여 이는 요구 조사가 아니다. 요구 조사가 교육과정의 설계에 반영할 항목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기관의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

(1)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

가. 대학(원): 기관 특성 및 개요, 연도별 개설 과목, 이수 학점, 과목 개요, 과목별 담당 교수, 졸업생 현황(연도별 또는 학기별)

나. 교사 양성 과정: 기관 특성 및 개요, 기수별/연도별 개설 과목, 과목 시수, 담당 강사, 수강생 현황(기수별/연도별)

(2) 한국어 교육 기관

기관 특성 및 개요, 개설 프로그램, 개설 등급, 개설 반, 학습자 수, 강사 현황(기수별/학기별/연도별)

(3) 공통

가. 담당 교수(강사)의 전공, 학위, 논문

나. 졸업생, 수강생 명단 제출 시 식별자 명시(학번, 생년월일)

30) 예를 들어 김명광(2005)의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조사”에서 보면, 해당 기관의 대표자를 면접한 내용의 기록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에 바라고 싶은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정리된 답변 : ① 대부분의 교재가 서구 중심 곧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것이 많지만 몽골의 경우는 한국어만 쓰여 있는 교재 또는 한국어와 현지어가 병행되어 있는 교재가 더 일반적이며 편리하다. ...중략... 이 지역의 교사는 대부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므로 역시 ‘한국어’ 또는 ‘한국어+몽골어’ 표기로 되어 있는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 ② 한국의 문화 곧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등과 같은 자료가 없다. ...중략... 따라

그러나 학습자나 한국어 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 면접 이외에 설문 조사 형식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나 한국어 교육 정책이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요구 사항도 필요하다. 참고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되어 있거나, 지원하는 주요 기관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4) 교육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노동부, 법무부, 국립국어원,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글학회, 교육과정 평가원, 한국문화교류센터(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노동재단, 국제협력단, 국제교육진흥원, 산업인력공단.

위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교육부는 주로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시험과, 재외 동포의 교육 정책을 담당하며, 농림부와 여성부는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여한다. 문화관광부는 한국어 교육, 보급, 진흥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한다. 국립국어원은 교육능력검정 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한국어 자료 편찬 및 국외 한국어 보급,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담당)을 시행하며, 교육능력검정시험의 시행, 학문목적 한국어 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어 노동부는 현재 10개국에 이르는 고용허가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시험의 정책을 결정한다. 법무부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련된 한국어 시험과 관련이 있다. 국제노동재단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국제교류재단은 교수 파견과 한국어 지원 사업을 한다. 한국문화교류센터는 한국어 교육보다는 한국학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국제협력단은 국외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명광(2005,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조사,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참조.) 이처럼 한국어 교육과 관련되어 각 기관이 서로 차별화되는 한국어 교육 정책과 시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의 의견이 한국어 교육의 교육과정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3.5 교육 목적과 목표 설정의 단계에서도 보편적인 특징과 특수적인 사항이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였지만 교육 목적 및 목표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목적’이 가치 규범적인 반면 ‘목표’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형성수단이다. 따라서 교육목적(goals, aims)은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되지만 도달 목표(objectives)를 포함하기 때문에 ‘세부 목표’와 충돌해서는 안 된

서 이러한 자료 개발이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들 교재를 요약한 요약본이 필요하다. 요약본이라 함은 A4 30-40장 정도의 텍스트 자료(압축 자료)를 뜻한다. ...생략... ③ 현지에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중략...그래야만 국외에서 필요한 교사를 적절히 수급할 수 있다. ...생략... ④ 각 재단에서 저작권 없이 무료 보급할 수 있는 교보재가 있어야만 몽골과 같이 현지 사정이 열악한 국가에서 한국어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때의 무료 교보재단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나 파워포인트 자료와 같이 현지어로 번역이 가능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 ...생략... ⑤ 동영상 자료와 같은 시청각 자료도 가공 처리가 쉬워야 한다. ...중략...교사와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필요 부분만 발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교재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동영상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사들에게 교수-학습에 효율적으로 도움 줄 수 있어야 한다.

다. 한편 도달 목표(objectives)는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학습자가 도달하게 될 수준에 대한 특정 지식, 행동, 기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한국어교육과정의 목적도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을 따른다. 즉 위 2)의 (민현식(2003))에서 보듯이 “교육 받을 대상(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과 해외 교포)과 도달해야 할 수준(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을 이해함)”이 핵심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³¹⁾ 더불어 일반적인 총목적에는 하위 목적이 함께 기술되는 데, 이 하위 목적은 학습자와 그 교육 과정이 어느 사회 영역에 필요한지 등이 반영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틀 안에 한국어교육과정의 특수성- 대상이나 도달 목표의 특수화-가 포함되게 되는 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15) 가. 대상 :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나. 총목적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글말과 입말 차원의 기초적인 한국어를 구사하게 하여, 일상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문화”와 “예절”을 이해할 수 있다.

다. 도달 목표

- 가)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언어를 익혀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 나) 직장 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읽고 쓸 수 있다.
- 다) 기초적인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언어를 익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위와 같은 기술은 총목적보다는 구체화되었지만 개별 목표보다는 추상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9-다-나))의 경우 이것이 개별 목표 차원의 기술이 된다면, “공문, 작업일지, 안내문, 위험 표지판”등과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기술되어야 한다.

한편 목표 기술은 교육 과정 일반 사항인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Brown(1995) 참조)

16) 가. 목표는 학습 결과를 기술한다.

목표를 기술할 때, “...을 공부할 것이다” “...에 대해 배울 것이다” “학생들은 ...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한다. 그런 표현은 학습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과정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31) 하지만 이 글에서는 “도달해야 할 수준”에 “한국어 학습에 대한 활용 가치 기술”도 함께 기술되면, 학습자 및 교사에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게 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민현식(2003)의 경우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도달해야 할 수준이며, “이를 통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완된다면, “한국어 학습에 대한 가치 기술”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다.

나. 목표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목표는 목적을 분명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령, “학생은 호텔과 관광업계에서 쓰는 효과적인 업무 편지를 어떻게 쓰는지 학습할 것이다”라는 교육과정의 목표가 있을 때, 그 개별 목표가 “학생은 전화로 하는 간단한 질문을 이해하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와 같이 기술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의 목표가 “업무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이 “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전화하기”는 “말하기” 기술이기 때문이다.

다. 목표는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유용한 회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와 같은 기술에서 ‘유용한 회화 표현’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유용한’을 ‘인사할 때, 처음 이야기 시작하고 끝낼 때 필요한’과 같이 명확하게 써야 한다.

라. 목표는 실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는 하나의 과정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 시간이 60시간인데 목표가 “학생들은 모국인이 말하는 회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면, 실행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상 생활과 여가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간단한 한국어로 짧은 대화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와 같이 가능한 범위로 좁혀 목표를 기술해야 한다.

요약하면, 목표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학습결과를 기술해야 하며(학습결과 기술), 교육과정 목적과 부합해야 하며(목적과의 부합성),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면(목표기술의 명확성),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목표(실행가능성)를 기술하는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목표 기술은 이러한 목적을 특정 기간 동안 배워야 할 내용들을 영역 별로 기술하되, 구체적인 행동 목표가 반영되어야 한다. 곧 “할 수 있다”, “발음한다”, “몇 개의 어휘를 알고 쓸 수 있다”,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다”, 과 같이 수업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연세대 1급 말하기 학습 목표를 보면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행동 목표로 대체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7) 가. 자모 체계

- 한글의 자모체계와 맞춤법의 기본구조를 완전히 익혀 읽고 쓸 수 있다.
- 발음 능력 1급에서는 연음법칙이나 구개음화 등의 발음규칙 자체를 알기보다는 기초적 어휘나 짧은 문장의 반복 연습을 통해 음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익혀서 상황에 맞게 발음한다.

나. 어휘 문법 능력

- 교재의 빈도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된 어휘(701개)를 확장, 연습해서 1,000-1,200개 정도의 어휘를 안다.

- 기초문법요소(조사와 어미)를 이해하고 한국어의 구문구조를 파악하여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할 줄 안다.
- 의문문과 대답용 서술문 간의 변화규칙, 긍정과 부정, 주어+술어 또는 주어+목적어+서술어 형식의 기본적인 문형구조를 이해한다.

다. 의사소통 능력

- 물건 사기: 물건 값을 물어보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 날씨: 날씨에 관한 기본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 친구집 방문: 방문 시에 기본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
- 전화하기: 전화로 약속 정하기, 약속 취소, 전화를 잘못 건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구사한다.

라. 사회 문화적 능력

- 상황에 따른 표현: 회의나 뉴스와 같은 공식적 자리와 문어체로는 ‘-습니다’를 쓰고 일반적 대화 상황에서는 ‘-어요’를 구별해서 쓴다.

위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학습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도달 목표가 나와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8) 의사소통 능력

- 음식시키기 : 경우 식당에서 자주 쓰는 기초적 표현
- 교통상황에 적응 : 대중 교통 이용과 택시 타기, 길묻기 표현
- 사회 문화적 능력의 의식주 :밥과 국, 반찬을 주로 먹는다, 전형적 한국 음식 이름(냉면, 불고기, 인산차)

위 18)의 “음식 시키기나 교통 상황”의 경우, 학생들의 행동 목표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곧 “기초적 표현, 길묻기 표현”은 “기초적 표현을 할 수 있다, 길을 묻는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도달 목표가 기술되어야 한다. 사회 문화적 능력의 의식주의 경우는 “밥과 국, 반찬을 주로 먹는다”는 “밥과 국, 반찬에 대한 명칭을 알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와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 즉 “먹는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 목적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지 이를 통하여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3.6 다음에 “교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하기 단계”의 일반적인 원리와 한국어교육과정의 적용을 살펴보자. 우선 “내용 선정과 조직”의 일반적인 원리는 아래와 같다.

19) 교육과정 내용 선정의 기준

- 가. 내용의 타당성³²⁾
 - 나. 내용의 유용성³³⁾
 - 다. 학습 가능성³⁴⁾
- 20) 내용 조직의 원리
- 가. 계열성의 원리³⁵⁾
 - 나. 계속성의 원리³⁶⁾
 - 다. 범위(Scope)의 원리³⁷⁾
 - 라. 통합성의 원리³⁸⁾

이러한 일반적 교육과정의 원리에서 학습자와 한국어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 과정이 구축되어야 한다. 문법의 경우 계열성 원리를 적용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³⁹⁾

20) 한국어교육과정 조직의 방향

단계	교육과정 내용
----	---------

- 32) 교육목표에 맞는 내용을 선정하는 데 얼마나 본질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 33) 현실세계와의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학습의 측면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의 수단인 언어사용이 곧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이어야 한다. 이것은 학습자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이나 환경이 그의 기준이 될 것이다.
- 34) 교수자에게는 가르칠 수 있는 내용(teachability)이어야 하고 학습자에게는 학습이 가능한 내용(learnability)이어야 한다. 학습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학습자의 학력, 배경지식, 선수학습 등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 35) 이것은 교육과정의 내용이 제시되는 순서와 관련이 있다.
- 가. 간단한 내용에서 복잡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학습 항목의 제시 순서는 난이도에 따라 처음에는 쉬운 수준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수준으로 조직한다.
 - 나. 시간적 발생순으로
과정중심 쓰기의 경우 관련 주제 탐색→주제선정→쓰기→수정 및 편집 등의 순서로 설계된다.
 - 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부분에서 전체적 내용으로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
 - 라. 나선형 조직화
이것은 가르치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구성하는 원리이다.
 - 마. 친숙한 내용에서 친숙하지 않은 내용으로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과 관련시켜 나가도록 한다.
 - 바. 선수학습에 기초해서
먼저 가르친 학습 내용은 그 다음의 단계에서 진행할 때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 36) 학습자가 학습할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원리이다. 계속성의 원리는 계열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37) 교육과정 내용의 폭과 깊이와 관계가 있다.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넓혀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언어학습에서 각 수준의 내용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균형 있게 조직하느냐이다.
- 38) 통합성의 원리는 앞에 제시한 계속성의 원리와 상통하는 원리로서 언어교육에서는 언어기능별로 분리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 언어기능을 중심으로 각 기능간의 통합도 중요한 내용조직의 원리가 된다.
- 39) 김라연 외(2004), '한국어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및 조직에 관한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11-229쪽 참조.

1단계	1단계에서는 글자 깨치기, 글자 읽기, 소리 식별하기에서 시작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기능을 학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삼는다. 실제 상황에서의 듣기와 말하기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2단계	2단계에서는 읽기 영역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성인들이 읽기 재미있으면서도 쉬운, 그리고 생활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 글을 선정한다. 되도록 삽화를 많이 제시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와 같은 글을 읽으면서 기본 문형과 기본 단어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적인 읽기 연습을 통해 말할 내용을 풍부히 할 수 있다.
3단계	3단계에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글을 중점적으로 읽게 된다. 편지, 읽기, 광고, 간단한 설명문이 제시된다. 이 단계에서는 내용 파악하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3단계부터 6단계까지는 각 단원을 읽기→말하기, 듣기→쓰기의 활동 순으로 구성한다.
4단계	4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언어 기능의 학습을 하게 된다. 각 영역별 기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 단계부터는 문법에 대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5단계	4단계에서 진행된 언어 기능의 학습을 좀더 정착화시킬 수 있는 연습을 이어나간다. 각각의 말하기 상황에서 준비하여 말하는 연습, 주제를 가지고 직접 글을 써보는 활동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된다. 문법에 대한 학습과 문화에 대한 학습의 비중도 함께 높아진다.
6단계	한 편의 글을 읽고, 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을 써보는 활동을 구성한다. 학습 내용의 폭과 깊이가 한층 심화되는 단계이다.

위는 문법을 계열성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곧 한국어 문법 요소를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1단계와 2단계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형과 문장 구조,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꼭 필요한 문법만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문법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의점이 제시되어 있다. 대신, 3단계 이상에서는 한국어 표준 문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한국어 문법 용어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에 학습자들은 1단계와 2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한국어 문형에 익숙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학습이 좀 더 용이하도록 하여 계열 관계(간단한 내용에서 복잡한 것으로)를 중요시하고 있다.

1.2.7 다음에 교재 개발의 단계에서도 일반적인 교육과정 상황과 한국어로서의 교육과정의 적용이 시도되어야 한다. 김선정 외(1999)의 교재 구성의 일반적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언어 교재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원칙

가. 자극성(stimulus)⁴⁰⁾

40) 학습자에게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교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양면이 고려되어 있

- 나. 흥미성(interestingness)⁴¹⁾
- 다. 적합성(appropriateness)⁴²⁾
- 라. 명확성(clariness)⁴³⁾
- 마. 의사소통성(communicability)⁴⁴⁾
- 바. 효율성(efficiency)⁴⁵⁾

22) 교재 분석의 원리

- 가. 난이도가 잘 조절되어 있는가⁴⁶⁾
- 나. 연습 문제가 흥미롭게 짜여져 있는가⁴⁷⁾
- 다. 단원과 단원 사이의 연계성이 좋은가⁴⁸⁾

어야 한다. 언어적으로는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문화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좋은 교재가 될 수 없다. 거꾸로 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언어 교재는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된 교재라야 한다.

- 41) 학습자의 지적 수준과 시대적 화제에 관계되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현실과 부합되는 신빙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의 대중 매체나 신문, 잡지, 영화,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실과 거리가 먼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거나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줄 수 없다.
- 42) 학습자의 자아 성장이나 자아실현을 위하고 사회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와 학습대상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관한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교재에 포함된 어휘나 언어 형태 등 언어적인 적합성도 요구된다.
- 43) 교사나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고, 애매모호하지 않은 교재라야 한다. 전달될 내용이 분명하고, 교육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교재라야 한다.
- 44)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짜여진 교재라야 한다. 최근의 언어 교육은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어의 정확성(accuracy)보다는 유창성(fluency)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45) 수업의 준비 단계에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비싼 교재나 복잡하게 구성된 교재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없다. 또한 교사가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교수 방법의 적용에 무리가 없는 교재라야 한다.
- 46) 비교적 쉬운 내용은 앞에서 다루어지고, 좀 더 어려운 내용은 뒤에서 다루어져야 교사와 학습자 모두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아주 기초 단계에 있는 학습자가 사용하는 교재에 “반갑습니다”라는 말 대신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고 하자. ‘-하니다’라는 기본적인 문법 요소를 배우지 않고, ‘쎄’부터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재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없다. 좋은 교재란 난이도가 잘 조절되어 있어 학습자가 어려움 없이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일 것이다.
- 47) 연습 문제는 교사가 수업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끌 수 있도록 새롭게 짜여진 것이라야 한다. 비교적 오래 전에 발간된 책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복적인 문형 연습만으로 이루어진 연습문제는 학습자의 관심을 끌 수 없다. 물론 문형 연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틀에 박혀 있는 듯한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연습문제에서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마치 게임이나 퀴즈를 하는 듯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잘 짜여진 연습문제를 담고 있는 교재를 선택하면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갖가지 학습 활동을 연습문제에서 다루어 주는 교재야말로 훌륭한 교재일 것이다.
- 48) 단원과 단원 사이의 연계성은 내용 면으로나 문법 요소 면으로 모두 파악해 보아야 한다. 교재를 관찰하다 보면 가끔씩 주인공의 직업이 아무런 애기 없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법 요소를 설명할 때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자고 해놓고는 뒤에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 책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수는 교재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눈에 띄지만 학습 활동의 질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무시해

다. 시간 배당이 적절히 되어 있는가⁴⁹⁾

교재 구성의 이러한 원리의 한국어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 교재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1(김명광 : 2005)”⁵⁰⁾의 차례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23) 차례

한글 익히기 (Korean Alphabet)
자기소개 (Self-Introduction)
가족(Family)
물건 사기(Shopping)
시간(Time)
길 찾기(Finding way)
교통(Transportation)
직장 생활(At work)
약속(Promise)
건강(Health)
한국 음식(Korean dishes)
단어집(Vocabulary)
문법 학습(Grammar)

위 교재와 교재 구성의 일반적 원리를 관련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에게 지적 자극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자극성의 원리), 문화적인 면을 각 단원에 배치하였다. 예를 들면 제3장 물건 사기의 문화 소개를 보면 아래와 같다.

24) 문화 소개

버릴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실수들이 그 책에 들어진 노력이나 애정의 부족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9) 시간 배당이 적절히 되어 있는 교재는 교사의 수업 진행을 돕는다. 대부분의 언어 수업이 일정 기간(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에는 같은 틀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재의 시간 배당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교사가 힘들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과는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여 수업에 필요한 시간이 30분이면 충분하고, 또 어떤 과는 한 시간을 갖고도 모자라는 책이 있다면 이 교재는 좋은 교재일 수 없다. 다른 과와 비교하여 내용이나 문법 사항 등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면 연습문제에서 시간을 조절함으로 학습자와 교사를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는 교사로 하여금 수업 준비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조 교재를 제작하는데 드는 시간적·금전적 노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50) 이 교재는 국내에 취업을 이미 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초급 수준의 교재이다.

■ 문화 (Culture) : Korean currency

'원(Won)' is the Korean currency. Korean money has coins for 10원, 50원, 100원 and 500원, and Bills for 1,000, 5,000 and 10,000원.



다음에 이 교재는 학습자의 흥미를 주기 위해(흥미성의 원리) 이 교재가 주로 사용되는 안산 지역을 교재 내용으로 담았으며, 이 지역의 지역 공동체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실제적인 한국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교통 지도와 같은 안내도 학습을 수록하였다.

25) 제5장 길찾기

왼쪽으로 가면 시청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원곡동입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초지동입니다.

우리는 원곡동에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안산 회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선 앞으로 100 미터를 가세요.

사거리가 보입니다.

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50 미터쯤 가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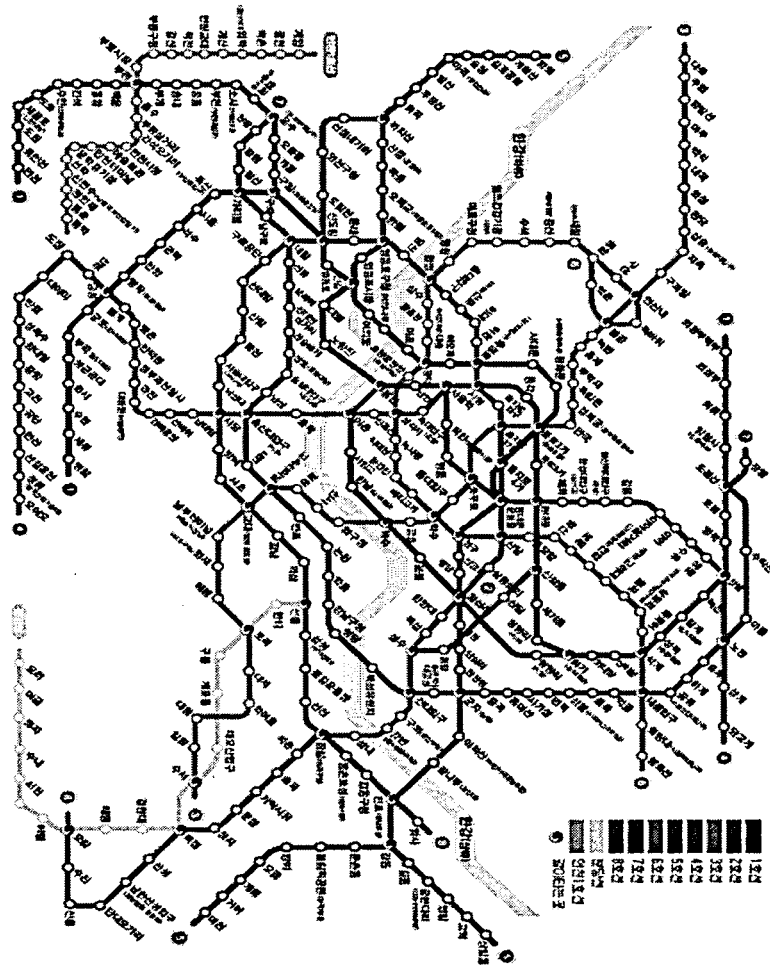
여기서 조금 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 지역 소개)

26) 우리 가족은 일요일에 외국인 모임에 갑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

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므로 매우 많은 정보를 교환합니다. 한국 생활, 한국 직장,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봉사 활동도 합니다. 청소도 하고 집도 수리합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 운동도 합니다. 운동은 주로 축구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즐겁고 유익한 하루를 보냅니다.(지역 커뮤니티 소개)

27) 전철 지도



(교통 편 소개)

셋째, 교재에 포함된 어휘는 근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과 관련된 어휘를 선택하였다.(적합성의 원리) 예를 들어 제2과를 보면 어휘 학습에 “노동자, 회사원, 사장, 공장장, 직원” 등과 같은 직업과 관련된 어휘를 학습하게 하였다.

넷째, 이 교재는 교육 목표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1”이라는 제목에서도 암시하듯이 교육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명확성의 원리), 각 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도움을 줄 학습 소재를 선택하였다.

28) 이력서

	이 력 서		
	성 명	②	여 권 번 호
	-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시 ○○동 ○○번지		
연락처	휴대전화 :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고
	○○ 학교 입학		
	○○ 학교 졸업(전공 :)		
	○○ 회사 근무(분야 :)		

이 교재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주 교재 내용에 대화 구문을 넣었으며, 실제 외국인들이 당면한 과제 ” 곧 직장 생활에서 쓰이는 여러 상황“을 재연하였다.

29) 제7과 직장생활

A: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B: 부품을 조립합니다.

A: 전임제 일자리에요, 아니면 시간제 일자리에요?

B: 물론 전임제 일자리에요.

A: 새로 나가는 직장이 마음에 들어요?

B: 마음에 들어요. 무엇보다도 월급을 많이 주고, 직장 동료들도 잘 대해 줍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심야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게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교재는 교재 분석의 원리에서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난이도 조절에서 문제가 있다. 위 29)에서 보듯이 초급에서 요구하는 단어 수준(1,000-2,000개 어휘 수준)에서 벗어난 단어들(부품, 조립, 전임제, 시간제, 직장 동료, 심야 근무)이 수록되어 있다. 시간 배당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학습하기에 무리가 있다. 총300쪽이 넘는 분량과 각 단원에서 세 가지 과제 학습이 주어지는 데, 외국인 근로자가 평균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야간에서 수업 받는 학습자들이라는 점을 염두 해 볼 때, 총 200쪽이 넘는 분량과 각 단원에서 세 가지 과제 학습이 주어지며, 문화 학습, 문법 학습, 어휘 학습을 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은 “시간 배당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 물론 단원들이 기초적 학습 -> 나 -> 가족 소개 -> 일상 생

활 -> 직장 생활“등과 같이 단원과 단원 사이의 계기적 연결성을 시도하였다는 점, 연습 문제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점(연습 문제의 흥미성)은 교재 구성의 원리에 맞지 않나 추측된다.

3.8 평가의 단계에서 보면 일반적인 교육과정 원리는 다음과 같다.(한국어세계화재단 : 2003, 316-327쪽 참조)

30) 평가 도구

가. 타당도(validity)

타당도는 평가도구가 본래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⁵¹⁾, 구인 타당도(construct validity)⁵²⁾, 예언 타당도(predictive validity)⁵³⁾, 공인 타당도(concurrent validity)⁵⁴⁾ 등이 있다.

나. 신뢰도(reliability)

신뢰도란 어떤 측정 도구의 측정상의 정확성 또는 일관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타당도가 ‘무엇’을 측정하느냐에 관련된 개념이라면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관련된 개념이다. 신뢰도 산출을 위한 방법에는 재검사신뢰도(retest reliability)⁵⁵⁾, 동형검사신뢰도(equivalent-form or alternate-form reliability)⁵⁶⁾, 내적일관도(internal consistency)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⁵⁷⁾

-
- 51) 특정 기능이나 학습된 특정 내용의 습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나 학습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것을 기초로 측정하려는 문항은 그 요소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한다.
- 52) 구인 타당도는 평가의 이론적 타당성을 의미한다. 즉, 구인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의 구성요인을 얼마나 충실히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경험적으로 측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구인 타당도 검증에는 일반적인 실험연구의 절차들이 적용된다. 구인을 구명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실증하고 실증된 결과를 해석하는 절차이다.
- 53) 예언 타당도는 그 검사가 미래의 행동을 어느 정도나 예언해 주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되는 준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행동특성이다. 그 검사도구가 검사 받는 사람들의 미래 행동이나 특성을 어느 정도나 정확히 예언해 주느냐 하는 예언의 효율성, 능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언어적성검사 점수가 높은 학습자가 언어학습 성취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면 그 언어적성검사는 예언 타당도가 높은 검사도구가 될 것이다.
- 54) 그 검사가 어떤 특정준거와 현재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어느 정도나 공통된 요인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능력 수준을 요구하는 데에 한국어능력시험(Korean Proficiency Test, KPT) 점수로 대신할 경우 그것은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인 타당도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 55) 재검사신뢰도는 한 가지 측정도구를 동일 대상 집단에 두 번 실시한 다음 첫 번째 점수와 두 번째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얻는 신뢰도이다. 즉, 그 측정도구가 얼마나 안정성 있게 측정하느냐를 나타내 주므로 안정성계수(coefficient of stability), 피험자신뢰도(examinee reliability)라고도 한다.
- 56) 동형검사신뢰도는 사전에 두 개의 똑같은 동형검사를 제작하여 동일 피험자에게 실시한 후 두 검사에서 나타난 점수사이의 상관계수를 산출해서 얻는 신뢰도이다. 여기서 얻는 상관계수를 등가계수(coefficient of equivalence), 도구안정성(instrument stability)라고도 한다.
- 57) 내적 일관도를 산출하는 방법은 각각을 독립된 검사로 간주하고 따로 따로 실시한 후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 즉 동질성계수(coefficient of homogeneity)로 나타내는 반분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와 각 문항을 독립된 검사로 간주하고 각 문항간의 합치 정도, 일관성을 분석하는 Kuder-Richardson의 문항내적일치도(inter-item

31) 평가 목적별 방법

가. 성취도 평가

특정한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학습한 것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정한 교육목표, 학습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가의 정도를 측정하여 교수의 효율성, 학습효과 등을 측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나. 숙달도 평가

숙달도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 축적의 결과로서 현재 행할 수 있는 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언어숙달도 평가의 제작에 있어서 평가의 내용은 어느 특정 교육기관에서 학습된 교육내용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평가결과를 활용하게 될 언어상황에 따른 언어능력수준에 관한 것이다. 영어의 경우, TOEFL, TOEIC과 같은 유형을 들 수 있다.

다. 언어적성검사

적성검사는 현재까지 학습자의 발달된 언어학습에 관련된 능력을 측정하고 앞으로 새로운 언어 학습과정에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고자 하는 평가유형이다. 성취도 검사나 적성 검사의 차이는 성취도 검사는 최종적인 수행을 측정한다면 적성검사는 앞으로 일어날 수행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언어 학습과 관련해서는 언어학습 혹은 제2언어 학습에 얼마나 잠재적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측정하는 평가유형이다.

32) 교육과정 단계별 평가 방법

가. 진단평가(diagnostic evaluation)

교수·학습이 시작되기 전 교수·학습을 준비하거나 교수·학습을 처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보를 수집, 분석, 기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평가이다.

나.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평가는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 프로그램개발 과정(process)의 한 부분으로서 수행되는 평가이다. 이것은 진행 중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다.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

총괄평가는 교수·학습이 종결되는 시점에 교수·학습의 효율성, 교육과정의 효율성 등을 총체적으로 측정 평가하는 것이다. 총괄평가의 목적은 성취를 확인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형성평가가 학습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총괄평가는 학습자가 얼마나 '변화했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33) 언어평가도구

consistency)이다.

가. 시험

제도적으로 마련된 시험(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시험)과, 학생 기록이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assessment)와 같은 정보 수집 차원의 시험이 있다.

나. 비교분석

한 교육과정을 두 가지 유형의 방법으로 가르쳐서, 학생 성취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다양한 교수조건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분석은 두 개의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인데, 두 개의 다른 교수 방법의 상대적 효과를 비교한다.

다. 인터뷰

교사와 학생의 인터뷰는 코스 혹은 과정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생각을 수집하는 것으로 특정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 설문지법

특정 항목에 대한 질문을 작성하여, 교사와 학습자의 생각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마. 교사의 서면 평가(written evaluation)

교사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모든 측면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는 구조화된 피드백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바. 일기(diary, journal)

교사가 받은 인상과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교사가 한 일, 부딪힌 문제들, 결정적 사건들, 시간 배분, 다른 문제들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처럼 서술할 수 있다.

사. 교사의 기록

가르친 수업 평가, 사용한 교재, 출석, 학생 성적, 시간배분과 같은 것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아. 학생일지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일어난 일, 다양한 과제를 하는데 보낸 시간, 교실 밖 활동이나 숙제에 할애한 시간을 기록한 것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자. 사례연구

한 명의 교사가 수업의 특정 측면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특정한 수업을 어떻게 교안을 사용했는지 문서화하거나, 특정 학습자의 학습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차. 학생의 평가

학생은 한 교육과정이 끝나거나, 진행되고 있을 때, 서면 및 구두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카.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수업을 녹음, 녹화하면서 다양한 교수 양식과 수업 형식의 타당도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다. 관찰

관찰자에게 특정 과제를 주거나 관찰자에게 점검표나 평정척도(rating scale) 등을 사용하여,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하여 관찰을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4) 의사소통 능력 평가

가. 문법적 능력 평가 (한국어 문법 평가)

나. 담화적 능력 평가

다. 사회 언어학적 능력 평가

라. 전략적 능력 평가⁵⁸⁾

35) 언어 영역별 평가

가. 듣기 평가

나. 말하기 평가

다. 읽기 평가

라. 쓰기 평가

마. 문법 평가

사. 문화 평가⁵⁹⁾

위의 30) - 35)까지의 “평가 목적별 방법, 교육과정 단계별 평가 방법, 언어 평가 도구, 의사소통 능력 평가, 언어 영역별 평가”는 일반적인 교육과정의 평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평가 방법이다. 이 때 이러한 방법을 한국어교육과정 안에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숙달도 평가(평가

58) Canale과 Swain(1980)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범주를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문법적 능력’과 ‘담화적 능력’은 언어 체계의 사용에 대한 것이고, ‘사회언어학적 능력’과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적 양상에 관련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anale과 Swain의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

문법적 능력 (grammatical competence)	어휘에 대한 지식과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sentence- grammar semantics), 음운론적 규칙에 관한 지식을 포함하는 의사소통능력(Canale과 Swain,1980: 29). 즉 어휘, 발음, 규칙, 철자법, 단어형성, 문장구조 등의 언어학적 기호를 정확히 사용 하여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을 생성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담화적 능력 (discourse competence)	여러 측면으로 문법적 능력을 보충해주는 능력. 형태적인 응집성(cohesion)과 내용상의 일관성(coherence)을 이루기 위해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능력. 문법적 능력이 문장 단위의 문법을 다루는 것이라면, 담화적 능력은 문장 사이의 상호 관계와 연관된 것이다.
사회언어학적 능력 (sociolinguistic competence)	언어와 담화의 사회 문화적 규칙에 관한 지식으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로, 사회적 상황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맡은 역할, 이들이 공유하는 정보, 이들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을 말한다.
전략적 능력 (strategic competence)	언어 수행상의 변인이나 불완전한 언어 능력 때문에 의사소통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 → 의역하기, 우회적 화법, 반복, 머뭇거림, 회피, 추측 등을 사용하여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59) 문화 평가 항목은 기존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앞에서 언어사용기능 영역과, 문법 영역이외에 한국어 교육 영역에는 문화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문화 평가도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목적별 방법), 총괄 평가(교육과정 단계별 평가 방법), 지필 시험(언어 평가 도구), 사회 언어학적 능력 평가(의사소통 능력 평가), 언어 영역 별 평가의 예에 해당하는 평가 목표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는 “남명호 외(2000, 등급기준 조정 및 문제은행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0-12쪽)을 참조하였다.

36) 등급별 기술

구분	사회문화적 요구	언 어 능 력	
1급	이질적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접촉 의지와, 주변 한국인들의 최소한의 도움 아래, 개인 영역에서 기본적인 사회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의 활동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기본 학습목표	한글 자모 순서, 한글 맞춤법의 기본 구조, 질문과 응답을 구성하는 문법 사항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아직 익숙하지는 못해도) 이해는 해야 한다. 기본적인 인사와 기본적인 문형과 기본 어휘 1,000 단어 정도(빈도, 난이도, 중요도를 감안)를 가지고 단문 중심의 특히 빈도가 높은 관용적 표현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간언어 단계를 폭넓게 인정한다.
		어휘	기본적인 인칭 및 지시 대명사, 수사(1-100), 고빈도의 명사 및 용언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문장	인사말, 의문문과 응답용 서술문 간의 변화 규칙, 최소한의 긍정과 부정, 기초 수량 표현, 주어+술어, 혹은 주어+목적어+서술어 형식의 기본 문형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발음	모음 ‘어’와 ‘으’, 그리고 ‘의’를 느리더라도 정확히 조음할 수 있다.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차이를 인지하고 문장의 억양도 구별한다.
2급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을 별 무리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 영역에서는 아직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는 있지만 아직 충분히 익히지는 못한 상태이다.	기본 학습목표	기초적인 한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 음절식 읽기에는 숙달되어야 한다. 기본어휘 1,500~3,000 단어 정도의 문장을 이해하며,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이다. 중간언어 단계를 약간 인정한다.
		어휘	기본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휘, 특히 각종 상품명, 기본적인 고유명사, 자신의 전문분야의 기본 어휘를 습득한 상태이고, 기본적인 변칙 활용 용언을 이해한다.
		문장	단문의 대등적 연결, wh-question에 대한 간결한 답변, 격조사의 익숙한 사용, 부정의문문의 원리에 숙달해 있다. 길고 짧은 부정형에 다 익숙하다.
		발음	된소리와 유성음을 잘 구별하고, 모음조화와 자음접변에 익숙하다. 두음법칙을 이해한다.

구분	사회문화적 요구	언 어 능 력	
3급	한국 사회에서의 단순한 일상생활에서는 언어적으로 큰 불편이 별로 없다. 모르는 사항은 스스로 물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다. 아직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나 문학 감상, 혹은 학술 교육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 갓 온 자국민에게 각종 조언과 안내가 가능하다.	기본 학습목표	평이한 한국어를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 일상생활의 언어활동에서 빈번히 듣는 말이나 평이한 문장을 천천히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짧은 문장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의사전달이 가능하며, 웬만한 일상 회화에 불편이 없는 정도이다. 일부 통속어를 이해한다.
		어휘	일상생활에서의 어휘에는 불편함이 없다. 모르는 단어는 설명을 통해 이해 가능(추상적 의미가 아니면)하다. 중요 시사어휘를 이해한다.
		문장	중속적 연결문, 빈도 높은 변칙 용언 등을 숙지하고 있다. 용언에서 부사형을 익숙하게 만든다. 기본적인 피사동 변형이 가능하다.
		발음	두음법칙에 익숙하다. 기본 음운과 대부분의 형태음운적 변동 규칙을 숙지하고 있다. 문장 전반의 억양은 아직 고르지 못하다.
4급	혼자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거나 자신의 이해 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 직장에서 한국인들과 공동 근무는 가능하다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아직 적잖은 도움이 필요하다.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토론이나 집회에 참여가 가능하다.	기본 학습목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한 문제 처리도 가능하다.
		어휘	일상적 어휘는 충분히 숙달하였다. 그러나 추상적 어휘는 생활과 전문 영역 주변에서만 가능하다. 부분적으로 한자 사용 및 이해가 가능하고, 까다로운 변칙 용언도 잘 사용한다.
		문장	드문 말이 아니면 사실상 모든 피사동 변형이 가능하다. 비유와 숙어적 용법이 아니라면 일반 문장 구조를 대부분 이해한다. 감탄문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한다.
		발음	천천히 발음하면 한국어 억양 재생이 가능하다.

구분	사회문화적 요구	언 어 능 력	
5급	사실상 한국에서 기본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 매우 복잡한 논쟁이 아니라면 대학 강의 수강도 가능하다.	기본 학습목표	일상생활이나 직업상의 용무를 보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접할 수 있는 공공 텍스트(신문기사, 설명문, 서간 등)나 텔레비전, 라디오의 뉴스, 평이한 해설 등의 시사 문제들을 이해하며, 일상 언어 활동에 있어서 불편없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며, 통속어를 상당 수준 이해한다.
		어휘	빈도가 높은 추상적인 어휘는 이해한다. 그 밖의 추상적인 어휘도 설명을 통해 이해 가능하다.
		문장	빠른 발화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문장 구조 이해, 문장 구조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거나 새로운 문형을 이해한다.
		발음	한국인들의 보통 빠르기의 발화를 알아듣고 이에 대응한다.
6급	사실상 이 이상 학습 과정을 통해 배울 필요는 없는 정도이다. 스스로 알아보고, 물어보고, 참고 서적이거나 기타 정보를 이용하여 자율적 발전이 가능하다. 단,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면 한국 고전, 방언 등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기본 학습목표	사회생활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이해하며, 고도의(현대사회의 일반적 상식 범위 내의) 내용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 수준 높은 문장(신문, 잡지, 교양서, 문예 작품 등)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강연 등의 시사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장이나 말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며, 토의,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다. 자주 쓰이는 한자에 독음을 달 수 있다.
		어휘	대부분의 일상적 어휘와 전문적 어휘를 구사한다. 그 밖의 어휘도 문맥에 의지하거나 사전을 능숙하게 이용하여 해결한다.
		문장	괴팍한 표현이나 지나치게 빠른 말이 아니면 사실상 거의 다 이해한다.
		발음	정상적인 발화에서 발음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

위의 예는 Canale과 Swain(1980)의 의사소통 능력의 4가지와 꼭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대체로 의사소통이라는 기능적 양상에 사회문화적 영역이 포함된다. 그리고 언어 능력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능 영역별 구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어휘, 문장, 발음이라는 언어적 구성 요소별로 평가 목표를 기술하였다. 아울러 이 시험은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난 후 평가하는 총괄 평가이다. 그리고 이는 일정 기간 학습의 기간을 정해두고 이루어진 총괄 평가의 개념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 축적의 결과로서 현재 행할 수 있는 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므로 숙달도 평가에 해당한다. 더불어 언어 평가 도구로서는 “지필 시험 평가”에 해당하며, 이 시험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평가에 해당한다.

IV.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개발 과정

4.1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개발 측면에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이란 국내외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학습자(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 또는 정규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재외 동포)에게 효과적으로 투영하기 위한 표준 편성 지침이다. 이 표준 편성 지침에 설치될 필수 사항은 첫째, 한국어 교육 항목이 설계도에 투영되어야 하며 둘째, 이 설치된 항목들 간의 연결이 설계도면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위계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셋째, 해당 한국어 교육 항목들은 한국어 교육 환경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적 이론, 방법, 기술 등이 설계도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필수 설치 항목(시안)은 아래와 같다.

1) 필수 설치 항목

- 가. 대상
- 나. 목적
- 다. 목표
- 라. 수업 시수
- 바. 교과목
 - 언어 사용 기능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과 문화
- 아. 평가

다음에 교육과정 체계(시안)는 아래와 같다.

2) 체계

- 가. 목적
 - 한국어 교육의 일반적 목적
 - 각 영역별 일반적 목적
- 나. 목표
 - 통합 목표
 - 영역별 목표
- 다. 교육 내용
 - 영역별 교육 요소
 - 영역별 세부 교육 내용
- 라. 교육 방안
 - 교수·학습 지침
 - 교수·학습 방법

- 교수·학습 자료

바. 평가

- 평가 지침
- 평가 목표
- 평가 내용
- 평가 방법
- 평가 결과 활용

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왜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이 구축되어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과 표준화의 개념을 살펴본다. 2장에서에 변인을 고려한 필수 항목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명하며, 3장에서는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체계 구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살펴본 후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4.2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학습을 시행하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 관련자들이,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데 참조될 수 있는 표준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데에는 국내외 해당 기관의 교육 환경, 해당 기관이 속한 국가에서 요구하는 교육 체계, 교과목, 교육 시수, 그리고 교과 목표, 평가 방법 등 다양한 사고가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이 때, 참조할 수 있는 교육과정 없이 개별 기관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작업은 첫째, 규범적인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설계하는 것보다, 인적, 경제적 및 시간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수적으로 따르며, 둘째, 예상되는 교육과정이 해당 기관에만 사용되는 개별 특수적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염려가 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국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려는 한국어 교육 관련자들이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참조하여 해당 현지 교육 환경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방법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3) 장점

가. 교사가 개별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축 때 걸리는 시간을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효율성의 원리)

나. 다른 교육 기관의 교육과정과의 체계를 맞출 수 있다.(통일성의 원리)

다. 학습자가 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도중 개별 사정에 의하여 다른 교육 기관에서 동일한 체계 속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연계성의 원리)

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개별적인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객관성의 원리)

더욱이 50년이라는 매우 짧은 역사에 비해 한국어 교육과 또는 한국어 관련 학과가 국내외적

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의 한국어 교육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 한국어 관련 기관이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고 앞으로도 확대되리라는 점을 볼 때,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은 매우 절박하다 아니할 수 없다.

셋째, 외국인 학습자의 목적에 따라 한국어교육과정이 다양해야 하는 데, 이 다양성을 감당할 한국어교육과정이 아직까지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학습자 측면의 한국어 교육은 ① 한국어 일상생활(또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학문 목적을 위한 경우, ③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의 특수적인 목적(이주인 여성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등이 있다. 이들의 목적이 다양하다면, 그 교수학습의 방법, 도달 목표, 교재, 평가 방법 등이 다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만한 교육과정이 없었다.

그런데 표준화의 개념을 일정한 기준이 되는 한 가지 교육과정만으로 모든 목적을 포괄하는 범용적인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다양한 목적을 가진 다양한 교육과정은 개별적 교육과정이지 더 이상 표준적인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몇 가지 근거로 설득력을 잃는다. 첫째, 명칭 자체에서 보듯이 “한국어”에 대한 교육 방향 지침이 바로 “한국어교육과정”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 궁극적인 한국어교육과정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한국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축되어야 진정한 “표준적인” 개념의 교육과정이 도출된다. 이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그 개념이 명백해진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도 “국어”에 대한 교육이 궁극적인 국어과 교육과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로 “국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대상자들은, 그 대상자들의 개별적인 특징과는 상관 없이, “국어과 학습을 필요로 하는 자”가 전부 교육의 대상이다. 이에 대한 필연적인 귀결로, 국어 교육에서는 “재외동포”를 포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어 교육”의 이념이 “학습자 변인”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이 다른 재외 동포까지 국어과 교육의 대상으로 포괄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⁶⁰⁾ 하지만 이들의 국어 구사 능력은 외국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을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 교재 등이, 국내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과 차별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국어과 교육과정에 이질적인 교육과정이 수용된다. 한국어교육과정도 이와 같다.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 변인”보다 상위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특성이 다양한 여러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다만 학습자를 어떻게 분류하는가에서 이들의 교육과정은 변별된다.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육의 체계가 학년별(학년별 더 정확히는 언어 발달적 단계별로)로 교육과정이 세분화되는 반면, 한국어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樣相에 따라 세분화된다.⁶¹⁾ 따라서 표준화의 개념은 “한국어”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시적인 목적 아래 그 학

60) 이러한 시도는 강현화 외 :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 연구”에 나와있다.

61) 이런 학습자의 분류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들이 이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더불어 각각의 교육과정 항목의 차이가 나타나서 국어 교육처럼 일관된 체계를 만들 수 없다. 학습 요소를 예로 들자면, 학문 목적의 학습자는 “강의를 받는데 필요한 전략적 요소”가 들어가는 반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이력서 작성, 작업 일지 작성에 필요한 전략적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습의 대상자를 포괄하는 형식 속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의 규범적 처리인 것이다.

넷째,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도 개별적으로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의 목표는 이러한 개별적 학습자의 도달 목표를 고려하는 데 소홀히 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이 목적이라고 할 지라도 그 의사소통이 기초적인 생활 능력인지, 아니면,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전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인지에 대한 정밀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범위가 나타나 있는 교육과정이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넷째, 국외 및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여러 기관들을 충족시킬 표준적인 한국어교육과정이 없다. 특히 국외에서는 한국어 관련 학과를 설치한 대학이나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고등학교의 경우⁶²⁾, 교과목과 목표 수준의 내용 기술만이 되어 있는 교육과정만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예 교육과정 없이 간략한 교수요목 또는 수업 계획서만을 가지고 교수가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동일한 국가 동일한 목적의 한국어 관련 학과라 할지라도, 교육과정이 다른 경우가 흔하며, 자체로 만든 교육과정을 대외비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어교육과정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 체계, 한국 문화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수준, 학습자의 여건(시간적, 경제적, 기술적 문제)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교수학습의 자료를 만들고, 이 자료를 한국어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이러한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 수준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른 성취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각 기관마다 등급별 성취 목표의 기술이 모호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성취 목표 수준이 불확실하다.

일곱째, 표준 교육과정의 수립을 통하여, 교사 학습자들의 교육 정보 교류에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곧 이들이 다른 국가 또는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에 교육을 목적으로 이동하였을 경우, 교육과정이 상호 다르다면, 중복된 교과를 학습할 수도 있고, 또한 필요 없는 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곧 각 국가 별로 한국어교육과정이 상호 연결되어 있을 때, 교사 학생들의 일관적인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덟째, 현재 국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국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한국어교육과정은 그 국가의 교육 환경과 정책에 따라 다양하며, 아울러 교육과정의 수요가 국내 보다는 국외에 있다는 점을 볼 때,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국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목표, 교과목, 교육 시수, 언어 사용 기능 영역, 강의 계획서 등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원인은 ① 학과가 새로 신설되어 모든 학년에 맞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부 자료로 이용되거나 ② 교육과

62)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제 27 고등학교에서 최초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였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SAT에서도 한국어가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개별적 교육과정이 대학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 범위를 고등학교 수준의 한국어교육과정이 수립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이 만들어졌으나, 다른 학교와의 비교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거나, ③ 교육 목표가 없이 교과목과 교과 시수만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미완성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인하기도 하며, ④ 학교 자체의 정책에 따라 비공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호 정보 교류가 되지 않을 경우, 개별적 기관에 따라 또다시 한국어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며, 이 또한 불완전한 체계를 가지게 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고할 만한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이 있어서 개별적인 학교 특성에 맞게 이를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에 두 가지 장점이 있는 데 해당 기관이 참고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점을 통하여, 한국어교육과정을 단기간에 능률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과, 둘째, 기본적인 한국어교육과정의 공통분모를 상호 공유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의 공통적 연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홉째, 표준교육과정은 국내외 기관들의 상호 발전적인 협동 및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필요하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교육과정 자체가 여러 고려 항목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어 교육의 각 영역별 학문적 성장 발전의 공동체적인 촉진제가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곧 교육과정을 통해서 국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들을 획득하고, 현지 국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상호 교류하는 그 자체가 상호 네트워크 구축과 한국어 국외 보급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일 예로 만약 해당 국가에서 공통적인 교과목과 교육 목표가 정립되어 있다면-물론 해당 국가의 개별적인 목표는 예외로 하며- 국내 여러 기관들이 교재 및 교육 자료를 보급하는데 매우 효율적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곧 교재 및 교육 자료가 해당 국가의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에서 정책과 교보재를 만드는 사람들이 불확실한 공급처로 인해 한국어 보급이 어렵게 된다. 이 때 표준 교육과정의 수립으로 인하여 필수적인 공통 교과 및 교육 목적이 구축되면, 그 교과 및 목적에 맞추어 교보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홉째, 민현식(2003)에서 보듯이 표준교육과정은 표준 평가 척도 개발에 긍정적으로 작동한다. 곧 1997년 이래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과, 남명호 외(2002)의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기준 개정 연구나, 연세대 이희경 외(2002)의 성취도 평가 연구, 조항록 외(2002)의 배치 교사 평가 개선 연구 등의 일련의 평가 척도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표준교육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 표준 교육과정이 정립되고 그 정립된 기준을 통하여 평가 목표와 세부 사항이 구축되는 것이 그 과정이 반대로 진행되어왔다. 물론 교육과정 구축이 계기적인 과정이 아니고 상호 순환적이고 상호간섭적인 기준제이기 때문에 평가 척도 이후의 표준 교육과정이 성립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척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는 개별적으로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기 바란다-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4.3 한국어교육과정을 표준화한다고 하였을 때, “표준화”의 개념과 그 범위, 그리고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선행 작업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현식(2003)의 표준화 개념을 아래에 들어본다.

4) 민현식(2003)의 표준화 개념

- 가. 교육과정의 등급의 표준화: 국내 학제를 6-3-3학년제로 정하듯이 각 기관들마다 대개의 6급 체제와 소요, 개강, 종강 시간 등의 학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 나. 교육내용의 교수요목 표준화: 등급마다 가르칠 최소 내용 즉 교수요목을 선정하고 위계화한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평가척도와 연계한다.
- 다. 교육용어의 표준화: 교육내용에서 반드시 통일할 것이 교육용어이다. 특히 한국어교육 분야(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과 한국어문법)는 학문용어와 교수용어의 통일이 절실하다.
- 라. 교수-학습법의 표준화: 교육과정을 기술할 때는 개괄적인 교수 학습법을 기술하게 되므로 우리는 대표적인 교수-학습법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여 교사나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수법은 교사마다 다양하므로 교수법을 표준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한국어교수법에 소용되는 주요 교수법의 표준 모형을 교육과정에 명시하고 보급, 개선할 수 있다. 유일하게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교육과정 자료집에는 이런 지도안을 1-6급별로 제시하고 있다.
- 마. 교재 검인정 조건의 표준화: 앞으로 한국어 교재를 검인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교재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 바. 교육 평가법의 표준화: 교육내용을 평가하는 평가 체제가 기관마다 다른데 배치고사, 성취도 시험 등의 평가 기준, 평가 등급 부여 방식 등은 최소 기준으로 통일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 개념의 표준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다음 몇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4.4 “교육과정의 등급의 표준화”에서 보면, 두 가지 상호 다른 요인의 표준화를 “등급의 표준화”에서 함께 기술한 듯한 느낌이 든다. 곧 학제(6-3-3)이라는 말과, 6급 체제(도달 목표 또는 평가 목표)라는 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호 다른 용어이다. 6-3-3이라는 것은 교육과정 설계 요소 중 “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용어이지만 6급 체제는 “도달 목표” 또는 “평가 목표”에 대한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개념이 민현식(2003)에서는 두 가지 주요 관점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이 논의가 주로 국내 주요 대학 기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자료를 토대로 표준교육과정을 구축하려 하였다는 점이며(같은 책 21쪽) 다른 하나는 등급 우선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후자는 다음의 등급별 기술 사례로 든 아래와 같은 것을 보면 등급 우선 표준한국어교육과정을 염두해 둔 것이 명백함을 알 수 있다.

5) 1급 교육목표

- 가. 선수 시간 : 0시간, 또는 KPT 0급

나. 주제: 인사, 자기 소개, 음식 주문, 물건 사기, 길 찾기, 대중교통 이용, 전화기 이용 등 생존용 한국어 주제를 배우고 익힌다.

다. 상황: 거리, 식당, 상점, 길, 대중교통, 공중전화에서의 대화 장면

라. 담화: 초급 구어체를 익혀 기초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가) 듣기: 기초적 대화 수준인 5-6 문장의 단락, 짧은 담화를 듣는다.

나) 말하기: 5분 내외의 기초적 의사소통의 짧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다) 쓰기: 기초적 수준의 1-2 문단으로 된 일기, 편지, 메모를 쓸 수 있다.

마) 읽기: 기초적 수준의 7-8 문장의 단락을 이해한다.

바. 문법: 발음과 문장의 기본 구조와 표기 원리를 익히고 기본 소통을 위한 생활어를 습득한다.

가) 문장과 표현: 한국어의 기본 문형 구조를 이해한다.

-> 기본 문형, 기초적 높임법, 기초적 시간 표현을 읽힌다.

나) 어휘: 기본 발음 체계를 모음, 자음의 순서로 익히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다) 발음: 기본 발음 체계를 모음, 자음의 순서로 익히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라) 표기: 모음, 자음의 순서로 한글을 익히고 음절 구조와 모아쓰기의 효과를 이용하여 바르게 쓸 수 있다.

바. 문화: 한국의 대표적 10대 문화 상징을 이해한다. 동요 수준의 노래를 익힌다.(같은 책 83쪽)

※ 논의의 편의를 위해 번호 붙임을 위와 같이 조정한다.

5)을 보면 가장 우선 순위로 설정한 것이 “1급 교육목표”와 같이 등급이며, 다음에 “시간”, “주제”, “상황”, “담화”, “문법”, “문화”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 즉 등급 우선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언어 사용 영역과, 의사소통 기능이 하위 기능으로 나열되어 있다. 또한 민현식(2003)의 교육과정은 주제 중심 교육과정과 일맥 상통한다. 주제와 상황을 설정하여 하나의 주제로 여러 학습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사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와,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매우 유리한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자료를 염두해 보았을 경우 그 사정은 다르다. 국외의 경우는 교과목 중심으로 체계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의 교과목이 국가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기관마다 아래와 같이 다르지만

6) 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도네시아 나시오날 대학교)

나. 말하기쓰기, 듣기, 작문(몽골 오요 대학교)

다. 한국어 회화,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대학)

라.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

바. 한국어 기초, 회화, 듣기, 읽기, 쓰기(몽골 오르형 대학교)

마. 한국어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 한국어 7, 한국어 8(베트남 홍방 대학교)

사. 기초 한국어 읽기, 고급 한국어 읽기 (태국 실라빠건 대학교)

해당 교육과정이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표준한국어교육과정 설계에서 상위 항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순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의 문제보다 좀 더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교육과정을 표준화한다고 하였을 때, 이것의 활용성이 매우 중시됨은 당연한데, 표준화가 등급 중심 교육과정으로 설계되었을 경우, 국외에서는 이를 다시 영역별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만 되는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에 학제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학제는 각 나라마다 아래와 같이 상호 다르다.

7) 가. 몽골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8년제 또는 10년제 교육을 기본 교육으로 하고 있다. 곧 초·중등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 때 초·중등교육은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곧 초등학교는 7-12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1-6학년의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어있다. 8년제 학교는 6년간의 초·중등교육과 2년의 중등교육이, 10년제 학교는 초·중등교육과 4년의 중등교육을 실시한다. 중등교육 이후 단계는 기술 및 직업교육과정과 고등전문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기술학교와 직업학교에서 실시된다. 고등전문교육은 전문대학을 포함해 각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몽골에는 몽골 국립 대학, 교육대학, 의과대학, 농업대학, 기술대학 등 5개 대학이 있으며, 울란바토르에는 유치원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2개의 사범대가 있다.

나.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 전문대학 2년, 일반대학 4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태국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의무교육이며, 취학연령 아동의 약 94%가 입학한다.), 중등교육(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다. 대학교육은 4년이며, 대개 대학의 국립 체제이며, 그 예산이 대부분 국가 재정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학생 부담은 극히 적다. 예를 들어 나시오날 대학은 약 8,000BAHT(1년에 240,000원) 정도이다.

마. 인도네시아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전문 대학) 4년이 있다.(한국어세계화재단 : 2005)

위의 자료를 보면 학제가 각 국가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표준화를 하였을 때 기간 변인보다는 한국어 학습의 양이 중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필수 교과목을 선정한 후, 이 필수 교과목을 등급별 도달 목표를 정하여, 기간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보다는 교과목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설계하여야만 표준화의 근본 취지와 부합한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개별 교과목이 대개의 국가가 초급-중급-고급(-심화)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중심의 설계를 구축한 후 나선형 학습을 도모하는 것이 표준화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다.

4.5 그렇다고 하여 교과목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만을 표준화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학습자가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나,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일 경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곧 “일상적인 의사소통, 한국 문화의 이해,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학습 요소”등 주제와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국내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원형 중심 한국어교육과정(Proto type - curriculum)으로 설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표준화의 개념이 규범화의 개념과 더불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교과목 중심의 교육과정과 등급 중심 교육과정 또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병행해야 된다고 본다.

4.6 교육용어의 표준화 측면에서 보면, 국외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영역별 교과목의 예를 들어보면 여실히 증명된다. 위 8)의 예를 다시 한번 써보면 아래와 같다.

8) 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도네시아 나시오날 대학교)

나. 말하기·쓰기, 듣기, 작문(몽골 오요 대학교)

다. 한국어 회화,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대학)

라.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

바. 한국어 기초, 회화, 듣기, 읽기, 쓰기(몽골 오르형 대학교)

마. 한국어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 한국어 7, 한국어 8(베트남 홍방 대학교)

사. 기초 한국어 읽기, 고급 한국어 읽기 (태국 실라빠껀 대학교)

위 8)의 경우 명칭과 등급 구분이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르다.

9) 교과목 명칭

가. 언어 사용 기능 별로 독립적으로 분류한 경우

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나. 언어 사용 기능 별로 분류하되 교과목을 합친 경우

예)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읽기, 쓰기, 듣기.....

다. 동일한 내용을 상이한 명칭으로 사용한 경우

예) 말하기·듣기 : 한국어 회화

읽기 : 독해

듣기 : 청해

쓰기 : 작문

라. 수준별 내용을 상호 다른 등급을 사용한 경우

예) 기초 한국어, 중급 한국어, 고급 한국어

기초 한국어, 중급 한국어, 고급 한국어, 심화 한국어

한국어 기초, 한국어 심화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10) 등급 구분

가. 한국어 1 - 한국어 6

나. 한국어 1 - 한국어 8

다. 한국어 기초 - 한국어 발전 - 한국어 심화

위와 같은 문제 이외에 한국어 수업 시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점⁶³⁾, 동일한 교양 과목인데 학점에서 차이가 나는 곳, 전체 한국어 수업 시수가 각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 등도 용어의 통일화를 꾀해야 되는 한 부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어세계화재단 : 2005 참조).

4.6 교재 검인정 조건의 표준화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동감한다. 여기에 덧붙여, 교육 자료의 목록화와 그 교육 자료의 활용 지침서도 표준화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인터뷰 내용을 아래에 들어 본다.

11) 가. 초등학생용 교재가 없어서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초등학생들은 이해도가 어른과 달라서 교재 및 보조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수업자체가 어렵다.

(몽골 울란바토르 초등학교 이계심 교장)

나. 이와 더불어 교사 교육을 위한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우수 학교에서 실시되는 모범적인 교육과정, 교실 활동 등을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 주면,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영국, 일본, 러시아의 경우는 교사를 위한 시청각 자료가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몽골 울란바토르 초등학교 이계심 교장)

다. 교과과정 개편과 학생과 교사들의 한국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보재의 지원이 필요하다. (몽골 국립 사범 대학교 송의민 교수)

라. 교재와 교육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알았으면 좋겠다. (몽골 오요 대학교 몽흐 사이항 교수)

위 인터뷰 내용은 교육 자료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교육 자료를 확보하는 통로, 곧, 교육 자

63) 몽골에서는 학점을 크레딧(영 credit)라고 한다. 그런데 크레딧을 계산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수업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습'과목의 경우 주당 4 파르(우리대학에서 1파르는 80분, 타 종합대학의 경우 90분)이지만 과목 중요도가 낮아 1.74 크레딧으로 산출된다.

로 목록이나, 교육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알고 싶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교육 과정 표준화에서 자료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교재 검인정의 주체가 될 기관을 모색해야 한다. 이 후보에는 앞서도 말한바와 같이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인 “문화 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평가원” 등이 있다.

V.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변인과 모형 구축

1. 서론

이 보고서는 한국어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V변인을 밝히면서, 이러한 변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과정 모형이 어떠한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어과 교육과정과 달리, 한국어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어교육과정의 표준화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인들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모형이 제시되지 않았던 점이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즉 한국어교육과정 설계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설계와 달리, 목적과 목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하는 한국어 능력 수준, 대상 지역의 교육환경 및 시설, 학습자의 환경, 학습자의 연령, 한국어 교육기관 형태, 교육기간, 교과목, 학습영역, 그리고 교수요목 등과 같은 체계 구축 항목의 변인들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조직화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면서(2절), 이와 같은 다양한 변인들을 표준화의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과정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3절).

이 글에서는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에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많은 변인들이 작동한다면, 국어과 교육과정과 달리 다차원적인 모형의 교육과정이 구축되어야 하며, 그 구축의 모형이 ‘원형 중심 교육과정(Proto type Standard Korean Curriculum)’의 형태를 띠어야 함을 주장한다.

2. 한국어교육과정 변인

이 절에서는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중 ‘대상자’, ‘교육 기관’, ‘교과목’, ‘교육 기간’, ‘등급’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2.1 대상자 변인

국어과 교육과정과 달리 한국어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데 가장 큰 변인은 “대상자”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한국어 교육에서 목표를 상호 비교할 필요가 있다.⁶⁴⁾

64) ‘한국어 교육’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1) 가. 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 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이다.⁶⁵⁾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5])

나.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과 해외교포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유창하고 정확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⁶⁶⁾

위 (1가)는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에서 나와 있는 국어과의 목표이며, (1나)는 민현식(2003)에서 기술하고 있는 ‘한국어교육과정’의 개념이다. 국어과에서 국어 교육의 목표에는 ‘對象’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대상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알 수 있다.

(2) 가.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5], 제1장 추구하는 인간상 참조)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 과정 체제를 도입한다.(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5], 제1장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2-나 참조)

위의 (2가)와 (2나)는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지침’ 속에 소항목으로 분류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구성방침’에 기술된 내용이다. 여기에서 보면 해당 대상이 ‘국민’이라는 말이 ‘모든 국민’(2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2나)에 나타나 있다. 이는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 편성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가 국어교육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한국어교육과정의 목표는 그 대상을 ‘외국어 혹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과 해외 교포’로 하고 있어서 (2)의 학습자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해외교포’의 경우에는 (1가)와 (1나)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민현식(2003)의 해석을 보자.

(3) 학습자 대상에서 해외교포도 엄밀히 구별하였다. 사실 이제는 이민 동포와 임시 거주

데 대해 사용되는 ‘국어 교육’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을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상의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규정하는 방식도 언어를 가르칠 대상이 ‘국어’라는 점에서 그리고 국외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볼 때, “한국어 교육”을 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만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도 있다(이은희, 1998,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 121-141 참조.

65) 교육부(1998),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66) 민현식(2003), ‘국내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17-49 참조.

동포를 구별하여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위 해석은 교육의 대상자로 '해외교포'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동포'만을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곧 이민동포는 '한국어 교육'에, '임시 거주 동포'는 '국어 교육'에 편입하여 교육해야 된다는 당위적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⁶⁷⁾ 물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편입 대상 중에는 '이민 동포'의 자녀 곧 재외동포 2세대도 있다.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더라도, 지향해야 할 도달 목표가 '국어과 교육과정'의 이념에 부합하는 대상자도 있다.⁶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대상자가 한국어교육과정의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질하다는 점이다. 곧 국어과 교육과정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는 전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학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체계를 일관되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 2세대의 경우에도 학습자가 지향해야 할 도달 목표가 (2가)라는 점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수용 가능하다.⁶⁹⁾ 반면에 한국어교육과정은 그 대상자가 '외국인'이라는 점만이 공통적일 뿐, 이들의 학습 목표, 교육환경 그리고 모국어의 배경은 매우 이질적이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도달 목표에 따라 분류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이 혼재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4) 도달 목표에 따른 분류⁷⁰⁾

- 가. 귀국 자녀, 국내 입양아, 국외 체류 자녀, 국내 多文化 가정의 자녀
- 나. 국내 외국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 국내 다문화 가정의 부모
- 다.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 근로자⁷¹⁾, 산업연수생 근로자, 국외 취업 외국인 근로자)
- 라.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과 이외의 학과에서 수학하는 외국인

67) 그러나 '이민 동포'의 경우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한국인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며, 그렇지 않고, '현지' 국민 수준과 같은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점에서, (1나)는 좀 더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

68) 재외 동포의 자녀들에 대한 국어 교육은 주로 '한글학교(주말학교)'에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들은 현지 외국인과 다른 독특한 경험을 갖게 된다. 즉 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현지어를 함께 접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취학 이후에는 제도권 교육을 받게 되면서, 학교나 기타 사회 공동체 안에서 현지어와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된다. 이때에는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잘 적응하기 위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잠복기를 경험하게 된다.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재외동포 자녀들은 소수 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 문제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원진숙, 1999,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pp. 7-18 참조).

69) 다만 교수·학습의 방법론에서 국내 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원리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70) 조항록(2001,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정책'.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pp. 149-158)에서는 학습자 측면을 수요자 집단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 가. 순수 한국어 연수생
- 나. 직업과 관련한 연수생
- 다. 외국 내 대학, 대학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
- 라. 중고등학교의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 마. 해외 입양아 집단
- 바. 외국인 취업 연수생
- 사. 재외교포

71) 기존에는 산업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다. 2004년부터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 국가로부터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김명광(2007, "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박이정)을 살펴보기 바란다.

- 마.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 국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
- 바. 국외 중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

우선 (4가)의 '귀국 자녀, 국내 입양아, 국외 체류 자녀, 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한국의 학제에 따라, 그리고 대상자의 부모의 요구로 인해 정규 국어과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집단이다. 하지만 (4나)에서 (4바)까지는 '한국어 교육'의 대상자가 외국인이지만, 이들의 도달 목표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이다. 즉 (4나)의 집단은 '일상생활 위한 한국어 학습'이 목적⁷²⁾이며, (4다)는 '일상생활과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학습'이 목적이다.⁷³⁾ (4라)는 '수업 시간에 강의를 원활히 듣는 것이 목적'⁷⁴⁾이며, (4마)는 '한국어사용기능 영역 학습과 문화 학습, 실용을 위한 한국어 학습이 목적'⁷⁵⁾이다. 아울러 (4바)는 '국내의 제2외국어 수준의 한국어 학습'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의 내용과 학습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4나)의 학습 내용은⁷⁶⁾ '인사, 자기소개, 버스, 택시 타기, 식당에서 주문하기, 신문사기, 약속하기, 병원에서 의사와 이야기하기, 옷에 대해 표현하기, 미장원이나 이발소에서 원하는 머리 모양 이야기하기, 은행에서 돈 찾기, 환전하기, 비디오 가게에서 대여하기, 전화로 배달시키기'등 한국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 요소이다. 또한 교수 방법으로는 주제 중심 언어교육이 필요하다.⁷⁷⁾⁷⁸⁾

반면에 (4다)의 학습 내용은 '직장에서 동료와 대화하기, 구인 정보 구하기, 근무와 관련된 제 문제 해결, 취직 면접 보기, 자국의 문화 설명하기, 출입국 관리소 절차, 이메일 작성하기, 업무 지시 및 전달하기, 업무를 듣고 이해하기, 업무 회의 진행하기, 업무 전화통화하기, 업무 보고서 작성하기, 문서 작성하기, 고객 업무 상담하기'등이 요구된다. 교수 방법으로는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CLT)과 내용 중심의 언어교수법(Content-Based Instruction: CBI) 중 주제 중심 교수방법이 병행된다.⁷⁹⁾⁸⁰⁾

(4라)의 교육 내용은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및 일반적 교양 교과내용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법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교양 수준에서 요구되는 내용 학습과 함께, 강의 필기 기술, 이해 요약 기술 등과 같은 상위 인지 기능 학습도 필요하다. 교수 학

72) 황선영 외(2006, '이주 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 제16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101-117 참조.

73) 김명광(2005, '몽골의 한국어교육과정 연구', 한국어교육 24, 한국어문교육학회) pp. 129-219 참조.

74) 이해영(2004,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 연구', 제14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117-127 참조.

75) 김명광(2005, "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 조사", 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원) pp. 9-32 참조.

76) 변혜경 외(2002, '주한 외국인 노무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연구',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pp. 57-84 참조

77) 한재영 외(2004,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pp. 590-594 참조.

78)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 학습자의 요구나 필요가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가르쳐야 할 학생들의 연령, 학습 동기 등을 먼저 잘 파악한 후에 교수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79) 내용 중심의 언어교수법은 제2언어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외국어 환경에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한 '잘 계획된'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해당 과목의 내용 학습조차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업적인 목적의 한국어가 '대학 내의 교과목'으로 운영될 경우, 중급 이상에서의 내용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이미혜, 2003, '직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제13차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133-160 참조.

80) 김명광(200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 한국어 교육 20호, 한국어문교육학회 pp. 21-40 참조.

습 방법으로는 주제 중심 언어 교육이 주로 활용되며, 그 밖에 다중교수요목(multi-syllabus)이 필요하다.

(4마)는 주로 교과목 중심의 내용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국외의 경우 '통역과 번역, 한국 문화(경제, 정치, 법률, 사회, 지리 등)'와 같은 교과 내용의 학습이 강조된다. 교수-학습 방법은 교과 내용 중심의 언어 교육이다.

(4바)의 수업은 초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 내용, 즉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말하기, 듣기 교육과, 한글을 읽고 쓰기, 기본 문형 연습,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요소(길찾기, 자기 소개, 가족 소개, 전화하기 등)와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학습 요소의 교수·학습 방법은 “기초 한국어”와 같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되 특정한 활동에 필요한 주제 중심 교육 설정이 필요하다.

2.2 기관 변인

한국어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기관 변인'도 표준적인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 기관 변인도 국어과 교육과정과 달리⁸¹⁾ 다양한 변인들이 있다.⁸²⁾ 국외의 기관을 교육주체 별로 예로 들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5) 가. 국외 현지 정부 산하 한국어 교육 기관

나. 국외 현지 한국어 관련 대학

(5가)의 국외 정부 산하 한국어 교육 기관에는 필리핀의 TESDA, 태국의 TOEA, 스리랑카의 SLBFE, 몽골의 MBE, 베트남의 MOLISA,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OWC 등이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의 공통점은 해외 취업청이거나 해외 취업청의 산하 기관들로서, 현재,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자국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주로 예비 해외투자기업 연수생과, 산업연수생들이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었지만, 이후 고용허가제 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KLT, Employment Permit System-Korean Language Test)에 합격된 사람들에 한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한국어를 120시간에서 180시간 사이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행 이후에는 2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 시간은 한국의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필수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현지 정부 산하의 한국어 교육은 의무적이다. 이 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으

81)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내의 경우 대개 정규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된다. 해외 동포 자녀들의 경우는 크게 한국 학교와 한글학교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이 실현된다. 이때 한국학교란 우리나라 교육부의 교육 정책을 따르는 정규학교로서, 국내의 학제와 동일하다.¹⁾ 이에 반해 '한글학교'는 비정규 학교로 대개, 해당 자녀들이 주중에는 현지 학교에 다니다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한국어를 공부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 때문에 해당 자녀들은 대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을 주로 배운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교육 기관의 변인은 두 가지로 제한된다.

82) 이와 관련하여 조항록(2001)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국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 나. 국내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다. 국내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 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 국내의 NGO
마. 정부 산하의 한국어 교육 기관 바. 정부 기관 내 또는 기업체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
사. 해외 정규 대학, 중고등학교, 시민단체, 사설학원의 한국어 교육
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로 실시되고 있다.⁸³⁾

국의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 기관은 주로 '한국학 또는 한국어교육 학과'를 설치한 대학을 지칭하며, 한국어 과정의 성격에 따라 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교양 등으로 나뉜다. 몽골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6) 몽골 한국어 설치 대학⁸⁴⁾

	대학 이름	학과 성격	총학점	비고
1	몽골 국립대학교	전공(통역전공) 전공(통역·지역학 전공)	128학점 135학점	4년제
2	몽골 국립사범대	전공	125학점	4년제
3	몽골 국립인문대학교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	120학점 120학점 40학점	4년제
4	울란바토르 대학교(사립)	전공(한국어학) 전공(한국학)	132학점 129학점	4년제
5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부전공	72학점	4년제
6	오르형 대학교	전공	128학점	4년제
7	세를렉 대학교	전공	138학점	4년제
8	한몽 기술대학	전공	88학점	2년제
9	오요 대학	복수 전공	72학점	2년제
10	울란바토르 대학교(국립)	전공	128학점	4년제
11	후레 대학교	교양 필수	.	

(7) 학과 목적

몽골 국립 대학교	몽골 국립사 범대학 교	몽골 국립인 문대학 교	울란바 토르대 학(사립)	몽골과 기술대 학교	오르 형대 학교	세를 렉대 학교	한기 대학	몽술 대학	오요 대학	울란바 토르대 학(국립)	후레 대학교	다르 항대 학교	신르 대학	몽골- 통소 칼리	오토 통게르 대학교	몽골 운데스 대학교	징기스 칸대 학교	후레 대학
한국어 교육·통 역 한국 어통역· 지역학	한국어 교사·통 역 (한 국어교 사)	한국 어학 영역- 한 국어학	한국학 (학문/ 통역)	한국어 학 (통 역)	한국어 학 (통 역)	한국어 학 (직 업)	한국어 학 (직 업)	한국어 학 (관 광)	한국어 학 (통 역)	한국어 학 (통 역)	교양 (통 역)	한국어 학 (통 역)	한국어 학 (통 역)	한국어 학 (통 역)	한국어 학 (통 역)	한국어 학 (통 역)	한국어 학 (통 역)	교양
합계: 통역 - 18 한국어 교사 - 1 한국학 - 1 직업 - 1 관광 - 1 교양 - 2																		

김명광(2005,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 조사, pp. 129-219) 참조.

(6)의 한국어 관련 대학을 보면 한국어의 성격이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교양' 등 매우 다양하며, 학점도 72학점부터 138학점까지 아주 다양하다. 또한 (7)의 학과 목적을 볼 때, 18개 대학 중 통역이 18개과, 직업이 1개과 관광이 1개과, 교양이 2개과⁸⁵⁾, 한국어 교사 양성이 1개과, 순수 한국학이 1개과가 있다. 이때 '통역, 직업, 관광'을 실용과 관련된 목적

83) 김명광(2005,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 조사", 한국어세계화재단, 국립국어원), pp. 17-220 참조.

84) 몽골의 한국어 교육과를 설치한 대학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18개 대학이나, 위에서는 이 중에 11개 대학만을 제시하였다.

85) 한 대학이 두 개의 한국어 관련학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으므로 해서 18개 대학이지만, 설치 목적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인데, 이 세 부류를 묶으면, 몽골의 대부분 대학이 실용 지향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양은 일반 한국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고, 한국학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 부합한다.

여기에 더하여 제2외국어 수준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수 있으며⁸⁶⁾, 국내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한국어 교수 초청 연수 사업을 시행하는 국제교류재단, 국제화 인적 자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교육진흥원, 한국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어세계화재단과 같은 기관)도 있다. 또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센터'도 기관 변인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한국어 교육을 一回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의 설계에서 변인으로서 작동한다.

2.3 교과목 변인

한국어교육과정을 표준화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으로 교과목이 있다.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기술될 한국어 학습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 역시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한국어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비교해 볼 때, 한국어교육과정에서의 교과목 변인이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그리고 문학'과 같이 총 6대 영역이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교육과정은 '문학' 이외에도 한국의 '철학, 정치, 경제, 법률, 사회, 지리, 제도' 등 소위 국내에서 학으로 존재하는 영역들도, 하나의 교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몽골의 교과목을 일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8) 교과목

- 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각각 '초/중/고급'으로 나뉨)
- 나. 음운, 형태, 통사, 담화, 어휘, 의미, 한국어-현지어 대조 등.
- 다. 한국인의 사상, 경제지리학, 한국문화, 한국문화개설, 한국정치제도, 한국교육제도, 한국인의 생활방식, 한국문화전통, 한국의 역사 및 문화1, 한국의 역사 및 문화2, 한국역사1, 한국역사2, 한국경제지리학, 한국경제, 한국과학/교육제도, 한국정치/외교, 한국사회개론, 한국문화개론, 한국인의 의식, 한국정치, 한국문화풍속, 한국지리, 한국민속, 한국사회문화기초, 한국종교, 속담관용표현론, 한국문학1, 한국문학2, 한국문학3, 한국문학4, 한국문학5, 한국문학6, 한국어구비문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
- 라. 공문서 작성법, 번역(공문서 번역, 경제·경영분야 번역, 법률 번역, 과학·기술 분야 번역, 통역, 사회·정치·언론분야 번역, 법률번역, 문학번역), 문체론 등.
- 마. 교재 연구, 실습, 한국어 교육학 등.
- 바. 봉사, 교생 실습, 논문 작성, 사회봉사, 졸업 시험, 사이버 교육 등.

위는 김명광(2005, pp. 129-219)에서 조사한 몽골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 중 '교과목' 부문을 발췌하여 분류한 것이다. 우선 (8가)의 교과목은 언어사용 기능영역에 해당하며,

86) 예를 들어 교양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제27고등학교, 국내의 한국어 교육 기관(예를 들어 고려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서울대 언어 교육원, 경희대 국제어학원 등과 같은 기관이 이에 속한다.

(8나)는 문법에 해당한다. (8다)는 한국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총체-사고, 풍속, 도덕, 정치, 경제, 지리, 종교, 문학, 제도 등-에 해당하므로 문화 영역으로 묶을 수 있다. (8라)의 '번역, 통역, 공문서 작성, 문체론'의 경우 몽골의 한국어 학과의 실무목적의 교육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졸업 후 취업에 필요한 교과목에 해당하므로 실용 영역으로 대분류를 할 수 있다. (8마)는 몽골 사범 대학의 한국어 교육과에만 있는 교과목이다. 몽골 사범 대학은 한국어학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한국어교원 양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방법론에 해당하는 교과들이 있다. (8바)는 해당 대학의 특성에 따라 개설된 기타 영역이다. 이 영역들 중 (8가)는 국어과 교과목과 유사하지만, (8나)는 문법 영역의 교수가 학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아울러 (8마)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이어서 한국어교육과정과 관련이 없으며, (8바)도 해당 대학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개설된 교과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과정의 표준 작업에 그리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8다)의 경우이다. (8다)가 비록 '문화'라는 큰 영역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그 하위 범주에 '한국 사상, 정치, 지리, 역사, 문학, 과학, 법률, 경제, 경영, 풍속' 등 상당히 이질적인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혹시 이 교과목을 국내 대학의 학으로서의 교과목이라고 할지 모르나, 위 교과목에 대한 개설 의도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교과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한국인의 사상' 교과목의 수업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9) 가. 한국의 잔치 문화와 생활 풍습을 통해 한국인의 사고를 이해한다.

나. 한국인의 조상 숭배 사상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다. 한국인들이 지향했던 관리 정신과 선비 정신의 본질을 이해한다.

라. 한국인들에게 친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안다.

마. 한국인의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과 바람직한 이웃관계를 이해한다.

만약 위 과목이 국내의 '한국 철학'의 성격을 갖는다면, 한국 철학의 이론이나 그 사조적 흐름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기술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위의 수업 목표의 기술은 이론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이해로 지향된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다. 예컨대 (9가)를 보면, '한국의 잔치 문화와 생활 풍습' 자체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궁극적인 도달 목표가 '한국인의 사고 방식'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문화영역을 어느 정도까지 독립적으로 허용하여, 이를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교과목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곧 국어과에서 언어사용기능의 하위 영역이 독립적인 교과목(말하기·듣기, 읽기, 쓰기)으로 설정되었듯이⁸⁷⁾, 문화 요소의 하위 영역(한국 사상, 문학, 정치, 외교, 지리, 역사, 문학, 과학, 법률, 경제, 경영, 풍속 등)도 각기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설정해야 되는지(이 글은 이를 잠정적으로 '독립 교과목 중심 교육과정'으로 부르겠다), 아니면 국어과에서 '문법'의 하위 영역을 독립적인 교과목이 아니라 교육과정 내부의 하위 목표와 내용 기술에서 처리한 것처럼, 한국어교육과에서도 교육과정 내부의 수업 목표와 내용 기술에서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이 글은 이를 '내용 중심 교육과정'으로 부르겠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자의 안을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독립적으로 교과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후자를 인정할 때 문화 교

87) 물론 이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과의 하위 항목을 어느 부문에서 수용하며, 또한 어느 수준까지⁸⁸⁾ 학습 목표와 내용을 기술하느냐라는 등급 체계 설정 문제가 대두된다.

만약 우리가 '독립 교과목 중심 교육과정' 구축을 고려한다면, 한국어교육과정의 내부 교과목은 크게 늘어난다. 예를 들어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사, 한국의 기업문화, 한국 비즈니스의 역사, 한국어컴퓨터, 무역 한국어, 문화 간 의사소통(이상은 인도네시아의 교과목을 발췌한 것임⁸⁹⁾), 한베여행가이드, 동아시아 국제관계, 한국인의 심리, 학술용어(이상은 베트남의 교과목 중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교과목을 발췌한 것임)⁹⁰⁾, 여행 실용 한국어, 비서업무 한국어, 호텔 한국어, 관광 한국어, 한국에서의 학습경험(이상은 태국의 교과목 중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교과목을 발췌한 것임)⁹¹⁾' 등과 같이 개별 국가 특수적인 교과목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의 교과목이 설정된다면, 해당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이 즉시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활용 차원에서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는 반면, 자칫 잘못하면 한국어교육과정이 아닌 '문화 교육과정'이나, '한국 교육과정'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 중심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하였을 경우,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의 교과목 수는 축소되겠지만, 개별 한국어 교육 입안자들이 참조할 만한 교과목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또 다른 작업 노력이 필요하다.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범위

가. 내용 중심 교육과정 구축

가) 장점

- 한국어교육과정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만들 수 있음.
- 한국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어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
- 표준 교육과정 개발자의 구축 비용이 절감됨.

나) 단점

- 개별적인 한국어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세부 교과목에 대한 설계를 새로이 해야 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줌.
- 개별적인 개발자들에게 교육과정 구축 비용을 전가함.

나. 교과목 중심 교육과정 구축

가) 장점

- 개별적인 입안자들이 즉시적으로 참고할 수 있음.
- 교육과정을 개별화하는 데 비용이 절감됨.

나) 단점

- 세부적인 교과목에 대한 목표 기술, 내용 기술, 등급 기술 등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 과정 전체가 만들어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외교' 등의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고급 이상의 교육과정을 구축할 경우, 한국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교육과정 개

88) 곧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초급, 중급, 고급'단계까지의 學習目標의 기술을 하느냐, 아니면 '學'의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하는 경계 문제를 의미한다.

89) 김명광(2007, "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박이정) pp. 341-34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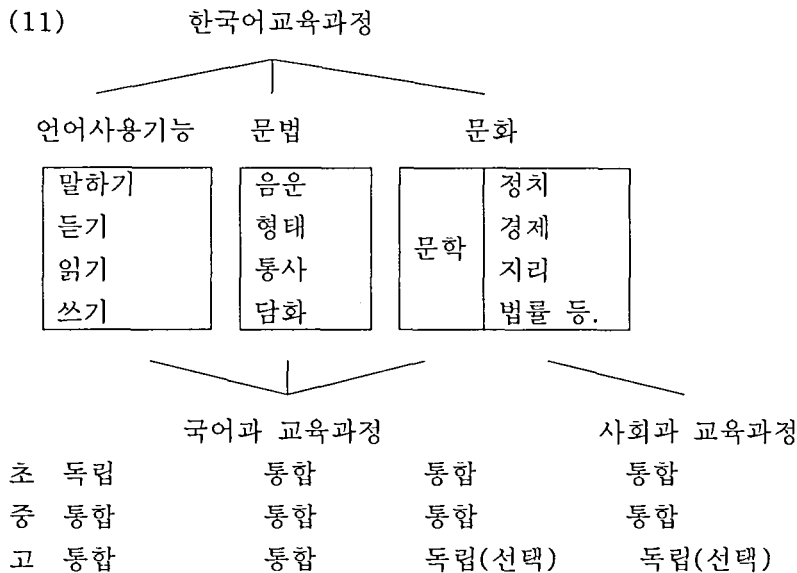
90) 위의 책, pp. 313-315 참조.

91) 위의 책, pp. 285-295 참조.

발에 참여해야함.

- 한국어교육과정이 한국교육과정 또는 문화교육과정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내의 일반 교육과정의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교육과정 중 국어과에서는 '언어 사용 기능 영역과 문법과 문학'을 담당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정치, 경제, 외교, 법률, 제도, 지리' 등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때 사회과 교육과정은 중등의 경우, 사회과라는 상위 영역에서 '수업 내용과 목표'로만 영역이 구분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각각의 경우, 선택적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수준의 한국어교육과정도 일반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의 '국어과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육과정'과 같은 타 교육과정과 맥락을 같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외 대학생의 일차적인 목표가 언어 사용 기능의 학습이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독립적인 교과로 분리되어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문법의 경우는 언어 사용 기능의 정확성을 길러 주는 교과이므로, 1학년과 2학년에는 통합적으로, 3학년 4학년의 경우, 선택교과로 분리되어 수업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이나, 문화의 경우,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한국 사회의 배경지식을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하여, 사회과나 국어과의 그것처럼 통합되어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3학년과 4학년의 경우, 1차적인 언어 사용 기능과 문법이 어느 정도 습득된 상태(유창성과 정확성의 습득)가 가정되므로, 독립된 교과의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10)의 두 가지 유형의 절충적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좀 더 다듬어져야 하며, 또한 이 글에서는 교육과정의 항목 자체에 대한 세부 기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는 여기까지 한정하고자 한다. 다만, 이 절에서 지적하고 싶은 바는, 첫째, 한국어교육과정에서 교과목과 관련된 변인이 매우 다양하며, 둘째, 이 변인들의 통합과 독립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더불어 관련 있는 타 교육과정을 심도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4 기간 변인

기간 변인이라는 것은 한국어 교육이 얼마만큼 실시되느냐 하는 교수·학습의 시간별 계획이다. 국어과의 경우는 시간별 운영 계획이 학기별, 학년별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한국어교육과정 속의 학습 기관은 국내외 교육기관마다 다양한 수업 시수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업 기간이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12) 국내 교육기관의 수업 기간⁹²⁾

	프로그램	
고려대학교	정규 과정	연 4학기 10주 과정
	청소년 여름학교	4주 과정
	여름 한국어 집중과정	4주 과정
	한국학과 학생 교환학생 한국어 프로그램	16주 과정
	외국 대학 단기 한국어 연수 과정	5주 또는 3주 과정
경희대학교	정규 과정	봄16주, 여름4주, 가을16주
	단기 과정	겨울4주
	특별 과정	춘계 3주, 하계 3주
서강대학교	정규과정	1년 4학기 200시간(학기)
	준정규과정	150시간/학기
	위탁과정	*
서울대학교	정규과정	각 급 10주, 200시간
	특별과정	10주, 200시간
	보충과정	10주, 60시간
	여름 한국어 단기 연수(초급, 중급, 고급)	5주, 100시간
이화여자대학교	집중과정	1년 4학기 운영, 10주
	정규과정	10주 7.2시간(주당)
	단기과정	3주 4시간(주당)
	위탁 교육과정	10주 4.8시간(주당)
외국어대학교	정규 과정	1년 4학기 10주과정
	단기 과정	*

92) 전나영(2003,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1-6 참조

김민애(200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7-9 참조.

정명숙(2003,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10-14 참조.

이미혜(2003,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15-19 참조.

진기호(2003, '한국의국어대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26-27 참조.

이정희(2003,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25-32 참조.

위에서는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중 일부의 예만을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의 명칭과 수업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주단위 계산이나, 시간 단위의 계산이나, 아니면 학기 단위의 계산이나 하는 문제)의 상이성을 차치하고서라도, 해당 교육 기간이 교육기관 개별적으로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규 과정의 경우, 10주(고려대학교)에서부터 16주(경희대학교)까지이며, 단기 과정도 3주(경희대학교)에서 5주(서울대학교)와 같이 편차가 크다. 이에 따라 수업 목표의 차이와, 등급의 차이(민현식, 2003, pp. 17-42)도 다양하다. 그런데 국외를 살펴보면 국내 못지않게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13) 가. 현지 정부 산하 기관의 한국어 교육 수업 시간

	고용 허가제 이전	고용 허가제 이후
필리핀 TESDA	75시간	20시간
스리랑카 SLBFE	80시간	80시간
태국 TOEA	120시간	120시간
베트남	80시간	20시간
인도네시아	80시간	80시간
몽골	80시간	20시간

나. 현지 대학의 한국어 교육 수업 시간(한국어)⁹³⁾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인문대학	전공	36학점 54시간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University of Malaya: UM)	전공	15학점 20시간
중국 복단 대학교	전공	44학점 50시간
태국 시나카린 위룻 대학교	전공	36학점 36시간
대만 국립정치 대학교	전공	24학점 24시간

위 (13가)는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현지 해외취업청(정부 소속 기관)의 한국어 교육 이수 시간이다. 고용허가제 이전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요구하는 최소 수업 시간이 75시간이며, 해당 국가 개별적으로 75시간에서 120시간을 교육하였다. 고용허가제 이후에는 최소 이수 시간이 20시간이며, 기존의 수업 시간을 유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교육 내용은 대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한국어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이다.

또한 (13나)는 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어 과목만을 발췌하여 분석한 것이다.⁹⁴⁾ 그런데 각국의 교과목 등급과 수업시수 산정방법이 각기 다르다.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의 한국어 과목은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6학점(총 36학점)이지만,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54시간)이다. 말레이시아 말라야 국립 대학교의 경우, 한국어 과목명이 '기초 한국어 1, 기초 한국어 2, 중급 한국어 1, 중급 한국어 2 그리고 고급 한국어'의 5단계로 되어 있으며, 각각 3학점(총 15학점)이지만, 주당 수업 시수가 4시간(총 20시간)이다. 중국 복단 대학교는 한국어 과목명이 '기초 한국어(上), 기초 한국어(下), 중급 한국어(上), 중급 한국어(下), 고급 한국어(上), 고급 한국어(下)'의 6단계로 되어 있으며, 각각 '8, 8, 8, 8, 6, 6학점'(총 44학점)으로 과목 당 학점

93) 이 자료에 도움을 주신 분은 '윤여희(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김금현(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 김병운(중국 북경 외국어 대학교), 탄인(태국 시나카린 위룻 대학교), 완(싱가폴 국립대학교)' 선생님이다.

94) 각 국가가 위와 같이 개론적인 성격의 '한국어' 교과목을 설정한 경우도 있지만,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와 같이 언어 사용 기능을 세분화하여 교과목을 설정한 경우가 많아서, 상호 비교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서는 개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위 5개국의 '한국어'만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배점이 다르며, 주당 수업 시수도 '10, 10, 8, 8, 8, 6' 시간(총 50시간)과 같이 상이하다. 태국의 시나카린 위룻 대학교의 한국어 과목도 총 6단계(한국어 1- 한국어 6)이지만 각각 6학점(총 36학점)이며, 주당 수업 시수도 학점과 평행하게 6시간(총 36시간)이다.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의 한국어 과목은 '초급 한국어1, 2, 중급 한국어 1,2, 고급 한국어 1,2, 실용 한국어 1,2'로 총 8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 3학점(총 24학점) 24시간이다.

더불어 수업 시간의 변인으로 작용하는 또 다른 유형이 있다. 그것은 국내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들의 초청 연수 교육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교류재단에서 10이간 국외 한국어 교수를 초청하는 '한국어 교수 초청 연수 사업', 국제교육진흥원에서 3개월 과정으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초청해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국제화 인적 자원 한국어 교육', 한글학회에서 2주간 국외 한국어 교사를 초청하여 교사 교육을 시행하는 '국외 한국어 교사 연수회'가 있다. 또한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6개월 동안 국외 한국어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국립국어원에서 3주간 국외 교사를 초청하여 연수 교육을 실시하는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교육' 등이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국내 정규 교육과정은 대개 10주에서 16주 사이이며, 현지 정부 교육과정은 75시간 -120시간이고, 현지 대학 교육과정은 2년에서 4년이다. 그리고 초청 교육은 10일에서부터 6개월 과정에 걸쳐 있다.

2.5 등급 변인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과목이 우선 정해진 후에 이후 학년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등급별로 구성된다.(이 글에서는 이를 등급 종속 교과목 교육과정이라 부르기로 한다.) 반면에 국내의 한국어교육과정은 대개 등급 교과목보다 우선하여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세대와 서울대의 경우 6등급, 서강대의 경우 8등급으로, 그리고 경희대에서는 초·중·고급의 3등급으로 분류한 후 등급 기술의 하위 부문에 '언어 사용 기능'과 '문법', '문화'가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다.(이 글에서는 이를 교과목 종속 등급 교육과정이라 부르기로 한다.) 등급 표준화와 관련된 견해는 민현식(2003)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 (14) 교육과정의 등급의 표준화: 국내 학제를 6-3-3학년제로 정하듯이 각 기관들마다 대개의 6급 체제와 소요, 개강, 종강 시간 등의 학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위 논의는 단지 교육과정의 등급을 표준화하려는 목적에서 기술된 것이므로, '교과목 종속 등급 교육과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아래 15)의 표준안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5) 1급 교육목표

가. 선수 시간: 0시간, 또는 KPT 0급

나. 주제: 인사, 자기소개, 음식 주문, 물건 사기, 길 찾기, 대중교통 이용, 전화기 이용 등 생존용 한국어 주제를 배우고 익힌다.

다. 상황: 거리, 식당, 상점, 길, 대중교통, 공중전화에서의 대화 장면

라. 담화: 초급 구어체를 익혀 기초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 가) 듣기: 기초적 대화 수준인 5-6 문장의 단락, 짧은 담화를 듣는다.
- 나) 말하기: 5분 내외의 기초적 의사소통의 짧은 대화를 할 수 있다.
- 다) 쓰기: 기초적 수준의 1-2 문단으로 된 일기, 편지, 메모를 쓸 수 있다.
- 마) 읽기: 기초적 수준의 7-8 문장의 단락을 이해한다.
- 마. 문법: 발음과 문장의 기본 구조와 표기 원리를 익히고 기본 소통을 위한 생활어를 습득한다.
 - 가) 문장과 표현: 한국어의 기본 문형 구조를 이해한다.
 - > 기본 문형, 기초적 높임법, 기초적 시간 표현을 읽힌다.
 - 나) 발음: 기본 발음 체계를 모음, 자음의 순서로 익히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 다) 표기: 모음, 자음의 순서로 한글을 익히고 음절 구조와 모아쓰기의 효과를 이용하여 바르게 쓸 수 있다.
- 바. 문화: 한국의 대표적 10대 문화 상징을 이해한다. 동요 수준의 노래를 익힌다.

곧 위 (15)를 보면 가장 우선하는 순위가 '1급 교육목표'와 같이 등급이며, 다음에 '시간', '주제', '상황', '담화', '문법', '문화' 항목이다. 특히 담화 상황에서 보면, 1급의 교육목표 아래 초급의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배열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와 달리 국외의 한국어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과 유사한 '등급 종속 교과목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비록 언어 사용 기능 영역과 문법, 문화 교과목이 국가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교육기관마다 다르지만 해당 교육과정이 교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 (16) 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인도네시아 나시오날 대학교)
 - 나. 말하기·쓰기, 듣기, 작문(몽골 오요 대학교)
 - 다. 한국어 회화,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몽골 울란바토르 국립 대학)
 - 라.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
 - 마. 한국어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 한국어 5, 한국어 6, 한국어 7, 한국어 8(베트남 홍방 대학교)
 - 바. 한국어 기초, 회화, 듣기, 읽기, 쓰기(몽골 오르형 대학교)
 - 사. 기초 한국어 읽기, 고급 한국어 읽기 (태국 실라빠껀 대학교)

또한 등급 구성은 대개가 (16라 마, 바)의 '1급-8급, 기초, 고급'과 같이 교과목 자체에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교육과정 중 어느 것을 표준 기술로 삼느냐는 단순히 순서 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만약 '교과목 종속 등급 교육과정'을 표준 설계로 채택했을 경우, 이를 참조하는 기관들에서 '등급'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역을 분리한 후, 해당 교과목에 재배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평가'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국내에서는 '종합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국외에서는 학기가 끝난 후 해당 교과목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과정을 표준화 할 때, 두 가지 변인을 고려한 2차원적인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국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목 종속 등급 교육과정'과 국외 대학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급 종속 교과목 교육과정'의 두 가지 차원이 병행되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교과목 종속 등급 교육과정)는 주로 학습자

가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과목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일상적인 의사소통, 한국 문화의 이해,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학습 요소' 등 주제와 관련하여 수업을 진행(주제 중심의 교육)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외 정부 소속 기관의 한국어교육과정도 '교과목 종속 등급 교육과정'이 적합하다.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국어 학습'과 같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제별 학습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통합 지향적인 '교과목 종속 등급 교육과정'이 효과적이다. 반면에 국외 현지 기관의 학제 속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이 실시되는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의 경우, '등급 종속 교과목 교육과정'이 설계가 더 바람직하다.⁹⁵⁾

3.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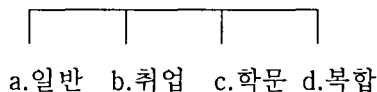
2장에서 우리는 한국어교육과정의 다양한 변인을 '대상자', '기관', '교과목', '기간', '등급'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한국어교육과정을 표준화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부 종속 변인들을 추출해 내었다. 교육과정 모형 구축을 위해서는 이 변수들이 상호 체계를 이루어 구성되어야 한다. 이 구성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변인들 간의 위계를 정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방법이 그 하나이며, 위계보다는 변인들 자체의 상호 관련성을 중시하여, 복수 변인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전자를 '층위 교육과정 모형'이라 부르고, 후자를 '원형 교육과정 모형'이라 부른다. 이 두 교육과정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했던 다양한 변수들을 아래에 제시하면서, 이들을 상호 조정해 본다. 우선 '대상자' 변인에서 보면, 이 글은 '도달 목적'이 아래와 같이 상호 다름을 말하였다.

(17) 목적

- 가.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 학습이 목적(일상생활 목적)
- 나.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학습 목적(취업 목적)
- 다. 수업 시간에 강의를 원활히 듣기 위한 목적(학문 목적)
- 라. 한국어 사용 기능 영역 학습과 문화 교육, 실용을 위한 한국어 학습이 목적(복합 목적)
- 마. 국내의 제2외국어 수준의 한국어 학습(교양 목적)

위 (17가)와 (17마)는 한국생활의 적응과 이해에 필요한 기초적 수준의 학습에 해당하므로 '일반 목적'으로 다시 묶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8) 목적



95) 필자는 제16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에서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설계가 '원형 중심 한국어교육과정(Proto type Standard Korean Curriculum)' 형태로 되어야 함을 피력했다. 또한 표준적인 하위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는 순서와 기준은 '수요 필요성, 방법 필요성, 내용 필요성'임을 말하였다. 더불어 교육과정의 내부 조직의 표준화가 아니라 각각의 교육내용에 따라 한국어교육과정이 달라져야 함을 말하였다. (김명광, 2006,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 연구', 제16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pp. 84-104 참조)

둘째 기관 변인에는 '현지 정부 소속 한국어 교육 기관', '현지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 '현지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기관',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국내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이 있다.

(19)

기관



a.현지 정부 b.현지 대학 c.현지 초중고등학교 d.국내 교육 e.국내 지원 f.외국인근로자센터

셋째 교과목 변인에는 상위 영역에 '언어 사용 기능, 문법, 문화'가 있으며, 각각의 하위 교과목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음운, 형태, 통사, 담화 ; 문학, 사상, 정치, 경제, 지리, 법률' 등이 있다.

(20)

교과목



상위: a.언어사용 기능

b.문법

c.문화

하위: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음운/형태/통사/담화

문학/사상/정치/경제/지리/법률 등

a1

a2

a3

a4

b1

b2

b3

b4

c1

c2

c3

c4

c5

c6

ca

넷째 기간 변인은 최소 2주의 단기 과정부터 4년의 장기 과정으로 그 분포가 매우 넓다. 여기서 이 단위를 임의적으로 경계를 지을 필요가 있다.

(21) 가. 단기 속성 과정: 4주 이내

나. 단기 일반 과정: 4주 초과 8주 이내

다. 정규 속성 과정: 8주 초과 16주 이내

라. 정규 일반 과정1: 16주 초과 2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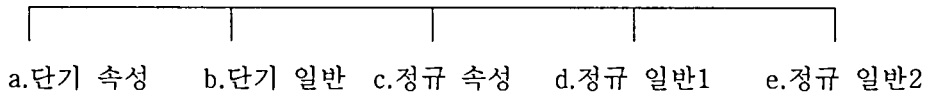
마. 정규 일반 과정2: 2년 초과 4년 이내⁹⁶⁾

(21가)에는 국내 한국어 센터에서 진행하는 단기 과정과 특별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의 '청소년 여름 학교, 여름 한국어 집중과정, 외국 대학 단기 한국어 연수 과정'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21나)는 국외 정부 소속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120시간의 한국어교육과정이 여기에 포함된다(5시간/1일, 주 5회 수업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약 5주의 기간이 걸린다). (21다)의 정규 속성 과정은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이 포함된다. (21라)의 정규 일반 과정1은 국외 2년제 대학의 수업 과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몽골의 오요 대학교, 세를렉 대학교는 2년제 대학으로서, (21라)에 포함될 수 있다. (21마)는 국외 4년제 대학의 교육 과정이 이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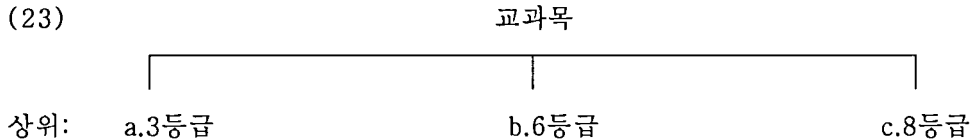
(22)

기간

96) 이는 논의의 편의상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좀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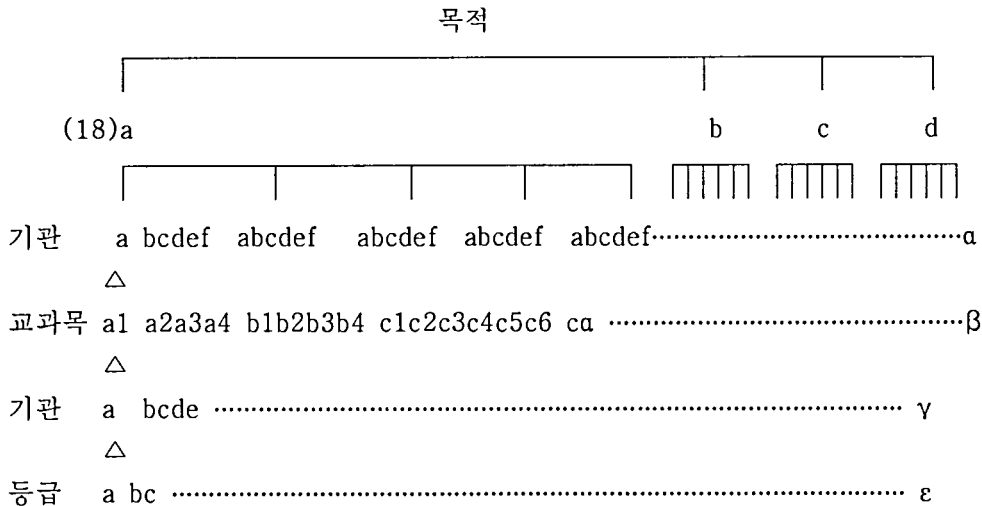


다음으로 등급 변인에는 '교과목 종속 등급 교육과정'과 '등급 종속 교과목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때, 전자는 '3등급, 6등급, 8등급'의 교육과정이 있음을 앞에서 말했으며, 후자는 (20)의 '교과목' 설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만약, 위 변인들의 분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컨대,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이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닌, 취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개설하거나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 하나의 변인(기관 변인)이 다양한 변인(목적 변인)들을 내포하게 되므로 -, 개별적인 교육과정 설계자가 즉시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축이 필요하다면 '층위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층위 구축은 아래와 같이 거의 불가능하다.

(24) 층위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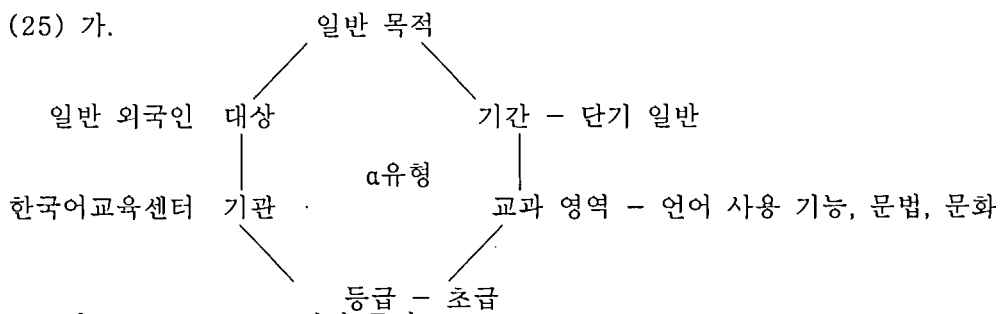
즉 변인들을 전부 고려하면 4(목적)x6(기관)x14(교과목)x5(기간)x5(등급)으로 총 8400 개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더욱이 교과목이 문화 영역의 경우, 그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점과, 만약 변인 속성 중에 학습자들의 국적이 고려된다면 - 학습자의 모국어 배경 지식이 교육 수업과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온다는 점에 주목하면 -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원형 교육과정 모형'(Proto type Standard Korean Curriculum model)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목적 변인이 취업을 위한 것이라면, 전형적인 교육 기관은 현지 정부 소속 기관과 외국인 근로자 센터가 해당한다. 이 두 기관의 전형적인 한국어 교육 목적이 바로 취업을 희망하는 국외 체류 외국

인과, 한국 직장 생활에 적응할 필요가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언어 사용 기능과 문화 영역이 중점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며, 문화 영역도 기초적인 생활양식과 한국인의 생활양상을 학습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독립적인 교과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대범주인 문화 자체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주로 정규 일반 과정(16주 초과 2년 이내)의 기간을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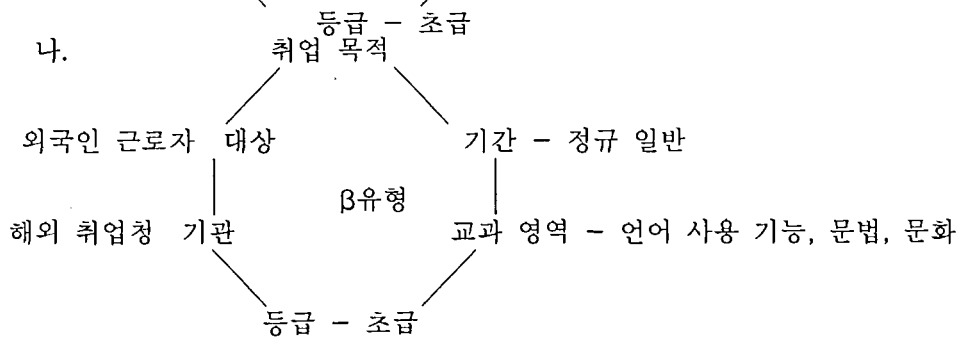
또한 목적 변인이 학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전형적인 교육 기관은 국내 한국어 교육 센터이며, 그 교과목은 언어 사용 기능과 문화 교과이다. 아울러, 학습 기간은 정규 속성 과정에 속한다.

현지 학문과 실용이 목적이라면, 전형적인 기관은 현지 대학에 해당하며, 교과목은 상위 영역이 아닌 하위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과목별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하며-물론 이때에 해당 학과의 특수적인 교과목이나, 해당 국가 특수적인 교과목은 배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습이나 논문 작성, 한국어 교육 방법론'은 해당 학과의 특수적인 목적에 해당되고,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사, 한베여행가이드' 등은 해당 국가의 특수 목적 교과목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교과목은 배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기간이 4년의 목적에 맞추어 편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구축되어야 할 가장 거시적인 원형 교육과정은 다음의 4개로 한정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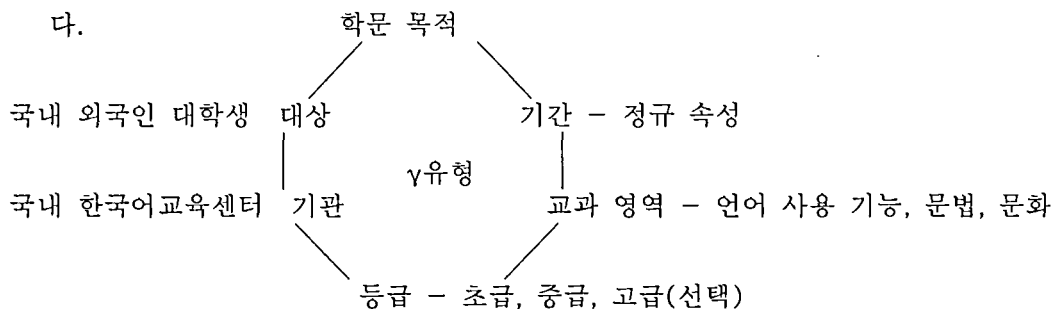
(25)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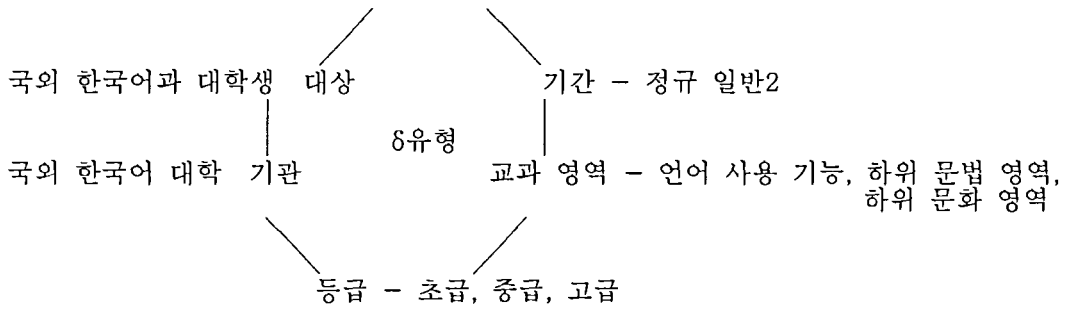


다.



라.

복합 목적



위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전형적인 변인들이 동시에 설정되기 때문에 변인들을 모두 고려한 교육과정 수보다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곧 위와 같은 4가지 유형만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둘째 변인이 다른 변인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이지 않을 경우, 위 4가지 유형의 교육과정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취업 목적'의 교육과정의 경우, 기관이 '국외 현지 취업청'이지만, 여기에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센터'도 취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지향하므로 이 변인에 함께 포함될 수 있다. 그 결과, 개별적 교육과정의 구축 범위도 축소된다.

셋째 만약 새로운 수요, 새로운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위 교육과정을 변형하여 교육과정을 즉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복합 목적의 한국어교육과정의 기간이 4년이 아닌 2년일 경우, 이미 만들어진 교육과정 중에서 교과목을 축소한다거나, 교육 목표 등급을 축소(예를 들어 6등급 체계를 4등급 체계로 변환)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교육과정은 예컨대 '6유형'의 변형이므로 '6유형-1'이라고 명할 수 있다. 요컨대, 위의 전형적인 원형 교육과정을 구축한 후에 각 세부 변인을 해당 빈칸에 대입해 보면서, 기존 원형 교육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경우는 그대로 세부 변인만 추가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원형 중 일부를 수정한 교육과정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한국어교육과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설계에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변인을 밝히면서, 이러한 변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과정 모형이 어떠한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한국어교육과정의 다양한 변인을 '대상자', '기관', '교과목', '기간', '등급'을 중심으로 밝혔다.

25) 가. 대상자 변인

가)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 학습 목적

나)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학습 목적

다) 수업 시간에 강의를 원활히 듣기 위한 목적

라) 한국어 사용 기능 영역 학습과 문화 이해, 실용을 위한 한국어 학습 목적

마) 국내의 제2외국어 수준의 한국어 학습 목적

나. 기관 변인

가) 현지 정부 소속 한국어 교육 기관

나) 현지 대학 한국어 교육 기관

다) 현지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육 기관

라)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마) 국내 한국어 교육 지원 기관

바) 외국인근로자센터

다. 교과목 변인

가) 상위 영역 교과목 설정 나) 하위 영역 교과목 설정

라. 기간 변인

가) 단기 속성 나) 단기 일반 다) 정규 속성 라) 정규 일반1,2

마. 등급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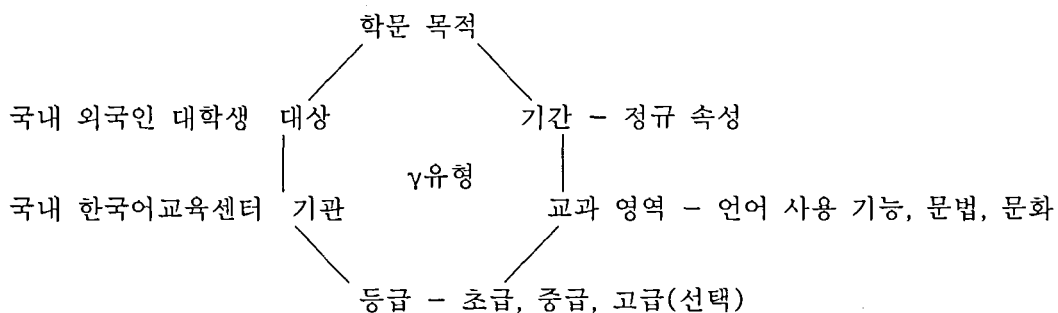
가) 교과목 종속 등급 교육과정

나) 등급 종속 교과목 교육과정

3장에서는 2장에서 밝힌 다양한 변인들을 전부 고려한 '층위 교육과정 모형'은 변인들의 무한한 속성으로 인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변인들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한 '원형 교육과정 모형'(Proto type Standard Korean Curriculum model)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목적 변인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기관, 교과목, 기간, 등급을 동시에 설정한 모형으로서, 교육과정의 수, 수용의 용이성, 변형의 용이성이라는 장점을 갖는다.

VI. 제안

이 장에서는 위에서 살핀 원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초급 1단계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제안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수정이 필요함을 밝힌다. 이는 위에서 제안한 목표 중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정 중, 전형적인 한국어과 설치 대학교의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목표, 교과목별 목표를 예시를 들어 제안한 것이다.



1. 대상

- 국외 한국어과 설치 대학 1학년 외국인 대상

2. 전체 목표

- 1)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대학생들의 한국어 사용 기능 능력을 신장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학습함으로써, 해당 국가와 한국의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있다.

- 2) (1) 한국어 사용 기능 능력 신장이란 세부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말한다.
- (2) 한국인의 가치관을 학습한다함은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한국인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축적한 정치, 경제, 법률, 사회, 문화 등과 관련된 유무형의 지식을 가리킨다.
- (3) 해당 국가와 한국의 상호 발전을 위한다 함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문화 등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 문화와 상호 교류와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함을 뜻한다.

3. 1학년 교과목

- 1) 상위 영역 통합 교과목
 - (1) 한국어와 한국 문화
- 2) 하위 영역 통합 교과목
 - (1) 기초 한국어
 - (2) 기초 한국어 문법
 - (3) 기초 한국 문화
 - (4) 기초 한국 문학
 - (5) 기초 실용 한국어

4. 교과목 시수 - 각 2시간, 16주

5. 1학년 교과목표 및 해설

1) 한국어와 한국 문화

(1) 교과별 교육 내용

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1학년 1학기 과목이다.

나.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사전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 사용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국어 문법, 한국 문화, 한국 문학 및 실용적인 자료(공문서 작성, 한글 프로그램 익히기, 한자)등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2) 주제별 교육 내용

가. 자기 소개하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전화하고 받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자기 자신, 가족, 날씨 등 매우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와 관련된 간단한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약 800개의 기초 어휘와 기본 문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다. 간단한 생활문, 실용문, 문학 작품(동화, 동요등 기초적인 문학 작품) 등을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다.

라. 한국의 위치와 주요 도시의 환경, 한국의 의식주 문화(김치, 한복, 가옥 등)의 특성, 한국 명절과 기념일, 한국 교통, 한국인의 의사소통 수단 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

마. 한국에서 한자의 위치를 알고 100개 정도의 한국 한자를 배우고 쓸 수 있다.

2) 기초 한국어

(1) 교과별 교육 내용

가. 기초 한국어는 1학년 1학기 과목이다.

나.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사전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한국어 사용 기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2) 주제별 교육 내용

가. 자기 소개하기, 가족 소개하기, 교통 알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전화하고 받기 등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나. 말하기·듣기

- 한국어의 기본적인 음운(자음, 모음, 받침)을 구별하고 발음할 수 있다.
- 일상 생활과 관련 있는 간단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다.
- 일상 생활과 관련 있는 간단한 대화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간단한 대화를 말할 수 있다.
- 사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관한 매우 간단한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다. 읽기

- 기본적인 표지나 표지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읽을 수 있다.
- 짧은 서술문을 읽고,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
- 일기, 편지 등 간단한 생활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메모, 영수증 등 간단한 실용문을 읽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라. 쓰기

- 정형화된 표현이나 외운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형성할 수 있다.
-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여 간단한 문장이나 대화를 구성할 수 있다.
-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에 대해 짧은 생활문을 쓸 수 있다.
- 글자 구성 원리를 이해하여 맞춤법에 맞게 글씨를 쓸 수 있다.

3) 기초 한국어 문법

(1) 교과별 교육 내용

가. 기초 한국어 문법은 1학년 1학기 과목이다.

나.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사전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의 특성과 기초적인 한국어 문법(음운, 어휘, 통사(문장), 의미)를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2) 주제별 교육 내용

가. 한국어 특성

- 한국어의 기호적 특성, 규칙성과 체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나. 한국어 음운

- 국어의 발음 체계(모음과 자음 체계와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단위를 발음할 수 있다. 또한 음절과 음절간의 변동 규칙 중 보편 필연적인 변동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

다. 한국어 어휘(단어)

- 국어 단어를 1000개 정도 암기하고 활용할 수 있다.
- 국어에서 가장 활발한 조어 방법을 가진 단어 형성 규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라. 한국어 통사(문장)

- 국어 문장의 기본 문형 구조(기본 문형, 기초적 높임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마. 한국어 의미

- 1000개 기초 단어의 전형적인 의미를 문장을 만들어 학습할 수 있다.

4) 기초 한국 문화

(1) 교과별 교육 내용

가. 기초 한국어 문법은 1학년 1학기 과목이다.

나.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사전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유무형의 문화를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2) 주제별 교육 내용

가. 전형적인 한국의 위치, 한국의 사회 현실, 한국의 생활 문화, 한국의 전형적인 문화재, 한국의 교통, 한국인의 특성 등을 이해하고 현지어로 표현할 수 있다.

나. 한국 지리 - 한국의 위치, 주요 도시와 특성, 인구 및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현지어로 표현할 수 있다.

다. 한국 경제 - 전형적인 과거의 한국 경제와 현재의 한국 경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지어로 표현할 수 있다.

라. 한국 역사 - 현재 한국을 이루고 있는 과거의 명칭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유교 전통의 특성을 현지어로 표현할 수 있다.

마. 한국 법률 -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이해하고 현지어로 표현할 수 있다.

바. 한국 문화 - 전형적인 문화재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현지어로 표현할 수 있다.

5) 기초 한국 문학

(1) 교과별 교육 내용

가. 기초 한국어 문학은 1학년 1학기 과목이다.

나.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국 문학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사전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형적인 한국 문학 작품(현대 노래, 영화, 드라마 포함)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2) 주제별 교육 내용

가. 시

- 전통적인 시조의 음보를 알고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시를 짓는다.
- 간단한 동요나 한국 노래를 외우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나. 소설

- 간단한 플롯을 가진 전통적인 동화를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현지어로 표현할 수 있다.

다. 연극

- 자신이 아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현지어로 표현할 수 있다.

6) 기초 실용 한국어

(1)교과별 교육 내용

가. 기초 실용 한국어는 1학년 1학기 과목이다.

나. 이 과정은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한국어 측면에 대한 사전 배경 지식이 없거나 또는 사전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문서 작성, 한글 프로그램 익히기, 한자 등을 학습하는 교과목이다.

(2) 주제별 교육 내용

가. 한국에서 필요한 문서 작성의 틀을 알고 여기에 나오는 항목들을 말할 수 있다.

나. 한글 프로그램의 메뉴와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초 한자 1000 단어를 익힐 수 있다.

참고 문헌

강승혜(2005), “한국어교육과정사”,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강현화 외(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 연구”, 교육과정 평가원.

교육부(1998),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명광(200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 한국어 교육 20호, 한국어문 교육학회

김명광(2005), “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 조사”, 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원.

김명광(2007), “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박이정.

김민애(200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민현식(2003), ‘국내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변혜경 외(2002), “주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연구”,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원진숙(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이미혜(2003),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이미혜(2003), ‘직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제13차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정희(2003),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이해영(2004),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 연구’,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전나영(2003),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정명숙(2003),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조항록(2001),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정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 진기호(2003),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한재영 외(2004),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 황선영 외(2006), ‘이주 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별첨 자료 1

개별 국가의 한국어교육과정 현황

<별첨 자료 1>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베트남’등 총 11개국이다. 인도네시아, 몽골, 태국의 경우는 교육과정을 총목표, 교과목, 교과 목표, 교육 시수 등의 상관성을 밝히면서 해당 한국어 교육과의 교육 편제의 구성과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필리핀, 스리랑카, 싱가포르의 경우는 현재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전체 현황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둔다. 중국, 대만 등의 한국어교육과정은 수집된 자료 중 일부 항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데 어렵다. 따라서 이 국가의 한국어 교육 현황은 받은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한국어 수요가 많은 국가이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과(태국,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필리핀), 해당 지역에 한국어 관련 학과의 대학(11개 국가 전체)이 설립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높게 하였다.

<별첨 자료 1>의 의의는 해당 국가의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체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의 연구 결과들은 이 지역들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의 실태 조사에 그쳤다. 곧 교수진이 몇 명이고 그 교수진의 구성이 어떻게 되며,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러한 교수진, 학생 수 및 학교 현황과 같은 실태 파악은 가급적 지양하고, ‘교육 시수, 교과목, 교과 목표’와 같은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정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반 사항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조사의 한계는 모든 대학이 교육 과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다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사항인 교과목, 교육 시수, 교과 목표 중에서도 공백을 갖고 있는 대학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다. 곧 어떠한 대학은 교과목만 있고 교과목표가 없는 곳이 있으며, 또 어떤 대학은 교과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될 것들이 ‘한국어 1’, ‘한국어 2’와 같이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 수업인지를 살펴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해당 대학이 이러한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해당 강사나 교수의 개별적인 강의와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개별 교수들이 해당 대학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덧붙여 각 대학의 한국어과가 성격이 같지 않다는 점도 실태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곧 한국어 관련학과가 모두 전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부전공, 교양 선택, 교양 필수’와 같이 부분적인 한국어 교육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 대다수 있어서, 체계의 평형성을 맞추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의 의미가 이러한 성격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임을 염두에 둘 때, 굳이 평형성과 체계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여, 이 장에서 가능한 한 원시 자료를 그대로 수록한다.

제1장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교육과정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한국어 설치 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교육 기관들이 지향하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명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현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해 왔다. 즉 인도네시아 대학의 개수, 교수의 수, 학생 수, 그리고 교과목과 학점과 같은 표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각 대학이 지향하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교과목의 상관성, 교과목이 어떤 의도로 개설되었는가하는 방향성, 그리고 이 교과목이 한국어 교육의 대영역 속에 어디에 분포하는가 하는 체계성, 해당 교과목의 수준과 배치 등과 관련된 논의는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온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지금 현재 국내에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축하려는 다방면의 시도가 있는 데⁹⁷⁾, 이러한 국외의 한국어교육과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한 국내의 한국어 교육만을 위한 교육과정 체계가 구성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미시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교육과정의 현황과 방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거시적으로는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구축자들에게 국외 교육과정의 특수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현지에서 한국어과가 개설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1987년 6월에 나시오날 대학(Universitas Nasional, 사립대, 자카르타 소재)의 한국학연구소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국립 가자마다대학교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는 한국어 한국 문화과의 형태로 한국어 교육(4년의 학사 과정)이 실시되고 있으며, 가자마다 대학은 한국어과라는 명칭으로 3년의 디플로마 과정이 실시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2004년도까지 상대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급성장하지는 않았지만⁹⁸⁾, 최근 고용허가제 제도로 인하여 한국어 교육이 매우 활성화되어 앞으로의 한국어 교육의 전망은 매우 밝다.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이란 한국 정부의 고용 인력 수급의 일환으로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서⁹⁹⁾, 이 제도의 핵심 요지는 해당 국가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근로자'의 자격으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한국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제도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2004년 7월 13일 한국 노동부와 현지 노동부가 협정(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맺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2차례 약 15,000명이 응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 현지 인도네시아 노동부 산하 기관 OWC(overseas work committee)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 한국어 수요가 급격히 늘어 현재 6개 사설 언어 학원이 한국어 강좌를 개설된 상태이다. 더불어 2005년도 4월에는 자카르타 소

97).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구축 시도는 학회 중심과 기관 중심으로 행해졌다. 학회 중심의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논의는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와 제 16차 학술대회에서 시도되었으며, 기관 중심의 구축 시도는 국립 국어원과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98) 다른 국가 예를 들어 몽골의 한국어 교육은 1995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로 2000도에 총 10개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가 설치되었다.

9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서 2003년도 3월 17일에 시행령이 2003년 4월 23일에는 시행 규칙이 제정되어서 2005년도에 부분적으로 수정되었다.

재 국립 27 고등학교가 한국어반(40명) 시범 교육을 시작한 것을 보면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열풍은 대학 차원의 한국어 교육으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글은 인도네시아의 한국어교육과정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 나시오날 대학교, 가자마자 대학교를 차례로 살펴본다.

2.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한국문화과 교육과정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Universitas of Indonesia; UI)는 자카르타와 데폭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이다. 이 두 대학 중 한국어과는 데폭 캠퍼스의 인문 대학에 인도네시아 최초로 4년제 학사과정(명칭 - 한국어 한국문화과(Program Studi Bahasa dan Kebudayaan Korea/ Korean Language and Culture Program, 2006년 8월 개설, 홈페이지 <http://fib.ui.ac.id>)가 개설되어 있다. 여기서 ‘한국문화’의 의미는 한국문학, 한국역사, 한국종교, 한국철학 등을 주로 하는 한국 관련 인문학을 의미한다. 우선 이 과의 전체 목표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총 목표

일상생활에서부터 다양한 전문분야까지 한국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한국어학, 한국문학, 역사, 종교, 철학 등의 한국 인문학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 한국 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습득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학문, 기술,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과정을 크게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 취업 목적의 한국어, 기타 특수 목적의 한국어(이주 여성자 한국어 교육,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로 나눈다고 보았을 때¹⁰⁰⁾ 이 대학이 지향하는 목적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이다. 다음에 이 과의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학점은 144점이며, 학점 평균은 2.0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어 한국문화과에서는 147학점이다. 이중 한국의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종합인성교육(PDPT)과 기초인문학교육(MKDK)이 각각 12학점, 16학점, 전공필수가 90학점, 전공선택이 21학점, 논문이 8학점이다. 전공필수는 다시 전공일반과목(MKK)과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한국어 과목(MKKK)으로 나뉜다. 전자는 39학점, 후자는 51학점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 학점 체계

구분(1)	구분(2)	학점
교양과목	종합인성교육	12
	기초인문학교육	16
전공필수	전공일반과목	39
	한국어과목	51

100) 김명광(2007b), “국어과 교육과정과 한국어과 교육과정의 비교와 대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3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 71-91 참조.

전공선택	전공선택과목	21
논문	논문 세미나	3
	논문	5
합계		147

인도네시아 교육성(우리나라 교육부에 해당)에서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과 수강 과목체계를 위와 같이 제시하는 데, 교양 과목의 경우 대학교 자체에서 결정하며 각 대학과 단과대(여기서는 인문 대학)에서 교양 필수 학점을 과에서 교양 선택을 정한다. 또한 논문 영역의 경우 이를 쓰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지만 그 대신에 전공선택과목에서 8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해야만 한다.

(3) 전공필수

가. 전공일반과목(MKK) : 총 39학점

13개 과목 각 3학점 - 일반 언어학 개론(Pengantar Linguistik), 한국어 음성학(Fonetik), 한국어 형태론(Morfologi Bahasa Korea), 한국어 통사론(Sintaksia Bahasa Korea), 한국어 의미론(Semantik Bahasa Korea), (일반) 문학개론(Pengantar Kesusatraan), 한국 문학사(Sejarah Kesusatraan Kor.), 한국 문학 A -운문·회곡(Pengkajian Sastra Korea A (Puisi + Drama)), 한국 문학 B -산문(Pengkajian Sastra Korea B (Prosa)), 한국사 개론(Pengantar Sejarah Korea), 한국 근현대사(Sejarah Korea Kontemporer), 한국 문화사 A(Sejarah Kebudayaan Korea A), 한국 문화사 B(Sejarah Kebudayaan Korea B)

나. 한국어(MKKK) : 총 51학점

13개 과목 한국어 1-6 각 6학점, 이외 각 3학점 - 한국어 (Bahasa Korea) 1-6, 한국어-인니어 번역 1(Terjemaha Korea-Indonesia 1), 한국어-인니어 번역 2(Terjemaha Korea-Indonesia 2), 인니어-한국어 번역(Terjemaha Indonesia - Korea), 비즈니스 한국어(Bahasa Korea untuk Bisnis), 공문서 작성(Korespondensi dlm Bahasa Korea)

(4) 전공선택(MKP) : 총 21학점(전체는 57학점이나 선택 최대 학점은 21학점임)

총 20개 과목, 각 3학점, 최소 이수 학점 - 21학점(총 7개 과목) - 한국어학 세미나(Seminar Linguistik Korea), 한국문학 세미나(Seminar Kesusatraan Korea), 한국 산문 연구(Telaah Prosa Korea), 한국 시 연구(Telaah Puisi Korea), 한국사 세미나(Seminar Sejarah Korea), 역사 연구 방법론 및 이론(Metode & Teori Sejarah),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사(Sejarah Hubungan Indo nesia-Korea), 한국-일본 관계사(Sejarah Hubungan Korea Jepang), 역사편찬론/ 사료수집론(Historiografi Umum), 한국예술의 발전(Perkembangan Kesenian Korea), 한국문화 연구(Kapita Selekt Kebuda yaan Korea), 한국의 대중문화(Kajian Budaya Populer Kor.), 문화간 의사소통(Komunikasi Antarbudaya), 한국 경제윤리(Etika Bisnis Korea), 한국의 기업문화(Budaya Korporasi Korea), 한국 비즈니스의 역사(Sejarah Perdagangan Kor.), 한국 정치 체계(Sistem Politik Korea.), 한국의 사회정치(Sistim Sosial Politik Korea), 한국 외교사(Sejarah Diplomasi Korea)

※ 학문을 위한 영어(Bahasa Inggris Akademik)

(5) 논문

논문 세미나(3학점), 논문(5학점)

위 교과목의 성격을 좀더 정밀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이 글에서는 위 교과목들을 아래와 같은 범주로 나눈다.

(6) 가. 언어 사용 기능 영역 교과

나. 문법 영역 교과

다. 문학 영역 교과

라. 문화 영역 교과

마. 실용 영역 교과

바. 기타 영역 교과

(6가)의 언어 사용 기능 영역 교과란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기능 학습이 목적인 교과로 여기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교과목에 해당하는 것에는 (3)에서 보면 ‘한국어 1’이 있다.

(6나)의 문법 영역이란 한국어의 문법적 구조와 체계를 밝히는 것으로, 그 하위 영역으로 ‘어휘론’, ‘통사론’, ‘음운론’, ‘형태론’ 등 각 언어 단위들의 문법적 체계를 밝히는 부문이 있다. (3)에서는 ‘한국어 음성학, 한국어 형태론, 한국어 통사론, 한국어 의미론’등이 이에 해당된다.

(6다)의 문학 영역이란 ‘독백 양식, 이야기 양식, 교술 양식, 대화 양식’등과 관련된 작품(또는 텍스트)의 이해와 창작과 관련된 교과목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하위 영역에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이 있다. 위에서는 ‘한국 문학 개론, 한국 문학사’ 등이 있다.

(6라)의 문화 영역이란 한국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총체-사고, 풍속, 윤리, 정치, 경제, 지리, 종교, 문학, 제도 등-를 밝히는 부문이다. 위에서는 ‘한국 문학사, 문학 개론, 한국 문화사, 한국의 대중 문화, 한국 경제 윤리’등이 이에 속한다.

(6마)의 실용 영역은 취업에 필요한 교과로 대개 해당 대학의 교과 설치와 연관된다. 비록 인도네시아의 국립 대학교는 목적 측면에서 볼 때 ‘학문 목적’을 지향하지만, 이 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후 주로 한국 기업(현지 및 국내)에 취업을 하게 되는 데, 이러한 진로를 염두해 둔 교과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인니어 번역, 인니어-한국어 번역, 비즈니스 한국어, 공문서 작성’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6바)는 위 범주 이외의 것들로, 주로 해당 대학의 개별적인 교육 과정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논문’, ‘논문 세미나’와 같은 교과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영역별 한국어 교육과목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7) 가. 언어 사용 기능 영역 교과

한국어 1-6(각 6학점) - 36학점

나. 문법 영역 교과

일반 언어학 개론, 한국어 음성학, 한국어 형태론, 한국어 통사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학 세미나) - 총 15학점(18학점)

다. 문학 영역 교과

(일반) 문학 개론, 한국 문학사, 한국 문학 A-운문·희곡, 한국 문학 B- 산문, 한국 문학 세미나(한국 산문 연구, 한국 시 연구)- 총 15학점(+6학점=23학점)

라. 문화 영역 교과

한국사 개론, 한국 근현대사, 한국 문화사 A, 한국 문화사 B, (한국사 세미나, 역사 연구 방법론 및 이론,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사, 한국 일본 관계사, 역사 편찬론/자료 수집론, 한국 예술의 발전, 한국 문화 연구, 한국의 대중 문화, 문화간 의사소통, 한국 경제 윤리, 한국의 기업 문화, 한국 비즈니스의 역사, 한국 정치 경제, 한국의 사회 정치, 한국 외교사) - 12학점(+21학점=33학점)

※ 전체 문화 영역과 관련된 교과 중 전공 선택이 총 45학점이지만 학생들이 최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21학점이므로 전공 필수와 최대 전공 선택 학점을 이수한 경우 총 33학점이 된다.

마. 실용 영역 교과

한국어 인니어 번역 1, 한국어 인니어 번역 2, 인니어 한국어 번역, 비즈니스 한국어, 공문서 작성 - 15학점

바. 기타 영역 교과

(논문 세미나(3), 논문(5)) - 0학점(7학점)

※ 한국어와 관련이 없는 교과 : 학문을 위한 영어

사. 교과목 순위

기능 36> 문화 12(24)> 문학 15(23)> 문법15(18)> 실용 15> 기타(7)

위와 같이 분석된 자료와 전체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 (7사)의 교과목의 우선 순위를 보면 기능 영역이 가장 높으며 문화 영역이 그 다음 순위이다. 문화 영역의 경우 ‘전공 필수 과목’만 놓고 본다면 ‘문학, 문법, 실용’보다 뒤에 있으나, 전공 선택 중 문화와 관련이 없는 영역은 ‘학문을 위한 영어(Bahasa Ingris Akademik)’(한국어 이외 영역), ‘한국 산문 연구, 한국 시 연구’(문학 영역)밖에 없다는 점, 총 21학점의 전공 선택 과목을 필수적으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한다는 점, 그 결과 문화 영역을 최소 12학점(전공 선택 이수 총 학점 21학점 - 문학 영역 이외 총학점 9학점 =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전체 필수 이수 학점이 적어도 24학점이다. 따라서 ‘문학, 문법, 실용’ 영역의 교과목의 수업 시수보다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학과 자체의 명칭과 주요 목표가 ‘한국 문화’를 지향한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문학’과 관련된 교과목이 15학점(최대 23학점-전공 선택 : 한국 산문 연구한국어과 교육과정, 한국 시 연구한국어과 교육과정)이어서, 문법 영역의 교과목과 대등한 교육 편제가 이루어져 있다.

셋째 전공과목의 경우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1-6’(각 6학점 주당 8회 수업 실시)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이 3학점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3학점 과목은 75분 수업을 주당 2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강의는 1회만 하고 75분 수업에 상응하는 과제를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이 대학은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한국어’라고 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통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1-6’ 중 ‘한국어 1’과 ‘한국어 2’의 경우는 말하기 3회, 듣기 2회, 읽기 1회, 쓰기 1회, 문법 1회로 현재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¹⁰¹⁾ 언어 사용 기능은 한국 교

육 과정 평가원의 등급별 평가 목표를 기준 삼아 특징적인 요소만을 추출하여 단계별로 구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8) 가. 한국어 1 : 한글의 자모에서 시작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어휘는 최소 1000개를 익힌다.

나. 한국어 2 :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기초 의사소통 능력을 기른다. 어휘는 최소 1,500 - 2000개를 익힌다.

다. 한국어 3 : 은행, 우체국, 여행사 등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고 사회적으로 친숙한 소재에 대해 말하고, 그에 대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다.

라. 한국어 4 : 공공시설이용이나 사회적 관계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친숙한 주제에 대해 간단한 토론을 할 수 있다. 뉴스나 신문기사 등을 이해할 수 있으며, 감상문이나 간단한 보고서나 논설문을 쓸 수 있다.

마. 한국어 5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대해서도 요약, 논증, 토론 등의 언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고서나 논설문 등을 쓸 수 있다. 대부분의 신문기사나 비교적 쉬운 문학작품을 읽을 수 있다.

바. 한국어 6 : 전문분야 상황에서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신문기사 뿐만 아니라 문학, 학술논문도 이해할 수 있으며, 연설, 논설문, 공식적인 문서 등을 쓸 수 있다.

위 (8)을 분석해 보면, ‘한국어 1, 2’가 동일하게 ‘기초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휘에서 상호 구별되며(한국어 1 : 1,000, 한국어 2 : 1,500 - 2,000), ‘한국어 3, 4’가 동일하게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주제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국어 4’의 경우 간단한 토론과 형식을 갖춘 글(뉴스, 신문 기사, 감상문, 보고서, 논설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목적이다. ‘한국어 5’와 ‘한국어 6’의 경우 문화적 측면의 교육을 매우 강조하지만 전자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형식적인 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어 6’은 ‘전문적인 글’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한국어 1’과 ‘한국어 2’는 초급, ‘한국어 3’과 ‘한국어 4’는 중급, ‘한국어 5’는 고급, ‘한국어 6’은 심화(또는 발전)에 대체로 해당된다. 하지만 각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이 어떠한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한국어 1’과 ‘한국어 2’에서만 기준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초급의 경우 영역별 의사소통 기능 향상이라는 일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였지만 중급에서부터 심화까지는 주제(은행, 우체국, 여행사 등)와 형식(뉴스, 신문 기사, 논설문 등)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실용 영역의 교과는 주로 번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어 → 인니어’ 번역을 강조하고 있다.

(9) 가. 한국어 인니어 번역 1 :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공고문, 광고 등을 한국어에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는 것을 연습한다. 번역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도 다룬다.

나. 한국어 인니어 번역 2 : 기사나 공고문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노래, 만화 등의 다

101) 전공 선택 과목은 앞서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총 18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되지만 모든 과목이 개설되는 것은 아니다. 즉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목은 개설되어 있으나 강사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개설되었더라도 수강 신청 학생이 일정 수를 미달하면 폐강된다.

양한 글을 한국어에서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는 것을 연습한다.

다. 인니어 한국어 번역 : 다양한 인도네시아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한다.

라. 비즈니스 한국어 : 비즈니스 분야에서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 경제용어, 계약서, 협상기술, 설득기술, 사업상 대화 시 유의할 점 등을 다룬다.

마. 공문서 작성 : 한국어로 다양한 공문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어 인니어 번역은 총 6학점으로 배정되어 있는 반면 인니어 한국어 번역은 3학점으로만 배정되어 있다. 한국어 인니어 번역1과 2의 순서도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형식적인 글에 대한 번역 교육을 중시하지만 후자의 경우 비형식적인 글과 난이도가 높은 문학 작품에 대한 번역을 중시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용 영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통역(입말 번역)과 관련하여는 해당 교과목이 없다는 점에서 추후 수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문법 영역의 경우는 문법의 5대 영역(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중 4대 영역이 교과 과정으로 설정되어 있어 균형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10) 가. 일반 언어학 개론 : 언어와 언어학의 개념 및 언어학에서 다루는 각 하위 학문, 또는 인접학문을 이해한다.

나. 한국어 음성학 : 한국어의 음성학적 특징을 다룬다. 조음방법 및 위치에 따른 소리의 특징을 이해하며, 음절의 구조, 음운규칙 등을 이해한다.

다. 한국어 형태론 : 형태소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파생법, 합성법 등을 이해한다.

라. 한국어 통사론 : 한국어의 통사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마. 한국어 의미론 : 의미론의 영역 및 방법을 이해한다. 어휘의미론, 형식의미론, 화용의미론의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의미 분석 능력을 기른다.

바. 한국어학 세미나 : 다양한 논문 및 실제 언어 자료를 통해 한국어 문법을 분석, 연구한다.

즉 위 (10나) - (10마)와 같이 '화용론'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화용론'이 문장 차원을 넘어서 텍스트 차원에 대한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학 영역'에 포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법 체계가 사실상 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개론'(10가) → 심화(10나-10마) → '연습'(10바)와 같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일곱째 문학 영역의 경우는 문학의 5대 영역(시, 소설, 수필, 희곡, 문학사 또는 서정, 서사, 교술, 희곡, 문학사)의 교과목이 문법과 달리 불균형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다.

(11) 가. (일반) 문학 개론 : 문학의 개념에서 문학의 장르, 각 장르의 구조, 문학이론 등을 다루어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나. 한국 문학사 : 한국의 고대문학에서 현대문학까지를 대표적 작품을 통해 이해한다.

다. 한국 문학 A - 운문·희곡 : 한국의 운문과 희곡을 대표적 작품을 통해 이해한다.
운문은 한글창제 이후의 작품으로 제한한다.

라. 한국 문학 B - 산문 : 한국 근현대의 산문을 대표적 작품을 통해 이해한다.

- 마. 한국 문학 세미나 : 한국문학의 연구방법, 연구과제선택, 자료선택 및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연습한다.
- 바. 한국 산문 연구 : 한국의 주요 산문 작품을 연구한다.
- 사. 한국 시 연구 : 한국의 대표적 시조와 현대시를 연구한다.

즉 (11다) - (11라)에서 보듯이 교과목의 내용이 '운문, 산문, 회곡'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다보면 '수필'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 들어갈 자리가 없으며 실제로 (11가)와 (11나)의 구체적인 목표 기술에 '수필'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시, 소설, 수필, 회곡, 문학사'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만들거나, 또는 '독백체, 이야기체, 지시체, 대화체'와 같이 글의 문체를 중심으로 하여 '서정, 서사, 교술, 회곡'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문학사'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11사)의 목표 기술은 매우 중의적으로 되어 있다. 즉 '한국의 대표적 시조와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시'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 시조 그리고 현대시'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이 맥락만 놓고 보면 시조와 현대시를 상보적 관계로 설정하였는데 '현대시'의 경우에 현대에 만들어진 '시조'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은 평행하게 나열될 수 없다. 따라서 중의적인 목표 기술을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를 연구한다'라고 하거나 '한국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시를 이해할 수 있다(창작할 수 있다)'와 같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곧 불균형적인 '시조'와 '현대시'를 나열하느니, '시'라고 포괄하여 기술하고, 교육 내용에 포함되는 '시의 성격'을 상세하게 부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부가적인 장점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두는 '현대 노래' 같은 교육 요소도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여덟째 문학 영역도 문법 영역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론'(11가) → 심화(11나-11라) → '연습'(11마)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법 영역의 경우 전공 선택에 '연습'(11마)이 '개론' 수준의 교과목만이 있는 반면, 문학의 경우 개론 수준의 '연습'과 함께 심화 수준의 교과목 '한국 산문 연구', '한국 시 연구'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문법 영역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심화 수준의 문법 전공 선택 과목을 설치하거나 또는 문학의 전공 심화 선택 과목을 없애야만 한다. 하지만 '전공 선택'이라는 개념이 전공 필수를 보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법'의 영역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것이 올바른 처리라 여겨진다.

아홉째 문화 영역은 한국 역사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 (12) 가. 한국사 개론 : 고조선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시대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양상을 파악한다.
- 나. 한국 근현대사 : 일제시대 독립운동기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이해한다.
- 다. 한국 문화사 A : 고대에서 조선까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한다. 각 시대별 민중들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를 다룬다.
- 라. 한국 문화사 B :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에서 비롯한 문화와 예술을 이해한다. 현대의 대중문화까지 폭넓게 다룬다.
- 마. 한국사 세미나 : 논문 및 다양한 역사자료를 통해 한국사를 연구한다.
- 바. 역사 연구 방법론 및 이론 : 역사연구 이론 및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한다.
- 사. 한국 인도네시아 관계사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한다

- 아. 한국 일본 관계사 :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한다.
- 자. 역사편찬론/사료수집론 : 자료수집 및 역사편찬 이론을 이해한다.
- 차. 한국예술의 발전 : 한국 문화 예술의 발전에 대해 연구한다.
- 카. 한국문화 연구: 한국 현대문화에 관련된 글이나 작품 등을 읽고 토론한다.
- 타. 한국의 대중 문화 : 한국의 대중문화를 이해한다.
- 파. 문화간 의사소통 :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고찰하고, 외국어 습득 시 경험하는 문화간 의사소통의 여러 측면을 이해한다.
- 하. 한국 경제 윤리 : 한국 사회의 경제문화와 윤리를 연구한다.
- 거. 한국의 기업문화 : 한국기업의 종류, 경영형태 등 기업문화를 이해한다.
- 너. 한국 비즈니스의 역사 : 한국 비즈니스/상업의 역사를 다룬다.
- 더. 한국 정치 체계 :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한국의 정치체계를 이해한다.
- 러. 한국의 사회 정치 : 한국의 사회정치적 특징을 이해한다.
- 머. 한국 외교사 : 한국의 외교 역사를 이해한다.

위를 잘 보면 전공 필수 12학점(12 가-라)과 전공 선택의 총 15학점(12 마-자)이 역사 과목에 해당한다. 이 이외의 영역은 모두 전공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27학점 12 차-머) 주요한 교수-학습 내용은 ‘예술(차), 문화(카, 타, 파), 경제(하, 거, 너), 정치(더, 러), 외교(머)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문화 영역은 한국인의 사고와 생활양식의 총체를 알 수 있는 영역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어떤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한계 규정이 학계에서 통일된 것이 없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영역을 소위 ‘예술’(전통 문화, 현대 문화) 영역(이를 다시 보면 일반 문화 영역으로 지칭할 수 있다)만으로 보는 협의의 문화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이 범위를 넓게 보아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국외의 경우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설치학과는 대부분 후자의 광범위한 교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국외의 한국어 교육의 교과목을 중시하여 광의의 문화 영역 교과목 설치를 주장한다. 이는 국외의 문화 교과목이 광의로 개설되어 있다는 점 이외에 외국인들이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피교육의 욕구가 한국의 유물이나 사물에 투영된 구체적 문화 형식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 경험의 총체와 가치관을 배우고 싶어하는 동기적 차원에서도 광의의 한국 문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광의의 문화 영역을 ‘개방적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여도 그 한계와 교과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국외 한국어교육 과정을 명시적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단초를 국내의 교육과정 중 국어과 이외의 다른 영역 중 특히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13) 사회과 교육과정

- 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 나.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며, 고장, 지방 및 국토 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다.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민

죽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

라. 사회 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 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한다.

마. 사회 현상과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 분석, 조직,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며, 사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 결정 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을 기른다.

바. 개인과 사회 생활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 국가 발전과 세계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도 한국 문화의 영역처럼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그 영역을 크게 ‘역사, 정치, 경제, 제도, 지리’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 사회과의 목표는 (13가)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다루는 데, 이를 달리 말하면 해당 사회를 알 수 있는 유무형의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문화 차원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사회과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과 차이점을 가진다. 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각론을 보면 영역이 ‘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등으로서, 이때의 세계지리나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등과 같은 국외의 포괄적인 현상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어과의 목표는 한국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세계와 관련된 영역을 제외하면, 한국어 교육의 문화 차원에서 필요한 영역을 이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궁극적인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의 상호 교차적 접근을 지향한다고 보았을 때, 한국과 해당 국가의 상호 문화 비교와 관련된 영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 문화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4) 광의의 문화 영역(한국 역사,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제도, 한국 지리, 상호 문화 이해) 및 협의의 일반 문화 영역(또는 한국 예술)

이제 (14)의 기준으로 위 (12)을 다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 가. 한국 역사 - 한국사 개론, 한국 근현대사, 한국 문화사 A, B, 한국사 세미나, 역사 연구 방법론 및 이론, 역사 편찬론/사료 수집론

나. 한국 정치 : 정치 체계, 한국의 사회 정치, 한국 외교사

다. 한국 경제 : 한국 경제 윤리, 한국의 기업문화, 한국 비즈니스의 역사

라. 한국 제도 : 없음.

마. 한국 지리 : 없음.

바. 상호 문화 이해 : 한국 인도네시아 관계사, 한국-일본 관계사

아. 일반 문화 영역 : 한국예술의 발전, 한국문화 연구, 한국의 대중 문화, 문화간 의사 소통

위 (15)를 보면 첫째 한국 제도와 지리와 관련된 교과목이 없으며 둘째 한국 정치와 경제의 경우 (15가)의 영역과 겹칠 수 있는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고(한국 외교사, 한국 비즈니스의 역사), 셋째 상호 문화 이해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상호 문화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일본 관계사’와 같이 매우 독특한 교과목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세 번째의 경우 이는 한국 역사 안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특수성을 염두하여 만들어진 교과이다.

3. 나시오날 대학교의 한국어과

나시오날 대학교(Universitas Nasional; UNAS, <http://www.unas.ac.id>)는 자카르타에 소재해 있는 사립 종합대학으로, 1987년 한국학연구소가 설치되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강좌가 개설되었으며, 1995년 9월 외국어 전문대학(Akademi Bahasa Asing Nasional)에 3년제 디플로마 과정의 한국어과 (Jurusan Bahasa Korea/ Korean Language Department)가 개설되었다. 2003년 이전에는 교육부의 허가가 없이 대학 총장령으로 개설된 과로서 영어과에 소속되어 운영되었지만¹⁰²⁾, 2003년도 부터는 교육성의 정식 허가를 받아 한국어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6) 총목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디플로마 과정으로 졸업 후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직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갖추는 데 주목적이 있다.

나시오날 대학교의 ‘한국어과’가 지향하는 한국어 교육의 방향은 (7)에서 보듯이 ‘직업’과 연계된 교육이다. ‘직업’과 연계되었다고 함은 이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향후 취업할 때 필요한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어 관련 직업은 크게 국내외 한국 기업에 취직, 관광 가이드(관광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인도네시아 현지인이다), 통역 또는 번역사, 한국어 학원 등인데 해당 기관들의 한국어 요구 사항은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대학교는 아래에서 보듯이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110학점이며 ‘한국어 교육’과와 관련 있는 과목은 ‘전공필수’의 86학점과 ‘논문 세미나와 논문’의 6학점으로서 총 94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전공 선택’의 경우 해당 과목이 한국어와 관련 없는 과목 - 컴퓨터, 수출입, 마케팅, 관광-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이 대학이 2003년부터 인도네시아 교육성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과 수강과목체계가 정해져 있지만, 각 부문별 이수 학점과 과목은 대학과 단과대, 그리고 과에서 정할 수 있다.

(17) 학점체계

102) 1995년에서 2002년까지는 영어과 소속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졸업 시 한국어과가 아닌 영어과로 명시된 졸업장을 받았다.

구분(1)	구분(2)	학점
교양과목	인성교육	4
	기초인문과목	6
전공필수	전공필수과목	86
전공선택	전공선택과목	8
논문	논문 세미나	2
	논문	4
합계		110

(18) 전공필수

37개 과목 - 한국어 말하기 1-6 각 4학점, 이외 각 2학점 : 한국사(Sejarah Korea), 한국문화 개론(Pengantar Budaya Korea), 한국어 문법 1-6(Tata Bahasa Korea), 한국어 말하기 1-6(Percakapan Korea), 한국어 듣기 1-4(Lab. Bahasa Korea), 한국어 읽기 1-6(Bacaan Korea), 한국어 쓰기 1-4(Menulis Korea), 한국어-인니어 번역 1-2(Terjemahan Kor.-Indo.), 문서 작성 1-2(Surat Menyurat Kor. Umum), 작문(Komposisi), 기사문·보도문 읽기(Bahasa Korea Pers), 한자 1-2(Kosa Kata Hanca), 한국어교육 실습(Training Korea Teacher)

(19) 전공 선택

총 4과목 각 2학점 : 컴퓨터(Komputer Korea), 수출입(Export Import), 마케팅(Marketing), 관광(Tourism)

(20) 논문

총 2과목 : 논문 세미나(2학점), 논문(4학점)

이 이외의 교과목에는 인성교육(총 4학점), 기초 인문(총 6학점)이 있으나, 이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생략한다. 이 때 2학점 과목은 주 1회 90분 수업이며 4학점 과목은 90분 수업을 주 2회 한다. 아울러 이 대학의 전공필수 학점이 총 86학점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의 90학점과 거의 비슷하지만 전공 선택 과목이 한국어와 관련이 없는 과목(컴퓨터(Komputer Korea), 수출입(Export Import), 마케팅(Marketing), 관광(Tourism))인 반면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는 '영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어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¹⁰³⁾ 또한 이 대학의 학점이 대개 2학점(한국어 말하기 1-6의 4학점은 예외임)인 반면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의 학점은 대개 3학점(한국어 1-6의 각 6학점은 예외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위 교과목의 성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6)과 같은 기준으로 범주 구분을 하면 아래와 같다.

(21) 가. 언어 사용 기능 영역 교과

한국어 말하기 1-6(Percakapan Korea), 한국어 듣기 1-4(Lab. Bahasa Korea), 한국어 읽기 1-6(Bacaan Korea), 한국어 쓰기 1-4(Menulis Korea), 작문(Komposisi) - 50학점

나. 문법 영역 교과 : 한국어 문법 1-6(Tata Bahasa Korea) - 12학점

103) 컴퓨터(Komputer Korea),

다. 문학 영역 교과

없음

라. 문화 영역 교과

한국사(Sejarah Korea), 한국문화 개론(Pengantar Budaya Korea) - 4학점

마. 실용 영역 교과

한국어-인니어 번역 1-2(Terjemahan Kor-Indo.), 문서 작성 1-2(Surat Menyurat Kor. Umum), 기사문·보도문 읽기(Bahasa Korea Pers), 한자 1-2(Kosa Kata Hanca), 한국어교육 실습(Training Korea Teacher) - 16학점

바. 기타 영역 교과

논문 세미나(2학점), 논문(4학점) - 6학점

사. 기능 50> 실용 16> 문법> 12> 기타 6> 문화 4> 문학 0

위 교육 과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21사)를 보면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이 가장 우선 순위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실용 영역이 그 다음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 대학교의 총목표와 관련이 있다. 곧 이 대학교의 총목표의 지향점은 취업을 위한 실용적 기능을 습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 기능’과 ‘실용 영역’이 우선된다. 특히 ‘말하기’가 다른 교과목보다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는 점과 한국어 교육 실습(직무 교육), 문서 작성1-2가 전공 필수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이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또한 ‘한자’ 과목과, 신문과 같은 자료 읽기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통역’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인니어-한국어’ 번역과목이 없다는 점은 취업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과 성격 상,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둘째, 이 대학은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와 달리 한국어가 세부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분되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한국어 말하기와 읽기가 총 6단계의 구분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듣기와 쓰기의 구분은 4단계 구분을 가지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쓰기의 경우 ‘작문’이 독립된 교과목으로 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4단계, 5단계, 6단계의 구분이 혼재되어 있다. 셋째 이 대학은 문학 영역이 없으며, 문화 영역도 개론 수준의 문화와 ‘한국 역사’만이 개설되어 있다.

4. 가자마자 대학교의 한국어과

가자마자 대학교(Universitas Gadjah Mada)는 족자카르타에 소재해 있는 국립 종합대학교이다. 1996년 10월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2003년 3년제 디플로마 과정의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가자마자 대학교는 2007년 9월 4년제 학사과정의 한국학과를 개설할 예정으로 현재 교과과정을 준비 중이다.

(22) 총목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디플로마 과정으로 졸업 후 한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직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갖추는 데 주 목적이 있다.

이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특징적인 목적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교육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언어 사용 기능’과 ‘문화’ 영역의 학습을 중요시한다. 이 대학의 학점 체계는 최소 이수학점이 110학점이며, 한국어과에서는 118학점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과정 교과목 선정은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과 ‘가자마자 대학교’에 준한다.

(23) 학점 체계

구분(1)	구분(2)	학점
교양과목	인성교육	6
	기초인문과목	8
전공필수	전공필수과목	84
전공선택	전공선택과목	10(14)
논문	논문 세미나	2
	논문	4
합계		114 118

(24) 전공 필수

가. 전공 필수

33개 과목 - 한국어 문법 각 4학점, 이 외 각 2학점 : 한국어 읽기 1-5, 한국어 말하기 1-5, 한국어 쓰기 1-5, 한국어 듣기 1-5, 한국어 문법 1-5, 한자, 번역 1-2, 비즈니스 한국어 1-2, 관광 한국어, 한국 현대사회, 한국 경제, 한국사, 컴퓨터 한글 문서 작성

※ 일본어 1, 문화간 의사소통

나. 전공선택

관광학 개론(Pengantar Pariwisata), (일반) 컴퓨터(Komputer Umum), 경영(Manajemen Umum), 비서학(Humas dan Kesekretariatan), 예절과 인성/인격(Etiket dan Kepribadian), 일본어 2(Bahasa Jepang 2), 기업가론(Kewirausahaan)

0개 과목 - 없음.

다. 논문

2개 과목 - 논문 쓰는 법 2학점, 논문 4학점.

위 학과의 특색을 보면, 전공 필수 과목에 한국어와 관련되지 않는 과목(일본어 1, 문화간 의사소통)이 있다. 전공 으며, 컴퓨터 한글 문서 작성)이 있다. 전공 선택에는 ‘한국어’ 관련 과목이 없다. 2학점 과목은 주 1회 90분 수업을 하며, 4학점 과목은 90분 수업을 주 2회 한다.

(25) 가. 언어 사용 기능 영역 교과

한국어 읽기 1-5, 한국어 말하기 1-5, 한국어 쓰기 1-5, 한국어 듣기 1-5 - 50 학점

나. 문법 영역 교과

한국어 문법 Tata Bahasa 1-5 - 20학점

다. 문학 영역 교과

없음

라. 문화 영역 교과

한국 현대사회(Kapita Selekt Masy. Korea), 한국 경제(Masyarakat dan Ekonomi Korea), 한국사 (Sejarah Korea) - 6학점

마. 실용 영역 교과

한자(Hanca), 번역(Terjemahan) 1-2, 비즈니스 한국어(Bahasa Korea untuk Bisnis) 1-2, 관광 한국어(Bahasa Korea untuk Pariwisata), 컴퓨터 한글 문서 작성(Komputer Sistem Korea) - 14학점

바. 기타 영역 교과

논문 세미나(2학점), 논문(4학점) - 6학점

사. 기능 50> 문법 20> 실용 14> 문화 6> 기타 6> 문학 0

위 교육 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25사)를 보면 ‘언어 사용 기능’ 영역 교과목이 가장 큰 수업 시수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문법’ 영역이다. ‘한국어 문법’은 각 4학점으로 모두 5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대학의 문법은 각각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등과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각 과목은 강사에 따라 결정된다. 문화 영역은 ‘일반 사회, 역사, 경제’과목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도, 정치, 윤리와 같은 과목은 없다. 다음에 실용 영역에는 ‘한자’와 한글 문서를 작성하는 ‘한글 문서 작성’이 있는 데 이는 다른 대학과 차별되는 교과목이다. 문학 영역은 ‘나시오날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교과목이 없다.

5. 결론

이 글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한국어 설치 대학 중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 ‘나시오날 대학교’, ‘가자마자’ 대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 세 대학이 중시하는 교과목은 (26)과 같다.

(26) 가. 기능 36> 문화 12(33)> 문학 15(23)> 문법15(18)> 실용 15> 기타(7)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

나. 기능 50> 실용 16> 문법> 12> 기타 6> 문화 4> 문학 0 (나시오날 대학교)

다. 기능 50> 문법 20> 실용 14> 문화 6> 기타 6> 문학 0 (가자마자 대학교)

위 (26)을 보면 이 세 대학이 공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영역은 언어 사용 기능 영역으로서, 대개의 다른 국가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다음 차순의 영역은 각 대학마다 중시하는 교과목이 상호 다른 데, 우선 학문 목적의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수-학습을 중요시하는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는 문화 영역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며, 문학, 문법, 실용 영역의 교과목이 대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나시오날 대학교는 취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실용’ 영역의 교과목을 우선으로 한다. 역시 가자마자 대학교도 취업 목적을 중요시 하지만 순위로 보면 ‘실용’ 영역이 ‘문법’의 뒤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만 놓고 본다면 나시오날 대학교는 교육과정의 구성이 다시 재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나시오날 대학교와 가자마자 대학교는 ‘문학’ 영역의 교과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교육과정 시수를 보면 각 대학이 상호 차이를 가지고 있다.

(27) 가.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

가) 전공 필수 : 총 26개 교과 - 90학점

나) 전공 선택 : 총 20개 교과 - 21학점(전체가 60학점이나, 최소 이수 학점은 21학점임)

다) 기타 : 2개 교과 - 6학점

나. 나시오날 대학교

가) 전공 필수 : 총 13개 교과 - 74학점

나) 전공 선택 : 없음

다) 기타 : 2개 교과 - 6학점

다. 가자마자 대학교

가) 전공 필수 : 총 32개 교과 - 74학점

나) 전공 선택 : 없음

다) 기타 : 2개 교과 - 6학점

위 (27)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의 한국어 관련 과목이 가장 많으며 나시오날 대학교와 가자마자 대학교는 동일하다. 이 때 세부적으로 볼 때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는 전공 필수 중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의 한국어가 각각 6학점으로 분포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3학점인 반면, 나시오날 대학교는 말하기 영역의 학점이 4학점이고 나머지가 2학점이다. 가자마자 대학교는 문법이 각 4학점 그리고 나머지가 2학점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는 전공 선택에 한국어 관련 과목, 특히 문화 영역의 관련과목이 많지만, 나시오날 대학교나 가자마자 대학교는 전공 선택에 한국어와 관련된 선택 과목이 없다. 또한 가자마자 대학교에는 전공 필수 과목에 한국어 영역 이외에 일본어와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는 교과목이 들어 있어서 각 대학별로 전공 과목의 편제가 각기 다르다. 즉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는 전공 과목과 전공 선택에 한국어 과목이 편제되어 있으며, 나시오날 대학교와 가자마자 대학교는 전공 선택에만 해당 과목들이 있으며, 또한 가자마자 대학교는 전공 필수에도 한국어 교육 이외의 영역이 교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문학’과 관련된 영역은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에만 있고 다른 대학은 ‘문학’ 교과가 없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셋째, 인도네시아 국립 대학교의 문화 영역이 ‘역사’ 부문에 치우쳐 있음을 말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교육과정이 국외 한국어 교육을 포괄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지 외국인들이 결과로서의 문화보다는 그 결과가 생성되기까지의 문화 곧 한국인의 사고와 가치를 알고자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점을 들어 문화 영역을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제도, 윤리’ 등과 같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확대된 문화 영역의 교과목은 국내의 사회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였으며, 따라서 확대된 문화 영역은 ‘한국 역사,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제도, 한국 지리, 예술, 비교 문화’가 포함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참고 문헌

- 김금섭 외(1994), [인도네시아 사회와 문화],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금섭(2004), “인도네시아의 한국학 현황”, 국제교류재단
- 교육부(1998),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제교류재단 편(2007), [해외한국학백서], 국제교류재단.
- 김명광 (2005), [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 조사], 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원.
- 김명광(2007 a), “한국어교육과정의 표준화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문제”, 새국어교육 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 (2007 b), “국어과 교육과정과 한국어과 교육과정의 비교와 대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3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2007 d), [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박이정.
- (2007 e), “인도네시아 한국어교육과정의 상위 영역과 교과목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한국학연구 제27집, 한국학연구소.
- (2007 f),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 현황”, 한국어교육 제23호, 한국어문교육학회.
- (2007 g), “상위 영역 항목 속에서 바라본 한국어 교과목에 대한 일고찰-태국의 한국어 설치 대학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4, 한국어교육학회

제2장 몽골의 한국어교육과정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몽골의 한국어교육과정을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그 현황을 논의하고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한 면을 제시하는 데 있다.

몽골의 한국어 교육은 1990년 3월 26일에 한국과 몽골이 상호 외교 관계를 수립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몽골이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자 한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계획을 모델화하여 자국의 경제적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데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교류가 정치, 문화, 역사, 교육에 대한 교류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진적으로 높아졌다.

처음에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는 주로 드라마와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드라마 ‘올인, 대장금, 겨울연가, 모래시계, 야인시대’ 등이 다른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 국가에서도 방영되고 있거나 방영 중에 있다. 대중가요도 특정 대중 가수(안재모, 베이비복스, 장나라, 비 등)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다.¹⁰⁴⁾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한국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피교육의 욕구를 확대시켰다.

제도권 내의 한국어 교육은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정부 주도의 교육이 있다.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의 시초는 1990년 10월 외무성산하 동양학연구소에 한국어강좌가 개설된 시점이다. 아울러 11월에는 외국어 대학에, 1991년 3월에는 몽골국립대학교 및 몽골국립과학기술대학교에 한국어강좌가 각각 개설되었다. 1992년 9월에는 외국어대학('99년 이후 인문학대학교로 개명)에 정식으로 한국학과가 설립되었다. 1995년 4월에는 울란바토르 대학교(사립), 1998년에는 사립대학인 오르홍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다. 2000년도에는 몽골국립사범 대학교 외에 7-8개 사립대학에서 한국어학과(또는 한국어과)가 설치되었다. 이후 한국어 교육을 전공 부전공으로 채택하는 학교가 크게 되어 2005년도 현재 약 20개의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곧 위에서 언급된 대학 이외에 몽골-소통고스 칼리지, 세룰렉 대학, 요요 대학, 울란바토르 대학교(국립), 몽골경제대학, 오토공텡게르 대학교, 몽골 운데스 대학, 징기스칸 대학교, 한몽대학교 등이 한국어과를 개설하거나 복수 전공이나 교양으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한국어교육은 MBE(Mediation bureau for employment - 몽골 해외 취업청)에서 예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은 2004년도에 한국 노동부와 현지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관련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체결로 인하여 자국인의 실제적인 경제적 효과 측면과 맞물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¹⁰⁵⁾ 이 양해 각서의 핵심 사항인 EPS-KLT(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의 3회 시험(2005년도 2차례, 2006년도 1차례)은, 이제 제도권 내의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한국어 교육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과 달리 불완전한 교

104) Sukhragchaa Munkhjargal(2005), [몽골에서의 한류 현상의 배경과 그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p 7-20 참조.

105) 다만 이 국가는 해외투자기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해외투자기업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활발하지 않다.

육 과정과 열악한 수업환경을 볼 때,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지난 2005년도에 실시된 몽골의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¹⁰⁶⁾를 바탕으로 몽골에서 지향되어야 할 한국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한편 각 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이전에 이 글에서 보는 교과목 대영역 구분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몽골은 한국어 교육이 발전기에 들어서 있다. 다른 여타의 국가보다도 한국어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각 학교의 목적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몽골사범대학은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울란바토르 대학교(사립)는 한국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몽골국립대학교나 한몽기술대학교의 경우, 통역을 중시하여 그 교육 과정이 맞추어져 있다. 목적이 다양하면 이에 따라 한국어교육과정이 세부적으로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살피기 위하여 교과목을 대영역 항목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가. 언어 사용 기능 영역

- 나. 문법 영역
- 다. 문학 영역
- 라. 문화 영역
- 마. 실용 영역
- 바. 기타 영역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은 언어 사용 기능 교육이 중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과목들에 대한 범주이다. 예를 들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육이나 이 사용 기능 영역 중 두 개의 영역이 통합된 ‘회화’(말하기와 듣기) 과목이 그것이다.

문법 영역은 한국어의 체계를 밝히거나 한국어의 특성을 교육하는 범주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문법’, ‘어휘론’, ‘통사론’, ‘음운론’, ‘형태론’등 각 언어 단위들에 대한 체계와 특성을 가르치는 교과목 집단을 뜻한다.

문학 영역은 ‘시, 소설, 연극’등을 가르치는 교과목 범주들을 뜻한다.

문화 영역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모습이나 배경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범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문화, 한국학(나라학), 경제, 정치’등과 관련된 교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 때 문학도 문화 영역에 상당수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문학은 개별적이며 개연성있는 허구를 다루지만, 문화는 한국인들의 생활 중 공통된 특징의 총합을 다루는 데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용 영역은 ‘통역, 번역, 한자’와 같이 자국인과 한국인 간의 상호 간의 인지 과정이나 한국 실제 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범주와 변별성을 갖는다. 물론 언어 사용 기능 영역도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용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은 의사소통의 대상이 되는 언어 그 자체에 목적을 둔 반면 실용 영역은 그 언어의 실제적 쓰임과 관계성을 중시하는 교육 범주이다.

기타 영역은 ‘교사 실습, 논문’등과 같이 1차적 자료를 바탕으로 2차적 적용을 목적을 둔

106) 김명광 외(2005), [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 조사],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단.

다는 점에서 다른 영역과 구별 된다.

2. 정부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

3-1. 몽골에서 현지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MBE(Mediation bureau for employment)이다. 2005년도 8월 16일 이전까지는 한국 기업 취업 희망자들은 한국어 교육을 80시간을 이수해야만 한국으로 갈 수 있었다. 이때에는 4주 교육을 실시했으며, MBE에서 자체 선발한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대상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이다.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이 도입되고 난 후 2박 3일의 직무 교육(한국어 교육 포함)을 이수한 후 한국의 기업에 보내진다. 물론 한국에서도 고용주들에게 이들이 인수되기 전에 각 지방(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소재 직업전문학교, 충북 소재 직업전문학교, 경기도 발안 소재 직업 전문학교 등)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 소양 교육 및 한국어를 가르친 후, 각 기업에 보내진다.

3-2. M.O.U 협정 이전의 MBE 한국어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전체교육과정 중 한국어교육과정

가. 총 수업시간: 80시간

나. 수업목표: 비 전문취업자의 새로운 사업장 적응

다. 수업목적: 본 수업은 대한민국 노동부에 주관하는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몽골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 수업내용: 몽골인 노동자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100시간)과 비전문 취업자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교육인 기능교육(50시간)을 실시한다. 소양교육에는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80시간), 한국문화 이해(7시간), 그리고 고용허가제도의 이해(13시간) 수업이 이루어진다. ...생략...

마. 과정 이수 후 도달해야 할 능력

가) 사전 교육 20일 과정

- 한국어 교육

한글제자 원리 이해, 한글 자음과 모음의 이해 및 발음, 정서법, 한글 음절 구성 이해, 받침의 발음, 한글 읽기, 기본 문법(격조사, 어순, 시제, 양사, 동사활용 등), 간단한 길 안내 표시판이나 안전 표시판, 감사의 인사나 요청, 수사나 요일 및 날짜 시인, 기본 어휘 500개 이상, 인사나 자기소개, 전화, 생활 필수품 사기, 시간 약속, 음식 주문, 작업장 전문 용어 이해 등.

- 한국문화 이해

한국의 지리, 기후, 한국인의 사고와 정서, 관혼상제, 의식주, 명절과 풍습

- 수업 과목 및 시간

○ 한국어(80) : 한글자모(10), 일상생활(60)(물건사기(8), 식당에서(8), 은행과 우체국(6), 전화하기(8), 교통수단(10), 병원과 약국에서(10), 기타(10)), 인사 및 자기소개(10)

- 한국 문화 이해(7), 한국 문화(2), 한국예절과 풍습(5)

나) 출국 전 5일 과정

인사말, 자기소개, 숫자(한글, 한자)(3), 일상생활(전화하기, 물건사기, 교통수단 이용)(3), 일상생활(식당, 병원, 약국, 은행, 우체국 등)(2), 직장생활(3), 한국 문화 및 예절(1)

이 한국어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육과정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교육과정(직업훈련교육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속해 있다. 둘째, 사전 교육의 총 시수는 120시간이며, 이 중 “사전 교육”의 한국어교육과정의 총 시수는 87시간이 할당되어 있다.(정확히는 80시간이 한국어 교육이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 7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이 한국 문화는 넓게 보아 한국어교육과정의 일부이다.) “출국 전 5일 교육”의 총 시수는 30시간이며, 이 중 한국어 교육 시간이 과정의 총 시수가 12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따라서 예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올 때 한국어 교육을 받는 시간은 총 98시간이다. 셋째,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크게 한국 생활 적응과,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습득이다. 아울러 이 MBE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대개 몽골 현지인(한국에 체류하였던 현지인)들이다. 한편 한편 2005년 8월 16일 이후의 교육과정은 1주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지만 이 교육과정은 개편 중에 있다.

3. 대학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

몽골의 한국어 설치 대학은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 약 20 곳이 있다. 이 중에서 교육 과정을 공개한 10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몽골국립대학교

이 대학의 한국어는 외국어문화대학(School of foreign language and culture)에 속해 있다. 한국어는 다시 한국어교육·통역 전공과 한국어 통역·지역학 전공으로 나뉜다. 한국어 교육·통역 전공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양 20학점, 전공 필수 80학점, 전공 심화 20학점, 전공 선택이 29학점”이다. 총 12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전공 선택의 29학점 중에서 최소 8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더 이수도 가능함) 2003년도서부터 교육학은 사범대학만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한국어통역·지역학은 “교양 19학점, 한국어 62학점, 전공 54학점”이다. 총 135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하다. 한국어교육-통역 전공과 한국어 통역·지역학 전공과목은 다음과 같다.¹⁰⁷⁾

- (1) 한국학과 전공과목(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이 포함되어 있음)

107) 이 대학은 식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어교육과정이 있으나 다른 대학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생략한다. 자세한 것은 김명광 외(2005)의 p139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어교육·통역 전공	한국어통역·지역학 전공	학점
1	한국어 발음 1	한국어 발음 1	4
2	한국어 문법 1,2	한국어 문법 1,2	4
3	한국어 문법 3	한국어 문법 3	2
4	어휘 1, 2, 3	어휘 1, 2, 3	2
5	말하기, 듣기 1,2	말하기, 듣기 1,2	3
6	한국어회화 3	한국어회화 3	2
7	읽기, 쓰기 1, 2, 3	읽기, 쓰기 1, 2, 3	2
8	공문서 작성법 4	공문서 작성법 4	2
9	번역 2, 3	번역 2, 3	2
10	번역 4	번역 4	4
11	한국역사 3, 4	한국역사 3, 4	2
12	한국경제지리학 4	한국경제지리학 4	2
13	한국문학 4	한국문학 4	2
14	한자 1, 2, 3, 4	한자 1, 2, 3, 4	2
15	교생실습	통역실습	3
16	관광학 입문	관광학 입문	2
17		한국 과학, 교육제도	2
18		한국 정치제도, 한국 외교	2
19		한국 사회개론	2
20		한국 문화개론	2
21		한국 종교	2

한국문화 교육과 관련된 과목에는 “한국 문학, 한국 경제지리학, 한국 역사, 한국 과학·교육제도, 한국 정치제도·한국외교, 한국 사회개론, 한국 문화개론, 한국 종교”가 있다. 이 중에 “한국 문학, 한국 경제지리학, 한국 역사”는 필수 과목이며, 나머지는 선택 과목이다.

한국어 교육의 범주를 “언어 사용 기능, 문법, 문화, 실용, 기타”로 나누어 보았을 때 위의 교육과정은 다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

(2) 영역별 교육

가. 한국어교육·통역 전공

가) 언어 사용 기능 : 말하기·듣기, 한국어회화, 읽기, 쓰기 - 7학점

나) 문법 : 한국어 발음, 한국어 문법, 어휘 - 8학점

다) 문화 : 한국 문학, 한국역사, 한국경제지리학, 한자, 관광학 입문 - 8학점

마) 실용 : 공문서 작성법, 번역 - 8학점

라) 기타 : 교생실습 - 2학점

나. 한국어통역·지역학 전공

가) 언어 사용 기능 : 말하기·듣기, 한국어회화, 읽기, 쓰기 - 7학점

나) 문법 : 한국어 발음, 한국어 문법, 어휘 - 8학점

다) 문화 : 한국 문학, 한국역사, 한국경제지리학, 한자, 관광학 입문

한국 과학, 교육 제도, 한국 정치 제도, 한국 외교, 한국 사회 개론, 한국 문화개론, 한국 종교 - 18학점

마) 실용 : 공문서 작성법, 번역 - 8학점

라) 기타 : 교생실습 - 2학점

영역 별 우선 순위를 알아보면 (3)과 같다.

(3) 가. 한국어교육·통역 전공

문법(8), 문화(8), 실용(8)> 기능(7)>기타(2)

나. 한국어통역·지역학 전공

문화(18)>문법(8), 실용(8)>기능(7)>기타(2)

3-2. 몽골국립사범대학교

이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외국어대학 동양어문학부에 속해 있다. 이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다른 대학과 성격이 다르다. 곧 이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대상은 예비 한국어 교사로서 주로 '한국어 교사 교육 및 통역(번역)을 위한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 과정은 교양필수(몽골역사, 철학 등) 14학점, 전공기초(교사론, 교육학, 교육심리학, 지도법, 교생실습 등) 32학점, 전공과정 79학점(전공필수: 64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총 125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학과(한국어 교사, 통역(번역) 전공) 교과과정

과목		학점	과목		학점
전공과목		79	14	한국어회화	12
A	전공필수	64	15	한국어강독	2
1	언어학개론	3	16	한국어쓰기	2
2	일반언어학	2	17	한국어듣기	2
3	(현대몽골어)	4	18	한국어어휘	4
4	번역이론	2	19	소논문 작성	1
5	번역실습	8	B	전공선택	15
6	한국학	4	1	번역	3
7	한국문학	3	2	통역	3
8	한국어이론	4	3	한국문화전통	3
9	한-몽대조문법	2	4	한국어문제론	3
10	한자	2	5	교재연구방법	3
11	한국어발음법	1	6	알타이어와 한국어	3
12	한국어음성학	2			
13	한국어문법	4	총학점		125

※ ()는 한국어와 관련이 없는 과목을 가리킨다.

영역 별로 교육 과정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2) 영역별 교육 과정

가. 언어 사용 기능 : 한국어회화, 한국어강독, 한국어쓰기, 한국어듣기 - 18학점

나. 문법 : 언어학개론, 일반언어학, 한국어이론, 한-몽대조문법, 한국어발음법, 한국어음성학, 한국어문법, 한국어어휘, (알타이어와 한국어) - 22학점(25학점)

다. 문화 : 한국학, (한국문화전통) - 3학점(6학점)

라. 문학 : 한국문학(3학점)

마. 실용 : 번역이론, 번역실습, (번역), 한자, (통역) - 13학점(19학점)

마. 교육 : (교재연구방법) - (3학점)

바. 기타 : 소논문 작성, (한국어문체론) - 1학점(4학점)

※ ()는 전공 선택 과목이나 전공 선택 포함 시수를 뜻한다.

영역 별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문법>기능>실용>문화>기타>문학>교육

이 대학의 교육과정 특징은 우선 문법과 기능 교육이 다른 과정보다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대학의 한국어과는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문법'과 '기능'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도 구체화되어야 한다. 물론 전공 기초에 "전공 개론, 심리학, 교육학, 지도법"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교육학이지, 특수 목적의 한국어 교육 과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3-3. 몽골국립인문대학교

몽골국립인문대학교는 1992년에 동양어학부 내에 한국어학과를 최초로 개설되었다. 지금 현재 한국어 통역사학과와 한국어교사학과(2개과), 그리고 한국어경제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다음에 이 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만을 추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학과 (120학점)

학 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구분	과목명	학점	구분
1	초급한국어회화1	2		문화연구개론	1	
				초급한국어회화4	3	
	초급한국어회화2	2		초급한국어회화5	3	
	초급한국어회화3	1		초급한국어회화6		
2	중급한국어회화1	2		고급한국어회화1	3	
	중급한국어회화2	2		고급한국어회화2	3	
	중급한국어회화3	2		고급한국어회화3	2	
	음성·음운론	2		문장론	2	
	일반번역론	2		전문번역론	2	
	한→몽번역1	1		한→몽번역2	1	
	몽→한번역1	1		몽→한번역2	1	
	한국학1 (한국현대사)	1		한국학2 (한국고대사)	1	
	한국문학1	1		한국문학2	1	
	학점소계	14		학점소계	16	
3	Text 요약분석1	1.5		Text 요약분석2	1.5	
	어휘론	2		언어학연구방법론	2	
	한→몽통역1	1		몽→한통역1	1	
	한국학3 (한국인·한국지리)	1		한국학4 (한국사회)	1	

	한국문학3	1	한국문학4	1	
	문화관계론1	1	문화관계론2	1	
	공문서번역	2	경제·경영분야번역	3	
	관광통역번역	2	한국어능력시험	1	
	한자1	1	한자2	1	
	한글 Word Processor	1	4주간 실습	4	
	학점소개	13.5	학점소개	16.5	
4	Text 요약분석3	1.5	Text 요약분석4	1.5	
	담화분석론	2	디필러긴언어학	2	
	한→몽통역2	1	몽→한통역2	1	
	한국학5 (한국경제)	1	한국학6 (한국정치)	1	
	한국문학5	1	한국문학6	1	
	문화관계론3	1	문화관계론4	1	
	사회·정치·언론분야번역	3	과학·기술분야번역	3	
	법률번역	3	문학번역	2	
	한자3	2	속담·관용표현론	2	

(2) 영역별 교육

가. 한국어교육·통역 전공

가) 언어 사용 기능 : 초급 한국어회화1,2,3, 중급 한국어회화1,2,3, 고급 한국어회화1,2,3 - 26 학점

나) 문법 : 음성·음운론, 문장론, 어휘론, 언어학연구방법론, 담화분석론, 속담·관용표현론 - 12 학점

다) 문화 : 문화연구개론, 한국학1(한국현대사), 한국학2(한국고대사), 한국학3(한국인·한국지리), 한국학4(한국사회), 문화관계론1,2,3,4, 한국학5(한국경제), 한국학6(한국정치) - 11 학점

라) 실용 : 일반번역론, 전문번역론, 한→몽번역1,2, 몽→한번역1,2, 한→몽통역1,2, 몽→한통역1,2, 공문서번역, 경제·경영분야번역, 관광통역번역, 한자1,2,3, 한글 Word Processor, 사회·정치·언론분야번역, 과학·기술분야번역, 법률번역, 문학번역, Text 요약분석1,2,3,4 - 36 학점

마) 문학 : 한국문학1,2,3,4,5,6 - 6 학점

바) 기타 : 실습, 한국어능력시험 - 5 학점

영역 별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실용(36)>기능(26)>문법(12)>문화(11)>문학>기타

이 대학은 실용 분야에서 ‘번역’(글말), ‘통역’(입말)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번역이 매우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교육되고 있다. 다음에 언어 사용 기능 중 주로 ‘말하기, 듣기’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 교육도 비록 절대 수업 시간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역시 ‘역사,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일반’ 등으로 구분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¹⁰⁸⁾

108) 한국어 복수 전공(60)과 한국어 부전공 (40)의 교육 과정은 한국어학과 전공과 과목이 비슷하다. 다만 과목

3-4. 울란바토르 대학교(사립)

울란바토르 대학교는 특이하게 동일 명칭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또 하나가 있다. 한국인이 세운 사립 울란바토르 대학교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게 될 국립 울란바토르 대학교가 있다. 후자의 경우 더 정확히는 울란바토르 시에서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시립 울란바토르 대학교라 불러도 무방하다.

사립 울란바토르 대학교는 1995년도에 4년제가 되었으며, 한국어학과와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한국학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가. 한국어학

성격	과목	학점	과목	학점
전공 필수 I	한국어 회화	12	한자	4
	한국어 문법	12	번역 이론	3
	어휘	4	문법	3
	청취	4	고급 회화	4
	음운론	2	작문	4
전공 필수 II	번역	8	문법	3
	어휘	4	한국어 실습(사이버 교육)	2
	한국 경제	3	한국인의 의식	3
	한국사	3	사회 봉사	3
	현대 문학	3	한국 정치	3
	문법	3	한국 문화 풍속	3
	고전 문학	3		
통역-번역 실습 P, 졸업 논문 4, 졸업 시험P				

나. 한국학

이 전공인 경우, 필수인 경우가 많은 반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의 경우 선택 과목이 많다.

성격	과목	학점	과목	학점
전공 필수 I (53)	한국어 회화1,2,3,4	12	한자	6
	한국어 문법1,2,3,4	12	현대문학	3
	어휘1,2	4	문법	6
	청취1,2	4	회화	4
	음운론	2		
전공 필수 III (44)	번역, 독해	6	고전 문학	3
	어휘	4	한국인의 의식	2
	한국 경제	3	사회 봉사	2
	한국사	3	한국 지리	3
	한국 정치	3	한국 민속	3
	작문	4	사이버 교육(경 회 사이버 대)	8
	고전문학	3		
전공 선택	한국 사회 문화 기초	3	한국어구비문학	3
번역실습 P, 논문 4, 졸업 시험 P				

(2) 영역별 교육

가. 한국어학

언어 사용 기능 : 한국어 회화, 청취, 고급회화, 작문 - 28 학점

문법 : 문법, 어휘 - 23 학점

문화 : 한국 경제, 한국사, 한국 정치, 한국 문화 풍속, 한국인의 의식 - 15학점

문학 : 현대 문학, 고전 문학 - 6학점

실용 : 한자, 번역 이론, 번역 - 15학점

기타 : 사회 봉사, 한국어 실습(사이버 교육), 졸업 논문 - 5학점

cf) 통역-번역 실습, 졸업 시험

나. 한국학

기능 : 한국어 회화1,2,3,4, 회화, 청취1,2, 작문 - 24학점

문법 : 문법, 한국어 문법1,2,3,4, 어휘1,2, 음운론 - 28학점

실용 : 한자, 번역, 독해, - 12학점

문학 : 현대문학, 고전문학, 한국어구비문학 - 9학점

문화 : 한국 경제, 한국사, 한국 정치, 한국인의 의식, 한국 지리, 한국 민속, 한국 사회
문화 기초 - 19학점

기타 : 사회 봉사, 사이버 교육(경회 사이버대), 논문 - 10학점

cf) 번역 실습, 졸업 시험

이 대학의 교육 과정의 특징은 첫째, 한국어학과 한국학의 두 교육과정이 있다. 전자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되어 있으며, 후자는 순수 한국학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다만 한국어학의 경우, 전공필수 I에 '현대문학'과 '회화'가 있는 반면(한국어학의 경우 회화는 전공 필수 I에 두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학의 경우, '작문'과, '번역 이론'이 별개로 개설되어 있다. 아울러 한국어학의 전공필수 III의 경우 '번역, 독해', '한국 문화 풍속'이 한국학에서는 '번역' 및 '한국 민속'으로 명칭이 다르다. 더불어 한국어학의 경우 '현대 문학, 문법'이 한국학과 별개로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학은 '한국 정치, 작문,

한국 지리'가 한국어학과 다른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여기에 한국학은 전공 선택 과목에 '한국 사회 문화 기초, 한국어 구비 문학'이 독립되어 있다. 셋째, 이 두 학과의 교육과정 중에 사이버 교육이 있는 데, 이는 한국 경희 대학교의 사이버 대학과 연계되어 수업이 진행되는 형식이다. 넷째, 졸업의 경우, 통역-번역 실습, 졸업 논문, 졸업 시험이 있으며, 학생들이 졸업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반드시 합격해야만 한다. 다섯째, 번역 실습은 다른 대학과 달리 합격이나 불합격이냐라는 평가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곧 다른 대학에서는 번역이 정규 교과에 편제되어 수업 시수가 할당되어 있으나 이 대학에서는 번역 실습이 P와 F로 되어 있다.

영역 별로 중시하는 교과목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한국어학 : 기능>문법>문화>실용>문학>기타

한국학 : 문법>기능>문화>실용>기타>문학

여기에서도 한국어학과 한국학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국어학은 기능을 중요시한 반면 한국학은 문법을 중요시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어학에서는 '문학'이 '기타'보다 앞에 온 반면, 후자는 '기타'뒤에 '문학'이 왔다는 점에 알핏 한국어학이 '문학'을 더 강조하는 것 처럼 보이나, 수업 시수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한국어학에서의 문학이 6학점이 배정된 반면 한국학은 9학점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이버 교육'을 한국어학에서는 학점이 '2'학점이 할당된 반면 한국학에서는 총 '8'학점이 할당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3-5. 울란바토르 대학교(국립)

이 대학은 2003년에 역사학, 언어학과 및 고고학과(새로 개설)가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복수 전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2005년 이후에 언어학과가 폐지되고 그 대신 몽골어-한국어통역학과가 새로이 개설되었다. 한국어교육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과정 (총 56학점) - 복수 전공

학년	과목명	학점
1	문법	6학점
	회화	3학점
	단어론(어휘론)	3학점
	읽기	3학점
	학점 소개	15학점
2	한몽번역	3학점
	몽한번역	3학점
	나라학(한국학)	2학점
	문법	3학점
	읽기	2학점
	회화	3학점
	학점 소개	16학점
3	회화	3학점
	한자	2학점
	한몽번역	3학점

4	몽한번역	3학점
	나라학(한국학)	2학점
	문법	3학점
	학점 소개	16학점
	한자	2학점
	한몽번역	1학점
	몽한번역	1학점
	문법	2학점
	나라학	2학점
	회화	1학점
	학점 소개	9학점

영역 별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 문법 : 단어론(어휘론) - 15학점
 기능 : 회화, 읽기 - 15학점
 실용 : 한몽번역, 몽한번역 - 16학점
 문화 : 나라학(한국학) - 6학점

영역 별 우선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3) 실용 > 문법, 기능 > 문화

특이하게 다른 대학과 달리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3-6. 몽골 과학 기술 대학교

몽골 과학 기술 대학교는 2004년도에, 한국어 및 실용 언어학과가 개설되었다. 실용 언어학과에는 영어과가 있으며 이 영어과는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한국어과의 설립 취지는 학문적인 목적보다는 한국어 전문 통역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이 맞추어져 있다.

(1) 한국어교육과정 (총 72학점)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한국어 문법 및 어휘	6학점	한국어 문법 및 어휘	6학점
	한국어 회화	4학점	한국어 회화	4학점
	학점 소개	10학점	학점 소개	10학점
2	한국어 문법 및 어휘	4학점	한국어 문법 및 어휘	4학점
	한자	4학점	한자	4학점
	한국어 회화	4학점	한국어 회화	4학점
	번역 개론	4학점	한몽 번역	4학점
	학점 소개	16학점	학점 소개	16학점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1학년 1학기의 한국어 문법 및 어휘, 한국어 회화가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및 2학기에 공통 교수 과목으로 되어 있다. 2학년 1학기 및 2학기의 공통 과목으로는 한자가 있다. 2학년 1학기의 독립 과목은 번역 개론이며, 2학년 2학기의 독립 과목은 한문 번역이다. 2학년 1학기의 번역 개론은 기초 수준의 번역 연습이며, 몽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목인 반면 2학년 2학기의 한문 번역은 심화 연습이면서, 한국어를 몽골어로 번역하는 과목이다.

영역별 교육 과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 문법 : 한국어 문법 및 어휘 - 16학점

기능 : 한국어 회화 - 16학점

실용 : 한자, 번역 개론, 한문 번역 - 16학점

과목 별 우선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3) 문법=기능=실용

이 대학은 통역학과의 목적을 살려, 기능과 실용이 강조된 반면, 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은 없다.

3-7. 오르형 대학교

오르형 대학교는 1998년도에 한국어학과가 전공으로 개설되었으며, 이 학교의 학생들은 졸업 후 대부분 한국어 통역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한다. 이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4년제이다. 한국어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과정 (총 65학점)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한국어 기초	4학점	한국어 기초	4학점
			회화	2학점
			듣기	2학점
	학점 소계	4학점	학점 소계	8학점
2	회화	2학점	회화	2학점
	듣기	2학점	듣기	1학점
	번역	2학점	번역	2학점
	문법	3학점	문법	3학점
	읽기	2학점	읽기	2학점
	학점 소계	11학점	학점 소계	10학점
3	회화	2학점	회화	2학점
	한자	1학점	한자	1학점
	한국의 문학	2학점	한국의 문학	2학점
	번역	2학점	번역	2학점
	문법	3학점	문법	2학점
	학점 소계	10학점	학점 소계	9학점
4	회화	2학점	회화	1학점
	번역	1학점	번역	1학점
	어휘론	2학점	문체론	2학점
			나라연구	2학점
			비교문법	2학점
	학점 소계	3학점	학점 소계	8학점

이 대학은 1학년의 경우 언어 사용 기능을 중시하며, 2학년의 경우 문법과 실용 교과(번역)가 설정되어 있다. 3학년의 경우에는 ‘문학’이 강조되었다. 반면 4학년의 경우는 기능, 실용, 문법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

영역 별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실용 : 한자, 번역 10 - 12 학점

기능 : 한국어 기초, 회화 - 30 학점

문학 : 한국의 문학 - 4 학점

문법 : 문법, 어휘론, 비교문법 - 15 학점

문화 : 나라연구 - 2학점

기타 : 문체론 - 2학점

이 대학에서 특이한 교과목에는 ‘비교 문법’이 있다. 영역 별 중점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3) 기능>문법>실용>문학>문화>기타

이 대학도 통역을 강조함으로써 언어 사용 기능이 중시된다.

3-8. 세를렉 대학교

이 대학은 사립대학으로서(총장- 바스체트) 2001년도에 한국어학과가 설립되었으며 4년제 대학교이다. 졸업하는 학생들은 향후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의 근로자가 되거나, 현지 한국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어 통역사가 되는 진로도 가지고 있다.

(1) 한국어교육과정 (총 138 학점)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회화	2학점	회화	2학점
	읽기	2학점	읽기	2학점
	듣기	2학점	듣기	2학점
	문법	2학점	문법	2학점
	쓰기	2학점	쓰기	2학점
	발음	2학점	발음	2학점
	작문	2학점	작문	2학점
	학점 소계	14학점	학점 소계	14학점
2	회화	2학점	회화	2학점
	읽기	2학점	읽기	2학점
	문법	2학점	문법	2학점
	어휘	2학점	어휘	2학점
	한자	2학점	한자	2학점
	번역	2학점	번역	2학점
	작문	2학점	작문	2학점
	학점 소계	14학점	학점 소계	14학점
3	회화	2학점	회화	2학점
	한자	2학점	한자	2학점
	읽기	2학점	읽기	2학점
	작문	2학점	작문	2학점
	한국의 역사 및 문화	2학점	한국의 역사 및 문화	2학점
	어휘	2학점	어휘	2학점
	문법	2학점	문법	2학점
	번역	2학점	번역	2학점
	여름 실습	3학점		
	학점 소계	21학점	학점 소계	18학점
4	회화	2학점	실습	3학점
	한몽번역	2학점	졸업시험	P/F
	몽한번역	2학점		
	한국 문학	2학점		
	비즈니스 용어	2학점		
	학점 소계	10학점	학점 소계	3학점

영역 별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영역 별 교육 과정

언어 사용 기능 : 작문, 회화, 읽기 - 24학점

문법 : 문법, 어휘 - 14학점

문학 : 한국 문학 - 2학점

문화 : 한국의 역사 및 문화 - 4학점

실용 : 한자, 번역, 한문번역, 몽한번역, 비즈니스 용어 -22학점

기타 : 여름 실습, 실습 - 6학점

※ 졸업시험 P/F

영역 별 중점 교육 사항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3) 기능>실용>문법>기타>문화>문학

3-9. 한몽 기술 대학(college)

한몽 기술 대학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계기로 당시 이 학교를 지원 해 2001년부터 코이카 단원이 이 기관에 파견되었다. 곧 2001년 KOICA 프로젝트로 이 대학에 700천불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한몽 기술대학”으로 개명되었다. 한편 2002년 이전에는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어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2002년 9월에 한국어과가 전공으로 개설되었다.

이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과정 (총 88학점)¹⁰⁹⁾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한국어 개론	1학점	한국어개론	1학점
	읽기	2학점	읽기	2학점
	음운론	1학점	음운론	1학점
	실습	4학점	실습	4학점
	듣기	2학점	회화	2학점
	학점 소개	10학점	학점 소개	10학점
2	통번역	2학점	통번역	2학점
	한자	3학점	기술용어	2학점
	실습	4학점	문체론	2학점
	문법	2학점	한자	3학점
			실습	4학점
	학점 소개	11학점	학점 소개	13학점

영역별 교육 과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 언어 사용 기능 : 읽기, 듣기 - 8학점

문법 : 문법, 음운론, 한국어 개론 - 6학점

실용 : 통번역, 한자 - 8학점

기타 : 실습, 문체론 - 18학점

109) 위에서 ‘학점’이라고 명칭된 것은 실제로는 ‘파르’이다. 몽골에서는 학점을 크레딧(영 credit, 몽 кредит)라고 한다. 그런데 크레딧을 계산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수업 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습’과목의 경우 주당 4 파르(우리대학에서 1파르는 80분, 타 종합대학의 경우 90분)이지만 과목 중요도가 낮아 1.74 크레딧으로 산출된다. 이 대학은 이 파르로 계산된 자료만 제공하였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 상 파르를 ‘학점’으로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영역별 우선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3) 기타>기능>실용>문법

‘실습’이란 교생 실습을 뜻한다. 다른 학교와 달리 이 학교는 이러한 실습을 강조하는 점이 특이하다. 언어 사용 기능 교육에 있어서, 말하기, 쓰기 수업이 빠져 있다. 문법의 경우, 세부 분야 곧 ‘음운론’이 추가되어 있다.

3-10. 오요 대학교

1995년도에 외국어 대학으로 개설될 때,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영어학과, 한국어 학과가 개설되었다. 2003년도에는 대학 이름에 외국어라는 말이 없어지면서, 오요 대학으로 개명되었다. 같은 시기에 관광학과가 개설되었으며, 한국어학과 이외의 각 학과는 한국어를 복수 전공해야만 한다. 한편 2004년도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4학년 학생은 없다. 한국어교육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한국어교육과정 (총 72 학점)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명	학점	과목명	학점
1	한국어 문법	3학점	한국어 문법	3학점
	한국어 회화	1학점	한국어 회화	1학점
	말하기/쓰기	2학점	말하기/쓰기	2학점
	듣기	2학점	듣기	2학점
	학점 소계	8학점	학점 소계	8학점
2	한국어 문법	3학점	한국어 문법	3학점
	한국어 회화	1학점	한국어 회화	1학점
	말하기/쓰기	2학점	말하기/쓰기	2학점
	듣기	1학점	듣기	1학점
	한국학(나라학)	2학점	한국학(나라학)	2학점
	학점 소계	14학점	학점 소계	14학점
3	한국어 문법	3학점	한국어 문법	3학점
	한국어 회화	1학점	한국어 회화	1학점
	말하기/쓰기	2학점	말하기/쓰기	2학점
	듣기	1학점	듣기	1학점
	작문	2학점	작문	2학점
	학점 소계	14학점	학점 소계	14학점

영역별 교육 과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 교육 과정

언어 사용 기능 : 한국어 회화, 말하기/쓰기, 듣기, 작문 - 30학점

문법 : 한국어 문법 - 18학점

문화 : 한국학 - 4학점

영역별 우선 순위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기능>문법>문화

이 학교에서는 언어 사용 기능 학습이 월등히 높다. 곧 30학점으로 문법 및 문화를 합친 시수(22)보다도 8학점이 더 많다. 4학년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학생이 없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나, 교육 과정이 선 설계되어야 함을 볼 때,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발전기에 들어선 몽골의 한국어교육과정 중 교과목들을 증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을 통해 정부 기관과 대학의 교육 과정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교과목이 분류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세부 교과목을 볼 때 목적에 부합하는 교과목 설정이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점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과 교과목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몽골사범대학교의 경우 목적이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실제 교육 내용이 교육 방법론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 방법론 중 “교재 연구 방법”만이 있으며, “발음 교육론, 문법 교육론, 교수-학습 방법론”과 같은 교사를 위한 교육 내용이 없다.

둘째, 목적이 상이한 학과가 동일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몽골 국립인문대학교는 한국어교사학과와 한국어 경제학과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 학과의 한국어 교과목이 동일하다. 한국어 교사 학과가 대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내용이 있지만, 학부에서도 한국어 교사를 위한 교과목이 설정되어야 하며, 한국어 경제학과라면 경제와 관련된 교과가 세부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기능 범주 영역의 세부 과목이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한몽 기술 대학의 언어 사용 기능 교과목을 보면 ‘읽기(4), 듣기(4)’만 있을 뿐 ‘말하기, 쓰기’ 교육이 없다. 이 기능 교육은 1학년에 대개 이루어지지만, ‘한국어 회화’를 주로 강조할 뿐 세부 영역 별로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

넷째, 교육 과정이 아직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요 대학교의 경우 2004년도에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아직 4학년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점은 이해하나, 교육 과정이 선 설계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교육 과정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다섯째, 대부분 문화 영역의 교육이 다른 여타의 영역의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개의 교과가 언어 사용 기능 영역과 문법 영역을 중시하는 반면, 문화 교육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학과가 ‘통역’이나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문화 교육도 기능과 문법 영역의 수준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참고 문헌

김명광 외(2005), [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 조사], 국립국어원·한국어세계화재

단.

이안나(2005),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과제”, 제4회 국외 한국어 교육자 연수 발표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Norovnyam(2005),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국제한국어교육학회.

Sukhragchaa Munkhjargal(2005), [몽골에서의 한류 현상의 배경과 그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몽골국립대 한국학교수진(2003), “몽골의 한국학 현황”, 국제교류재단.

최기호(2005), “몽골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 -그 현황과 과제-”, 미발표 자료.

이진안(2001), "한국과 몽골의 문화 및 교육 교류", 몽골학12호, 한국몽골학회.

제3장 태국의 한국어교육과정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태국의 주요 한국어 설치 대학(송클라 대학교, 실라빠겐 대학교, 나레수안 대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의 목표와 교과목의 상관성을 밝히는 데 있다.¹¹⁰⁾

지금까지 태국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 교육 현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해 왔다. 즉 태국의 한국어 관련 학과 설치 대학의 개수, 교수 현황, 학생 현황, 교과목 그리고 학점과 같은 표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각 대학이 지향하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을 발현시키기 위하여 어떤 교과 영역이 중점적으로 개설 되었는지, 개별 교과목이 속하는 상위 영역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개별 교과목의 편제가 상위 영역과 해당 대학이 지향하는 의도와 부합하는지 등과 관련된 ‘목표와 영역 그리고 교과목’ 사이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다루어져 온 감이 없지 않다. 이 글은 이렇게 소홀히 다루어져 온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과목의 상관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총목표’, 전공 성격별 ‘학점 및 교과목’ 구성, ‘교과 영역’ 별 교과목의 분포를 검토한 후 해당 요인간의 상관성과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의 의의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시적으로는 기존 태국의 한국어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는 것과 함께 현지에서 한국어과가 개설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데 있다. 거시적으로는 한국어교육과정을 규범화하는 데 염두해 두어야 할 내용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밝히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구축 시스템, 학점, 총목표, 전공 성격, 교과목 편제, 상위 영역과 하위 교과목의 분포 등이 밝혀져야 한다. 지금 현재 한국어교육과정을 규범화하려는 다방면의 시도가 있는데¹¹¹⁾, 국내의 한국어교육과정은 각 대학의 개별적인 교육과정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규범화를 위한 선행 작업이 수월하지만 국외의 경우 통계 처리를 위한 한국어 실태 조사만 이루어져 있을 뿐 해당 국가의 한국어교육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불구적인’ 상태에서 소위 표준 교육과정이 구축된다면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교육과정으로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하여 교육과정 입안자들이 즉시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국외 교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규범화된 교육과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현재 태국의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약 14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곧 부라과 대학,

110) 이 세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의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는 우선 한국어교육과정이 다른 대학에 비해 비교적 완전하게 자료가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의 경우 한국어교육과정의 교과목만 제공되어, 한국어 교육 목표가 제공되지 않거나, 또는 교과목의 수업 시수가 제공되지 않아 완전하게 한국어교육과정의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이 글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11)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에 대한 구축 시도는 학회 중심과 기관 중심으로 행해졌다. 학회 중심의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논의는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와 제16차 학술대회에서 시도되었으며, 기관 중심의 구축 시도는 국립국어원과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송클라 대학교, 추라롱콘 대학교, 람캄행 대학교, 실라파콘 대학교 시나카린위룻 대학교, 마하사라캄 대학, 코켄 대학, 탐마사트 대학, 라자브하트 창마이 대학, 라자브하트 푸켓 대학 등)을 보면 매우 잘 알 수 있다. 더불어 태국의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의 발전사(Jiraporn Janjula, 2005)를 살펴보면 지금 현재 Prince of Songkhla Univ(Pattani), Burapha Univ, Mahasarakam Univ, Srinakarin Univ, Silapakorn Univ의 경우는 전공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Chula Univ는 부전공으로, Ramkamhaeng Univ, Naraesuan Univ, Khon Kaen Univ, Thammasart Univ, Prince of Songkla Univ(Phuket), Rajabhat Chiangmai Univ, Rajabhat Nakhonpatum Univ, Rajabhat Phuket Univ은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 이외에 해당 정부 중심의 한국어 교육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곳은 TOEA(Thailand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이다.¹¹²⁾ 이 기관은 현지 노동부의 산하 기관으로서 KOICA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120시간의 한국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한국어 교육은 2004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팽창하였다. 그 이유는 2004년 6월 25일 한국 노동부와 현지 노동부의 양해각서가 주원인이었다. 즉 이 양해 각서의 핵심 요지는 해당국가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근로를 희망하고자 할 때, 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 시험(Employment Permit System-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 11일부터 2007년 6월달까지 총 3차례의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주관-한국 노동부, 시행-한국어세계화재단)되었으며 약 50,000이 이 시험에 응시를 했다.(2005년 9월 11일 약 24,000명 응시, 2006년 11월 16일 약 23,000명 응시 2007년 6월 3일(비정규 시험), 2,400명, 2007년 10월 중 제 4차 시험 예정) 이 전에는 한국 기업의 고용주들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산업 연수생'들을 선발하고 또한 개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였지만, 이 시험이 도입되고 난 후 고용명부(Register for the job)에 등록된 외국인을 중심으로 태국 노동부 산하 기관 OWC(overseas work committee)에서 한국어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파급 효과는 단순히 시험 시행 이후의 한국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였다는 측면 이외에 이 시험 응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태국인의 수요가 급증하여 사설 한국어 학원 또는 대학 부설 기관의 한국어 교육이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한국어 교육의 양적 팽창은 현지 대학이 실용 목적(취업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규 과정 속에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교육과정의 면모를 밝힌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한국어 교육을 보완 및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112) 한국 정부 주도의 한국어 교육도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문화센터'이다. 이 센터는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과 국정홍보처의 지원으로 2004년 1월에 개원하였다. 이곳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다양한 서적을 비치함과 함께 한국 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공예품 및 생활용품을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영화의 무료상영과 한국어 강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현재 문화센터에서 개설 중인 한국어 강좌는 두 강좌가 있다. 첫째는 '기본 한국어'이고 다른 하나는 '중급 한국어'이다. 이 두 강좌의 시수는 총 30시간이며, 기간은 약 3개월 과정이다. 2004년 1월에 제1차 강좌를 개설한 이래, 지금까지 총 6차례의 과정을 개설하였다. '기본 한국어'에서는 '한국어 자음, 모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어 읽기/쓰기를 익히며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회화를 가르친다. 매주 목요일(오후 5시 - 7시)에 실시된다. '중급 한국어'는 '기본한국어'를 수료한 자나 다른 곳에서 기본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주 교육내용은 기본과정에서 확대된 문법 및 기본생활회화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 7시)에 실시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여러 측면을 염두하여 태국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상관성(Relativity)와 타당성(validity)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 글에서 보는 태국의 교육과정의 몇 가지 면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 2장에서는 우선 상위 영역 항목의 의미를 살펴보고 제 3장부터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각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상위 영역 항목 개념을 알아 본다.

상위 영역 항목이란 개별 교과목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범주 차원의 공통적 속성의 집합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란 교육 대상이-한국어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대상은 한국어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이에 따라 교수-학습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한 함축적 명제가 “총목적”에 해당하는 데, 이 “총목적”은 또 다시 상위 영역 항목으로 나뉘어 기술된다. 예컨대 국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보면 국어의 지식, 태도, 기능과 관련된 “총목적”이 정해지고 난 후 상위 영역 항목이 크게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이하 이를 줄여 ‘기능’ 영역이라 부르하고자 한다), ‘국어 지식’, ‘문학’ 영역으로 구성된 후 각 영역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또한 상위 영역의 목표는 개별 영역(개별 교과목)의 영역으로 하위 분화를 경험하며 해당 목표가 ‘교과 목표’의 개념으로 명세적으로 투영된다. 예컨대 국어 지식의 경우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영역’으로 분화되어 각각의 교과 목표가 기술되는 과정이 이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는 개별적인 영역의 내용과 목표를 바탕으로 실제 교육 과목이 구성되는 데, 개별 영역과 교과서가 구성되는 형태는 크게 ‘① 1:1, ② 다(多):1, ③ 1:다(多)’이다. 예를 들어 ① 고등학교에서, ‘읽기’, ‘쓰기’ 영역이 ‘독서’, ‘화법’으로 대응되는 경우(1:1), ②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과 같은 영역이 ‘문법’으로 통합되거나 대개의 총 상위 영역 항목이 전부 하나의 개론서로 통합되는 경우(‘교양 국어’, ‘문학 개론’ 등)(다(多):1), ③ 대학교에서 ‘음운’이 ‘음성론, 음운론’으로 세부적으로 분화되어 교육 과목으로 선정되는 경우(1:다(多))가 이러한 예들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의 구성 편제의 큰 틀은 ‘총영역(총목표)-상위영역(상위 목표)-개별 영역 또는 개별 교과목(교과 목표)-교육 과목(교수요목 목표)’과 같이 위계적인 질서를 가지게 된다. 하나의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느냐는 바로 이러한 위계적 체계가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상관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상위 영역 항목’과 ‘개별 교과목’과 ‘개별 교과목’과 ‘교육 과목(교과서)’, ‘상위 영역 항목’과 ‘교육 과목(교과서)’의 부합성과 상관성은 교육과정의 편제가 얼마나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렇다면 한국어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어떤 구성원이 상위 영역 항목으로 구성될 수 있는가? 아직까지 규범적인 표준 한국어교육과정이 구축되어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 대체로 인정되는 교수-학습 내용 영역에는 크게 ‘한국어 사용 기능’, ‘한국어 지식’, ‘한국어 문학’, ‘한국어 문화’(이하 줄여서 각각, 기능, ‘문법’, ‘문학’, ‘문화’라 부른다.) 영역임을 비추어 볼 때, 이 구성원 전체의 집합을 ‘한국어 상위 영역 항목’이라 명명할 수 있으며 구성되는 개별적인 영역들을 ‘상위 영역의 구성원’이라 명칭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개별 영역 또는 개별 교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단 이 글에서 보는 범주를 우선적으로 기술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가. 기능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나. 문법 - 음운, 형태, 통사, 화용, 의미
- 다. 문학 - 서정, 서사, 교술, 대화(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 라. 문화 - 역사, 정치, 경제, 지리, 제도 등.

위 (1)의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이란 언어 사용 기능 즉 '의사 소통을 위한 기초적 언어 기능' 학습으로 입말의 경우 '말하기, 듣기'가 있으며, 글말의 경우 '읽기, 쓰기'가 있다.

문법 영역은 한국어의 체계를 밝히거나 한국어의 각 언어 단위의 특성과 체계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다. 여기에는 '음운, 형태, 통사, 화용, 의미' 범주가 있다.

문학 영역은 작품의 '창작'과 '수용'(또는 이해)와 관련된 영역으로 이야기 형식과 관련하여는 '서정, 서사, 교술, 대화'로 나뉘며 작품의 결과와 관련하여는 '시, 소설, 수필, 희곡'이 있다.

문화 영역은 국어과 교육과정과 차별된 영역으로 한국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총체에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문화 영역을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영역으로 인정하지만, 그 범위에 대하여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영역을 소위 '문화재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의 개념으로만 보려는 협의의 문화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이 범위를 넓게 보아 '정치, 경제, 역사, 지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¹¹³⁾ 이 글에서는 현재 태국의 교육과정이 교과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광의의 개념으로 문화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명시적으로 그어져야 한다. 이 글에서는 '광의'의 교과목 경계에 대한 단초를 국내의 교육과정 중 국어과 이외의 다른 영역 중 문화와 관련 있는 국내의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가.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그 사회의 지리적 환경, 역사적 발전,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등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나. 인간과 자연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장소에 따른 인간 생활의 다양성을 파악하며, 고장, 지방 및 국토 전체와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한다.(지리)

다. 각 시대의 특색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민족사의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 생활의 발달 과정과 각 시대의 문화적 특색을 파악한다.(역사)

라. 사회 생활에 관한 기본적 지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현대사회의 성격 및 민주적 사회 생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를 파악한다.(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협의의 문화))

...이하 중략...

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주제도 한국 문화의 영역처럼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과 교

113) 조항록(2000, 241-269)에서 보면 기존 교재에 나타난 문화 항목을 크게 '전통 문화, 현대 일상 문화, 순수 문화'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문화 교수 항목을 12가지 영역으로 구분한 한재영 외(2006)도 조항록(2000)의 개념에 준한다. 이는 협의의 문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박영순(2002), 김정숙(1997)의 문화 영역은 '제도 문화', '기술 문화', '과학 문화',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등 전반적인 면을 문화 항목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광의의 문화라고 볼 수 있다.

육과정에서 그 영역을 크게 ‘역사, 정치, 경제, 제도, 지리’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이 사회과의 목표는 (2가)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다루는 데, 이를 달리 말하면 해당 사회를 알 수 있는 유무형의 현상을 다루고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의 문화 차원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사회과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과 차이점을 가진다. 즉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각론을 보면 영역이 ‘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문화사,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등으로서, 이때의 세계지리나 세계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등과 같은 국외의 포괄적인 현상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어과의 목표는 한국 사회의 여러 현상과 특성을 다루는 것이므로 이러한 세계와 관련된 영역을 제외하면, 한국어 교육의 문화 차원에서 필요한 영역을 이를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궁극적인 한국어 교육이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현지 문화와 한국 문화의 상호 교차적 접근을 지향한다고 보았을 때, 한국과 해당 국가의 상호 문화 비교와 관련된 영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 문화에서 다루어야 할 영역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3) 광의의 문화 영역(한국 역사, 한국 정치, 한국 경제, 한국 제도, 한국 지리, 상호 문화 이해)

이 외에 실용적인 면으로 한국어 교육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즉 ‘번역’이나 ‘통역’, ‘한자’, ‘공문서 작성’, ‘비즈니스 한국어’ 따위는 해당 대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다분히 실용적인 측면의 교과에 해당하는 데 이러한 교과를 통괄 할 수 있는 상위 영역 항목으로 ‘실용 영역’이 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과목에는 아래와 같은 하위 영역 항목들이 있을 것이다.

(4) 실용 - ‘번역’, ‘통역’, ‘한자’ 등

이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한국어 교육에서의 상위 영역 항목과 개별 교과목 영역은 다음과 같이 된다.

대영역		한국어			
상위영역	기능	문법	문학	문화	실용
교과목 (또는 하위영역)	말하기	음운	서정	역사	번역
	듣기	형태	서사	정치	통역
	읽기	통사	교술	경제	한자
	쓰기	화용 의미	회곡	사회 지리 제도 상호 관계	

이 때 위에 대응되는 전공 성격별 교육 과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될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개론적인 수준의 교육 내용은 상위 영역 항목의 전부를 총괄하는 대영역 차원의 ‘한국어’가 설정되어야 하며, 전공 필수 차원의 학습은 ‘상위영역’의 ‘기능’, ‘문법’, ‘문학’, ‘문화’, ‘실용’의 차원에서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전공 선택의 과정은 해당 개별 교과목의 수준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기능’ 차원의 영역은 한국어 학습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전공 필수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교육 과목이 구성되어야 하며 한국어 교육의 설치 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위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예를 들어 ‘한국어과’의 목적이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처럼 ‘한국어 문화’ 교수-학습이 목적이라면 ‘문화’의 개별적 항목이 전공 필수로 구성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위계적인 교육 과목 구성 영역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된다.

(5) 가. 교양 - 한국어(기능, 문법, 문학, 문화, 실용을 포함하는 구성)

나. 전공 심화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문화, 관계’

다. 전공 선택 - ‘음운, 형태, 통사, 화용, 서정, 서사, 교술, 회곡,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지리, 번역, 통역, 비교’, ‘번역’, ‘통역’, ‘한자’

위와 같은 내용별 요소는 좀 더 다듬어져야 하지만, 상위 영역 항목의 개념과 이에 따른 전공 성격 별 위계적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교육과정이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태국의 교육과정 편제의 상관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송클라 대학교

송클라 대학교는 1997년도부터 한국어 교육이 전공으로 개설되어 지금까지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의 주요 측면을 상위 영역 항목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가. 전공 필수 과목(30학점)

기능 : 한국어 1, 2, 3, 한국어 강독 1,2, 한국어 듣기-말하기 1, 2, 한국어 작문 1,2

문법 : 한국어 문법 1, 2, 한국어 음성학

문학 : 한국현대문학

문화 : 한국어와 한국문화

실용 : 없음

나. 전공 선택 과목(35학점 이상)

기능 : 한국어 독해

문법 : 한국어 형태론과 문장론

문화 : 한국 고대문화, 한국 현대 문화

문학 : 한국 문학서, 한국 문학 산문, 한국 문학 운문, 한국 문학 회곡

실용 : 태한번역 1,2, 한태번역 1,2, 커뮤니케이션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비서업무 한국어, 호텔 한국어, 관광 한국어

위 (6가)의 상위 영역별 우선 순위를 보면 아래 (7)과 같다.

(7) 가. 전공 필수 과목 : 기능(18학점)> 문법(6학점)> 문학(2학점), 문화(2학점)> 실용(0학점)

나. 전공 선택 과목 : 실용(18학점) > 문학(8학점)> 문화(4학점) > 문법(2학점), 기능(2학점)

다. 통합 : 기능(20학점)> 실용(18학점)> 문학(10학점)> 문법(8학점)> 기능(2학점)

전공 필수인 경우는 ‘기능 영역’을 가장 우선 하며, 그 다음으로 문법이 강조되고 있다. 전공 선택의 경우는 ‘실용 영역’을 가장 강조하며 ‘문학’ 영역이 그 다음의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 선택과 전공 필수를 통합하여 보면 ‘기능(20학점)’, ‘실용(18학점)’의 순위를 점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이 대학은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취업’ 목적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기능’ 영역도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직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용’ 영역과 더불어 생각하면 이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이 ‘취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지향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전공 필수인 ‘기능 영역’은 개별 교과목 별(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하기와 듣기는 통합한 교육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이 때 ‘한국어’라는 명칭을 볼 때 이는 대영역 차원의 ‘개론’ 수준이지만 세부 목표를 볼 때, 상위 영역의 내용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과 ‘기능’ 영역의 일부만을 내용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8) 가. 한국어 1 :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한국어의 발음과 기초문법을 익히게 하고 기초 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나. 한국어 2 :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 초급문법을 익히게 하고 초급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다. 한국어 3 :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어 중급문법을 익히게 하고 중급회화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위를 잘 보면 ‘발음’과 ‘문법’ 그리고 ‘회화’의 학습 요소가 단계별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위 영역 항목 중 ‘문법’과 ‘기능’의 일부 학습 내용 요소가 통합되어 있다. 한국어 기능 영역의 목표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9) 가. 한국어 듣기-말하기 1 : 일상회화에 사용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며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 짧은 문어체 문장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나. 한국어 듣기-말하기 2 :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며 구사할 수 있도록 학습시킨다.

다. 한국어 강독 1 : 시, 소설, 희곡, 설명문, 논설문, 전기문 등 다양한 글을 접하게 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며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학습시킨다. 그리고 기초한자 100자를 학습시킨다.

- 라. 한국어 강독 2 : 시, 소설, 희곡, 설명문, 논설문, 전기문 등 다양한 글을 접하게 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며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한국 문화를 학습시킨다. 그리고 한국어강독 1에 이어 기초한 자 100자를 더 학습시킨다.
- 마. 한국어 작문 1 : 개인편지, 일기문, 초대문, 축원문 등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작문을 학습시키고 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학습시킨다.
- 바. 한국어 작문 2 : 상용편지, 관용편지, 이력서, 논설문 등 사회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 작문을 학습시키고 태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학습시킨다.

위 (9)의 (가, 나)를 보면 ‘말하기 듣기’의 주제를 ‘구어체’와 ‘문어체’로 구분하였다. 즉 ‘일상 생활 회화’의 경우 ‘구어체’ 중심의 교육에 해당되며 ‘짧은 문어체 문장의 이해’는 ‘문어체’ 중심의 교육에 해당한다. ‘한국어 강독’의 경우 ‘읽기’ 영역에 해당하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문학’ 작품의 수용, ‘문화’ 학습, ‘한자’등 다양한 하위 영역군이 통합되어 불균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영역은 ‘문학과 문화’의 교육 교과로 구성되든지, 아니면 ‘한국어 강독’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읽기 기능’을 강조하여 학습 목표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때 ‘문학과 문화’와 같은 명칭을 가진 교육 교과로 개편시킨다면, ‘기능’ 영역의 ‘읽기’가 새로이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어 작문1,2’도 교과목과 교과 목표의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점. 즉 ‘한국어 작문1,2’의 내용은 ‘한국어 쓰기’와 ‘번역(태국어→한국어)’이 복합되어 구성되어 있다. 교육 내용 중 ‘번역’에 해당 하는 내용은 ‘실용 영역’에서 다시 중복되어, ‘쓰기’ 본연의 내용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8)과 (9)를 볼 때 전공 필수 영역이 교육 교과 명칭과 달리 상위 영역 항목이 상호 통합된 교과가 많다는 점(한국어 강독, 한국어 작문)이 문제로 지적된다. 전공 선택 과목의 편제도 상위 영역 항목 차원과 하위 영역군 차원의 교육 과목이 불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문법’의 경우 ‘형태’와 ‘통사’ 부문만이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음운’과 ‘화용’ 측면의 교과 영역이 보이지 않는다. ‘화용’ 측면은 텍스트 차원이기 때문에 ‘문학’ 영역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음운’적인 측면의 하위 영역의 교과목이 따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 영역은 아래 (10)과 같이 개론적 수준의 내용이지만 한국 문화 요소를 한국어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만으로 한정된 이른바 협의의 문화 학습에 치우쳐 있다.

(10) 한국어와 한국문화 : 한국어교육의 전공 설립 과정과 한국 문화개론을 학습시킨 후에 한국어에 반영되어 있는 한국 문화를 학습시킨다.

문학의 경우, 상위 영역 중심의 교육 과목 ‘한국 문학서’와 개별 교과 영역 별 교육 과목 ‘한국 문학 산문, 한국 문학 운문, 한국 문학 희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산문의 경우 ‘소설’과 ‘수필’을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 균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상위 영역 항목 교육 과목과 개별 교과목에 해당하는 교육 과목(시, 소설, 수필, 희곡)이 전공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위 영역 항목 교육 과목이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전공 필수 영역’ 차원에서 구성되어야 할 내용이지만, 이미 전공 필수

과목에 ‘한국 현대 문학’이 있기 때문에 상호 중복이 불가피하다. 즉 특정 학생이 전공 필수 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에서 모두 상위 영역 항목의 교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과목 편제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즉 전공 선택 과목의 상위 영역 항목의 교과목을 없애야만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이 균형적으로 구성된다.

3. 실라빠견 대학교

이 대학의 한국어학과는 인문대학 내 현대동양언어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어는 전공과 부전공으로 설치되어 있다. 전공 설치 과목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이 대학의 학과 목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11) 총목표

- 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 향상
- 나. 한국어의 어원과 문학 작품을 통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 습득
- 다. 장래 직업 능력과 상급 연구를 위한 한국어 능력 향상

위를 볼 때 이 대학이 총목표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능’(11가), ‘문화’(11나), ‘실용’(11다) 영역의 한국어 교육이다.

(12) 가. 전공 필수(23학점)

- 기능 : 기초 한국어 3, 한국어 듣기·말하기 1(이상 3학점), 한국어 읽기 1, 한국어 쓰기 1, 한국어 듣기·말하기 2(이상 2학점)
- 문법 : 언어학 입문, 한국어의 구조 1, 2(이상 2학점)
- 문학 : 문학 비평 원론(2학점), 한국 문학(3학점)
- 문화 : 한국 문화(이상 3학점)
- 실용 : 한국어 번역 1(2학점)

나. 전공 선택(최소 27학점)

- 기능 : 한국어 읽기 2, 한국어 쓰기 2, 한국어 듣기·말하기 3, 고급 한국어 읽기 1,2, 한국어 편지 쓰기, 한국어 문서 작성, 집단 토의 1,2
- 문법 :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의미론, 한국어-태국어 대조 분석,
- 문학 : 근대 한국 문학 개론, 현대 한국 문학, 한국 소설가 연구, 한국 단편 문학 연구,
- 문화 : 태국어-한국어 번역1, 문화간 의사소통 연구, 대중매체 속 한국어
- 실용 : 태국어-한국어 번역2,3, 한국어 한자, 비즈니스 한국어, 관광 한국어
- ※ 전체 2학점

다. 교양 필수(6학점)

- 기능 : 기초 한국어1, 기초 한국어 2(이상 3학점)

상위 영역 항목별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3) 가. 전공 필수 : 기능(12학점)> 문법(6학점)> 문학(5학점)> 문화(3학점)> 실용

(2학점)

나. 전공 선택 : 기능(20학점)> 실용(10학점)> 문학(8학점)> 문법(6학점)> 문화(4학점)>

다. 교 양 : 기능(6학점)

라. 통합 : 기능(32학점)> 문학(13학점)>문법(12학점), 실용(12학점)> 문화(7학점)

위 (13)을 볼 때 전공 필수 영역과 전공 선택 영역에서 모두 ‘기능’영역의 교과목을 강조한다. 그 다음 차순으로는 전공 필수에서는 문법영역을 전공 선택 영역에서는 실용 영역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것은 총목표와 전공간의 상관성이다. 총목표에서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능’, ‘문학’, ‘실용’인데, ‘기능’의 경우 전공 필수 영역과 전공 선택 영역에서 모두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총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문학’과 ‘실용’의 경우, 전공 필수 영역과 관련하여는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순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총목표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공 필수 영역에서도 ‘문학’과 ‘실용’과 관련된 교육 과목이 ‘기능’ 영역과 대등하게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선택 과목에서는 ‘실용’과 ‘문학’ 영역이 거의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필수 영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다음에 이 대학의 특징적인 교육과정 편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특정 전공 성격별 항목이 다른 전공 성격별 항목에 심화 과정으로 존재하는 과목이 많다. 예를 들어 ‘기초 한국어’는 ‘교양 필수 영역’에 ‘1,2 단계’가 ‘전공 필수 영역’에 ‘3 단계’가 편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경우 ‘전공 필수’에 초급 1단계(듣기 말하기는 1과 2가 전공 필수에 있음)가 존재하며 ‘전공 선택’에는 2단계(듣기 말하기는 3단계)가 설정되어 있다.

둘째 각 기능 별로 심화 과정의 편제도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듣기·말하기’의 경우 ‘전공 필수’에 1과 2단계가 있는 반면 다른 기능 영역은 모두 1단계만 편성되어 있다. 전공 선택의 경우, ‘한국어 읽기’가 ‘고급 한국어 읽기1,2’라고 하여 ‘읽기’가 총 4단계로 되어 있다.

셋째 다른 과목과 달리 ‘한국어 쓰기’가 ‘한국어 쓰기 1, 쓰기2’ 이외에 주제별로 교육 과목명이 부여된 ‘한국어 편지 쓰기’, ‘한국어 문서 작성’이 존재한다. ‘듣기·말하기’는 발현 형태 별로 구성된 ‘집단 토의’ 1단계와 2단계가 구성되어 있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기준이 일관성을 갖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어 말하기·듣기’의 경우 ‘1단계→2단계→3단계’와 같이 ‘수준’에 따라 단계와 ‘집단 토의1,2’라고 하여 의사소통 장면별의 두 기준이 함께 적용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 읽기’는 ‘1단계→2단계→고급 1단계→고급 2단계’라 하여 수준별 단계 구성과 총 4단계 구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어 쓰기’는 ‘1단계→2단계→주제별 쓰기(편지)→주제별 쓰기(공문서)’와 같이 ‘수준별, 주제별’ 기준으로 구분되어 동일한 상위 영역 항목의 하위 구성원들이 ‘기준, 단계, 명칭’이 각각 다르다는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항목별 교육 목표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14) 가. 한국어

가) 기초 한국어 1: 한국어 발음 및 자모 쓰기, 기초 문법과 문장 구조, 정확한 의사

소통을 위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나) 기초한국어 2: 한국어 기본 문법과 문장 구조, 상급단계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다) 기초한국어 3: 한국어 상급 문법과 문장 구조,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어휘와 표현

나. 한국어 듣기/말하기

가) 1 : 회화를 통한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한 정확/명확한 발음과 적절한 어휘선택

나) 2(선수과목:한국어 듣기/말하기1) :일상생활에 관련된 주제로 듣기/ 말하기, 회화를 듣고 주제 파악

다) 3(선수과목: 한국어 듣기/말하기 2) :시사적 주제에 대한 말하기 연습

라) 4(선수과목: 한국어 듣기/말하기 3) :뉴스 등 다양한 상황의 한국어 발화를 듣고 요약하여 말하기

마) 집단 토의 1 :시사 주제에 관한 집단 토의 (정확하고 명확한 발음 중시)

바) 집단 토의 2(선수과목: 집단 토의 1) :학술 주제에 대한 집단 토의 (적합한 한국어 구사능력 중시)

다. 한국어 읽기

가) 1 : 문단 단위 한국어 텍스트 읽기 (이해 중심)

나) 2(선수과목 : 한국어 읽기 1) :의미 파악, 글의 목적, 개요 파악 및 요약을 위한 한국어 읽기

다) 고급 한국어 읽기 1 :신문, 잡지 등의 기사를 읽고 이해

라) 고급 한국어 읽기 2(선수과목: 고급 한국어 읽기 1) :연구 보고서, 학술 서적을 읽고 이해

라. 한국어 쓰기

가) 1 : 일상생활 관련 그림을 보고 단문 작성

나) 2 (선수 과목 :한국어 쓰기 1) :개요 작성, 요약 등 고급 한국어 작문

다) 한국어 편지 쓰기 :다양한 형식의 한국어 편지 쓰기

라) 한국어 문서 작성 :한국어 문서 작성

위 (14가)를 보면 우선 기초 한국어는 상위 영역 항목의 개별 요소들이 통합되어 있다. 즉 상위 영역 항목 중 ‘문법’과 ‘기능’ 항목이 복합되어 있으며 단계별 구성으로 되어 있다. (14나)의 경우 (나-나)다)라))에서 ‘선수과목’으로 이전 단계 이수를 명시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가)-라)의 관계가 수준별 단계 학습을 지향하지만, 집단 토의의 경우 ‘시사, 학술’과 같이 주제별 단계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14다)의 경우, (14다-가),나))는 읽기 자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읽기 자료를 지향하지만 (14다-다),라))는 ‘신문, 잡지, 연구 보고서’와 같이 교육 목표가 주제별로 학습되도록 되어 있다. (14라)의 경우도 (14라-가),나)는 수준별, (14라-다),라))는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다. 요컨대 이러한 교육과정이 균형적으로 구성되려면, 전공 필수에는 하위 영역 항목(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들이 단계별로 편제되고 전공 선택에는 하위 영역 항목들을 주제별로 편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문법의 경우 전공 필수에는 상위 영역 항목이 교육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언어학 개론’이 있다. 즉 이 과목은 ‘음운, 형태, 통사’와 같은 하위 영역 항목이 교육 내용으로 있

다. 그런데 ‘한국어의 구조’의 경우는 아래 (15가,나)에서 보듯이 ‘형태’와 ‘통사’ 부문만이 관여하고 있다.

(15) 문법

가. 한국어의 구조 1 :한국어 자모와 품사 분류, 통사구조 습득

나. 한국어의 구조 2(선수과목:한국어의 구조 1) :여러 문장 유형에서의 단어들 간의 관계, 의미 파악

다.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의 음운구조 (자음, 모음, 강세, 억양)

라. 한국어 의미론 :문장 내에서의 어휘 의미론, 한국어-태국어

마. 대조 분석 :한국어-태국어 간 음운, 의미, 통사구조 대조 분석

그리고 전공 선택의 경우 하위 영역 항목 중 ‘음운, 의미’와 관련된 교육 과목이 편성되어 있을 뿐 다른 부문의 선택 과목은 없다. 전공 선택이 전공을 보충 심화를 한다는 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사’와 같은 하위 영역 항목도 편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 대학의 특이한 점은 (15마)와 같이 태국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는 ‘대조 언어학’의 과목도 설정되어 있다.

(16) 가. 한국 문학 :한국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특성과 배경 파악, 비평적 읽기

나. 근대 한국문학 개론 :근대 한국 문학 작품의 비평적 읽기

다. 현대 한국 문학 :현대 한국 문학 작품의 비평적 읽기

라. 한국 소설가 연구 :이광수, 서정주, 한용운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학가 연구

마. 한국 단편 문학 :한국 단편 문학 연구

다섯째 문학의 경우 전공 필수 과목에는 (16가)에서 보듯이 상위 영역 항목과 관련된 교육 과목이 있지만, (16나,다,라,마)의 ‘전공 선택’과목에는 ‘시, 소설, 희곡, 수필’과 관련된 교과목이 없다. 즉 전공 선택 과목의 설치 기준은 시대별(근대 한국 문학 개론, 현대 한국 문학), 작가별(한국 소설가 연구), 작품 길이별(한국 단편 문학)과 같이 매우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가.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지리, 종교, 전통, 철학, 교육, 경제

나. 태국-한국 문화 간 의사소통 연구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해 태국인으로서 알아야 할 양국 간 문화 차이

다. 대중매체 속 한국어 :신문, 잡지, 방송 등의 대중 매체를 통한 한국 사회, 문화, 경제 이해

여섯째 문화 영역의 경우 전공 필수에 상위 영역 항목과 관련된 개론 수준의 ‘한국 문화’가 교과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목표를 들여다 볼 때, ‘역사, 지리, 종교, 전통, 철학, 교육, 경제’ 등 이른바 광범위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선택의 경우 (17나)의 태국-한국의 문화 비교와 관련된 교과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 (17다)는 명칭으로 볼 때는 ‘기능’ 영역 속에 포함될 듯하나 교육 목표를 들여다 보면 ‘문화’ 영역에 포함된다. 즉 ‘대중 매체’를 수단으로 하여 ‘한국 사회, 문화, 경제’ 이해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나레수안 대학교

이 대학은 인문대학 안에 한국어가 전공 과정으로서 설치되어 있다. 전공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과정을 상위 영역 항목별로 구분하여 모듬화하면 아래와 같다.

(18) 가. 전공 필수 과목(54학점)

기능 : 한국어 1,2,3,4,5,6 한국어 회화 1,2,3,4, 한국어 독해,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한국어 읽기,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문법 : 없음

문학 : 없음

문화 : 한국 배경 지식, 한국 사회와 문화

실용 : 한국어 번역 1, 한국어 통역 1

나. 전공 선택 과목(15학점)

기능 : 대중 매체와 한국어, 시사 한국어

문법 : 한국어 통사론, 한국어 음운론

문학 : 한국 문학 입문, 한국 단편 소설

문화 : 한국 민속

실용 : 한국어 한자, 비즈니스·비서 업무 한국어, 관광 한국어, 한국어 번역2, 한국어 통역 2

이 대학이 중시하는 상위 영역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8) 가. 전공 필수 영역 : 기능 (42학점) > 문화(6학점), 실용(6학점)

나. 전공 선택 영역 : 실용(15학점) > 기능 (6학점), 문법(6학점), 문학(6학점), 문화(3학점)

(18가,나)에서 보면 전공 필수 영역에서는 ‘기능’ 영역을, 전공 선택 영역에서는 ‘실용’ 영역을 강조한다. 이로 보아 ‘한국어’의 목적이 취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강조함을 할 수 있다.

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 필수 과목에서 ‘문법’과 ‘문학’ 영역이 없다. 다만 ‘문법’ 영역의 학습은 상위 영역 항목이 교육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19)의 ‘한국어’과목이다.

(19) 가. 한국어 1 : 한국어 자모음을 음운론적인 관계에서 설명한다. 한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를 기초 어휘와 함께 배운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등 한국어의 4가지 기능을 기본적 수준에서 습득한다.

나. 한국어 2 : 한국어 문장을 여러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연습한다. 문장 구조, 유형,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학습한다.

다. 한국어 3 : 한국어 상위 문법과 문장 구조, 시제, 동사 변화의 원칙 등을 학습한다. 한국어로 타인과 여러 상황에서 정확하고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연습

한다.

라. 한국어 4 : 한국어의 관용 표현을 학습하여 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한국어 5 : 한국어의 상위 문법과 관용 표현 등을 학습한다. 대중 매체를 통해 한국어의 4가지 기능을 모두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습득한 새로운 어휘는 연습을 통해 구사할 수 있도록 한다.

바. 한국어 6 :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토론과 토의를 통하여 한국어 구사능력을 더욱 강화시키도록 한다.

(19)를 보면 우선 (19가)의 ‘한국어 1’은 ‘음운, 통사(문장 구조), 형태(어휘)’와 같은 문법의 하위 영역 항목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능 하위 영역 항목이 학습 내용으로 선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합 교육 과목에 해당한다. (19마)도 문법(형태(어휘), 의미)과 기능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역시 통합 교육 과목에 해당한다. 반면에 (19나)와 (19다)는 문법 항목 중 ‘통사, 형태(어휘)’를, (19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이를 볼 때 문법 영역의 교육 과목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이와 같은 통합 영역 교과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문법’이 전공 필수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더구나 ‘문학’ 영역은 위의 통합 교과에 학습 요소로 아예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될 사항으로 여겨진다.

둘째, (20)에서 보듯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경우 ‘말하기, 듣기’는 ‘한국어 회화 1’로 ‘2:1’로 대응되어 있으며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읽기’와 ‘쓰기’는 독립적으로 교육 과목이 설정되어 있으며, 전자는 1단계, 후자는 주제별 목표(의사소통, 학문)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역시 ‘기능’ 영역이 불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20) 가. 한국어 회화 1 : 자기 소개, 주변 설명, 질문에 답하기, 의견 나누기 등을 통해 정해진 한국어 표현을 구사하도록 한다.

나. 한국어 회화 2 : 주어진 주제에 대한 말하기를 통해 정확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도록 한다.

다. 한국어 회화 3 : 설명하기, 관심 분야에 대해 서로 질문하고 답하기, 의견 제시하고 관련된 화제에 대한 토의하기 등을 통해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라. 한국어 회화 4 : 한국어를 배우면서 발생하는 오류, 문제점 등을 서로 나누며 한국어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연습을 한다.

마. 한국어 독해 : 다수의 한국어 에세이를 읽고 사전을 찾아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한다.

바.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 한국어 단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법, 어휘력을 강화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사. 학문목적 한국어 쓰기 : 학문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어 쓰기 연습을 한다. 학문목적으로 쓰이는 용어와 표현들을 알아두고 문법에 맞게 글을 쓰는 연습을 통해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 학생들을 돕는다.

셋째 ‘문화’ 영역도 아래 (21)에서 보듯이 상위 영역 항목이 교육 과목으로 대응되어 있

다.

(21) 가. 한국 배경지식 : 지리, 인구, 언어, 경제, 정치, 종교, 교육, 역사¹¹⁴⁾ 등 한국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한다.

나. 한국 사회와 문화 : 한국 지리, 자연 자원, 생활양식, 종교, 사회적 가치, 예술 등에 학습한다. 시대별 환경, 사회, 문화의 변천사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즉 (21가)의 ‘한국 배경 지식’의 경우,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등과 같은 하위 영역 항목들이 교육 내용에 구성되어 있다. ‘한국 사회와 문화’의 경우 (21가)와 거의 동일한 목표를 가지나, 통시적 내용(변천사)가 교육 목표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21가)와 다른 점이다.

넷째 전공 선택 과목에서 ‘기능’은 주제(대중 매체, 시사)별로 구성되어 있으며(28가,나) 문법의 경우 ‘형태, 의미’ 등이 하위 영역 항목이 빠져 있다.(다,라) 문학의 경우 통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마)과 하위 영역 중 일부(소설)만이 교육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바) 문화 영역은 소위 전통 문화와 관련된 교육 과목이 ‘한국 민속’으로 존재한다.(사)

28) 가. 시사 한국어 : 세대별로 최근 한국의 생활 양식을 한국어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본다.

나. 대중매체와 한국어 : 신문, 잡지, 기사, 광고 등 다양한 유형의 대중매체에서 쓰이는 한국어에 대해서 학습한다.

다. 한국어 음운론 : 한국어의 음운구조를 파악하고 자음, 모음, 음절, 단어 단위에서의 음운론적 규칙에 대해 학습한다. 음소 분별과 발음 개선에 중점을 둔다.

라. 한국어 통사론 : 한국어의 어휘, 동사 변화, 조사, 어미 등에 대해 현대 언어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마. 한국 문학 입문 : 한국 문학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타국의 문학과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

바. 한국 단편 소설 : 널리 알려진 한국 단편 소설을 분석하여 그 주제를 알아본다.

사. 한국 민속 : 신화, 수수께끼, 전래동화, 속단, 격언, 전통놀이, 노래 등을 학습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실용 영역은 크게 ‘번역’, ‘통역’, ‘한자’, 그리고 기타(비즈니스·비서업무, 관광)으로 나뉘어 있다. ‘번역’과 ‘통역’의 경우 1단계는 전공 필수에 2단계는 전공 선택에 각각 배열되어 있다.

가. 한국어 번역 1 : 번역의 원론적 부분을 학습하고 한국어 문서를 태국어로,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정확하고 매끄럽게 번역하는 것을 학습한다.

나. 한국어 통역 1 : 통역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짧은 한국어 대화를 태국어로,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신속하고 의미에 충실하게 통역하는 것을 연습한다.

114) 한국 전쟁과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다. 한국어 번역 2 : 공문, 기사, 뉴스 등 고난이도의 어휘로 구성된 한국어 텍스트를 태국어로 번역, 혹은 반대의 과정을 통해 정확하고 매끄러운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한국어 통역 2 : 길고 복잡한 내용의 한국어 대화를 태국어로, 혹은 반대의 과정의 통역을 통해 공식적인 상황에서 한국어를 바르고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마. 한국어 한자 : 한국어 어휘를 이루고 있는 한자에 대한 학습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비즈니스, 비서업무 한국어 : 한국의 업무 처리 방식을 배우고 업무용 어휘와 표현을 습득하여 공문 작성 등 한국어를 직업적 상황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학습한다.
- 사. 관광 한국어 : 여행 가이드로서, 혹은 관광산업 전반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와 표현들을 습득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여행객을 인도하는 실습을 한다.

5. 결론

이 글은 태국의 한국어교육과정 현황을 파악하고, 상위 영역 항목의 개념을 통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 몇 가지 밝혀진 사실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 영역 항목을 ‘기능, 문법, 문학, 문화, 실용’으로 나누었을 때 태국의 대학은 기능 영역을 가장 우선 강조하며 다음으로 실용 영역을 강조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태국은 취업 목적의 한국어 교육을 강조한다.

둘째, ‘문법’의 경우에 하위 항목이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이 있는 데 주로 ‘음운, 형태, 통사’만 강조할 뿐 의미와 화용의 하위 항목이 교육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 매우 드물다.

셋째, ‘문학’의 경우 통합 교과(상위 영역 항목 교과)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서정, 서사, 교술, 희곡’ 중 주로 ‘서사(소설)’ 부분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결핍된 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 영역은 태국의 ‘송클라 대학교’의 경우 주로 협의의 문화 개념을 도입하였지만, 다른 대학의 경우 광의의 문화 개념, 예를 들어 ‘경제, 사회, 문화(협의의 문화), 정치, 제도’와 같은 하위 영역 항목과 관련된 학습 개념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주로 상위 영역 항목이 교육 과목으로 구성된 것이 많아 앞으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즉 전공 선택 과목에서 학습자가 하위 영역 항목이 교육 과목으로 구성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편제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용 영역의 경우 주로 ‘번역, 통역’과 관련된 하위 항목 교육 과목이 많고, 송클라 대학교 이외의 두 대학은 ‘한자’를 교육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참고 문헌

국제교류재단(2002), “태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 국제교류재단

교육부(1998),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김명광(200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 한국어 교육 20호, 한국어문

교육학회

- 김명광(2005), “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 조사”, 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원.
 (2007 a), “한국어교육과정의 표준화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문제”, 새국어교육 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b), “국어과 교육과정과 한국어과 교육과정의 비교와 대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33호,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07 c), “韓國語 教育課程 標準化를 위한 變因 分析과 模型 設計”, 어문 연구 118호, 한국어문회
 (2007 d), [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과제], 박이정.
 (2007 f), “몽골의 한국어교육과정”, 우리말 연구, 우리말 학회(논문 투고 중)
 (2007 g), “태국의 상위 영역 항목과 교과목과의 상관성”, 국어교육학회(논문 투고 예정 중)
- 김민애(200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남명호 외(2000), “한국어능력시험 등급기준 조정 및 문제은행 구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민현식(2003), ‘국내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박영순(2004), “한국어 교육론”, 월인.
- 변혜경 외(2002), “주한 외국인 노무자를 위한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 원진숙(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방향’, 국어교육 9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미혜(2003),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이미혜(2003), ‘직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제13차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이은희(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어교육 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정희(2003),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이해영(2004),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과정 설계 연구’,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재외동포재단(2006),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재외동포재단.
- 전나영(2003),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정명숙(2003),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조항록(2001),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정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 진기호(2003),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교육과정’, 국내 대학 기관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집.
- 한재영 외(2004), “한국어 교수법”, 태학사.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199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교수 요목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 문화관광부.

황선영 외(2006), ‘이주 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2006), “국내 한국어교사양성기관 실태 조사”,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세계화재단 홈페이지(www.glokorean.org)

제4장 필리핀 한국어교육과정

I. 서론

이 글은 한국어 교육이 갑자기 활성화된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바탕으로 현재 정부 주도의 한국어교육과정과 대학 기관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그간 필리핀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대학 중심의 한국어과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더 정확히는 하나의 대학에서 그것도 교양 과정으로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필리핀에서 한국어 교육의 대상이 재외 동포 자녀를 대상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곧 정규 한인 학교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 거주 체류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한글학교 중심으로 비정규적으로 실시되어 있었다는 점도 큰 요인 중 하나이다. 달리 말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이 지역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내 학자 및 조사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하여 덜하게 된 것이다.¹¹⁵⁾ 그러나 2004년도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맺어진 이후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필리핀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현재 필리핀 정부(POEA-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를 가고 싶어 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200,000명에 다다를 정도로 한국어 교육 욕구가 현저하게 증가한 상태이다. 이러한 수요는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필리핀 현지인들이 한국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EPS-KLT, Employment Permit System Korean Language Test)을 반드시 응시하여야 때문에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제도에 가장 민감한 것이 사실 한국어 교육 기관이다. 사실 한국어 교육 기관이 양해 각서가 체결된 이후로 단기적으로 18개의 학원이 늘어난 것을 보면 이를 잘 할 수 있다.¹¹⁶⁾ 아울러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국어 교육이나, 무시험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지 정부 주도의 한국어 교육의 시행을 통하여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이 급진적인 변환을 맞게 되었다.¹¹⁷⁾ 하지만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였다는 것과 한국어 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곧 교육과정, 교재, 교수진, 교육 기자재 등 그전까지는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가 급속히 터져 나오면서, 필리핀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이렇게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기관의 한국어교육과정, 한국어 교수진, 피교육 대상자, 교재, 그리고 교육 기자재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이 이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향의 틀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게 하는 데 있

115)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필리핀 대학(UP)에서 교양 과정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그 규모가 20-30명 정도로 매우 한정된다.

116) 양해 각서가 체결되기 이전에는 4개의 한국어 교육 기관이 있었으나, 체결된 이후로 18개로 늘어났다. TESDA 허가 기관 참조.

117) 무시험의 대상자는 양해 각서 이전의 고용허가제 제도 하의 예비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필리핀에서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구명하고자한다.

2장에서는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 단계를 밝힌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육 단계를 초창기, 성장기, 태동기로 분류하고 이 단계의 기준이 되는 요인을 6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에 따라 이러한 6가지 요인과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 단계를 태국과, 스리랑카의 단계와 비교함으로써, 필리핀이 지금 현재 한국어 교육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밝힌다.

3장에서는 현지 정부 주도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살펴본다. 현지 정부가 주도가 된 한국어 교육을 교육과정, 대상, 교육 시수, 교사, 교재 등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4장에서는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살펴본다. 대학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란 정규 교과 또는 교양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뜻한다.

5장에서는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재외 동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기관이다.

2.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 단계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 단계가 어느 단계에 속하느냐는 다른 나라 국가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단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때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 단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교육의 단계를 크게 세단계로 나누었다. 그 단계는 “한국어 교육 초기 단계”, “한국어 교육 성장기 단계”, 그리고 “한국어 교육 활성화 단계”로 나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인이다.

- (1) 한글학교 및 한인학교 설치 여부 및 학생 현황
- (2) 한국 취업 희망자 현황
- (3) 해외 투자 기업의 수 및 해당 기업 현지 근로자 현황
- (4) 현지 한국어 관련학과 대학 설치 여부 및 학생 현황
- (5) 현지 사설 학원과 수강생 현황
- (6) 대중 매체의 한국 문화 보급 현황

위에 대하여 좀 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글학교 및 한인학교는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한인들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잘 알다시피 한글학교는 비정규 학교로 주로 주말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며, 한인학교는 한국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통해 한국의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이다. 이러한 한글학교와 한인학교의 학생 수를 파악하면, 기본적인 피 한국어 교육 수요자들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현황은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통계는 현지 정부 노동청(POEA)의 한국 취업 등록자들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약 200,000에 달한다. 이들은 한국과 해당 정부 기관의 M.O.U 협정에 따라 한국에 취업을 하려면 한국어 시험을 반드시 응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잠재적 한국어 교육 수요자이다. 이 때 이 잠재 수요자들이 실

제로 한국어 시험을 지원했다면, 이들이 한국어교육 실수요자이다.

셋째, 해외 투자 기업이란 현지 국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이다. 우리 기업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용된 현지인들은 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한국어를 배우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은 잠재적 수요자가 된다. 그런데 점차 해외 투자 기업의 고용주들이 이들이 한국어를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한국어를 배웠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여부가 인증서(성적표)로 드러나는 데,¹¹⁸⁾ 이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면 역시 한국어 교육의 실수요자가 된다.

넷째, 현지 한국어 관련학과 대학 설치 여부도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어 관련학과가 설치되고, 학생들이 수업을 한다면 이들이 바로 한국어 교육의 피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몇 가지 구분이 필요하다. 한국어 관련학과가 전공학과로 설치된 경우, 한국어 관련학과가 교양과목으로 설치된 경우, 아니면, 학과는 없되 대학 부설 센터에 한국어 교양 과정이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전공학과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 전공학생은 지속적인 한국어 수요자이지만, 이수 학점이 없는 단순한 한국어 교양 과정 수강자는 엄밀한 의미에서 피한국어 교육의 잠재적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현지 사설 학원의 수강생 현황을 통해서도 한국어 교육의 수요자를 파악할 수 있다. 현지 사설 학원의 수강생들의 목적은 대부분 한국의 취업을 희망하는 현지인들이거나,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자들이다. 지금 현재 필리핀에 18개의 사설 한국어 학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많게는 300명 적게는 50명 정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통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한국어 교육의 실수요자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¹¹⁹⁾

여섯째, 대중 매체의 한국 문화 보급도 한국어 교육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대중매체란 현지 방송, 신문 등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주로 한국의 드라마, 영화, 콘서트 등의 현지 방송, 상영 또는 공연을 뜻한다. 이것을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청률이나, 관객의 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의 시청률 조사가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관객의 수도 정확한 통계를 얻기 어렵다. 더욱이 우리나라 대중매체 자료가 현지에 보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 수요자 측면 중 가장 약한 요인이다.

이 글에서는 위의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필리핀은 한국어 교육 성장기 단계로 파악한다. 이는 다른 나라의 한국어 교육 사정과 비교하면 좀 더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스리랑카의 경우, 한국어 교육과 관련대학이 한군데이며(켈라니아 대학, 교양 과정) 학생 수도 13명 정도이다. 또한 정규 한인학교의 학생 수가 90명 정도인데 이 대상은 한인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118) 인증서란 현지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인증서나 또는 대기업의 경우 자체 교육을 수료했다는 수료증을 뜻하며, 시험을 통해서란 예를 들어 교육과정평가원의 KLPT 시험이나, 세계인증말위원회의 Basic-KLPT 시험 성적이다.

119)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 학원들의 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학원들을 허가해 주는 기관이 바로 TESDA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TESDA는 한국어교육과정, 시설, 교사 등 최소 자격 요건을 검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학원의 수강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동기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더불어 다른 국가들은 허가해 주는 기관이 별도로 없어서 한국어 학원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할 조차 없다.

다.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 실제 응시생도 2005년 기준으로 700명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보조적으로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은 한 군데도 없으며 또한 한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이를 통해 이 국가는 현재 초기 단계의 한국어 교육 수요 국가라 볼 수 있다. 다만 2005년도 고용허가제 할당량이 8,000명 정도이어서, 한국 고용주들의 스리랑카 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잠재적인 한국어 교육 수요는 크다고 하겠다.

반면에 태국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 활성화 단계에 속하는 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이 약 200,000명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며, 한국어 교육 관련학과가 14개 학교(2005년, 약 2000명 추정)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한인학교가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 시험에 따른 응시 인원이 약 27,000명 정도로서 이들 모두 피한국어교육 실수요자들이다. 사설 한국어 교육 학원은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 모든 점을 볼 때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 단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필리핀의 경우는 스리랑카와 태국과 다른 전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글학교가 총 13개 학교이며 약 3,700 정도가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의 도입으로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이 매우 활발하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TESDA- II 참조)에서 10,000명의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민간 차원에서는 18개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 2,000명(추정)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시험 응시 인원도 약 3,500명 정도로 한국어 교육의 실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불어 한국에 오고자 하는 등록 인원수가 200,000명에 이른다는 점(POEA 자료)은 한국어 교육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 즉 성장기 단계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국가에서는 정규 한인 학교는 없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국어 관련 대학도 UP에서만 그것도 교양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수강 인원이 지금까지 150명 정도도 매우 소규모이다. 아울러 앞서 말한 한국어 교육 수요가 2005년도에 한국어 시험이 도입되고 난 직후에 단시일 내에 증가한 경우로, 제반 한국어 교육 환경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활성화 단계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염두 해 볼 때, 이 국가는 태동기를 지났지만 한국어 교육이 성장기로 들어선 국가로 판단할 수 있다.

3. 현지 정부 주도의 한국어교육과정

현재 현지 정부 주도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심 기관에는 POEA의 산하 기관인 TESDA가 있다. TESDA에서는 EPS-KLT(Employment Permit System- Korean Language Test)가 시행되기 이전에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자이면서, 한국 고용주들에게 채용이 확정된 사람들에 한하여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기관은 직접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교육을 허가하고, 허가된 내용을 관리하면서, 교육을 지도하는 기관(교육과정 구축, 교육과정 감독)이다. 이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 노동부의 노동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곧 2004년에 한국과 필리핀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관한 M.O.U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이 M.O.U 협정 발효 시기는 2005년 8월 17일이었다. 이 협정의 요지는 한국에 근로를 희망하는 자는 2005

년 8월 17일 이후서부터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EPS-KLT)에 통과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주 골자이다.(이 시험은 필리핀에서 2005년 9월 11일(일요일)-총 응시인원: 417명, 2005년 11월 27일(일요일)-총 응시인원 : 2821명) 그런데 이 시험의 유예기간은 1년인 관계로, 지금 현재 기존에 남아 있던 산업연수생(EPS-KLT 면제자)과 시험 합격자(EPS-KLT 통과자)가 동시에 병존될 수 밖에 없다. TESDA에서는 바로 2005년 9월 11일 이전까지 산업연수생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피한국어 교육 대상자 규모는 2005년도 12월 기준으로 약 10,000명)이다. 이들은 TESDA에서 한국어 교육을 10일 동안(75시간) 받는다. 이 학생들의 수강료는 2400페소(약 50,000원)로 비교적 싼 편이다.

한편 TESDA가 교육을 승인한 기관은 모두 18개 기관(2006년 1월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 때문에 이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증가하였음)이지만, 이 기관 중에 4개 기관만이 TESDA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인 한국어 재단(비영리 법인, 법인 설립자 - 황인수)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KLC, GLOBAL로 확대되었다.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사의 면모는 우선 KOICA 단원(자원 봉사자), 각종 사설 교육 기관의 한국 국적 한국어 교사, 과거에 한국에 취업한 경험이 있던 필리핀 현지인(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대부분이다.

TESDA에서는 이렇게 위탁을 하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각 위탁 기관에 이를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다.

1) 교육과정

- (1) 교과목 : 한국어(고용허가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 필리핀 근로자)
- (2) 수업 시수 : 75시간(이 수업 시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필수 요청 시간임)
- (3) 장소 : 따직 소재 TESDA 여성 센터
- (4) 사용 능력별 교수 내용: 읽기, 쓰기, 말하기
- (5) 교육과정 해설

이 교육 과정은 의사소통적 한국어에 대한 기초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여기에는 한글 소개, 일상생활 의사소통, 인사, 자기소개 등이 포함된다.

(6) 기대 목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가. 상이한 상황과 장소에서 의사소통적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한국어 글자를 쓰거나 발음할 수 있다.

다. 한국어의 격식 비격식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직장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7) 이수 대상 조건

가. POEA의 자체 검토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한 자

(8) 교육과정 구조

사용 능력	틀	내용	시간
한국어 읽기, 쓰기, 듣기	한국어 듣기, 읽기	o 한국어 소개 - 인사하기 자기 소개 (나라, 국적, 직업)	8
		o 한국어 글자 - 글자 소개 - 글자 발음	12

		- 글자 쓰기(기본 규칙 순서) o 한국어 기본 단어 순서 - 주어, 목적어, 용언 - 부정 표지 - Yes/no 질문 o 방향 표현 - 장소 - 위치- 방향 - 관련 표현	8 8
	한국어 쓰기	o 한국어 수사 - 수사의 종류 - 서수와 기수 - 두 개 이상의 명사 연결하기 - 한자어 수사 발음 o 한국어 시간 대화 - 시간 묻기 - 약속하기 - 시간 계획표에 대하여 말하기 o 일상 활동에 대하여 말하기 - 수사 - 위치어 - 부사	8 10 8
	한국어 말하기	o 음식점에서 주문하기 - 차림표 - 주문 표현 - 맛 o 쇼핑에서 필요한 대화 o 은행 및 우체국 o 부동산 o 전화 대화 o 교통 수단 o 병원과 약국 o 맛 표현, 감사와 사과 표현 o 취미와 운동 표현 o 초대와 방문 o 문장 구조 - 격식 종결어미와 비격식 종결어미 격식적 평서, 의문, 명령, 청유 o 행위 동사와 정중 어미 o 복합 문장 -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표현 - 시간 분사 - 부사	18

(9) 평가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평가된다.

- 쓰기 시험 - 구두 암송과 시험 - 듣기 시험 - 출석 - 숙제

(10) 수업 방법

- 강의 - 토론 - 구두 암송 - 연습

(11) 보조 자료

- 핸드아웃 - 활동지 - 한국어 사전

(12) 교사 자격

- 한국어과 대학 졸업자 - 영어와 한국어 능통자
 - 타갈로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자 - 교사 경험(필수) (자료 제공 : TESDA)

위 한국어교육과정의 특징을 보면 첫째 총 교육과정의 시수가 75시간이라는 점이다. 이 교육 시간은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필수 시수이다.¹²⁰⁾ 둘째 한국어 목표는 크게 언어사용능력의 4가지 곧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구사 능력이며, 그 수준은 초급 단계의 한국어이다. 그런데 이 교육은 필리핀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아니라, HRD KOREA(산업인력공단)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서 POEA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곧 취미로 하거나 한국어를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생들 또는 일반인들은 한국어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한국어를 전공하거나 한국어 관련 과목을 이수 받은 사람,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자, 타갈로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선택 조건), 그리고 교사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자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나라의 개별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나라의 공용어가 영어이며, 고등학교 졸업자들이면 대부분이 영어 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¹²¹⁾ 한편 이 교육과정은 2006년부터 대폭 개정되었다. 앞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2004년 4월에 대한민국 노동부와 현지 노동부와의 M.O.U 협정 체결에 의하여 송출 국가의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곧 이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현지 산업연수생들의 필수 피한국어 교육 시간은 75시간이지만, 제도가 발효된 이후, 한국어 교육 이수 시간 중 55시간이 한국어 시험 통과로 대체되어 나머지 절대 수업 이수 시간(20시간)만 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TESDA에서는 시험 합격생들에 대한 한국어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2) 교육과정(시안)

- (1) 교과목 : 한국어(고용허가제 제도의 대상이 되는 필리핀 근로자)
- (2) 수업 시수 : 20시간(이 수업 시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필수 요청 시간임)
- (3) 장소 : 따직 소재 TESDA 여성 센터
- (4) 언어 능력 단위: 한국 문화의 이해와 수용
한국어 읽기와 말하기

(5) 교육과정 해설

이 수업의 첫 번째 부문은 한국 기업 문화와 환경에 대한 기초 지식 교육이다. 여기에는 한국 문화, 생활, 가족 관계, 특정 상황, 사회적 경험 그리고 산업 문화의 이해를 포함한다. 이 수업의 두 번째 부문은 작업 환경이나 다른 환경에서 일상생활 대화에서 필요한 읽기와 쓰기 기술에 대한 교육이다.

(6) 기대 목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가. 상이한 상황과 장소에서 의사소통적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120) 엄밀히 따지자면 필수시간은 80시간인데 5시간 정도는 현지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했다.

121) 필리핀이 40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은 스페인의 영향으로 인해 스페인어가 오랫동안 필리핀 언어에 영향에 주어왔다. 아울러 필리핀이 미국 식민지로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용어가 영어로 쓰일 만큼 영어 사용이 보편적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민족어인 타갈로그어가 있으며 이것은 각 지방마다 다른 방언을 이루며, 대개의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와 타갈로그어를 함께 사용한다.

- 나. 한국어 글자를 쓰거나 발음할 수 있다.
 다. 한국어의 격식 비격식 의사소통을 수행할 수 있다.
 마. 직장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7) 대상 조건

- 가.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 수료증
 나. POEA의 자체 검토에 통과된 자

(8) 교육과정 구조

언어 능력 단위	강좌명	강좌 내용	시간
한국 문화 이해하기 와 수용하기	한국 문화 이해하기	○ 한국 문화에 대한 개략적 보기 ○ 한국 문화 생활 - 옷, 음식, 거주 ○ 가족 의식 - 생일 - 결혼 - 기념일 - 장례 ○ 공휴일과 계절 ○ 사회적 배경 - 직장 예절 - 집단 인식 - “빨리” 문화	5
한국어 읽기, 듣기, 말하기	한국어 읽기, 듣기, 말하기	○ 다음과 관련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 산업 안전 - 한국 고용주와 고용자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 직업윤리 ○ 작업과 관련된 기업문화 ○ 한국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듣기, 말하기, 쓰기 - 은행, 공공 기관, 이민국, 우체국, 병원 등과 관련된 대화 - 자기소개 및 약속하기 - 한국 기업 문화	15

(9) 평가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평가된다.

- 쓰기 시험 - 구두 암송과 시험 - 듣기 시험 - 출석 - 숙제

(10) 수업 방법

- 강의 - 토론

(11) 보조 자료

- 핸드아웃 - 활동지 - 한국어 사전

(12) 교사 자격

- 대학 졸업자 - 한국인(필수) - 1년 이상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경험자
 - 영어 능통자 (자료 제공 : TESDA)

위 내용의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도 말을 했듯이 교육이수 시간이 20시간으로 줄었다는 점이며, 둘째, 언어사용능력 별 학습 목표도 주로 산업 현장과 관련된 한국생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15시간), 셋째, 한국문화 적응과 이해도 한국어 문화 생활, 가족 관계, 사회 배경 등과 같이 이전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들이 통합되거나 삭제되었다는 점이다.¹²²⁾ 넷째, 구두 암송과 연습이 수업 방법에서 빠졌다는 점, 다섯째 교사 자격이 전에는 필리핀인도 가능하였으나, 시안에는 한국인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며, 경험 요

구 조건도 1년간이라고 하여 시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 이 기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기관의 교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 기초 한국어 (정인 한국어 재단)

가. 한글의 기초

나. 한글 : 한글의 자·모음을 소개함.

다. 사전 순서 : 사전의 순서를 나열함.

라. 모음편

가) 모음 체계 소개

○ 첫 글자가 모음으로 이루어진 기본 단어 소개 (아이, 아기 등)

- 읽고 써 보기(한글/영문 병기)

- 보고 써 보기(그림/글자/발음 기호 병기)

마. 자음편

가) 기본 자음 체계 소개

○ 첫 글자가 모음으로 이루어진 기본 단어 소개(가구, 거위 등)

- 읽고 써 보기(한글/영문 병기)

- 보고 써 보기(그림/글자/발음 기호 병기)

나) 가획 자음 소개

○ 주의하여 써보기

- ㄱ → ㄲ → ㅋ

- ㄷ → ㄸ → ㅌ 등.

바. 한글 기본 음절표 소개

○ 받침 있는 글자 만들기 (예 : 바+ ㄱ = 박)

○ 받침이 있는 글자 읽어보기

○ 받침을 넣어 낱말을 만들어 보기

○ 받침이 들어간 글자 읽기

사. 숫자 학습(1 -100까지) 및 숫자 세기 연습

아. 날짜 연습

자. 계절과 날씨 학습

차. 문법 편

가) 동사 소개 I 나) 동사 소개 II 다) 형용사 I

라) 기본 문법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조 조사 등

카. 생활 회화

122) 그러나 이 시안은 한국어 시험의 평가 요소와 대비하여, 교육과정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곧, 시험 출제들의 scope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직업 안전, 직장 생활 관련 평가 요소에 대한 학습 요소가 이 시험의 중점 사항이라면, 반대로 필리핀 교육과정 중에서 직업 안전, 직장 생활 관련 요소의 학습 내용은 줄어들 필요가 있으며, 반면에 한국 문화에 대한 사항이 시험 출제의 Scope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를 점유하고 있다면, 현지의 한국어교육과정에서는 보충될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의 논의도 있을 수도 있으며, 한국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학습자 수준, 현지 교수-학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밀히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시험과 연계된 교육과정의 수정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 위 교재의 단원 구분은 이 글에서 책의 순서를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나눈 것임.

이 책의 특징은 학습자가 학습 초기에 한글 음가 학습, 음절 단위의 학습을 단어 학습과 병행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 요소(숫자, 날짜, 계절과 날씨 등)를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읽고 쓰는 능력이 발전되었을 때, 심화 학습으로 통사 부문 문법(주로 동사류)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 이후에는 기초 생활 회화를 연습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의 수업 시수는 총 75시간이지만, 앞에서도 이야기 하였듯이 20시간에 맞추어진 교재는 이 재단이 별도로 만들고 있으며, 그 시안을 여기서 소개하고자 한다.

4) 1장

(1) 한국문화 개요

- 지역 명칭, 국기 소개 등

(2) 한국 생활문화

- 남녀 한복 소개 - 한국 음식 소개 - 전통 주택 소개

(3) 가정의례

- 생일 - 한국의 결혼 - 기념일 - 장례

(4) 공휴일과 계절

- 공휴일 - 계절

(5) 사회적 배경

- 회사 예절 - 경제성장과 “빨리”문화

2장

가) 듣기, 말하기(직장)

- 한국인(고용주, 한국노무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일할 때 예의
- 일과 공동작업 문화

나) 듣기, 말하기

- 은행, 우체국 - 병원 - 쇼핑 - 자기소개

이 시안의 특징은 교재 구성 중 한글의 자모 체계나 음절 체계, 단어 연습을 과감히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아마도 한국어 시험 중에 ‘읽기’와 ‘듣기’의 평가 내용과 문제가 한글로 적어 있고, 이들이 한국어 시험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한글의 자모, 단어 등을 알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둔 것으로 추측된다. 곧 이 시험을 응시하고 통과하였다면 학습자들이 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기본 단어는 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교재 내용을 구성한 것이다. 이 교재의 중점 사항은 기초 의사소통 능력, 기초 생활,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 등과 관련된 학습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필요한 용어와 회화, 병원에서의 의사나 간호사와의 만남,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자기소개, 직장 상사와의 의사소통, 예절 문제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¹²³⁾

123) 필리핀에서 출판된 교재 목록은 다음과 같다.

Samuel E. Martin(2005), [Korean in a hurry], Tuttle publishing.

Jenny K. Youngae(1995), [INTRODUCTION TO SPEACKING], Manila Philippines.

한편 TESDA에서의 한정된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어 교육이 바로 자신들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례 없이 한국어 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사 전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5)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17일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오는 30일로 시행 500일째를 맞는다. 고용허가제는 불법체류라는 부작용이 큰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하기 위해 인력 송출 국가와 사용국가(한국)가 직접 해외근로자의 채용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중략...머날은 파리의 연인, 대장금 등 최근 폭발적 인기를 모은 한국 드라마 비디오와 사설학원을 통해 이미 한국어를 익힌 덕분인지 발음이 좋다...중략...학생들의 학습 열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곳에 입소한 19개 기수 학생 600명 중 결석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두 번 결석이면 재수강 명령이 떨어진다. 그는 "필리핀 근로자가 취업한 200개 국가 중 한국은 압도적으로 선호도 1위를 차지한다"며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신청비용이 브로커 비용의 10분의 1까지 줄어들고, 월급은 어느 나라보다 후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까지 한류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 실시 1년 만인 지난 8월17일부터 한국행 필리핀 근로자들의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 응시를 의무화한 것이 계기가 됐다. 남파 해외취업청 국장은 "한국어 응시 신청자가 너무 많아 빈곤도와 학력, 경험, 나이 등 4가지 요소를 점수화해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며 "한국행을 원하는 구직 대기자 20만명 가운데 10%에게만 응시 기회가 돌아갔다"고 말했다. ...생략...(한국경제신문 2005년, 12월 25일)

아울러 이 TESDA는 18개 학원 외에 ILOILO 등의 섬 지방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여 교육시키기 위해서 필리핀인을 한국어 교사를 양성해서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이미 진행되어 있으며, 만약 이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가시화된다면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이 지역이 한국어 교육이 성장기 단계이지만 폭발적으로 증가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기 때문에(한국 정부의 M.O.U 제도 마련), 사전 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지원, 교육과정, 교재, 재정적 지원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각 지방의 한국어 교육이 통일성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4. 현지 대학 기관 중심의 한국어교육과정

필리핀에서는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학과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파악이 힘들다. 한국어 교육과 설립을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으나, 각 대학들이 필요성을 찾지 못한 관계로 한국어 교육과가 개설되는 것이 미진하다. 언 듯 보면 앞에서 말한 내용, 곧 한국어 교육의 열풍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곧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어 교육학과가 설립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따로 있다. 곧 한국어 교육 열풍이 대학과 대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도 차원 곧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 대상이 원래의 취지(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누구나 한국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대학을 졸업한 자는 1년의 취업 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이 세부 M.O.U 협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대학 예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자신들에게 오지

Boye Lafayette De mente, [instant korean], Tuttle publishing.
Peter Constantine, [Making out in Korean]. Tuttle publishing.
Seong-chul shin & Gene Baik, [Pocket Korean], Tuttle publishing.

않기 때문이다. 이 세부 M.O.U 협정이 맺어지기 전까지 각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를 신설할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 특히 U.E, Rasal 등 명문 대학이 이 시험의 초기 단계에서 한국어 교육과를 설립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나, 응시 자격이 제한되자마자 한국어 교육 강좌(비정규 강좌)가 폐지되거나 설립 자체를 유보하게 되었다.

다만 U.P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교양 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대학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교수진(주소 포함)

가. 이종화 조교수(교수)

#52 Butterfly St., Valle Verde 6, Pac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나. 민경인 KOICA(자원 봉사자)

Asian Center, UP Diliman, Quezon City, Philippines

7) 교육과정

가. Korean 10: 기초 I 나. Korean 11: 기초 II 다. Korean 12: 중급 I

라. Korean 13: 중급 II

8) 재학생

가. Korean 10: 21명 나. Korean 10-11: 20명 다. Korean 12-13: 10명

9) 졸업생

가. 2005-2006학년도 학기별 40-50명이 수강

나. 2004-2005학년도 학기별 30-40명이 수강

다. 2003-2004학년도 학기별 20명

라. 이전 : 학기별 15-20명

10) 2006년도 한국어교육추진사업

가. 제 3차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한국어응변대회 11월말에 개최 예정(2006년도)

가) 2003년 및 2004년에 2차에 걸친 한국어응변대회를 개최하였음.

나) 3차 대회는 한국유학생의 필리핀어 응변대회와 한국어응변대회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필리핀과 한국의 관계성 향상과 더불어 일방적인 한국어 전달 교육 방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한국어를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함.

나. 필리핀 문화에 친화적인 한국어 교과서 (대학용 교재) 개발

가) 한국과 필리핀의 언어와 문화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다. 한국어 퀴즈 대회를 언어학과 설립 기념 주간에 개최 예정

가) 한국어 퀴즈 대회를 영어/현지어로 진행하여 아직 한국어를 모르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나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유도하여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부여함.

라. 지역 사회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설

가) 일반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사회에 개방하여 한류와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노동시장 개방에 따른 일반인의 한국어 학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

이 대학이 국내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진흥 사업 수행 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UP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 및 사업은 한국어 웅변대회, 한국어 퀴즈 대회 및 한국어 교재 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관련 학회나 세미나에서 소외되어 있었는데, 전혀 없이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바, 이 지역도 학회나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 6) - 10) 자료 제공 : UP 대학 이종화 교수

5. 결론

이 글은 필리핀의 한국어 교육 기관 및 기초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글에서 밝힌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은 한국어 교육이 성장기에 들어선 국가임을 밝혔다.

한글학교가 3,700명 정도로 규모가 크며,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200,000명의 한국어 교육 수요자 및 3,500명 정도의 한국어 시험 응시자가 있음)을 볼 때는 한국어 교육이 활성화 단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규 한인학교가 없다는 점, 한국어과가 설치된 대학이 UP 한 곳 밖에 없다는 점, 이러한 수요 급증은 한국어 시험이라는 제도 변화(2004년의 M.O.U 협정)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성장기 단계의 국가임을 말하였다.

둘째, 현지 정부 주도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는 TESDA가 있음을 밝혔다.

TESDA에서는 75시간의 한국어 교육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육 과정을 두어, 위탁 기관에게 의무적으로 이 교육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교육의 대상은 예비 외국인 근로자들로, 2005년도 이후에 20시간으로 교육 시수가 줄어들었음을 구명하였다. 나머지 시간은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으로 대체된다. 교재는 각 위탁 기관이 따로 쓰고 있으며, 여기서는 정인한국어재단의 교재를 소개하였다.

셋째, 현지 대학 기관 중심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는 UP에 한국어 교양과정이 유일하게 개설되어 있음을 밝혔다. UP에서는 한국어웅변대회, 한국어 교과서 개발, 한국어 퀴즈 대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지역이 한국어 교육에서 소외된 관계로, 국내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에 유무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참고 문헌

황인수 외(2003), “한국어”, 정인한국어재단.

한국경제신문(2005), 12월 5일자 기사

재외동포재단(2005), “재외한글학교현황”, 재외동포재단

Samuel E. Martin(2005), [Korean in a hurry], Tuttle publishing.

Jenny K. Youngae(1995), [INTRODUCTION TO SPEACKING], Manila Philippines.

Boye Lafayette De mente, [instant korean], Tuttle publishing.

Peter Constantine, [Making out in Korean]. Tuttle publishing.

Seong-chul shin & Gene Baik, [Pocket Korean], Tuttle publishing.

제5장 말레이시아의 한국어교육과정

1. 서론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교육이 시작된 것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관계가 긴밀해지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양국의 필요에 의해 상호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곧 1980년대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던 경제정책을 탈피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추구하고자 한 의지와,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선진기술과 경제를 배우겠다는 취지하에 이른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펼치고자 했던 의지가 상호 맞물려 양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의 핵심 골자가 한국과 일본과의 경제 구조에 대한 벤치마킹이기 때문에 ‘학생, 기술자, 공무원, 경제인’ 해당 분야 인력들을 한국과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곧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국 및 일본이 합의하여 (1) 산업 및 기술 훈련, (2) 말레이시아 정부 중견 관리 단기 교육, (3) 대학교육 및 기술 교육, (4)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간 상호교류 강화 등 4개 분야에 걸쳐 동방 정책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의 말라야대학교 (University of Malaya:UM),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UKM), 마라 공과대학교 (Institute of MARA : ITM) 등의 대학들에 한국어 및 일본어 강좌를 개설케 하여 파견 전에 해당 국가의 언어를 학습하도록 하였다.

한편 현재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위 3개 대학 이외에 말레이시아 뿌뜨라 대학교 (University of Putra Malaysia :UPM) 그리고 푼 후세인 온 공과대학교 (Kolej Universiti Teknologi Tun Hussein Onn : KUiTTHO)이 있다. 그 밖에 페낭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과학대학교 (University of Science Malaysia :USM)과 말레이시아 사라왁 대학교 (Universiti Malaysia Sarawak : UNIMAS)에 일시적으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말라야 대학교(University of Malaya: UM)

한국어 과정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대학교는 말라야 대학교가 유일하다. 이 대학은 1996년 7월에 문학·사회과학대학의 동아시아 학과 안에 한국어학이 개설되었다. 한국어 과정은 언어와 언어학과(Faculty of Languages and Linguistics)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전공 필수 과목’과 ‘교양 선택 과목’로 나뉘어져 있다.¹²⁴⁾

전공 필수 과목의 한국어교육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 학과에 등록한 학생들은 1년간의 일반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2년째 되는 3학기부터 전공 및 부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은 3학기부터 한국어 및 한국학 과목들을 일반 선택과목과 함께 수강하게 된다. 전공 및 부전공 학생들에게 개설된 한국어 과목은 다음과 같다.

124) 언어학 대학 (Faculty of Languages and Linguistics)은 1972년 3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 7월 14일까지는 언어센터 (Pusat Bahasa : Language Centre)로 있다가 1996년 단과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 한국어 과목

과목명	수업시간		과목명	수업시간	
	주당	학기당		주당	학기당
한국어 1	4	56	한국어 3	4	56
한국어 2	4	56			
최대 수업시간	168		최대 이수학점	12	

한국학 전공과목 중 한국어에 대한 시간배정은 2003년까지는 주당 4시간(3학점)이었고 2003/2004학기부터 주당 6시간으로 늘어났다.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 학점은 102학점으로 한국학 전공 필수 학점은 60학점, 그리고 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 학점은 27학점으로 각 과목 별 학점은 3학점이다. 한국학 전공학생은 학생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 한국어를 12-18학점(4학기-6학기) 수강할 수 있으며 부전공학생은 6-12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 전공, 부전공 학생이 이수해야 할 한국어 이수 학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한국학전공 부전공 한국어 이수학점 현황

	한국어 (3학점/1학기)	기타
전공	12-18학점 (3학점X4학기)	한국어는 1주당 6시간으로 1학기 총 84시간 수강
부전공	6-12학점 (3학점X2학기)	2학년까지만 수강 가능

교양과목(또는 제 2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강좌는 언어학대학부 학생들과 타 단과대학 학부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과목 코드 번호와 과목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최대한 수강할 수 있는 과정은 서로 같게 개설되어 있다.

(3) 한국어 과정 과목 코드 번호와 과목명¹²⁵⁾

학기	언어학대학부 학생		타 단과대학 학생	
	과목코드	과목명	과목코드	과목명
1	TBEK 1301	한국어 1 (a)	TBEK 1331	한국어 단계 1
2	TBEK 1302	한국어 1 (b)	TBEK 2331	한국어 단계 2
3	TBEK 1303	한국어 2 (a)	TBEK 3331	한국어 단계 3
4	TBEK 1304	한국어 2 (b)	* TBEK 4331	한국어 단계 4
5	TBEK 1305	한국어 3 (a)	* TBEK 5331	한국어 단계 5
6	TBEK 1306	한국어 3 (b)	* TBEK 6331	한국어 단계 6

위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언어학 대학부 학생들과 타 단과대학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기간은 최고 6학기이다. 단 타 단과대학 학생의 경우는 이후에 3학기로 제한되었다. 2002년까지는 언어학부 학생과 타 단과대학 학생¹²⁶⁾을 위한 강의가 과목명은 달랐으나 실제 수업 내용이 같고 강사진의 부족으로 인해 합반으로 진행되어왔다.

언어학부와 타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배당되는 학점의 차이가 있는데, 두 과정의 수업 시

125) (* 강사진 부족으로 타 단과대학을 위한 한국어 4,5,6 단계는 실질적으로는 폐강된 상태)

126) 타 단과대학 학생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한국어를 6단계 까지 수강할 수 있었으나 2003년부터 변경된 대학 방침에 따라 합반이 금지되었고 이후 강사진의 부족으로 타 단과대학을 위한 한국어 4,5,6은 실질적 폐강상태이다.

간이 1주당 4시간으로 같으나 언어학대학부 학생의 경우 한국어를 수강할 경우 2학점을 이수하게 되고, 타 단과대학의 학생들이 수강할 경우 3학점을 받게 된다. 다음의 표 2는 학기당 한국어 교육기간과 이수학점, 그리고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최대 수강시간과 학점을 보여준다. 타 단과 대학의 학생의 분포는 주로 공과대학, 의대, 약대, 그리고 체육대 학생들이다.¹²⁷⁾

(4) 한국어 교육 시간

언어학대학부학생(2학점)			타 단과대학학생(3학점)		
과목명	수업 시간		과목명	수업시간	
	주당	학기당		주당	학기당
한국어 1 (a)	4	56	한국어 단계 1	4	56
한국어 1 (b)	4	56	한국어 단계 2	4	56
한국어 2 (a)	4	56	한국어 단계 3	4	56
한국어 2 (b)	4	56	한국어 단계 4	4	56
한국어 3 (a)	4	56	한국어 단계 5	4	56
한국어 3 (b)	4	56	한국어 단계 6	4	56
최대 수업시간		336	최대 수업시간		336
최대 이수학점		12	최대 이수학점		18

말라야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

(5) 한국어 강의 교재

- 가. 류승완, 김금현(2003), 한국어(Bahasa Korea),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출판부
- 나. 한국어(1999),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다. 한국어1(2004)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 라. 말이 트이는 한국어 I, II (1998),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마. 한국어 초급, 중급(2002), 경희대학교 출판국
- 바. 한국어 1,2,3,(1992) 연세대학교 출판부
- 사. 재미있는 한국어 읽기 1,2,3급 (1998), 연세대학교 출판부
- 아. 실용 듣기 가이드 (1998), 재미있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 이대 출판부

127) 현재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는 한국 외대의 마인어과 출신인 김금현 교수이다. 1997년부터 언어대학부에서 교양 선택과목인 한국어 과정과 한국학 프로그램의 한국어 과정 강의를 맡고 있다.

한편 한국어 수강 학생들의 인종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중국계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중국계 학생들은 만다린 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단어를 암기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오스트로네시아어 족에 속하는 말레이어를 모국어로 쓰는 말레이계의 경우는 한국어 학습 시 중국계와 경쟁해 좋은 학점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나 한국어 발음에 관한 한 말레이계가 중국계보다 더 명확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말레이계 학생들이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도계는 지난 10년간 한국어를 수강한 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인도계의 경우 대부분이 타밀족으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학부에서도 교양언어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취업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한국어 수강 학생 인종별 분포 현황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2003년까지	3%	97%	-
2004년 이후	10%	90%	-

- 자. 컴퓨터로 배우는 즐거운 한국어 (CD-ROM), 재외동포재단
- 차. 한국어 활용연습1,2,3(2001), 연세대학교 출판부
- 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1998), 시사, 가나다 한국어 연구소

3.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 UKM)

이 대학의 한국어 과정은 인문·사회과학대학(Faculty of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언어학부 (School of Language Studies and Linguistics)의 외국어 학과에 속해 있다. 한국어 과정은 교양 선택 혹은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이 대학교의 전체 학생들이 수강 할 수 있다.¹²⁸⁾ 한국어 과정은 크게 두 과정으로 구분 되어 있다. 첫째는 읽기, 쓰기, 문법, 회화를 통합한 ‘한국어 초급 1,2, 중급1,2, 그리고 고급 단계’로 되어있는 과정이다. 둘째는 ‘회화’에 중점을 둔 비즈니스를 위한 한국어 그리고 ‘관광’을 위한 한국어 과정이다.

(1) 한국어 과정 과목코드번호와 과목명

학기	과목코드	과목명	과목코드	과목명
1	VA 3013	기초 한국어 1	VA 3063	비즈니스 한국어
2	VA 3023	기초 한국어 2	VA 3073	관광한국어
3	VA 3033	중급 한국어 1		
4	VA 3043	중급 한국어 2		
5	VA 3053	고급 한국어		

이 대학은 ‘기초 한국어1,2’와 ‘중급 한국어1,2’를 모두 이수하는 학생들에게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 만약 고급 한국어를 한 학기 더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할 시에는 추가적인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외국어를 좀 더 깊게 공부할 것을 권장하는 대학 정책을 따른 것이다.

회화 위주의 비즈니스 한국어와 관광 한국어 두 과목은 ‘읽기’나 ‘쓰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에 중점을 두는 과목이다. 이 대학의 학생 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이다. 과목이수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수증명서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기초 한국어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이 대학의 특징 중 하나는 한국어가 석사과정의 한 과목으로 채택되었다¹²⁹⁾는 점이다. 2005년부터 한국어과정이 동아시아 학과 석사학생들에게 언어필수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석사과정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과목은 다음과 같다.

128) 한국어교육과정은 교양 선택 혹은 제2외국어 과정으로서 전체학생들에게 개설되었으나 1990년 중반까지 수강 학생들의 대다수는 인문·사회과학대학부 학생들이었다. 2000년대부터는 과학기술대학(Facul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생과 공과대학(Faculty of Engineering) 학생들이 한국어 과정 수강생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한국어 수강 학생 및 인증별 분포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2003년 까지	4%	95%	1%
2004년 이후	15%	85%	-

129)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어 과정이 석사과정 과목으로 채택된 것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가 유일하다.

(2) 석사 언어필수과목으로서의 한국어 과정

학기	1	2	3
과목명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 학기당 석사 학생들이 한국어를 수강하는 시간은 28-30시간 정도이다.(1주당 2시간으로 계산) 학부 학생과 석사과정 학생이 한국어를 교육받는 총 시수는 다음과 같다.

(3) 한국어 총 시수

학부학생 (3학점)			석사과정학생(2학점)		
과목명	수업시간		과목명	수업시간	
	주당	학기당		주당	학기당
기초 한국어 1	4	56	한국어 1	2	28
기초 한국어 2	4	56	한국어 2	2	28
중급 한국어 1	4	56	한국어 3	2	28
중급 한국어 2	4	56			
고급 한국어	4	56			
최대 수업시간		280			84
최대 이수학점		15			6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한국어 강의 교재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한국어 강의 교재

- 가. 류승완, 김금현 (2003), 한국어 (Bahasa Korea),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출판부
- 나.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1998), 시사, 가나다 한국어 연구소
- 다. 실용 듣기 가이드: 재미있는 한국어 (1998) 이화여자 대학교, 이대 출판부
- 라. 컴퓨터로 배우는 즐거운 한국어 (CD-ROM) 재외 동포재단
- 마. 한국어 (1999)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바. 한국어 1. 2004. 서울 대학교 언어교육원

4. 말레이시아 뿌트라 대학교(University of Putra Malaysia :UPM)

뿌트라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현대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대학(Faculty of Modern Languages and Communication), 외국어 학과(Dept. of Foreign Languages)의 일반 언어 선택과정으로서 개설되어 있다.¹³⁰⁾ 말레이시아 뿌트라 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모두 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라야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과목 이름을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30) 말레이시아 뿌트라 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0년 초이다. 1994년 류승완 교수가 한국어 1,2,3으로 개설되어 있던 과정을 한국어 기초, 중급, 고급 그리고 한국문학 과정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영산 대학교의 이경찬 교수가 2년간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였고 이후로는 신정열씨와 홍석정 선생이 2004년 1학기까지 한국어 과정을 맡아왔다. 2004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김형종씨가 시간강사로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1) 한국어 과정, 과목 코드번호와 과목명

학기	과목코드	과목명	학기	과목코드	과목명
1	BBE 2401	한국어 1	3	BBE 2403	한국어 3
2	BBE 2402	한국어 2	4	BBE 2404	한국어 4

한 학기당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는 시간은 말라야 대학교나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와는 달리 1주일에 3시간이다. 3시간 중 1시간은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율수업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개 강사들이 3시간을 모두 교육하고 있다. 타 대학의 한국어 과정과 비교해 수업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학점은 언급한 두 대학과 마찬가지로 3학점을 배당하고 있다.¹³¹⁾

(2) 한국어 교육시간 (3학점)

과목명	수업시간		과목명	수업시간	
	주당	학기당		주당	학기당
한국어 1	3	42	한국어 3	3	42
한국어 2	3	42	한국어 4	3	42
최대 수업시간	168		최대 이수학점	12	

한국어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와 거의 같은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강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부교재도 함께 쓰이고 있다.

(3) 한국어 강의 교재

- 가. 류승완, 김금현 (2003), 한국어 (Bahasa Korea),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출판부
- 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1998), 시사, 가나다 한국어 연구소
- 다. 컴퓨터로 배우는 즐거운 한국어 (CD-ROM) 재외 동포재단

5. 마라 공과대학교 (Universiti Teknologi MARA : UiTM)

마라공대의 한국어 과정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개설되었음은 앞에서 말을 하였다. 마라공대에서의 한국어과정은 아시아-유럽어과의 한 외국어 선택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 대학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목으로서의 과정, 둘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과정 셋째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 선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속성 과정이 그것이다. 속성과정은 말레이시아 정부산하부처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선발한다. 이는 한국에서 공과계통의 학부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1999년 5월부터 개설 운용되고 있으며 매년 30-50여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공대, 과학 기술대 등에서 학부과

131) 한국어 수강 학생 및 인종별 분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2003년 까지	2%	98%	-
2004년 이후	8%	92%	-

정을 이수한다. 어학부내의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한국어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과정 과목 코드번호와 과목명

학기	과목코드	과목명	학기	과목코드	과목명
1	BKR 401	한국어 1	3	BKR 501	한국어 3
2	BKR 451	한국어 2			

위를 보면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개설된 과정은 모두 3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를 이수할 경우 2학점을 얻게 된다. 한국어 교육에 배정된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이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¹³²⁾ 한국어 교육을 받는 시간은 총 28시간이다.

(2) 한국어 교육시간 (2학점)

과목명	수업시간		과목명	수업시간	
	주당	학기당		주당	학기당
한국어 1	2	28	한국어 3	2	28
한국어 2	2	28			
최대 수업시간	84		최대 이수학점	6	

한국어 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다음과 같다. 역시 한국어 강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부교재도 함께 쓰고 있다.

(3) 한국어 강의 교재

가. 서울대. 2004. 한국어 1, 문진 미디어

나. 시사영어사. 2004. 쉬위요 한국어. 한국어교육문화원

6. 툰 후세인 온 공과대학교 (Kolej Universiti Teknologi Tun Hussein Onn : KUiTTHO)

이 대학의 한국어 과정은 인문·커뮤니케이션학 센터(Humanities & Communication Studies Centre)에 외국어의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대학 전체 학생들이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한국어(코드번호:UMK1312, 과목명:한국어) 과정은 2학점 과목으로 1단계만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은 1주일에 2시간 진행되며 1학기에 총 28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대학교의 한국어 과정 현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툰 후세인 온 공과대학교 한국어 현황

과목명	학생 수	학점	교육시간	총 교육시간(학기)
한국어	30-40명	2학점	2시간/1주	28시간

132) 한국어 수강 학생 인증별 분포 현황을 보면 말레이계가 100%이다. 이 이유는 마라공대가 원주민 우대정책에 근거한 '부미뿌트라(Bumiputra)' 정책으로 말레이계 학생들만 입학할 허용하기 때문이다.

제6장 싱가포르의 한국어교육과정

1. 서론

현재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대학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유일하다. 그런데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정규 교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원의 언어 교육 분과 안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수업 기간은 3개월이며 총 수업 시간은 25시간으로 (10차시) 일주일에 한번 2시간 30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3개월 과정을 거치고 기말 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인증서가 주어진다. 아울러 한국어교육과정은 1주 과정, 3주 과정의 단기 수업이 있다. 하지만 이 단기 교육 과정은 이 대학 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서강 대학교와 경희 대학교와 연계하여, 현지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최소 한국어 수준 2에 도달한 학생)을 이 대학에 한국에 연수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한국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과정에 3개월 과정도 있다. 이는 경희 대학교에서 위탁하여 수업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교육 과정 중 특이한 사항은 이 교육 과정이 한국어 시험(KLP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의 프로그램에 맞추어져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한국어 시험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시험에 대한 안내가 교육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이 대학의 현재 교수진은 배현경, 이현경, 옹 완, 김민재 총 4사람이다.

2. 싱가포르 국립 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싱가폴 국립 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3개월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1)과 같다.

(1) 교과목

	과정명	내용	수업시수
1	초급 한국어 회화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	25시간
2	초급 한국어 회화 2	어휘, 문법 요소 가미된 한국어 회화	25시간
3	중급 한국어 회화 3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초한 한국어 회화	25시간
4	중급 한국어 회화 4	문제해결 방안으로서의 한국어 회화	25시간
5	고급 한국어 회화	한국어 업무 처리 능력 기초 한국어 회화	45시간
6	심화 한국어 회화	한국어 주제 그룹 토의	25시간
7	심화 한국어 (드라마 활용)	한국 드라마 활용 듣기/말하기 중심	5시간
8	한국어 쓰기, 읽기	정확한 한국어 읽기/쓰기 구사 능력	17.5시간
9	경희대학교 여름 학기	한국 방문 프로그램	3/4주
10	한국 방문 1주 프로그램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1주
11	한국대학 정규과정 체험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3개월

위 교과목의 세부적인 내용(교과 목표, 교과 내용, 학습 내용, 문화 요소, 수업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 세부 교과 목표

가. 초급 한국어 회화 1

가) 교과 목표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실제 한국어 회화를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생들은 일상 생활의 유창성과 정확성 학습에 염두를 둔다. 수업 중에 학생들은 인터넷 수업과 발제지를 통하여 심화 연습을 한다. 학생들이 이 단계를 거치면, 주어진 상황에서 즉시적인 필요를 표현할 수 있으며 현재 시제를 가진 단순한 문장을 구사하여야만 한다. 학생들은 쓰기, 듣기 및 읽기 수업 전반에 걸쳐 대부분 말하기를 할 것이다.

나) 교과 내용

- 한글 자모 - 한국어 기본 문장구조 - 동사, 조사, 대명사
- 현재형 - 상대에 맞는 적절한 인사말

다) 학습 내용

- 물건 사기, 주문하기 - 숫자 - 좋아함/싫어함

라) 문화 요소

- 한국어 호칭 : ○○○씨 - 한국 전통의상 : 한복 - 존대어

마) 수업 시간

- 25시간 (10회 강의)

나. 초급 한국어 회화 2

가) 교과 목표

이 과정은 학생들의 어휘, 문법을 신장하는 단계이다. 동시에 학생들은 한국어의 사회 관습에 대하여 배울 것이고 단계 별로 모국어 화자와 대화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쓰기, 듣기 및 읽기를 통하여 말하기를 연습한다. 이 교과목의 목적은 이 단계에서 새로운 표현과 함께 정확성 학습에 중점을 둔다.

나) 학습 내용

- 숫자 - 현재, 과거형 - 격조사, 보조조사 - 정중형 어미
- 발음 - 방향, 전화번호, 시간 묻기 - 색깔

3) 문화 요소

- 한국인간 관계에서 나이의 중요성 - 한국의 쇼핑
- 한국 여행 - 한국 음악, 춤

다. 중급 한국어 회화 3

가) 교과 목표

이 단계에서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올바른 발화 양식을 사용하여 상호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이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은 구체적인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아울러 올바른 방법과 표현으로 어떻게 질문하는가를 배울 것이다.

나) 교과학습 내용

- 미래 시제 - 명령형 - 불규칙 활용 - 충고하기/ 듣기/ 거절하기
- 약속 정하고 취소하기 - 친구에게 이메일 작성하기
- 여행 경험, 향후 계획 말하기 - 형용사를 이용하여 감정 표현하기

다) 문화 요소

- 한국의 명절 - 한국 시장에서 장보기 - 언제 아파요?

- 어떤 영화를 좋아해요? - 다른 이에게 추천하기
- 라) 교재 :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2 (서강대학교)

라. 중급 한국어 회화 4

가) 교과 목표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요구를 시행(perform)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운다. 교실 활동을 통하여 읽기 학습을 하고 한국 가정에 머무르면서 학생들이 한국 가정 문화를 이해하며 다른 한국 가정의 문화를 서로 비교할 수 있다.

-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사소통하기

나) 교과학습 내용

- 접속사 - 비교하는 말 - 형용사와 동사 - 제안하기
- 문제해결식 의사소통 - 음식 주문하기 혹은 배달 주문하기
- 묘사하기 - 예의바르게 거절하기

다) 문화 요소

- 식사 대접 - 대접하기/ 각자내기 - 김치
- 한국 홈스테이 - 죄송합니다만.

- 라) 교재 :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2 (서강대학교)

마. 고급 한국어 회화

가) 교과 목표

이 단계는 협상, 사무실 내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내용, 고급 수준의 어휘와 표현 뿐만 아니라 관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단계는 한국어 말하기에서 정확성을 염두하며 쓰기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 고급 수준의 어휘로 일상생활 언급하기
- 말하기 능력에 걸맞은 쓰기 능력

나) 교과학습 내용

- 정중하게 말하기 -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 방향 묻고 답하기 - 목적에 대해 묻고 답하기
-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 - 과거에 대해 묻거나 경험 나누기
- 허락 구하기 : 대안 제시하기 - 초대하기 (이유를 들어 승낙/거절)
- 한국 요리 만들기 - 전화 메모 남기기
- KLPT 문제 풀이

다) 문화 요소

- 무슨 띠예요? - 한국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
- 서울말씨 - 한국의 미신
- 잡채 만들기 - 특별한 날에 먹는 한국 음식들

- 라) 교재 :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3 (서강대학교)

바. 심화 한국어 회화

가) 교과 목표

고급 단계의 학습을 좀 더 심화하기 위해 교과서뿐만 아니라 대중 매체와 관용 표현을 통한 심화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된다. 과거에 학습하였던 내용을 복습하면서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를 소개한다. 매차시마다 주제가 달라지므로 학습자가 다양한 용법에서 다양한 주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 단계에 들어오려는 학습자들은 시험을 거치게 된다. 또한 기말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소정의 인증서가 주어진다.

나) 교과학습 내용

- 한국인의 간접적 표현 - 추측하기 - 비교하기 - 충고하기
- 변명하기 - 특정 정보 요구하기 - 유용한 간접적 표현들
- 흥부 놀부 이야기 (스토리 텔링)

사. 심화 한국어 (드라마 활용)

가) 교과 목표

이 단계의 목표는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상이한 목소리와 스타일을 가진 등장 인물의 대화를 통해 한국어와 관용 표현을 학습한다.

나) 교과학습 내용

- 각종 드라마 대본에 등장하는 상황별 적절한 표현

아. 한국어 쓰기, 읽기

가) 교과 목표

한국어 문법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이다. 기본 문장과 품사를 정확하게 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단계는 회화 과정 1, 2를 기본으로 하지만 학생들의 발음 교정에 중점을 두며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후 이를 반영하는 단계이다.

나) 교과 학습 내용

- 한글 익히기 - 한글 기본 문형 구조 - 동사, 격조사, 보조사, 대명사
- 현재형 - 사회적 지위에 따른 언어 사용 - 숫자

다) 문화 요소

- 한국어 호칭 “-씨” - 물건사기, 여행하기 -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기

3. 결론

싱가포르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대학은 싱가포르국립대학교이다. 이 대학은 한국어교육과정이 평생 교육원의 언어 교육 분과 안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수업 기간은 3개월이며 총 수업 시간은 25시간으로 (10차시) 일주일에 한번 2시간 30분 정도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3개월 과정을 거치고 기말 한국어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 인증서가 주어진다. 아울러 한국어교육과정은 1주 과정, 3주 과정의 단기 수업이 있다.

제7장 중국의 한국어교육과정

1. 서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1944년에 중국 남경의 남경동방 어문전문대학에서 3명을 한국어학과 학생으로 받은 것이 시작이라고 본다.¹³³⁾ 그러나 한-중 양국의 오랜 교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교육을 본격적으로 각 기관에 설치하여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北京大學, 復旦大學, 山東大學, 北京外國語大學, 北京語言文化大學, 上海外國語大學, 山東大學, 山東師範大學, 大連外國語大學 등 약 36개의 大學에서 한국어과를 신설하였다.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 시기는 1993년 이후 중국의 많은 대학들이 한국어 학과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모집하고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 이후이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수합할 수 있었던 몇 개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과정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낙양대학교

이 대학의 한국어 학과의 교육목표는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학제는 4년제이며 한국어학과가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다. 한국어 학과의 과목과 수업 시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학과 과목설정과 수업 시간 배당¹³⁴⁾ (단위: 시간)

과목 명칭	한 국 어 필 수 과 목											한국어 선택 과목	공동 과목
	종합 한국 어	읽기	회화	청취	문법	습작	시사 작품 선독	문학 작품 선독	한중 중한 번역	한국 종합 지식	도합		
시간수	912	144	108	144	36	36	72	36	72	36	1596	216	1371
%	28.7	4.4	3.3	4.4	1.1	1.1	2.2	1.1	2.2	1.1	50.1	6.7	43

3-2. 부단대학교

부단대학교는 1995년 아시아-아프리카어문학계열 안에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되었다. 학사-석사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과의 교육 목표는 한국어 교육, 연구, 번역, 외교 통상 무역 등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수학생은 한국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졸업생들은 대부분 외교부, 외무부, 신문사, 학교, 방송국, 외국계 기업 등에 취업한다. 전공 필수와 선택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3) 민현식 외(2005), 중국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론 3], 161쪽 참조.

134) 중국 국가교육부의 규정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의 총 수업시간은 3000~3200시간이다. 한국어 과목과 공동 과목의 비례, 그리고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비례는 다 교육부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학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별로 큰 차이가 없다. 공동과목이란 사회, 정치, 영어, 컴퓨터 등 과목을 가리킨다.

(1) 한국어 과목

가. 전공 필수과목

과목명	과목번호	학점	시간	개강학기	필수학점
기초 한국어 (上)	FORE130110	8	10	1	8
기초 한국어 (下)	FORE130111	8	10	2	8
중급 한국어 (上)	FORE130112	8	8	3	8
중급 한국어 (下)	FORE130113	8	8	4	8
고급 한국어 (上)	FORE130114	6	8	5	6
고급 한국어 (下)	FORE130115	6	6	6	6
한국어 듣기/말하기 (시청교재)I(上)	FORE130116	2	4	2	2
한국어 듣기/말하기 (시청교재)I(下)	FORE130117	2	4	3	2
한국어 듣기/말하기 (시청교재)II(上)	FORE130118	2	4	4	2
한국어 듣기/말하기 (시청교재)II(下)	FORE130119	2	4	5	2
한국어 듣기/말하기 (시청교재)III(上)	FORE130120	1	2	6	1
한국어 듣기/말하기 (시청교재)III(下)	FORE130121	1	2	7	1
한국어 읽기 I	FORE130122	1	2	2	1
한국어 읽기 II	FORE130123	1	2	3	1
한국어 읽기 III	FORE130124	1	2	4	1
한국어 번역이론과 기술 (上)	FORE130125	2	2	6	2
한국어 번역이론과 기술 (下)	FORE130126	2	2	7	2
한국어 쓰기 (上)	FORE130127	2	2	5	2
한국어 쓰기 (下)	FORE130128	2	2	6	2
한국신문기사 읽기	FORE130129	2	2	7	2
북한·남한개황	FORE130130	2	2	1	2
실습 고사	FORE130028	2		6	2
졸업 논문	FORE130029	4		8	4
학점 소계	75				

나. 전공 선택 과목 (8학점)

과목명	과목번호	학점	시간	개강학기
한국어 어휘학	FORE130247	2	2	4
한국어 수사학	FORE130248	2	2	7
한국 문학사	FORE130249	2	2	6
경제 무역용 한국어	FORE130250	2	2	6
한국 문학명작 연구	FORE130251	2	2	5
한국 문화	FORE130252	2	2	7
과학 기술용 한국어	FORE130253	2	2	7
통역	FORE130254	2	2	8
한국어 문법학	FORE130255	2	2	5

4. 북경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학과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교육 목표

1.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한국어 능력향상

2. 정확한 발음과 문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3. 유창한 쓰기과 말하기 능력
4. 국제 통상, 협력업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 계발

(2) 학점 배정

총 학점	165 학점 (3060시간)
공통 기초 학점	61 학점
학과 학점	80 학점
필수	62/64 학점
선택	18/16 학점
전공과목	16 학점
선택과목	4 학점
졸업 논문	4 학점

(2) 교과과정

과목 코드	과목명	이수 학기	내용	교재
KOR101	기초 한국어 1	1학년 1학기	한국어 자모, 기초 한국어 발음, 문법, 어휘	• 姜信道, <기초 조선어 1>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李先汉, <한국어 1> 민족출판사
KOR102	기초 한국어2 (선수KOR101)		기초 한국어 발음, 문법, 어휘, 단순 구조 문장 생성, 문장 구조 습득	• 姜信道, <기초 조선어 2>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李先汉, <한국어 2> 민족출판사
KOR201	기초 한국어3 (선수KOR102)		한국어 문법, 어휘, 표현, 문장 생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장, 표현 습득	• 姜信道, <기초 조선어 3>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李先汉, <한국어 3> 민족출판사
KOR202	기초 한국어4 (선수KOR201)		한국 문화, 종교, 예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고급 의사소통 능력 향상	• 姜信道, <기초 조선어 4>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李先汉, <한국어 4> 민족출판사
KOR203	한국어 말하기 1 (선수KOR202) <필수>	1학년 2학기	한국어 듣기, 이해 능력 강화 를 통한 한국어 발화 능력 향상	• 李先汉, <한국어 1> 민족출판사 • 대외경제무역대학, <표준 한국어 4> 북경대학 출판사
KOR204	한국어 말하기 2 (선수KOR203) <필수>	2학년 1학기	매 시간 발표 준비, 토론을 통 한 한국어 발화능력 향상	• 李先汉, <한국어 1,2> 민족출판사 • <한국 시청각 교재>
KOR	한국어 읽기 1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읽기를 통해 한국어 능력 향상 (문화	• 강사 자체 제작

208			격차 극복)	
KOR 209	한국어 읽기 2 (선수과목 KOR102, 201)		한국어 읽기를 통해 문법, 어휘 능력 증진	• 강사 자체 제작
KOR 301	한국어 청독 (선수 KOR101~202)	3학년 <필수>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읽고 내용 파악, 어휘, 문법, 표현 이해와 파악	• 金京善, <한국문학선독>, 외연사출판
KOR 302	경제 무역 응용 (선수 KOR101~202)	<전공 필수>	상업, 무역용 어휘 이해 및 응용 기초 번역 기술 습득	• 姜信道, <한중외무응용문>,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KOR 303	한국어 문법 (선수 KOR101~202)	<전공 필수>	전면적인 한국 문법과 표현 이해 문법 오류 연구, 분석	• 宣德五, <한국어기초문법>, 상무인서관출판
KOR 306	문학작품 강독 (선수 KOR101~202)	<전공>	한국 대표 문학작품 읽고 한국 문학사 이해	• 徐永彬 작 <<한국현대문학>> 1997년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KOR 307	협상 및 통역 (선수 KOR203,204)	<기초 선택>	기본 경제 무역용 어휘와 표현 능력 향상	• 金秉运, <한중외무실무회화>, 중앙민족대학출판사
KOR 309	한국 개관 (선수 KOR101~202)	<기초 선택>	한국 역사, 지리, 민족, 종교, 풍속, 습관, 경제, 무역, 문화 예술, 남북 관계, 교육, 과학 기술 등 한국에 대한 지식	• <조선 개관> • <한국 편람>
KOR 310	한국어 말하기3 (선수 KOR204)	<기초 필수>	한국 드라마 활용 말하기 수업	• 李先汉, <한국어1,2,3>, 민족출판사 • 드라마 <가을동화>
KOR 315	한국어 말하기4 (선수 KOR310)	<기초 필수>	한국 드라마 활용 말하기 수업	• 李先汉, <한국어1,2,3>, 민족출판사 • 金秉运, <한중외무실무회화>, 중앙민족대학출판사 • 드라마 <가을동화>
KOR 316	신문기사 읽기 (선수 KOR101~202)		다량의 독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지식 확대, 어휘량 증대, 정보 획득 능력 배양	• 朴淑子, <韩国报刊选读>,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KOR 401	번역 이론 및 실천 (한중 번역) (선수 KOR101~202, KOR 208,209)	<전공 필수>	번역 역사, 과정, 방법, 기술, 수단 소개 번역 연습을 통해 한-중 번역 실력 향상	• 张敏, <한중번역과정> 북경대학출판사
KOR 402	비즈니스 한국어 읽기 (선수 KOR101~202)	<전공 필수>	남북한 경제무역의 현황 파악과 관련된 지문 읽기	• 李先汉, <한국어1,2,3>, 민족출판사 • 朴淑子, <韩国报刊选读>,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李浩, <경무한국어> 상하이교통대학출판사
KO R40 3	번역 이론 및 실천 (중한 번역) (선수 KOR101~202, KOR 208,209)	<전공 필수>	번역 역사, 과정, 방법, 기술, 수단 소개 번역 연습을 통해 한-중 번역 실력 향상	• 太平武, <중한번역이론과기술>, 중앙민족대학출판사
KO R 404	수사학과 작문	<선택 >	수사학: 언어환경, 문체, 언어 규율, 구어수사 작문: 한국어 문장 형식에 따 른 작문 방법	
KO R 408	한국어 말하기 5 (선수 KOR 310)	<전공 필수>	한국 드라마 활용 말하기 수 업	• 李先汉, <한국어1,2,3>, 민족출판사 • 朴淑子, <韩国报刊选读>,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드라마 <겨울연가>
KO R 409	한국어 말하기 6 (선수 KOR 408)	<기초 필수>	한국 드라마 활용 말하기 수 업	• 李先汉, <한국어1,2,3>, 민족출판사 • 朴淑子, <韩国报刊选读>,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徐永彬, <痛长之树>, 민족출판사 • 드라마 <겨울연가>
KO R 433	실용한국어 1	<보충 >	한국어 자모, 기초 한국어 발 음, 문법, 어휘	• 姜信道, <기초 조선어1>,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李先汉, <한국어1>, 민족출판사
KO R 434	실용한국어 2 (선수 KOR433)		기초 한국어 발음, 문법, 어 휘, 단순 구조 문장 생성, 문장 구조 습 득	• 姜信道, <기초 조선어2>,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李先汉, <한국어2>, 민족출판사
KO R 435	실용한국어 3 (선수 KOR434)		한국어 문법, 어휘, 표현, 문 장 생성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장, 표현 습득	• 姜信道, <기초 조선어3>,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李先汉, <한국어3>, 민족출판사
KO R 436	실용한국어 4 (선수 KOR435)		한국 문화, 종교, 예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어 고급 의사소통 능력 향상	• 姜信道, <기초 조선어4>, 대외경제무역대학출판사 • 李先汉, <한국어4>, 민족출판사

5. 산둥사범대학교¹³⁵⁾

한국어 전공의 교육 목표는 튼튼한 한국어 언어 실력과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국제협력, 경
제무역, 문화교류, 신문출판, 교육과 연구, 관리직에 종사하는 고급 인재를 배양하는 것이다.

135) 산둥사범 대학교의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산둥사범대학교(<http://www.sdmu.edu.cn>) 외국어대학 한국어과(<http://www.flc.sdmu.edu.cn>)

학제는 4년제이다.

(1) 학년, 학기별 이수 강의 시간표

학년 학기 내용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1	2	3	4	5	6	7	8	
입학교육 및 군사훈련	3								3
강 의	15.5	18.5	18.5	16.5	18.5	18.5	18.5	11.5	136
시 험	1.5	1.5	1.5	1.5	1.5	1.5	1.5	1.5	12
전문실습								6	6
노동교양				2					2
졸업교육								1	1
합 계	20	20	20	20	20	20	20	20	160

수업시수, 학점 과목	총 수업시수	비율 (%)	학점	비율 (%)
교양필수	920	32	42	27
학부내 공동수업	68	2	4	2.5
전공필수	1228	42	64	41
전공선택	570	20	30	19
교양선택	108	4	6	4
노동 수업	2周		1	
전문 실습	6周		6	4
졸업 논문			4	2.5
합 계	2894	100	157	100

한국어교육과정에 속해있는 과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과목소개

과목명	수업 시수	이수 학점	내용	교재
종합한국어	734	40	한국어 문법, 기초지식과 한국어 활용 능력 배양 (듣기, 읽기, 쓰기, 통-번역능력향상)	• 연세대 <한국어>1-6 • 서울대 <한국어>1-6 • 북경대 <한국어>1-4
한국어듣기·말하기	222	10	일상 생활을 소재로 한국어 듣기 실 력과 의사 소통 능력 배양	• 경희대 <한국어>1-6 • 교사 자체 제작
한국어 읽기	136	6	한국어 어휘, 독해 속도, 기교 등 독 해능력 배양	• 연세대 <읽기> 1-6
한국어 작문	68	4	실용문 등 각종 문체 범례 해독 대량 작문 연습	

한국어 번역	68	4	각 분야의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번역의 이론지식과 기능 습득	• 북경대 <韩中翻译教程> <中韩翻译教程>
한국문학사	46	4.5	각 시기 한국 명작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한국 문학 흐름 파악	• <한국사> • 교사 임의 선정
반도개황	34	1.5	한국 정치 제도, 사회 풍속, 종교, 언어 문화, 지리 환경, 경제 활동	• 연변대 <반도개황> • 강사 자체 제작
한국어 문법 및 어휘	34	1.5	체계적 문법 강의, 언어사용 오류 교정으로 한국어 사용능력 향상	• 연세대<한국어문법> • 중국출판<한국어문법>
관광 한국어	34	1.5	중국, 한국 명소 소개	• 중국출판<관광한국어>
한국신문선독	68	4	한국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내용	• 교사 임의 선정
경제무역 한국어	68	4	한중무역 분야의 한국어 활용 능력	• <경제무역한국어>
한국경제개론	20	1	한국 경제 흐름사, 경제체제 소개	• <당대한국경제>
한국어 고급시청	54	2.5	한국어 고급 시청능력 배양	• 교사 임의 선정
한국 민속과 속담	20	1	한국 민속관련 관용표현 습득	• 교사 임의 선정
과학기술한국어	34	1.5	과학기술 분야 문체 특징, 인터넷	

과목 유형	과목 번호	과목 명칭	학 점	수업시수		강의 시간과 주 시수							
				총 시수	강 의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5 학기	6 학기	7 학기	8 학기
교양 필수 과목	4170001	도덕교육	1	28	28	2							
	4170002	법학기초	2	36	36	2							
	4170003	마르크스주의정치경제학	2	36	36		2						
	4170004	마르크스주의철학원리	2.5	54	54				3				
	4170005	모택동 사상개론	2	36	36		2						
	4170006	등소평 이론	2.5	54	54			3					
	4170007	당대세계정치와 경제	2	36	36							2	
	4050001	대학영어 (1)	3	74	74	4+1							
	4050002	대학영어 (2)	5	90	90		4+1						
	4050003	대학영어 (3)	4	72	72			4					

	4050004	대학영어 (4)	4	72	72				4				
	4110001	컴퓨터 (1)	3	72	72			2+					
	4110002	컴퓨터 (2)	3	72	72				2+				
	4150001	대학체육 (1)	1	26	26	2							
	4150002	대학체육 (2)	1	36	36		2						
	4150003	대학체육 (3)	1	36	36			2					
	4150004	대학체육 (4)	1	36	36				2				
	4200001	군사교육	2	54	54								
	계		42	920	920	10	10	13	13	0	0	2	0
학 부 내 공 동 과 목	4051101	국어	2	34	34		2						
	4051102	중국전통문화	2	34	34					2			
	小計		4	68	68	0	2	0	0	2	0	0	0
전 공 필 수 과 목	4054201	종합한국어 (1)	7	130	130	10							
	4054202	종합한국어 (2)	7.5	136	136		8						
	4054203	종합한국어 (3)	7.5	136	136			8					
	4054204	종합한국어 (4)	7	128	128				8				
	4054205	종합한국어 (5)	5.5	102	102					6			
	4054206	종합한국어 (6)	5.5	102	102						6		
	4054207	한국어듣기 말하기 (1)	2.5	52	52	4							
	4054208	한국어시청 (2)	1.5	34	34		2						
	4054209	한국어시청 (3)	1.5	34	34			2					
	4054210	한국어시청 (4)	1.5	34	34				2				
	4054211	한국어시청 (5)	1.5	34	34					2			
	4054212	한국어시청 (6)	1.5	34	34						2		
	4054213	한국어읽기 (1)	1.5	34	34		2						

	4054214	한국어읽기 (2)	1.5	34	34			2					
	4054215	한국어읽기 (3)	1.5	34	34				2				
	4054216	한국어읽기 (4)	1.5	34	34					2			
	4054217	한국어작문 (1)	2	34	34					2			
	4054218	한국어작문 (2)	2	34	34						2		
	4054219	한국어 번역	4	68	68							4	
	4054220	실습활동	6										6 周
	계		64 +6	1228	1228	14	12	12	12	12	10	4	0
전 공 선 택	4054301	한국문학사	4.5	68	68							4	
	4054302	반도개황	1.5	34	34					2			
	4054303	한국어문법· 어휘	1.5	34	34					2			
	4054304	관광한국어	1.5	34	34					2			
	4054305	신문선독	4	68	68						4		
	4054306	경제무역한국어	4	68	68							4	
	4054307	한국경제개론	1	20	20								2
	4054308	고급한국어시청 (1)	1.5	34	34							2	
	4054309	고급한국어시청 (2)	1	20	20								2
	4054310	한국민속과 속담	1	20	20								2
	4054311	과학기술한국어	1.5	34	34						2		
	4054312	고급영어 (1)	3.5	68	68					4			
	4054313	고급영어 (2)	3.5	68	68						4		
	계		30	570	570	0	0	0	0	10	10	10	6
교양선택		자유	6	108	학교 요구에 따라서 자유선택								
실습 활동	43000 01	노동	1						2 周				
	43000 03	졸업논문	4									√	√
학점과 수업시수 총 합계			15 7	2894	2894	24	24	25	25	24	20	16	6

6. 요동대학교¹³⁶⁾

요동대학교의 한국어는 한조경제문화 대학의 한국어학 전공으로서 설치되어있다. 본과(本科)는 4년제이고 학사학위가 주어져며 3년제인 전과(專科)는 학위가 없다. 교과목 명칭 및 시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명칭 및 시수

과목명	수업 시수	교재
기초 한국어	320	• 북경대 <한국어>1-4
중급 한국어	272	
고급 한국어	306	
한국어 회화	350	• 이화여대 <말이 트이는 한국어>1-4
한국어 듣기	204	• 대련외대 <한국어 듣기> 상, 하
한국어 시청각	204	• 영상자료 교사 임의선정
한국어 읽기	204	
번역	72	
문학사	36	
문학작품선독		
조선반도개황	36	• 내부편집
한국어문법	36	
한국어무역응용론	36	
한국어개론	36	

7. 결론

한국어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1) 교과목이 실용적 목적으로 개설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제무역 한국어,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어 통번역 등으로 한국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업무상황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2) 한국어학이나 문학 등의 교과목 외에도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개관, 반도 개황 등으로 한국의 역사, 지리,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한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당 과목의 수업 목표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한국 문화적 측면의 교과목과 한국학적인 측면의 교과가 혼재되어 있다는 점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의 개념이 상당부분 겹쳐있는 교과가 많이 있다는 뜻이다.

136) 요동대학교의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www.ldxy.cn

제8장 대만의 한국어교육과정

1. 서론

대만의 한국어교육은 1955년 이후 양국 정부의 교육 당국이 상호교류를 위해 유학생 교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현지 한국 유학생의 도움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하였고 주로 현지인 한국어 교사 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한국 파견 유학생들이 귀국하면서 새로운 교재 개발 등 연구 업적을 쌓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 유입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교 단절 이후 중단되었던 국방부의 국방어문훈련중심의 한국어 과정도 다시 시작되었고 한국어 전공 외에 제2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려는 수요가 늘어 국립정치대학교와 중국문화대학 외에 다른 일반 대학¹³⁷⁾과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다. 현재 한국어학과가 설치된 대학은 국립정치대학교와 사립중국문화대학교 두 곳이다. 한국어학과의 설립취지는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남북한의 역사, 외교, 정치, 경제, 무역사무 등 각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각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립정치대학교

1956년 국립정치대학교 동방어문학과 소속에 4년제 한국어조(한국어전공)가 설치되었고 2000년 8월에 한국어문학과로 승격하였다.

학년	학기	과목명	시간	선수과목
1학년	1학기	초급한국어	3	
		한국어회화1	2	
		듣기1	2	
		어법1	2	
	2학기	초급한국어	3	
		한국어회화1	2	
		듣기1	2	
		어법1	2	
2학년	1학기	중급한국어	3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어회화2	2	
		듣기2	2	
		어법1	2	
		쓰기1	2	
	2학기	중급한국어	3	비즈니스 한국어
		한국어회화2	2	
		듣기2	2	
		어법1	2	
		쓰기1	2	

137) 국립중산대학교, 국립교통대학교, 사립담강대학교, 명진대학교, 내호고등학교, 경미여자고등학교 등

3학년	1학기	고급한국어	3	시사한국어
		한국어회화3	2	즉석번역
		쓰기2	2	
	2학기	고급한국어	3	시사한국어
		한국어회화3	2	즉석번역
		쓰기2	2	
4학년	1학기	실용한국어	3	
		한국어회화4	2	
	2학기	실용한국어	3	
		한국어회화4	2	

2. 중국문화대학교

1963년 8월 중국문화대학 설립 시 동방 어문학과에 한국어과를 개설하였고 1964년 한국연구소를 설치하여 한국어문의 학습과 한국문제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문화대학의 한국어조가 한국어학과로 승격된 것은 1997년이고 한국연구소는 2000년 대학원의 석사과정으로 발전하였다.

1) 학부

학년	과목명	시간	필수/선택
1학년	한국어1	3	필수
	한국어 회화1-1	2	필수
	한국어 회화1-2	2	필수
	한국어문실습1-1	1	필수
	한국어문실습1-2		필수
	어법	2	필수
	기초한국어	2	선택
	한국어번역	2	선택
2학년	한국어2	2	필수
	한국어 회화2-1	2	필수
	한국어 회화2-2	2	필수
	한국어문실습2-1	1	필수
	한국어문실습1-2	1	필수
	한국어 작문1	2	필수
	한국어 번역2	2	필수
	한국어구사론1	2	필수
	한국어문법론	2	필수
	한국사	2	선택
	실용한국어	2	선택
	한국민속학	2	선택
3학년	한국어3	2	필수
	한국어 회화3	2	필수
	한국어문실습3	1	필수
	한국어 작문2	2	필수
	한국어 번역3	2	필수
	생활한국어	2	선택
	신문한국어	2	선택

4학년	한국명저선독	2	선택
	한국인 성격론	2	선택
	한국어4	2	필수
	한국어 회화4-1	2	필수
	한국어 회화4-2	2	필수
	한국어문실습4-1	1	필수
	한국어문실습4-2	1	필수
	한국어 작문	2	필수
	한국어 번역4	2	필수
	한국문화사	2	선택
	한국현세	2	선택

2) 대학원

학년	과목명	시간	필수/선택
1학년	연구방법	2	필수
	논문작성	2	필수
	한국현대산문선독	2	선택
	한국현대시연구	2	선택
	한국어사연구	2	선택
	옥투몽연구	2	선택
	한국소설연구	2	선택
	한국어교육학연구	2	선택
	한국 판소리연구	2	선택
	한국고대시가연구	2	선택
	한국어번역연구	2	선택
2학년	당대소설사조	2	선택
	당대산문선독	2	선택
	한어어휘론연구	2	선택
	한국문학사연구	2	선택
	한국근대사연구	2	선택
	한국현대사연구	2	선택

3. 결론

생략.

참고문헌

채련강(2003), 대만에서의 한국어교육현황과 제안, 한국어교육연구창간호, 중국한국어교육 연구학회, 7-21

(2005), 대만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론3, 한국문화사

제9장 스리랑카의 한국어교육과정

1. 서론

스리랑카의 한국어 교육은 2004년도에 설립된 ‘켈라니아 대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대학이 1994년도부터 한국어가 수료 과정이나 교양 과목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는 정규 교과가 아니었다. 2004년도에 이 대학의 인문학부 현대 언어학부 내에 한국어과가 설립된 이후로 본격적인 정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과는 달리 3년 과정에 2개 이상의 복수 전공이 필수인 관계로 완전한 전공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부전공의 성격이 매우 짙다.

2. 켈라니아 대학교

이 대학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과정

현대 한국어		
단계 1		
KORE 11012	C	한국어와 한국 문화 소개
KORE 13022	C	언어와 문화 소개
KORE 13033	C	한국어 문법, 어휘, 철자 소개
KORE 12042	C	한국어와 문화의 이해
KORE 13052	A	한국어와 문화 1
단계 2		
KORE 21012	C	한국어(사전- 중급 단계)
KORE 23023	C	유도된 쓰기, 이해 문화 철자 및 한국 문학
KORE 22032	C	한국 문학 소개
KORE 23042	C	현대 한국 생활
KORE 23052	A	한국어와 문화 2
KORE 22062	E	대중매체를 통한 현대 한국어
단계 3		
KORE 31012	C	한국어(중급 단계)
KORE 33023	C	한국 문화 및 사회

		한국어 능력 시험 소개
KORE 33032	C	한국어와 문학 : 역사와 텍스트
KORE 33042	C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수
KORE 32052	A	한국어와 문화 3
KORE 31062	E	고급 쓰기 기술

3. 결론

스리랑카의 한국어교육과정이 구축되어 있는 곳은 켈라니아 대학교 1곳이다. 이곳은 2005년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많은 부문에서 교육과정이 허점을 보인다. 즉 한국어가 '기능, 문화'에 집중되어 있고 '문법, 문학, 실용'영역의 교육 과목이 없다.

제10장 베트남의 한국어교육과정

1. 서론

1992년 12월 22일에 한국과 베트남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으며 이 후 13년간 양국 간에 외교, 경제, 교육,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러한 교류는 필연적으로 베트남 내에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력의 필요성은 베트남 자체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요구가 상호 부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곧 베트남은 우리 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원동력을 배우려고 하였고, 우리나라는 싼 인력의 확보를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양국 간의 이익이 상호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한국어교육은 태동부터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에 베트남에서의 한류 열풍, 국내 한국 고용주들의 베트남인의 설립, 그리고 현지 사설 한국어 학원의 설립을 통해 현재 베트남 지역의 한국어교육은 매우 활발한 국가이다.

2. 한국어 교육 단계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단계에 있다. 그 이유는 우선 현지 정부 차원, 곧 MOLISA(Ministry of Labour,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에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5년도까지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및 산업 연수생 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의 쿼터가 11,789명이며, 산업 연수생들의 쿼터가 1,055에 이른다. 또한 고용허가제 시험 제도가 도입되고 난 후 비록 2006년까지 1차례 실시되었지만 응시생이 약 10,000에 가까울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특히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의 고용주들이 매우 선호하는 곳으로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한국어 교육이 매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측면으로 볼 때도, 하노이 국립대학교, 호치민시 국립대학교, 호치민시 외국어 정보대학교(HUFLIT), 하노이 국립대학교, Hong Bang 대학교, 하노이 외국어대학교, Lac Hong 대학교, Da Lat 대학교, Da Nang 외국어대학교 등의 대학이 한국어 교육과를 설치하여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정규 한국 학교가(호치민 국제학교)가 있으며, 아직 파악이 다 되지 않았으나 하노이 한글학교, 호치민시 한국학교 부설 한글학교 등 한글학교도 존재한다는 점이, 이 지역이 한국어 교육 활성화 단계에 있음을 말해 준다. 물론 이 지역이 한류가 열풍인 지역이라는 것을 볼 때도 잠재적인 한국어 교육의 욕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국립 호치민 인문 사회 대학교

이 대학은 1994년도에 동방학부 내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4년간 총 210학점 중 한국어 기능 영역 및 문법 과목 93학점, 한국 문화 관련 과목(정치, 역사, 국제관계, 민족, 언어, 문화, 경제, 한국어 교육방법 등) 44학점을 이수한다. 구체적인 이수 과목은 아래와 같다.

1) 이수 과목

- 한국어 사용 기능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93학점
- 한국역사, 한국지리, 동아시아국가와 정치, 동양사상, 제2외국어(영어)
- 한국 사회와 문화, 공산주의 이론, 제2외국어, 한국 경제, 동아시아 대외정책
- 국제전략, 베트남과 동양의 예술, 베트남 공산당사, 한국문학, 종교학과 동양종교
- 한국어교육방법, 졸업논문이나 졸업시험

이 대학의 특이한 점은 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졸업 논문을 쓰게 하는 데 한국학 전공 학생 중 논문을 쓴 학생은 총 19명으로 한국어 이외에 법률, 사회, 정치, 문화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베트남어로 논문을 작성한다.

3. 호찌민 외국어 정보 대학교

이 대학은 1995년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전공이 개설되었다. 이 대학은 현재 교육 과정이 개편되어 총 이수 기간이 4.5년이다. 곧 9학기 동안 총 250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중에 한국어 학점이 총 146학점으로서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이 대부분이다. 국립 호찌민 인문사회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문화 과목(한국 역사, 지리, 경제, 문학, 문화 등)을 이수한다.

구체적인 이수 과목은 아래와 같다.

2) 이수 과목

- 한국어 사용 기능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146학점
- 한국역사, 한국지리, 한국경제, 한국문학, 한국문화, 동아시아국제관계, 동방사상사, 연구방법론, 아시 아태평양 강대국의 전략, 자유선택과목, 외국어, 컴퓨터교육,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4. 홍방대학교

호찌민 외국어 정보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이수 기간이 4.5년이다. 이 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졸업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홍방대학교의 한국어 관련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3) 이수 과목

- 한국어 사용 기능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약 102학점¹³⁸⁾
- 한국사회문화, 통번역 1, 2, 한국관광지리, 한국사, 한국문화, 한국법률, 한국예술문학, 한영회화, 한국 사회경제, 한국한자, 논문작성법, 한국인의 심리, 한베여행가이드, 한국어컴퓨터, 무역한국어

5. 국립 하노이 인문 사회 대학교

1993년 어문학과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어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이 대학교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현지 한국 투자 기업이나 한국 관련 베트남 기업에 취직한다. 교과 과정은

138) 이 대학은 학점을 과목별 이수 시간 학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수업 시간으로 계산한다. 1학기에 한국어를 190시간을 받고 총 8학기에 거쳐 1,520시간을 이수한다.

국립 인문 사회 대학교와 거의 유사하다.

6. 하노이 국립 외국어 대학교

이 대학은 1997년에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다른 대학과 달리 이 대학은 학문 목적의 “한국어”보다는 실용 목적의 “한국어 기능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공 과목에 실무 한국어(2학점), 통번역(12학점)과, 통번역 실습(5학점), 경제무역 용어(2학점)등이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4) 이수 과목

- 언어 사용 기능 영역 : 한국어(60학점), 말하기(7학점), 실무 한국어(2학점)
- 실용 영역 : 한자(2학점), 번역1,2,3(6학점),통역(6학점), 경제무역 용어(2학점), 통역 실습 (5학점)
- 문법 영역 : 음운론(2학점), 문법론(4학점), 어휘론(2학점), , 학술 용어(2학점)
- 문화 영역 : 현대 문화(2학점),
- 기타 영역 : 논문 졸업시험(10학점)

교재로는 서울대, 연세대, 이대, 고려대, 경희대 출판 한국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대학교의 특성 중 “말하기, 한국 드라마, 노래”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다.

※ 자료 제공 : 김병식 교수(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어학과)

7. 결론

베트남의 교육 과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일람표로 가름한다.

과목명	개설대학	학년-학기	학점	수업시수 (전체)
한국어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93	
한국어	호찌민외국어정보대		146	
한국어1	홍방대학교	1학기		190
한국어2	홍방대학교	2학기		190
한국어3	홍방대학교	3학기		190
한국어4	홍방대학교	4학기		190
한국어5	홍방대학교	5학기		190
한국어6	홍방대학교	6학기		190
한국어7	홍방대학교	7학기		190
한국어8	홍방대학교	8학기		190
한국어1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1학기	14	
한국어2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2학기	14	
한국어3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3학기	14	
한국어4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4학기	12	
한국어5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5학기	8	
한국어6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6학기	8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모형 구축 사업 최종 보고서

한영회화	홍방대학교	9학기		45
한국어말하기1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7학기	4	
한국어말하기2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8학기	3	
통번역1	홍방대학교	5학기		45
통번역2	홍방대학교	7학기		45
한국역사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44	
한국지리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동아시아국가와 정치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동양사상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한국사회와문화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한국경제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동아시아대외정책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한국문학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한국어교육방법	국립호찌민인문사회대			
한국역사	호찌민외국어정보대			
한국지리	호찌민외국어정보대			
한국경제	호찌민외국어정보대			
한국문학	호찌민외국어정보대			
한국문화	호찌민외국어정보대			
동아시아국제관계	호찌민외국어정보대			
동방사상사	호찌민외국어정보대			
아시아태평양강대국의전략	호찌민외국어정보대			
한국문화	홍방대학교	4학기		30
한국예술문학	홍방대학교	4학기		30
한국사회문화	홍방대학교	5학기		60
한국관광지리	홍방대학교	6학기		45
한국사	홍방대학교	6학기		45
한국법률	홍방대학교	6학기		45
한국사회경제	홍방대학교	7학기		60
한국한자	홍방대학교	8학기		45
한국인의심리	홍방대학교	8학기		45
한베여행가이드	홍방대학교	9학기		45
한국어컴퓨터	홍방대학교	9학기		75
무역한국어	홍방대학교	9학기		45
한국어음운론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4학기	2	
한국어문법론1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4학기	2	
한국어문법론2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5학기	2	
번역이론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5학기	2	
한국어번역1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5학기	2	
한국어번역2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5학기	2	
한국어번역3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6학기	2	
한국어통역1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6학기	2	
한국어통역2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7학기	2	
한국어통역3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8학기	2	
한국어어휘론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7학기	2	
경제무역용어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7학기	2	
실무한국어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7학기	2	
한국고전문학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7학기	2	
한국현대문학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8학기	2	
통역실습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8학기	5	
학술용어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8학기	3	

별첨 자료 2

표준 한국어교육과정 관련 목록

(1) 교육 과정 목록

- 간노[菅野裕臣](1988a),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 한글 제201·202호, 서울: 한글학회.
- 강승혜(2002), “재미교포 성인 학습자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연구,” 한국어 교육 제13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5쪽.
- 강승혜(2002), 한국어 쓰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강승혜(2003a), 한국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요구분석 -일본 학습자 집단과 중국 학습자 집단의 비교-.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혜(2003b),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분석,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7쪽.
- 강승혜(2003c),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연구-하위 학문 영역 구축을 위한 귀납적 접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8.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강승혜(2005), 교육과정의 연구사와 변천사. 한국어 교육론, 한국문화사.
- 강은국(2000),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과과정 연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 경기대학교(1996), “외국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전망”, 제3회 동아시아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집.
-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부(2000~2003), 한국어 초급 I-II, 중급 I-II, 고급 I-II, 경희대학교.
- 경희사이버대학교 온라인교육지원처 교수설계팀(2005), 사이버 한국어 과정 교수-학습 안내서. 경희사이버대학교.
- 고사슴(2003), 아동 대상 한국어교육과정 연구: 만 6세에서 8세 아동의 주제 통합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병선(1983), 교육과정, 배영사, 53쪽.
- 교육부(1998),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구마타니[熊谷明泰](2000), “朝鮮語教育と學習書の現状について-母音解説で見られる問題点を中心として-”, 研究センター報 第26号, 大阪: 關西大學一般教育等研究センター.
- 구은희(2002), SAT II 한국어의 현황과 SAT II 한국어진흥재단의 주요 활동 요약.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제12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집.
- 권미정(2001), 수업활성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학습자들의 요구 분석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18, 이중언어학회.
- 權在淑(1995), これからの朝鮮語, 東京: 三修社.
- 金宗西 외(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改訂版), 교육과학사.
- 김경선(2004),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 활용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과 문학, 제6차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1-22쪽.
- 김계화(2002), 한국어과 인재 양성 목표에 대하여,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98-104쪽.
- 김대행(1996),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연구 14-2.
- 김명광(2005),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향, 한국어 교육 20호, 한국어문교

육학회.

- 김명광 외(2005). 한국어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어 국외보급 사업: 국외한국어 교육 기관 현황과 요구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어 세계화재단·국립국어원
- 김명광(2006), 몽골의 한국어교육과정 연구. 한국어 교육 24. 한국 어문교육학회
- 김미옥(1999), 제2언어와 입력, 발화 그리고 상호작용,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47쪽.
- 김병운(2002), 한국어과 진로방향,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연토회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30-37쪽.
- 김보경(2004), 비즈니스 한국어교육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욱(1996), 소설교육의 방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3-31쪽.
- 김상욱(2003), 문학교육의 길 찾기, 나라말, 117쪽.
- 김석기(2002), 한국어과 졸업생의 진로 현황 및 향후 진로방향 모색,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64-77쪽.
- 김영만(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대박사논문.
- 김영아(1997), 한국어 교육에서의 컴퓨터 학습 도입 방안.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김영아(2002), 한국어 교육과 문화: 다문화 이해의 창.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김왕규 외(2002),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기준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9-36쪽.
- 김유정(1999),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국어 학습자들의 인식," 한국어교육 10-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유정(1999),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 -숙달도 평가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 김은주(2001),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위상 정립과 학문으로서의 미래 조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25, 26권. 33-7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 학당.
- 김인규(2003), 학문 목적을 위한 한국어 요구 분석 및 교수요목 개발.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인식 외(1996), 교육과정 이론과 분석, 교육과학사.
- 김재춘 외(2000/2002),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학사.
- 김정숙(1992), 한국어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1-69쪽.
- 김정숙(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원리 및 방법", 한국어학 6.
- 김정숙(1997),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 10.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1998a),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법론," 한국어 교육 제9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5-112쪽.
- 김정숙(1998b), "숙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육 원리 및 모형,"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103-118쪽.
- 김정숙(1999),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한국어 교육

-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2000), “학문적 목적의 한국어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9쪽.
- 김정숙(2001),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의 과제 구성의 실제성,”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2차 한국어세계화 국제학술대회,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87-95쪽.
- 김정숙(2002), “한국어 교수요목의 설계와 교재 구성,” 박영순 편,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31-59쪽.
-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정숙 외(199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반성과 새로운 연구 방법의 모색”, 어문논집 31, 고대 국어국문학연구회.
- 김제열(2001), 한국어 교육에서 기초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연구. 한국어 교육 12권 1호. 93-122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종태(2002), 한국어과 졸업 후 인재 육성의 방향,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38-45쪽.
- 김중섭 외(2001), 러시아 및 중국 지역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중섭(1999),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김중섭(2002), “한국어 읽기 교육의 이론과 실제,”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김중섭(2004), 한국어 교육학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진숙(2003), 특정 목적 한국어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과제 단위 학습자 요구 분석: 기업체 근무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청자(2000), “학습자 중심의 쓰기 교육을 위한 기초 조사와 제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연구발표회 발표집.
- 김하수 외(1996), 한국어 능력 검정제도의 실시를 위한 기본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 교육부 학술 연구 조성비(교육 정책 특별 과제) 지원에 의한 연구 과제.
- 김해수(2000), 연변대학 조문학부 교과과정.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 남 연(2003), 한국교육에서의 문학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과 교수요목,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63-377쪽.
- 남기심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노금송(2002) 한국어과 인재양성 방향 및 대책, 제6회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研討會 논문집,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88-97쪽.
- 노마 히데키(2003),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 『국제 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노마[野間秀樹](1995),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어려운가-”, 말글생활 제3호, 서울: 말글社.
- 노마[野間秀樹](1996a),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란-일본어 화자의 경우”, 語學研究所論集

- 제1호, 도쿄: 동경외국어대학 어학연구소.
- 노마[野間秀樹](1996b),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현대한국어 문법론·어휘론 연구 - 言語事實主義의 전개 -”, 韓國文化 18, 서울: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 노마[野間秀樹](2000), 至福の朝鮮語, 東京: 朝日出版社.
- 노마[野間秀樹](2001a), “한국어 모어화자의 일본어 피치악센트 교육을 위하여”, 韓日語文論叢, 梅田博之教授 古稀記念論叢 刊行委員會編, 서울: 태학사.
- 노마[野間秀樹](2001b),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요지.
- 노마[野間秀樹](2002a),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 노마[野間秀樹](2002b), “일본어권 한국어 교사의 기본조건”, 국어교육연구 제9집,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노마[野間秀樹](2002c), “한국어 문법교육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 - 특히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하여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7집,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노마[野間秀樹](2003), “일본어 모어화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기초 학습어휘 선정과 제시 방법”, 한국어 교육과 학습사전, 서상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서울: 한국문화사.
- 노은경(1994), 제2언어에서의 텍스트생성능력. 텍스트언어학 2. 텍스트연구회.
- 노은희(2000),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한국어의 문형 빈도 조사, 국어교육연구 6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83-298쪽.
- 동경한국학교 해외한국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2001), 국제화사회에서의 해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연구책임자: 김용만), 2001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劉 珣(1998), 以語言交際能力爲目標、技能訓練爲核心的基礎漢語教學, 劉珣·田善繼·馮惟鋼(편), 對外漢語教學概論, 中國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16쪽.
- 류재택 외(2002),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묘춘매(2000), 21세기의 복합형 한국어 전문 인재 양성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79-88쪽.
- 문복희(2001), 한국 문학을 통한 한국어교육의 실제와 수업방식,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Ⅲ,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315-331쪽.
- 문창덕(1996), 조선·한국·중국의 맞춤법의 차이와 그 통일문제. 조선학연구논문집.
-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위원회(2000),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간 협력망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
- 민현식(1996), 국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화론의 내용 구성 연구. 한국말 교육 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현식(2000), “한국어 교재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제7집, 서울대학교 종합교육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5-60쪽.
- 민현식(2001), 교육연수분과: 한국어 교원 자격 인증 제도 시행 방안 개발 최종 보고서.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
- 민현식(2002), 언어교육과정의 구성요소와 교수요목(syllabus)의 유형, 21세기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민현식(2003), 국내 기관에서의 한국어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의 내용 기술 방법론.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민현식(2004), 한국어 표준교육과정 기술 방안. 한국어교육 15-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민혜정(2004), 한국어 교재의 과제 중심 교수요목 설계 방안: 초급의 주제와 기능, 과제, 문법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건숙(2003), 국내 웹 기반의 한국어 교육 사이트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어교육 14-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경수(1995). 외국어 교수론. 형설출판사.
- 박영순(1989), 제2언어 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회지 6. 이중언어학회.
- 박영순(1997),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학 6.
- 박영순(1997), 이중/다중언어교육론, 한신문화사.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도서출판 월인.
- 박영순(2002),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박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방성원(2000), “통합 교수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제11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1-131쪽.
- 배두분(1996), “영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연구 14-2.
- 배두분(2000), 외국어 교육과정론, 한국문화사.
- 백봉자 외(1997), ‘신교재 개발 연구 조사’에 관한 최종 연구 보고서,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1-31쪽.
- 백봉자(1988), 초기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은 무엇부터 다루는 것이 좋은가, 한글 201·202, 한글학회.
-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91-105쪽.
- 범윤정(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모형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영계·김영환·손미(200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학지사.
- 서강대학교 한국학 센터(2000), 서강 한국어 1.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서강대학교 한국학센터(2000~2002), 서강 한국어 1~4, 서강대학교 한국학센터.
- 서영빈(2001),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문학교재 개발방안, 대외경제무역대학교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술토론회 논문집, 196-213쪽.
-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2000), 한국어 초급1. 서울: 생각하는 백성.
- 성광수(1995), 해외 한국어 교육의 몇 가지 문제. 이중언어학회지 12. 이중언어학회.
- 성기철(1998),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제15호, 이중언어학회, 41-68쪽.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